

국립국어원 2006-1-4 경기(2)

2006년도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 최명옥

연구 보조원 : 최창원

조사 지역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6년도 경기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연구책임자 : 최명옥

2006년
포천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1. 조사 과정

2. 전사 원칙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발화 -----

제 2 편 어휘 -----

제 3 편 음운 -----

제 4 편 문법 -----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녹음테이프

3)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4) 조사된 질문지

5)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6) 제보자 조사표

7)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2006년도 지역어 조사지로 선정된 지점은 경기도 포천시이다. ‘포천시’는 1읍 11면 2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지역은 경기도의 동북단에 위치하는데, 광주산맥의 지맥이 지나고 있어 동북쪽에는 500~1000m의 산지가 발달하고 있다. 대체로 산지가 많다. 동쪽에는 광덕산(廣德山, 1,046m)·백운산(白雲山, 937m)·국망봉(國望峰, 1,168m)·강씨봉(姜氏峰, 830m)·현등산(縣燈山, 936m)·수원산(720m)·주급산(814m) 등이 화천군·가평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서쪽에는 지장봉(877m)·종자산(634m)·종현산(689m)·왕망산(737m)·해룡산(667m), 남쪽에는 용암산(472m)·운산산(200m), 북쪽에는 명성봉(鳴聲峰, 477m)·종근봉(285m)이 철원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포천시는 전 토지의 69.6%가 임야이고 경지는 20%로 경지 중 논 6,644ha, 밭 6,608ha로 논과 밭의 비중이 비슷하다. 농가 인구는 전체 인구의 35.2%이다. 최근 농가 인구가 계속 격감하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제조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8%이다. 주요 제조업은 섬유공업·비금속공업·조립금속공업·식료품공업이 발달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공업 중 포천막걸리는 백운동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로 빚어 독특한 미각을 자아내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산지가 수려하고 맑은 물, 그리고 목축업의 발달로 백운동 계곡에는 갈비집이 밀집되어 있어 주말과 휴일에는 많은 관광객이 이곳에 모인다. 도로는 국도 4차선으로 확장된 43호선이 군의 중심부를 서남~동북진하고 국도 37호선이 군의 중심부를 동진하여 일동에서 국도 47호선과 분기한다. 37호선은 남진하고 국도 47호선은 국도 43호선과 나란히 북진하고 있다. 교통은 남북 간은 잘 발달했으나 동서간의 교류가 불편하고 면과 면 등 지역 간의 교류가 불편하다.

교육기관으로는 1997년 현재 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6개교가 있으며, 대진대학교와 중문외과대학이 있다. 종교기관은 불교사찰 37개, 천주교성당 6개, 개신교 교회 75개가 있다.

1.2 조사 기간

2006년 8월 10일-8월 30일

1.3 제보자

(1) 주제보자

- 이름 : 조
- 성별 : 남
- 나이 : 76세
- 출생지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 거주지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 선대거주지 : 경기도 포천시
- 직업 : 농업
- 경력 : 4대째 거주
- 학력 : 중졸
- 병역 : 육군
- 제보자 소개 과정 : 포천시 일동면 경로잔치장에서 직접 만났음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병력기간 외에는 외지로 나간 적이 없음.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약간 쉼 편이나 음성이 커서 식별하기 쉬움

(2) 보조 제보자 사항

- 이름 : 김
- 성별 : 남
- 나이 : 78 세
- 출생지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 거주지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 선대거주지 : 위와 동일함
- 직업 : 농업
- 경력 : 12대째 거주
- 학력 : 중졸
- 병역 : 미필
- 제보자 소개 과정 : 주제보자가 소개함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12대에 걸쳐 거주하고 있으며 병력기간 외에는 외지로 나간 적이 없음. 대대로 유교를 신봉하는 가정에서 성장하였음.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맑고 강함. 발음이 분명함.

1.4 조사자

- (1) 이름 : 최명옥(서울대학교 교수)/최창원(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생)
- (2) 조사 일시 : 2006년 8월 10일- 8월 30일
- (3) 조사 장소: 주제보자의 집
- (4) 조사내용

- ① 구술발화 테이프 1, 3-5, 21-25(9 개) 파일 (SGG_PC_01,
SGG_PC_03~SGG_PC_05, SGG_PC_21~SGG_PC_25)
- ② 어휘 테이프 2, 6-9, 14, 16(7 개) 파일 (SGG_PC_02,
SGG_PC_06~SGG_PC_09, SGG_PC_14, SGG_PC_16)
- ③ 음운 테이프 10-13, 15, 17(6 개) 파일 (SGG_PC_10~SGG_PC_13,
SGG_PC_15, SGG_PC_17)
- ④ 문법 테이프 19-21(3 개) 파일 (SGG_PC_19~SGG_PC_21)

| tape | 파일 | 녹음 시간 | 조사 항목 | 제보자 | 조사자 | 조사일 |
|------|-----------|-------|------------------------|-------------|-------------|---------------|
| 1 | SGG_PC_01 | 1:43 | 구술발화 1.1-1.8 | 조종태 | 치명옥, 최창원 | 2006 8. 10 |
| 2 | SGG_PC_02 | 2:10 | 어휘 20101-20720 | 조종태 | 위와동일 | 8. 11 |
| 3 | SGG_PC_03 | 1:46 | 구술발화 1.3.1-1.8.2 | 조종태 | 위와동일 | 8. 12 |
| 4 | SGG_PC_04 | 1:08 | 구술발화 | 조종태 | 위와동일 | 8. 12 |
| 5 | SGG_PC_05 | 1:54 | 구술발화 | 조종태 | 위와동일 | 8. 13 |
| 6 | SGG_PC_06 | 2:00 | 어휘 20801-21230 | 조종태, 김제한 | 위와동일 | 8. 14 |
| 7 | SGG_PC_07 | 2:01 | 21231-21647 | 조종태 | 위와동일 | 8. 16 |
| 8 | SGG_PC_08 | 1:44 | 21701-22316 | 조종태 | 위와동일 | 8. 17 |
| 9 | SGG_PC_09 | 2:01 | 22201-22622 | 조종태 | 위와동일 | 8. 18 |
| 10 | SGG_PC_10 | 1:05 | 음운 32201-32304 | 조종태 | 위와동일 | 8. 18 |
| 11 | SGG_PC_11 | 2:04 | 음운 32005-32304 | 조종태 | 위와동일 | 8. 18 |
| 12 | SGG_PC_12 | 2:03 | 32002-32326 | 조종태 | 위와동일 | 8. 20 |
| 13 | SGG_PC_13 | 2:04 | 32009-32328 | 조종태 | 위와동일 | 8. 21 |
| 14 | SGG_PC_14 | 1:26 | 어휘 22623-23027 | 조종태, 김제한 | 위와동일 | 8. 21 |
| 15 | SGG_PC_15 | 2:02 | 음운 32042-32329 | 조종태 | 위와동일 | 8. 22 |
| 16 | SGG_PC_16 | 0:57 | 어휘 23115-23441 | 조종태, 김제한 | 위와동일 | 8. 22 |
| 17 | SGG_PC_17 | 1:57 | 음운 32010-32331 | 조종태 | 위와동일 | 8. 23 |
| 18 | 없음 | | | 불량 테이프 | | |
| 19 | SGG_PC_19 | 2:01 | 문법 40101-40830 | 조종태, 김제한 | 위와동일 | 8. 24 |
| 20 | SGG_PC_20 | 2:01 | 문법 40301-41116 | 조종태, 김제한 | 위와동일 | 8. 25 |
| 21 | SGG_PC_21 | 1:56 | 문법/구술발화 40355-40502 | 조종태, 김제한 | 위와동일 | 8. 26 |
| 22 | SGG_PC_22 | 2:01 | 구술발화 | 김제한, 조종태 | 위와동일 | 8. 27 |
| 23 | SGG_PC_23 | 2:01 | 구술발화 | 조종태 | 위와동일 | 8. 28 |
| 24 | SGG_PC_24 | 1:06 | 구술발화 | 김제한 | 위와동일 | 8. 29 |
| 25 | SGG_PC_25 | 2:03 | 구술발화 | 김제한, 조종태 | 위와동일 | 8. 30 |
| 합계 | | 43:16 | | | | |

1.5 전사

(1) 1차 전사(2006년 9월)

구술발화 : 최명옥, 최창원

어휘 : 김춘자

음운 : 이금화

문법 : 이금화

(2) 1차 점검(2006년 10월)

구술발화 : 최명옥

어휘 : 최창원

음운 : 최명옥

문법 : 최창원

(3) 2차 점검(2006년 11월)

구술발화 : 최창원

어휘 : 최명옥

음운 : 최창원

문법 : 최명옥

(4) 3차 점검(2006년 12월)

구술발화 : 최명옥

어휘 : 최명옥

음운 : 최명옥

문법 : 최명옥

2. 전사 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규형은 응답형 뒤에 (+ 신), (+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 다), (+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④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3. 전사 자료

제1편 구술 발화

- 10301 @ 그 논 논농사하는데두 그 벼 종류가 마니 여러가지 인짰..{그 논, 논농사하는데도 그 벼 종류가 많이, 여러가지 있잖(습니까?)}
- 10301 # 여러가지죠{여러가지죠}
- 10301 @ 벼 종류에는 알고 계신거는 어떻거뜨리 인습니까?{벼 종류에는 알고 계신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10301 # 예, 조생종은 평생 저 온뉴구라구, 여기선. 애기헐찌 온뉴구.{예 조생종은 평생 저 올류구라고, 여기선. 애기했지 올류구.}
- 10301 @ 올류구 {올류구}
- 10301 # 올류구 그러니깐 빨리 머글 쭈 인는 바비다해서 {올류구, 그러니까 빨리 먹을 수 있는 밥이라고해서}
- 10301 @ 예예, 그 머라구 헐따구요?{예예, 그 뭐라고 했다고요?}
- 10301 # 그건 저거는 중생종, 조생종 이러케 마니 {그것은 저것은 중생종, 조생종, 이렇게 많이}
- 10301 @ 조생종을 아까 무슨{조생종을 아까 무슨}
- 10301 # 올류구. 그래 인제 여기서 시면편 거는 먼저 멩는 벼 이르미예요.{올류구. 그래 이제, 여기서 심었던 것은 먼저 먹는 벼 이름이에요,}
- 10301 @ 예 온뉴구{예, 올류구}
- 10301 # 응{응}
- 10302 @ 그다으메 조생종 말고 또 어떻 거뜨리 인습니까{그 다음에 조생종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10302 # 벼 이르므로{벼 이름으로?}
- 10302 @ 예{예}
- 10302 # 그거 잘 모르자너. 내가 농사를 직접 진찌, 손수 지어보지 아난끼 때무네.{그것 잘 모르잖아? 내가 농사를 직접 짓지, 손수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 10302 @ 그러며는 이제 벼농사 진는 과정은 아까 말씀 좀 하셧쥬? 그 모판해가지고 고쭈근.{그러면은 이제 벼농사 짓는 과정은 아까 말씀 좀 하셧쥬? 그 모판해가지고 그 쪽은.}
- 10302 @ 이제 그 벼가 누러케 이그면 그다메 이제 벼를 나중에 어떠케 합니까?{이제 그 벼가 누렇게 익으면 그 다음에 이제 벼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 10302 #그저넌 소느로 다 베엿쥬. 나시로, 소느로 다. 벼어서는 쭈옥 너우러가꾸 고다:메 한 사밀 지난다:메 두지버서 논:다:메 마른다메 그 노와서 무꿍거구 그러케헐쥬요 {그 전에는 손으로 다 베었지요. 낫으로 손으로 다. 베서는 쭈 널구 그 다음에 한 삼일 지난 다음에 뒤집어서 놓은 다음에 마른 다음에 그 노아서 묶은 것이고 그렇게 했어요.}
- 10302 @ 무꺼 무꺼가지고 쭈 저 어떻거는 느러노키도 하구 아니면 채곡채곡 싸싸야 됩니까

{묵어 묵어가지고 쪽 저 어떤 것은 늘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차곡차곡 싸야 됩니까}

10302 #무끄므는 대게 다 씹:니다. 이런시기로 여기 이시글 여게 동일허게 허고 요러케 세:군 네:군데로 해서 {묵으면 대게 다 씹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삭을 여게 동일하게 하고 요렇게 세군 네군 데로 해서}

10302 # 그러므는 위:는 이러케 올러오구. 이사가 이제 저거 허니까 요러케 요러케 이제 비가 와두 저거 하구. 고 이상마는 안저저요.{그러면 위는 이렇게 올라오고 이삭이 이제 저거 하니까 요렇게 요렇게 이제 비가 와도 저거 하고. 그 이상마는 안 젖어요.}

10302 @ 예 {예}

10302 # 그리고 으 이삭저건 다 이러케 네:군데를 요러케 해서 모아주는데 맨: 위에 언즌 노른 거기에다 투배기가 하나를 언저논능거야. 그러믄 비가 안만찌 {그리고 으, 이삭 저것 다 이렇게 네 군데를 이렇게 해서 모아주는데 맨 위에 얹은 노른 거기에다 투배기를 하나 얹어 놓는 거야. 그러면 비가 안맞지}

10302 @ 아 예예{아 예예}

10302 # 그러케까지 해서 인제 노알따가 예, 가따 떨구 그렇거예요.{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놓았다가 예, 갖다 떨고 그런 거예요.}

10302 @ 그 벼파늘 이러케 싸아노은 거슬 머라 그럼니까? {그 벼단을 이렇게 쌓아 놓은 것을 뭐라 그럼니까?}

10302 # 에 벼까리지 머.{에, 벼가리지 뭐.}

10302 @ 벼까리고 그러케 쌓는거슬 벼 가린다 이러믄?{벼가지고 그렇게 쌓는 것을 벼 가린다 이러면?}

10302 # 에 그러치 에 그 지비 가따가 노:므는 크게 인지 이러케 싸코 지베 가따 노른 {에, 그렇지 에, 그 집에 갖다가 놓으면 크게 이제 이렇게 쌓고 집에 갖다 놓으면}

10302 # 이름그대로 벼 가리 이러케 가리하는거그이 벼까리{이름 그대로 벼 가리 이렇게 가리하는 것이 벼가리}

10302 # 그리구 처:메 모넬찌게 참 저거할찌게는 바다글 골고:루 허구선 거기다 직쩍 이러케 뿌려간꾸선 이러케 뽀바서 여게 내는거구 {그리고, 처음에 모넬 적에 참 저거할 적에는 바닥을 골고루 하고선 거기에다 직쩍 이렇게 뿌려갖고서는 이렇게 뽀아서 이렇게 내는거고}

10302 # 고다메 발찌니 되고 좀 저거하니까는 모파니 나와서 팔구 저거하니까는 모파네다 인제 부어갇꾸 그 저거해가꾸 기계에다 시:므니까{그다음에 발전이 되고 좀 저거하니까 모파니 나와서 팔고 저거하니까는 모파네다 이제 부어갇고 그 저거 해갇고 기계에다 심으니까.}

10302 @ 네{네}

10302 # 기계에다 그대로 느가꾸 그뒤에 그게 생깁거구{기계에다 그대로 넣어갇고 그 뒤에 그게 생긴것이고}

10303 # 그저네는 그저네는 전부 저 이 이러케 모파늘 맨드러갇꾸 이러케 부어갇꾸 소보카게 근다메 찌서{그전에는 그전에는 전부 저 이 이렇게 모파늘 만들어 갇고 이렇게 부어갇고 소복하게 그런 다음에 찌서}

10303 @ 찌서{찌서}

10303 # 찌서 인제 세:눈큼식 세:눈큼 네:눈큼 내서 이러케 한눈큼 되으믄는 고리해서는

이러케 이러케 인제 서로 서로 이러케 이러케 해갇꾸서는 인제 썬는거구{썬서 이제 세눈끔씩 세눈끔 네눈끔 내어서 이렇게 한 눈끔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서로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해갇고서는 이제 썬는거고}

10303 @ 네{네}

10303 # 그그는 또 모내기, 그저넌 소느로 다 낸쓰니까 모내기 위에서 저거허니깐 이러케 해서 이러케 해서 요고 묵찌 {그것은 또 모내기, 그전에는 손으로 (모를) 다 냈으니까 모내기 위해서 저거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고 묵지}

10303 @ 네네{네네}

10303 # 무꺼갇꾸 저그하믄 고 한눈크마네 그게 고대로 나오니까 나온데지 이 떠:기조케 그러케 해서 모심기를 행거구{묵어갇고 저그하면 한 눈끔 안에 그게 그대로 나오니까 나온다지, 이 떼기 좋게 그렇게 해서 모심기를 한 거고}

10303 # 지끄른 모 모판 저거니까 기계에다 내능 건 머 그 판 그대로 노쿠 내:능 거구{지금은 모판이 저거 하니까 기계에다 내는 것은 뭐, 그 판 그대로 놓고 내는 것이고}

10303 # 그저네는 소느로 점부 썬서 {그 전에는 손으로 전부 썬서}

10303 @ 소느로 썬:썬요? {손으로 썬지요?}

10303 # 풀썰을 해가꾸 해서 뜨문뜨문 쓰:레질 해노코선 던저노커덩{풀질을 해갇고 해서 뜨문뜨문 써레질 해놓고서 던저놓거든}

10303 @ 네{네}

10303 # 그러니깐 노네다가 또 내고 이러케 해썬요{그러니까 논에다가 또 내고 이렇게 했어요}

10303 @ 그 모넬 때 그냥 하믄는 고르지 아느냐가 줄가튼걸루{그 모넬 때 그냥 하면 고르지 않으니까 줄 같은 걸로}

10303 # 못썰 그제 못썬리지{못썰 그제 못썬이지}

10303 @ 그럼 주럼씨 심는 경우도 인습니까{그러면 줄없이 심는 경우도 있습니까}

10303 # 그거는 이제 여케 구텅이가 나맏때덩가 모썬리 지가 불퍼난데 할 썬 업세 꾸불꾸 부란 노니던가 그러치 인제 그 {그것은 이제 이렇게 귀통이가 남앗던가 못썬이 자기가 불편한데 할 수 없이 꾸불꾸불한 논이던가 그렇지 이제 그}

10303 # 인제 그 모썰두 계속 매던저거니까 간겨글 대충알거덩 그니까 고케 요케 시머가 꼬 그 저거구 {이제 그 못썰도 계속 매던 저거니까 간격을 대충 알거든 그러니까 그개 이렇게 심어갇고 그 저거고}

10303 # 모썬를 칠 수 인는 노는 다 모썰쳐서 인제 그러케 된거구{못썰을 칠 수 있는 논은 다 못썰쳐서 이제 그렇게 된거고}

10304 @ 예 저 벼를 시머노코 난 뒤에는 어느정도 될때까지는 계속 노네 물이 이써야 되쥬{예 저 벼를 심어놓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논에 물이 있어야 되쥬}

10304 # 예 이써야되쥬{예 있어야 되쥬}

10304 @ 그런데 이제 가무러서 물이 빠진다거나 그러믄는 물을 대야되지 안습니까{그런데 이제 가물어서 물이 빠진다거나 그러면 물을 대어야 되지 않습니까}

10304 # 예{예}

10304 @ 그 무를 대는 방시그로는 어떤거시 이썬니까?{그 물을 대는 방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304 # 에 지금 머 고래실가튼 거는 일반저그로 거기서 생기는 거니까 그거 쓴데지만두
 {에 지금 뭐 고래실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거기서 생기는 것이니까 그거 쓴다하지
 만도}

10304 # 저 보를 머겨가꾸 본에서 먼 저거하는 거슨 {저 보를 먹여갖고 붓에서 저것하는
 것은}

10304 # 에 주민드리 본나를 바다가꾸 가서 인제 보를 마가{에 주민들이 붓날을 받아갖고
 이제 보를 막아}

10304 # 보를 마가가꾸 무를 인제 저거해가꾸 낼 수 인는 범위내에서 차례끔 차례끔 내게
 끄 그 무를 내는건데{보를 막아갖고 물을 언제 저것해 갖고 낼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차례차례 내게끔 그 물을 내는 것인데}

10304 # 지끄른 머 그 옴나렌 참 그 이 이 무리 그케 귀혀구 무리 풍한거 저게 업써꾸{지
 금은 뭐 그 옛날엔 참 그 이 이 물이 그렇게 귀하고 물이 풍부한 것 저것이 없었
 고}

10304 # 이 고래썰허던 사라몬 타래 바기로 허 퍼서 무를 올려갠꾸 모를 내구 그래썰는데
 {이 고래실하던 사람은 타래박으로 퍼서 물을 올려갖고 모를 내고 그랬었는데}

10304 # 요즘은 요즘은 그런 농사는 질찌두 아느니까 {요즘은 그런 농사는 짓지도 않으니
 까}

10304 @ 수로가 이써가지구 쭈욱 그림{수로가 있어가지고 쭈욱 그림}

10304 @ 에 그 논 가운데에 웅덩이가튼 거슬 파가지구 무를 바다서 비올때 무를 바다서
 또 무를 대기도 하고 그랜찌 안습니까?{에 그 논 가운데에 웅덩이 같은 것을 파가
 지고 물을 받아서 비올 때 물을 받아서 또 물을 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10304 # 에 그게 모냐하몬 대게 고래 시리라구 해서{에 그게 무엇이냐 하면 대게 고래 실
 이라고 해서}

10304 @ 예{예}

10304 # 무리 제 바다게서 이러케 이러케 나는 사람드리 나는 노니 고래시리거든 항시 빠
 지구 {물이 제 바닥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나는 논이 고래실이거든 항
 시 빠지고}

10304 # 에 그거 해머끼가 좀 힘들지{에 그것 해먹지가 좀 힘들지}

10304 # 그래서 그런데는 웅덩이를 파가꾸서 {그래서 그런데는 웅덩이를 파갖고서}

10304 # 그 나오는 무를 인제 그 웅덩이에다 가뵈따까 {그 나오는 물을 이제 그 웅덩이에
 다 가두었다가}

10304 @ 네네{네네}

10304 # 퍼서좀 내고 또 가물고 또 저거 할찌게는 무리 그 나오는 저거는 나오능게 얼마
 안되니까{퍼서 좀 내고 또 가물고 또 저것 할 적에는 물이 그 나오는 저것은 나오
 는 것이 얼마 안되니까}

10304 @ 그걸 웅덩이라 헐썸니까?{그것을 웅덩이라 했습니까?}

10304 # 그러치요 웅덩이 {그렇지요 웅덩이}

10304 @ 웅덩이 등붕이니 이런 마른 업썰습니까?{웅덩이 등붕이니 이런 말은 업썰습니
 까?}

10304 # 여기서는 그런마리 업는데{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10304 @ 그다메 음{그다음에 음}

10304 @ 그 무를 풀때에 이 웅덩이에다가 나무를 설치에가지고 손으로 이러케 해가지구
 {그 물을 풀 때에 이 웅덩이에다가 나무를 설치해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0304 # 응 타래박{응 타래박}

10304 @ 그걸 타래바기라{그걸 타래박이라}

10304 # 응 타래바기라 그런거야{응 타래박이라 그런거야}

10304 @ 그럼 두사람이 양조게 주를 잡꼬 이러케 퍼는 거슨?{그럼 두 사람이 양쪽에 줄을
 잡고 이렇게 푸는 것은?}

10304 # 그거두 타래바기라구 혼자 푸는 건 이러케 이러케해서 퍼구{그것도 타래박이라고
 혼자 푸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푸고}

10304 # 두리하는 건 양습 끄내서 여기와서 이러케 이러케 푸는거구 타래박이야{둘이 하
 는 것은 양습 꺼내서 여기와서 이렇게 이렇게 푸는거고 타래박이야}

10304 @ 다 타래바기군요{다 타래박이군요}

10305 @ 모내기 하구 난 뒤에 이제 노네 푸리 날 때 그 푸를 가따가 인제 기미라 김맨다
 그랜습니까?{모내기 하고 난 뒤에 이제 논에 풀이 날 때 그 풀을 갖다가 이제 김이
 라 김맨다 그랜습니까?}

10305 # 예 여기서는 대개 인제{예 여기서는 대개 이제}

10305 # 천눈 점지 처메 매는 처메 그 무리 저게 푸리 요러케 찌끄마케 자라쓸 쓰게 엔논
 파기 {천눈 점지 첨에 매는 첨에 그 물이 저게 풀이 이렇게 조그맣게 자랐을 적에
 옛논파기 }

10305 @ 엔논파기{옛논파기}

10305 # 응{응}

10305 @ 예{예}

10305 # 그리고 또 두번논 응 응{그리고 또 두 번 논 응응}

10305 # 두번논은 저기 소느로다 그 덩어리 여케 대가꾸 저거한다으메{두번논은 저기 손
 으로다 그 덩어리 이렇게 대어갖고 저거한 다음에}

10305 # 그 어느정도 그 무치는 정치 저게 주거쓸찌게{그 어느 정도 그 묻히는 정치 저것
 이 죽었을 적에}

10305 # 그거를 이제 찌서{그것을 이제 찌서}

10305 # 그 푸머서 흙 점치 저거는 푸른 자버댕겨서 나온거는 묻꾸{그 품어서 흙 점치 저
 것은 풀은 잡어당겨서 나온 것은 묻고}

10305 # 묻꾸 그게 두 번노니구{묻고 그게 두 번 논이고}

10305 @ 그다메 이제 하는 거슨{그다음에 이제 하는 것은}

10305 # 고다메는 세벌까지두 그건 인제 마는 풀 마니 저건데{그 다음에는 세벌까지도 그
 것은 이제 많은 풀 많이 저것인데}

10305 # 예 피뽑기{예 피뽑기}

10305 @ 예{예}

10305 # 피는 인제 그거 노네 대한 저거가 좀 나쁜 저거니까는 그런게 이쓸찌게 지금두
 대개 피뽑기를 대개 다하지 지금두 그 피뽑기를 해요{피는 이제 논에 대한 저것이
 좀 나쁜 저것이니까 그런 것이 있을 적에 지금도 대개 피뽑기를 대개 다하지 지금
 도 그 피뽑기를 해요}

10305 # 아 안뽑브머는 그 이드메도 아직두 승허니까 씨가 떠러져서{아 안뽑으면 그 이듬

해도 아직도 성하니까 씨가 떨어져서}

10306 @ 그다메 그 반농사로씨는 어떤거시 이썬썬니까{그다음에 그 밭농사로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306 @ 바테서 시를 수 인는게{밭에서 심을 수 있는게}

10306 # 바세는 대게 인제 이전거트면 조{밭에는 대게 이제 이전같으면 조}

10306 @ 예{예}

10306 # 콩{콩}

10306 @ 예{예}

10306 # 그다메 깨가튼건 물로니고 들깨 참깨 다 그러쿠{그 다음에 깨 같은 것은 물론이고 들깨 참깨 다 그렇고}

10306 # 대게 다 그래요 보리 밀 거튼거 그런거 심꾸{대게 다 그래요 보리 밀 같은 거 그런거 심고}

10307 @ 그거 하나하나 마다 저 보리 보리농사는 어떤 시그로 언제 씨를 시면서 어떻게 하고 헐는지?{그거 하나하나마다 저 보리 보리 농사는 어떤 식으로 언제 씨를 심어서 어떻게하고 했는지?}

10307 # 보리 농사는 가으레 가라요{보리 농사는 가을에 갈아요}

10307 # 가으레 가라 거꾸 고너미 저거 된다메{가을에 갈아가지고 그 놈이 저거 된 다음에 }

10307 # 겨우레 하루 겨우레 나머는{겨울에 하루 겨울에 나머는}

10307 # 이제 보미 되며는 삐죽삐죽 나오지 전부{이제 봄이 되면 삐죽삐죽 나오지 전부}

10307 # 그러든 여기지역 사람드른 대게 안 밭바주는데 저 남서네는 거의 밭바줘 퍼지라고{그러면 여기 지역 사람들은 대게 안 밭바주는데 저 남쪽에는 거의 밭바줘 퍼지라고}

10307 # 그 저거했는데 보리 밭끼라고 해서 그 저거한테 여기 사람드른 대게 거의 안해써요{그 저거 했는데 보리 밭끼라고 해서 그 저거한테 여기 사람들은 대게 거의 안해써요}

10307 # 버리 밭끼를{보리 밭끼를}

10307 # 그리구선 에 그 가으레 그니깐 보리를 시를 썬게는 고으레다 심꾸{그리고 나서는 그 가을에 그러니까 보리를 심을 적에는 골에다 심고}

10307 # 고을 고으레다 심꾸 두두게는 인제 그 다메 그 비기 저네{골 골에다 심고 두둑에는 이제 그 다음에 그것 베기 전에}

10307 # 콩을 심는데든가 조를 심는데든가 인제 그 저거해서{콩을 심는다던가 조를 심는다던가 이제 그 저거해서}

10307 # 그 그거 비는 또 그대로 인는거니까 반농사는 그러케 지어써요{그 그거 베는 또 그대로 있는거니까 밭농사를 그렇게 지었어요}

10308 @ 밀 밀두 시면썬니까{밀 밀도 심었습니까}

10308 # 그저네 밀 보리 다 시머썬요{그전에 밀, 보리 다 심었지요}

10308 # 근데 이 저거해서는 에 지금 머 이제 몇십년 전서 내 시른 얘기야 지끄든{그런데 이 저거해서는 에 지금 뭐 이제 몇 십년 전에 내가 심은 얘기야 지금은}

10308 @ 보리 보리하고 밀하구는 어떤 차이가 인썬니까 머시 좀 다른지요{보리 보리하고 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좀 다른지요}

10308 # 보릿과 미른 미른 가라서 밀가루가 되고 보리는 바블 해 머글 수가 이썬요 보리
 밥{보리와 밀은 밀은 갈아서 밀가루가 되고 보리는 밥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보리
 밥}

10308 # 그니까 저거가 다르지 보리는 빠아서 무슨 머 저거해서 가루를 쓸 수도 인게찌만
 두 대체저그로 바페 먹꾸하는데 보리싸리 드러가는거구{그러니까 저거가 다르지 보
 리는 빵아서 무슨 머 저거해서 가루를 쓸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밥해 먹고 하
 는데 보리쌀이 들어가는 것이고}

10308 # 미른 가루로 맨드러 가꾸 머를 해머는거구{밀은 가루로 만들어 갖고 무엇을 해먹
 는 것이고}

10308 # 그리고 또 버리는 미른 대충 웬만한데 다되는데 보리는 다 안되요{그리고 또 보
 리는 밀은 대 충 웬만한데 다 되는데 보리는 다 안되요}

10308 @ 예{예}

10308 # 응 보리바시라는게 따루 아주 지정되어 있지 보리가 보리를 시르면 보리가 된다
 {응 보리 밭이라는게 따로 아주 지정되어 있지. 보리가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된
 다.}

10308 # 에 웬만한데는 안되는거는 미로나 심지 안되는 그런 특징이 이썬어 {에 웬만한데
 는 안되는 것은 밀이나 심지 안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

10308 # 근데 여기 사람들 치구는 자기 머글 정도에 그건만 엔나레 저 해찌 머 파라먹거
 나 그런 생가근 가미 모태쓰니까 쪼끔씩 진는게{그런데 여기 사람들 치고는 자기
 먹을 정도에 그것만 옛날에 저 했지 머 팔아먹거나 그런 생각은 감히 못했으니까
 조금씩 짓는게}

10308 # 그저네 또 머 상에 정식 이런 거름이 인나{그 전에 또 머 상에 정식 이런 거름이
 있나}

10308 # 헤 아주머니드리 오줌덩이 이어다가 오줌바다서 뿌리구 그리고 그냥 그걸 빼기
 업스니까 거르미란게 똥 오줌 똥 오줌{헤 아주머니들이 오줌덩이 이어다가 오줌 받
 아서 뿌리고 그리고 그냥 그것 밖에 없으니까 거름이란게 똥오줌 똥오줌}

10310 @ 보리바시나 밀밭또 감니까 씨뿌리기 저네 {보리밭이나 말밭도 감니까 씨뿌리기
 전에}

10310 # 아니고 갈구서 뿌리는 거여 {아니고 갈고서 뿌리는 것예요}

10310 # 어 뭇가지구 감니까 그때도 소 {어 뭇 가지고 감니까 그 때도 소}

10310 # 어 소 근데 그때는 그 바슬갈구 하면 소 두마리루 {어 소 근데 그 때는 그 밭을
 갈고 하면 소 두마리로}

10310 @ 두 마리로 (어){두마리로}

10310 # 어 두마리를 쟁기로 해갈꾸 이러케 하든 기피갈리구 이 보리바시나 밭을 시르면
 두마리로 꼭 가랴썬요 바슬 {어 두 마리를 쟁기로 해갖고 이렇게 하면 깊이 갈리고
 이 보리 밭이나 밀을 심으면 두 마리고 꼭 갈았어요 밭을}

10310 # 그리고 버리는 아무데나 되는 거가 아니여 {그리고 보리는 아무데나 되는 거가
 아니예요}

10310 # 미른 대충 웬만한데 다 되지만두 버리바시라구는 이썬요 아주{밀은 대충 웬만한
 데 다 되지만도 보리밭이라고는 있어요 아주}

10310 # 어디는 버리바슨 누구네 지비고 버리받 버리 가는 저거가{어디는 보리밭은 누구

네 집이고 보리밭 보리 가는 저거가}

10310 # 게서 버리는 아마 잘되지가 안키 때문에 그런 그런 선택이 되쨌 그니깐{그래서 보리는 아마 잘되지가 앓기 때문에 그런 그런 선택이 되지 그러니까}

10310 # 아주 버리바시라는 건 어 거기 버리밭 이러케 되는 거라구 {아주 보리밭이라는 것은 어 거기 보리밭 이렇게 되는 거라고}

10310 # 땅이 조쿠 조은데에만 보리가 되지 미른 웬만한데 다 되는거구{땅이 좋고 조은데만 보리가 되지 밭은 웬만한데 다 되는거고}

10310 @ 그 여기서는 보 보리 이릅니까 버리 이릅니까?{그 여기서는 보리 이릅니까 버리 이릅니까}

10310 # 원 보리지 {원 보리지}

10310 @ 원래는 보리지요 근데 보통 말할 때 보리하는지 버리 하는지{원래는 보리지요 그런데 보통 말할 때 보리하는지 버리 하는지}

10310 # 버리라구는 안해{버리라고는 안해}

10310 # 버리{버리}

10310 # 응 버리 사람마다 머 다르니깐{응 버리 사람마다 머 다르니까}

10312 @ 그 방아 찌을 때 밀방아 찢는거하고 보리방아 찢는거하고 그 멀가지고 어떠케 찢는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 방아 찢을 때 밀방아 찢는 것하고 보리방아 찢는 것하고 그 무얼 가지고 어떻게 찢는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10312 # 지금 정미소에서 옼나레는 {지금 정미소에서 옛날에는}

10312 @ 지금은 인제 지금 말쓰른 옼날 쪼기 {지금은 이제 지금 말쓰른 옛날 쪼이}

10312 # 옼나레는 보리나 미리 절구지를 아주 옼나레는 옼나레는 절구지를 해서{옛날에는 보리나 밀의 절구질 아주 옛날에는 옛날에는 절구질을 해서}

10312 # 이 사람의 힘으로다 절구지를 해서 해머꾸{이 사람의 힘으로다 절구질을 해서 해먹고}

10312 # 고다메 물레방아라 해서 물을 이용해 가꾸 여케 큰거 저기 돌리면서 가며는 이 찢는저거가 이썬가지구 찢꾸{그 다음에 물레방아라고 해서 물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큰 거 저기 돌리면서 가면 이 찢는 저것이 있어가지고 찢고}

10312 # 그다메 정미소 저거 해서 지금 현재 저거 생겼는데 {그다음에 정미소 저것 해서 지금 현재 저것 생겼는데}

10312 # 그 동네마다 공통저그로 맨드러서 찢는 물레방아가 이썬서요 그저네는{그 동네마다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찢는 물레방아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10312 # 예 거기서 저저하든 오느른 누구 내이른 누구 내이른 다가치 이러케 찢는거구{예 거기서 저것하면 오늘은 누구 내일은 누구 내일은 다같이 이러케 찢는거고}

10312 # 또 한동네 사라야 버리 마니심꼬 머 미른 쪼금쪼금 심는다 심는거슨 이제{또 한 동네 살아야 보리 많이 심고 머 밭은 쪼금쪼금 심는다 심는 것은 이제}

10312 # 절구에다 절구에다 찢서 방아래 허기두 하구{절구에다 절구에다 찢서 방아 하기 도 하고}

10312 # 그리구 머냐하든 가루먼 내려든 맨돌 맨또레다 가라가꾸{그리고 뭐냐하면 가루만 내려면 맨돌 맨돌에다 갈아갖고}

10312 # 이 미른 인제 되고 그러는데 버리는 절구에다 찢어서 인제 바블 싸를 맨드는 사람두 이꾸{이 밭은 언제 되고 그러는데 버리는 절구에다 찢어서 인제 밥을 쌀을 만

드는 사람도 있고}

10312 # 쪼끄만거지 그건 인제 쪼끔 수량이 얼마안되는 사라몬 그러쿠{조그만거지 그건 이제 조금 수량이 얼마안되는 사람은 그렇고}

10312 # 그러치 아느면 동네 물레 방아간이라구 하나씩 꼭 거 이써꺼등 그저네 거기서 찌꾸 차례쿵 차례쿵{그렇지 않으면 동네 물레방앗간이라고 하나씩 꼭 있었거든 그전에 거기서 찼고 차례 차례}

10312 # 그때야 모 시고리 저거 하니까 지금가치 그러케 마니 낱찌두 안쿠 사람두 동네마다 얼마 안되구{그때야 뭐 시골이 저거 하니까 지금같이 그렇게 많이 찼지도 않고 사람도 동네마다 얼마 안되고}

10312 # 생산량이 뭐 이쨌나 {생산량이 뭐 있었나}

10313 @ 그 옌나른 싱량이 충분하지 모태가지고 봄 되면 거의 싱량이 다 떨어지지 안습니까{그 옛날은 식량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봄되면 거의 식량이 다 떨어지지 안습니까}

10313 @ 그럼 이제 미리나 보리가 채 익끼도 저네{그럼 이제 밀이나 보리가 채 익기도 전에}

10313 @ 애드론 배가 고파가지고 그거뜨를 몰래 가서 이러케 해다가 구어가지고 어느정도 알이 들며는 구어가지고 머꾸 이러케 헐는데{애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그것들을 몰래 가서 이렇게 해다가 구어가지고 어느 정도 알이 들면 구워가지고 먹고 이렇게 했는데}

10313 @ 머 밀서리 한다고 그런 말 써보셨습니까?{뭐 밀서리 한다고 그런 말 써보셨습니까?}

10313 # 예 그거는 아주 아주 극소수의 저거구 인제 그거 저거구 미를 저거헐는데{예 그것은 아주 아주 극소수의 저거고 이제 그거 저거고 밀을 저거했는데}

10313 # 그런 저근 별루 업써요 감자거튼거는 고구마가튼거 흠쳐다가 몰래 가서 쌀마 머꾸 그래 해써두 그런거는 별루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감자 같은 것은 고구마 같은 것 흠쳐다가 몰래 가서 삶아 먹고 그렇게 했어도 그런것은 별로}

10313 @ 보리가튼거 보리나 미른 잘 하지 안코 닥서리 가튼거슨 어떠썬니까?{보리같은 것 보리나 밀은 잘 하지 않고 닥서리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10313 # 어 닥서리는 햐쑤{어 닥서리는 햐쑤}

10313 @ 그 다기 이제 울며는 소리가 들려서 안되니까 울지 안도록 하는 방법가튼 거 이런거슨 어떤 거시 인썬니까? {그 답이 이제 울며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되니까 울지 않도록 하는 방법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313 # 그런데 예 그 방버븐 업써꾸 닥서리하는 사라미 그러케 새병녀게 하는 사라미 업써요{그런데 예 그 방법은 없었고 닥서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새벽녘에 하는 사람이 없어요}

10313 @ 예 예그러니까 새벽게 하면 도둑이 되고 늦게{예 예 그러니까 새벽에 하면 도둑이 되고 늦게}

10313 # 그래서 인제 그 옌나레 인제 이런데서 생기고 그래썬는데{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인제 이런데서 생기고 그랬었는데}

10313 # 닥서리를 허며는 흠쳐다 머그면 그냥 무긴하는 사라미 배고푸고{닥서리를 하면 흠쳐다 먹으면 그냥 목인하는 사람이 배고프고}

10313 # 고기가 먹구 시퍼서 헐겐나 하는 사لامي 인는가 허며는 도둥너므로 저넌 새끼 도둥노미야 그게 여러가지가 이썸는데 {고기가 먹고 싶어서 했겠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는 도둑놈으로 저넌 새끼 도둑놈이야 그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10313 # 에 그게 그러케 마는 호난게 아니구 극소수{에 그게 그렇게 많은 혼한게 아니구 극소수}

10313 # 그게 닥서리 해다 멍는 저거라 헐는데 그건 또 무긴해요{그게 닥서리 해다 먹는 저거라 했는데 그건 또 묵인해요}

10313 @ 목적 자체가 그 남 도둑질 한다 이런게 아니고{목적 자체가 그 남 도둑질 한다 이런게 아니고}

10313 # 그게 아니고 그 저거하니깐{그게 아니고 그 저거하니까}

10313 # 그 대게 그 저거허구서 허는 저거뚜 에이 서리 마저써 그냥 그시그로 저거구{그 대게 그 저거하고서 하는 저것도 에이 시리 맞았어 그냥 그 식으로 저거고}

10313 # 그 왜 애드리 흠쳐가쨌찌 모 그러구 무긴해주는 저거가 여기 이썸찌 저런 시그로 해서 {그 왜 애들이 흠쳐갔겠지 뭐 그러고 묵인해주는 저거가 여기 있었지 그런 식으로 해서}

10313 @ 그때만 해도 그 인시미 그래도 후해서{그때만 해도 그 인심이 그래도 후해서}

10313 # 아 그저넌 그래도 저 바메 지사지내고 그러면 이운찌비 다 오라고 그래서 가치 먹꾸 으 그래짜나요 근데 지끄른 완저니 그런 저런거 업써지구{아 그전엔 그래도 저 밤에 제사지내고 그러면 이숫지비 다 오라고 그래서 가치 먹고 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저런게 없어지고}

10314 @ 그 보리 타자글 하고 나며는 지피 생기지 안습니까 보리찢 밀찢{그 보리 타작을 하고 나면은 짚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리집, 밀집}

10314 @ 그 보리찢이나 밀찢가지고 밀 만들거나 그런건 안헐썸니까?{그 보리집이나 밀집가지고 무얼 만들거나 그런것은 안헐썸니까?}

10314 # 여기선 그 안해요{여기선 그 안해요}{여기선 그 안해요}

10314 # 그 저거로다 이제 맴꼬자 이러케 역꺼갈고 하는 거 그거 남서네선 인제 그런거 헐는데 여기선 그 업션썸요{그 저것으로다 이제 맴꼳아 이렇게 엮어갓고 하는 거 그거 남쪽에서는 이제 그런거 했는데 여기서는 그 없었어요}

10314 @ 모자를 만들기도 하고 곤충 집가튼거뚜 만들고{모자를 만들기도 하고 곤충 집같은 것도 만들고}

10315 @ 고추 고추는 마니 여기 마니 심습니까{고추 고추는 많이 여기 많이 심습니까}

10315 # 고추는 집집마다 심쥬 자기 머글만크른{고추는 집집마다 심쥬. 자기 먹을만큼은}

10315 # 영리저긴 저거루 장사를 하는 사라문 업찌만도 자기 머글 만크른 시머간꼬 자기 자작에 소모시키는 {영리적인 저걸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없지만도 자기 먹을 만큼은 심어갓고 자기 자작에 소모시키는}

10315 @ 고추 농사 과정은 어떠썸니까{고추 농사 과정은 어떻습니까}

10315 # 꼬추가 그저네는 이 직찢 저거해가꾸서 이제 시머간꾸{고추가 그전에는 이 직찢 저거해 갓고서 이제 심어갓고}

10315 # 이제 속까주고 하나썸만 남기구 헌테던가 그래가꾸 냉기고 이러케 그런시그로 진따가{이제 속아주고 하나썸만 남기고 한다던가 그래갓고 남기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짓다가}

10315 # 이 요즈믄 요즘농사는 완저니 달랠쥬?{이 요즘은 요즘농사는 완전히 달랠쥬?}

10315 # 이 모판가치 이러케 맨드러가꾸 이 요런 저거에다 고추씨 저거해가꾸 직쥬 이러케 허는 사람드리 인는가허므는{이 모판같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 요런 저거에다 고추씨 저거해갖고 직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0315 # 대게 거 이 종 종자 모 모를 사가지고 사다가 간따니 사다가 심는 사라미 더 마나 쥬쥬{대게 거 이 종자 모를 사가지고 사다가 간단히 사다가 심는 사람이 더 많아 쥬어}

10315 # 그게 그거두 머 영리저그로 마니 하는 사라미 인는가 하며는{그게 그것도 뭐 영리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315 # 이런데서는 또 마니하는 사라미 직쥬 자기네가 그리케 마니해간꾸 그 내구서 저거 허는데 {이런데서는 또 많이하는 사람은 직쥬 자기네가 그렇게 많이해갖고 그 내고서 저거 하는데}

10315 # 요즈믄 머 여기서 자기 머글꺼 저거 하는 사라미 떼개 사서 심는거야 자기가 직쥬 그냥 쥬끔해서 머글 만큼 심꾸 그래요{요즘은 뭐 여기서 자기 먹을거 저거 하는 사람은 몇 개 사서 심는거야 자기가 직쥬 그냥 쥬끔해서 먹을 만큼 심고 그래요}

10315 @ 에 옥수수는 여기 어떠쥬니까? 쥬 심는 세뭇니까?{에 옥수수는 여기 어떻쥬니까? 쥬 심는 세뭇니까?}

10315 # 옥수수는 가정에서는 자기 머글꺼는 다 거의다 심따 시피허구{옥수수는 가정에서는 자기 먹을 것은 다 거의 다 심다 시피하고}

10315 # 또 안심꼬 저거 하는 사라미 쥬끔 건 사다가 머그면 되지 모 그런시기고 파는데가 마느니까는 {또 안심고 저거 하는 사람은 쥬끔 것은 사다가 먹으면 되지 뭐 그런 식이고 파는데가 많으니까는}

10315 @ 담배는 어떠쥬니까?{담배는 어떻쥬니까?}

10315 # 담배는 여기 심는 사람업쥬요{담배는 여기 심는 사람없어요}

10315 @ 그거는 옛날부터 그래쥬니까?{그거는 옛날부터 그랬쥬니까?}

10315 # 옛날엔 쥬 시면는데 시머서 먹꾸 하던 사람드리 {옛날엔 쥬 심었는데 심어서 먹고 하던 사람들이}

10315 # 그 담배를 시머 먹편 시저른 곰팡대 물고 이러케 허던 사라드리 그 때 이 이전에는 지끄믄 담배 심는 사라미 절때 업쥬요{그 담배를 심어 먹던 시절은 곰팡대 물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 때 있었는데 지금은 담배 심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10315 @ 마늘 마느른 어떠쥬니까?{마늘 마늘은 어떻쥬니까?}

10315 # 마늘도 여기는{마늘도 여기는}

10315 # 10프로가 될까 말까예요 여기 사는 사라미 마느리 시믈 마는데가 업꾸 또 마느레 대한 머 저거하라 농사를 여긴 으레 그냥 자기 겨우 시머야 자기 머글꺼 고정도로 심꼬 영리저그로 심는 사람 업쥬요{10프로가 될까 말까예요 여기 사는 사람이 마늘이 심을 만한테가 없고 또 마늘에 대한 뭐 저거하라 농사를 여긴 으레 그냥 자기 겨우 심어야 자기 먹을거 그 정도로 심고 영리적으로 심는 사람 없어요 }

10315 @ 감자나 고구마는 어떠쥬니까? {감자나 고구마는 어떻쥬니까?}

10315 # 감자 고구마두 영리저그로는 업꾸 자기네 머글만큼 그냥 시머서 뭐 애드리 노나 주쥬따 하는 시그로다 그 그건 거의다 지베마다 심데 쥬끔씩 {감자 고구마도 영리적으로는 없고 자기네 먹을만큼 그냥 심어서 뭐 애들이 나눠주쥬다 하는 식으로다

그건 거의다 집에마다 심더라고요 조금씩}

10315 @ 그 다른것과는 달리 감자나 고구마는 재배 방버비니 그러케 좀 다르지 안씀니까?{그 다른 것과는 달리 감자나 고구마는 재배 방법이니 그렇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10315 # 예 감자는 직관저그로 이러케 오려서 눈깔하나씩 남겨가꾸 이 직접 인제 땅에다가 심지만두 {예 감자는 직관으로 이렇게 오려서 눈깔 하나씩 남겨가지고 직접 인제 땅에다가 심지만두}

10315 # 이 고구마는 이러케 일찌이 맨드러 까꼬서 살로이 튀겨서이 이 뽀바서 인제 심는 저거가 인는데{이 고구마는 이렇게 일찌히 만들어 갖고서 살로 튀겨서 뽀아서 이제 심는 저것이 있는데}

10315 # 지그른 구차느니까 안하구 장에 가든 한다발 사다가 그냥 심꾸 전부 그 그러커지 그러케 힘든 저걸 안해요 이 직접하는 사라문 업써 그냥 상에 영리저그로 허는 걸 뽀 아니고 머글꺼 허는 거니깐 장에가서 한 뽀 썩만 사오면 아주 머 실컷머그니까 {지금은 귀찮으니까 안하고 장에 가면 한다발 사다가 그냥 심고 전부 그렇게 하지 그렇게 힘든 저걸 안해요. 이 직접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상에 영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 하는 거니까 장에 가서 한 뽀 썩만 사오면 아주 뽀 실컷 먹으니까}

10315 @ 근데 요즘 하두 세상이 그 험해서 애기 드러 보며는 고구마가 어느정도 뿌리가 들며는 썩 거뒤키는 그런 경우가 마는 모양이던데요 {그런데 요즘 하두 세상이 험해서 애기 들어 보며는 고구마가 어느 정도 뿌리가 들면 썩 거뒤키는 그런 경우가 많은 모양이던데요}

10315 # 근데 여긴 그러치 아나요{그런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10315 @ 여기는 어떠씀니까 논 논네 비해서 바치 {여기는 어떻습니까 논에 비해서 밭이}

10315 # 여기 그 판테가 마나서 노네 주려글 허지 바튼 그냥 자기네 그냥 머꾸 저거할 거에만 신경을 쓰지 영리저그로 하는 사라미 업써요 대개 {여기 그런데가 많아서 논에 주력을 하지 밭은 그냥 자기네 그냥 먹고 저거할 거에서만 신경을 쓰지 영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개}

10315 # 그케 쪼끔쪼끔 그냥 사먹지 안꾸 자기가 그냥 해서 감자두 좀 머글만큼만 심꾸 고구마도 머글만큼만 심꾸 전부 머글만큼 자기 심어서 저거허지 영리저그로 머 장 사소그로 심는 사라미 업써요 {그케 조끔조끔 그냥 사먹지 않고 자기가 그냥 해서 감자도 좀 먹을만큼만 심고 고구마도 먹을만큼만 심고 전부 먹을만큼 자기 심어서 저거하지 영리적으로 장사속으로 심는 사람이 없어요}

10315 # 그 흑간 지그메 절문사람드리 그런 저거를 허는데 또 그런 바시 별루 업꼬 {그 흑간 지금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저거를 하는데 또 그런 밭이 별로 없고}

10315 # 왜냐하든 이 부대가 잔부 깔고 여기를 저거한데 머 어디가서 저거할때가 업써요 {왜냐하면 이 부대가 잔부 깔고 여기를 저거한데 머 어디가서 저거할 때가 없어요}

10315 @ 요 집 집새에 고추바치 이떠구뇨 {요 집 집 사이에 고추밭이 있더군요}

10315 # 예예 뒤에 예 {예예 뒤에}

10315 # 그케 머냐 하며는 여기 강중렬 씨라구 그 아들이 나파 가치 학교 가치 다니던 사라민데 그 저거 허다간 군대를 가써요 그땐 그니깐{그케 뭐냐 하면 여기 강@@씨라고 그 아들이 나와 같이 학교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그 저거 하다가 군대를 갔어}

요 그 때 그러니까}

10315 # 에 해방되구서는 저거 하구선 그 엄마가 의부엄마랜썰꺼든 그러니까는 {해방되고 서는 저거 하고서 그 엄마가 의붓 엄마였었거든 그러니까는}

10315 # 저하고 저거하니까 사이가 저거구 그러니까{저하고 저거하니까 사이가 저거고 그러니까}

10315 # 이누의 이 엄마구 조지구 내 인제 꼭 원수 감는다구 이제 그 핵교를 가치 땡겨쓰 니깐 밤 학교가자 하고 그러면 그런 저거가 나오고 그런건 잘 알지 또 {이놈의 이 엄마 죽이고 나 이제 꼭 원수 갚는다고 이제 그 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밤 학교가 자 하고 그러면 그런 저거가 나오고 그런 것은 잘 알지 또}

10315 # 그리구 개가 머냐하면 그 학교 땡기고 저거할 시에도 양조장에 가서 너 저 술밥 훔쳐와라 배고프면 이제{그리고 개가 뭐냐하면 그 학교 다니고 저거할 때에도 양조장에 가서 너 저 술밥 훔쳐와라 배고프면 이제}

10315 # 그럼 개가 혼자가서 훔쳐오는거야 그래가꾸 아주 그 양조장에서 개가 육손니해써 꺼든 지금 얘기할때 이제 육손이라고 했는데 이 여기 육손 어떤노므 새끼야 육손 아니 훔쳐가면 머 개가 저거 해쓰니깐 그런 그 저거한테 그 바람에 군대를 일찌감치 가썰요 경비대 시저레 그러니까 유기도 저너지 사변저네 인제 그{그럼 개가 혼자가서는 훔쳐오는거야 그래갖고 아주 그 양조장에서 개가 육손이 했었거든 지금 얘기할 때 이제 육손이라고 했는데 이 여기 육손 어떤 놈의 새끼야 육손 아니 훔쳐가면 뭐 개가 저거 했으니까 그런 그 저거한테 그 바람에 군대를 일찌감치 갔어요 경비}

10315 # 자기 엄마 슬하고 가정에 저거 허니까는 기냥 지원해서 그래 가서 그놈이 전사당해 가꾸는 지금 잘사는 거시 그 의부엄마가 자사는거야 그 연금타가꾸 저거해서 {자기 엄마 슬하고 가정에 저거 하니까는 그냥 지원해서 그래 가서 그 놈이 전사당해 갖고는 지금 잘사는 것이 그 의붓 엄마가 잘사는거야 그 연금 타갖고 저거해서}

10315 # 그게 그 개가 그러케 된 사라민데 그 연금 타가꾸서 그 때 여기 수복되서 드러올 지에 땅한평에 이 유권 시변 시변 조은 땅을 사썰요 {그게 그 개가 그렇게 된 사람인데 그 연금 타갖고서 그 때 여기 수복되서 드러올 때 땅한평에 이 육원 십원 십원 좋은 땅을 샀어요}

10315 # 오류권씩 주구서 수복때 그게 연금 타는게 이쓰니까 연금 한번 타는거 가꾸 이거 한 오천 그냥 사빠러써 {오륙원씩 주고서 수복 때 그게 연금 타는게 있으니까 연금 한번 타는 것 갖고 이거 한 오천 그냥 사버렸어}

10315 @ 그게 지금 굉장하겐군요 {그게 지금 굉장하겠군요}

10315 # 그니깐 그 그사람들 잘살게끔 맨든거슨 그사라미 주거가꾸 연금 지금도 연금 타 머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살게끔 만든것은 그 사람이 죽어갖고 연금 지금도 연금 타먹어요}

10315 # 그래서 이제 그 그러케 원수 가치 저 그게 저거한테 그땐 머 여기 수복되가꾸 드러와서 머 도니이썰요 머 살래야 살수두 엄는거구 저거해서 인제 그 저건데 이거를 사계끔 맨든거두 저거 지가 내가 사계끔 허구{그래서 이제 그 그렇게 원수 같이 저 그게 저거한테 그 땐 뭐 여기 수복되갖고 들어와서 무슨 돈이있어요? 뭐 살래야 살수두 없는 거고 저거해서 이제 그 저것인데 이것을 사계끔 만든 것도 저거 자기가 내가 사계끔 하고}

- 10315 # 또 요거 살찌게 요터허구 요 아래 터하구 요 터가 세군데가 인는데 {또 요거 살찌게 요 터하고 요 아래 터하고 요 터가 세군데가 있는데}
- 10315 # 이사라미 아무거뚜 모르니까는 에 땀뻘지만 살찌 그 터가 번지가 다른 몇개가꾸 따로 저거 한게 업서 근데 서울사라미거든 박승위니라구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몇 번지만 샀지 그 터가 번지가 다른 몇 개 갖고 따로 저거 한 것이 없어 근데 서울사람이거든 박@@이라구}
- 10315 # 에 그래서 등기 낼찌게 내가 아르켜 쫓쫓쫓{그래서 등기 낼 적에 내가 가르쳐 줬지요}
- 10315 # 이거이거 가치 넘겨라 이 보닌 땅임자는 요기 요러케 대지로 떠러져 인는거도 모르고 인는데 지금 저런데 지도 도상에 이게 대지로 떠러져 이쓰니깐 당시는 땀뻘지만 살찌 이 번지는 안사썬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소리 말구 이거 가치 겹쳐서 해라{이거이거 같이 넘겨라 이 본인 땅임자는 여기 이렇게 대지로 떠러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저런데 지도 도상에 이게 대지로 떨어져 있으니까 당시는 몇 번지만 샀지 이 번지는 안샀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소리 말고 이거 같이 겹쳐서 해라}
- 10315 # 게서 토대지를 안바떠라구 나한테는 어휴 자네 아니며는 난 그대루 저 {그래서 토대지를 안받더라고 나한테는 어휴 자네 아니면난 그대로 저}
- 10315 # 그 내가 만약에 등기를 낸다 치더래두 으 아무개는 그걸 어떻게 저거해 {그 내가 만약에 등기를 낸다 치더라고 으 아무개는 그걸 어떻게 저거해}
- 10315 # 난 모타구 저거해서 등기 내쫓떠니 {난 못하고 저거해서 등기 내쫓떠니}
- 10315 # 민년간 텃세를 안바떠라구 그 보다브로다 안받겠따구 그럼 지금 이 터는 그 사람 겁니까? {몇년간 텃세를 안받더라고 그 보답으로다 안받겠다고 지금 이 터는 그 사람 겁니까?}
- 10315 # 그러치요 그래가꾸 등기를 내게끔 내가 가치 얘기해쫓쫓{그렇지요 그래 갖고 등기를 내게끔 내가 가치 얘기해 줬지}
- 10315 # 기냥 뉘뉘쓰면 그 사람 못 저거허구 서울사라미 일단 너머가는거지 그대루{그냥 뉘뉘쓰면 그 사람 못 저거하고 서울사람은 일단 넘어가는거지 그대로}
- 10315 # 근데 그 이왕 저거하니까 그 사라미 지금 그거를 모르고 인는 상태구 당신 이 덩어리 다 산거루다 다 판거루다 헐는데 요고 요 분아무소리말고 저거해 그래가꾸 그런얘기 해쫓떠니 {근데 그 이왕 저거하니까 그 사람은 지금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고 당신 이 덩어리 다 산거로다 다 판거로다 헐는데 요거 요 분 아무소리말고 저거해 그래작고 그런 얘기 해쫓떠니}
- 10315 # 먼년가는 아이구 응 난 이제 그당시 이장을 보구 이제 모 저거루 이제 저거하니까는 판사람 모르쫓 그니깐 나는 보구서 왜 가르쳐 준거지{몇 년간은 아이고 응 난 이제 그 당시 이장을 보고 이제 뭐 저걸로 이제 저거 하니까는 다른 사람 모르쫓. 그러니까 나는 보고서 왜 가르쳐 준거지}
- 10315 # 내게끔 해서 맨드리 쫓떠니 한 삼년간 텃세를 안바떠라구 내 그 보다브로다 안바께따 허는 (예) 그런 시고리니 그러게 아직 아 찌끄른 저거지만 그 때만 해두 그러니깐 한 사십년 저니니깐 머 {내게끔 해서 만들어 쫓떠니 한 삼년간 텃세를 안받더라고 내 그 보답으로다 안받겠다고 하는} (예) {그런 시골이니 그러게 아직 아 지금은 저거지만 그 때만 해도 그러니까 한 사십년 전이니까 뭐}

10315 @ 그러치요 네네 {그렇지요 네네}

10315 # 그래썬요{그랬어요}

10315 @ 지그른 여기도 상당히 비싸지요?{지금은 여기도 상당히 비싸지요?}

10315 # 비싸지요 저기 머 외파로 떠러져가꾸 저거 허는데 이 지역쪽으로 도로에서 가깝꼬 허는 건 십마년 이십마년 안주며는 모싸요 {비싸지요 저기 뭐 따로 떨어져갖고 저거 하는데 이 지역적으로 도로에서 가깝고 하는 건 십만원 이십만원 안주면 못싸요}

10315 @ 혹시 이 아까 말씀 드르니까 그 사람 낙파가치 이러케 말씀하셨는데요 낙파가치 낙처럼 {혹시 이 아까 말씀 들으니까 그 사람 낙파가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낙과 같이 낙처럼}

10315 # 응응{응응}

10315 @ 그면 소와 말할때 속파 말 이러케도 씁니까 소와 말이 소하고 마리 뛰어 간다 금속파 마리 뛰간다 뛰어간다 이러케도 하는지요? {그러면 소와 말할 때 소과 말 이러케도 씁니까? 소와 말이 소하고 말이 뛰어 간다 그러면 소과 말이 뛰어간다 이러케도 하는지요?}

10315 # 그러쵸 그러케 바르미 그러타 그거쵸 내 그래서 {그러쵸 그렇게 발음이 그렇다 그거쵸 내 그래서}

10315 # 숄 뵤데는 소리는 가튼거구 머와 머가 응 {숄 뵤데는 소리는 같은거구 머와 머가 응}

10315 @ 소 말 {소 말}

10315 # 소와 마리 가치 뵤다 속파 마리 뵤다 아니 그 때 이제 파라는 마를 습니까 속파 마리 속파 마리 가치 뵤다 그쵸 예 그래요 {소와 말이 같이 뵤다 소과 말이 뵤다 아니 그 때 이제 파라는 말을 습니까 소과 말이 속파 마리 같이 뵤다 그쵸} (예 그래요)

10315 @ 어떻게 한번 말쓰메 보시쵸 저기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시쵸 저기}

10315 # 소파 마리 가치 뵤다 예예 그럼 켜꾸로 그러치 아느른 소와 마리 가치 뵤다 이러케 그러케 되기도 하구 그냥 나오는 말로는 소파 마리고 예 예{소과 말이 같이 뵤다 } (예예 그럼 켜꾸로) {그러치 앗으면 소와 말이 가치 뵤다 이렇게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냥 나오는 말로는 소과 말이고) (예 예)

10315 @ 말 마를 아페 세우면요 말 말파 소 이러케 됩니까? {말 말을 앞에 세우면요 말 말과 소 이렇게 됩니까?}

10315 # 그러쵸 말파 소가 예 근데 대개 소가 아페 마리나오면 소가 아페 나오쵸 예{그러쵸} (말과 소가){예 근데 대개 소가 앞에 말이 나오면 소가 앞에 나오쵸}(예)

10315 @ 소파 으 소파 예 {소과}{으 쏘과} {예}

10316 @ 그러며는 과일 종류가튼거슨 여기에 따로 심는 거나 그런 바치 이썬니까 수박 차메 사과 복숭아 이런거요 {그러면은 과일 종류같은 것은 여기에 따로 심는 거나 그런 말이 있습니까? 수박, 참외, 사과, 복숭아 이런거요}

10316 # 수박 차메는 그저네는 이 독점저그로 시머면 사라미 인는데 마니 심는 포기 아니 예요 그런거 이제 저거구 {수박, 참외는 그전에는 이 독점적으로 심엿던 사람이 있는데 많이 심는 폭이 아니예요 그런거 이제 저거고}

10316 @사과는 과수원이 이썬니까 예 과수워니 올해 처음 여기 이사 와가꾸 드러온 사라

미 하나 인는데 그 사라미 여 건너 바테다가 사과나무를 시머따 그러대요{사과는 과수원이 있습니까?}(예, 과수원이 올해 처음 여기 이사 와갖고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요 건너 밭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러대요)

10316 # 예 근데 사과나무를 그 저네 시른 사시른 업썬꾸 한대 두대는 그냥 지베다가 시머서 저거헨 저거지만두 업썬썬요 (예) {근데 사과나무를 그 전에 심은 사실은 없었고 한 그루 두 그루는 그냥 집에다가 심어서 저거한 저거지만도 없었어요}

10316 # 예 그 사라미 처음으로 저거해서 처음으로 해보는군요{예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저거해서 처음으로 해보는군요}

10316 # 예 그래서 나한테 와서 무떠라구요 여기 시믈려구 계획커구 저건데 어떠케 될까요 그래서 {예 그래서 나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여기 심으려고 계획하고 저건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10316 # 나는 경허미 업썬서 모르는 거구 이 아래 동네에 그 사과를 이 바테다 한 천평 시른사라미 인는데 그 재미보고 뭐 그런거슨 아직 나도 모른다{나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거고 이 아랫 동네에 그 사과를 이 밭에다 한 천평 심은 사람이 있는데 그 재미보고 뭐 그런것은 아직 나도 모른다}

10316 # 네 그러나 큰 실패는 업는거루 알고 인따 인제 해 그래떠니 예 그럼 시머보겠따고 그러구 시머썬요 한 오백 그루 (네){그러나 큰 실패는 없는걸로 알고 있다 이제 그랬더니 그럼 심어보겠다고 그러고 심었어요 한 오백 그루}

10316 # 그래 이제 농사를 지어도 난 예 지어 저거해도 그러케 전썬그로 농사를 지어보지도 안코 또 그냥 저거허믄 저기 저 농사지으믄 그런가부더 저거지 해 농사에 농사에 저거에 묻까지구 인는 사라미예요 {그래 이제 농사를 지어도 난 지어 저거해도 그렇게 전적으로 농사를 지어보지도 았고 또 그냥 저거하면 저기 저 농사지으면 그런가보다 그거지 농사에 농사에 저거에 못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10316 # 그냥 나가 도라 땡기고 그냥 그다메 저 쪼끄메선 학교 땡기고 그냥 도라땡겨서 전썬그로 농사는 몬 저거해봐썬요 {그냥 나가 돌아 다니고 그냥 그다음에 저 조그매서는 학교 다니고 그냥 돌아다녀서 전적으로 농사를 못 저거해봤어요}

10318 @ 이버넨 이제 농사에서 이제 닥 예 봄 여름동아네 다 예 크고 이제 열매를 맨꼬 해서{이벤엔 이제 농사에서 이제 다 봄 여름동안에 다 크고 이제 열매를 맺고 해서}

10318 @ 가을되면 이제 거뒀드리지 안썬니까 그러썬 {가을되면 이제 거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썬?}

10318 @ 그럼 벼가튼 경우에는 예 거뒀 드러서 쌀로 되기까지 그 그거는 가을처레 하는 겁니까?{그럼 벼같은 경우에는 거뒀들여서 쌀로 되기까지 그거는 가을철에 하는 겁니까?}

10318 @ 고론 거슨 어떤시그로 하는지요 과거 과거의 경우{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과거의 경우}

10318 # 그 여기서 대개 이런 곡식글 다 된걸 거뒀드리는 건 가을거지라 그러구{그 여기서 대개 이런 곡식을 다 된걸 거뒀들이는 건 가을 거지라 그러고}

10318 # 추수라구 추수 그 벼 추수는 주로 어떤 연장을 가지구 헨는지요{추수라고 추수 그 벼 추수는 주로 어떤 연장을 가지고 헨는지요}

10318 # 벼는 그저네는 {벼는 그전에는}

10318 # 아주 예전에 저거 할찌게는 이 발끼게로 해서 이러케 이러케 사라미 직쩍 {아주 예전에 저거 할찌게는 이 발끼게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직접}

10318 # 예 그런데 그 업써지고 버터른 {예 그런데 그 없어지고 부터른}

10318 # 머 그냥 베 비문서 저거 허니까 그냥 돌려서 {머 그냥 베 베면서 저거 하니까 그냥 돌려서}

10318 # 푸대에 다마 바로 자동으로 되는거 그럼요 그러케 지그른 다 그거예요 {푸대에 담아} (바로 자동으로 되는거) {그럼요 그렇게 지금은 다 그거예요}

10318 @ 그 발 발가지고 돌려서 하기 저네 {그 발 발가지고 돌려서 하기 전에}

10318 @ 저네는 또 어떤 방식이 이썸니까 {전에는 또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10318 @ 이 머 이러케 {이 뭐 이렇게}

10318 # 도리게 예예 {도리게} {예예}

10318 # 근데 그저네 베는 판거뚜 아니구 {그런데 그 전에는 베는 판 것도 아니고}

10318 # 이러케 된거시 이썸서요 세로가 이러케 된게 {이렇게 된 것이 있었어요 세로가 이렇게 된게}

10318 # 예 거기다 노코 툭 휘두르고 흐터지고 훌치게라 그러쥬 그게 {예 거기다 놓고 툭 휘두르고 흠어지고 훌치게라 그러쥬 그게}

10318 # 그거에다 이제 마는건 모타고 {그거에다 이제 많은 건 못하고}

10318 # 쪼끄먼건 그거로 허구 {쪼크마한건 그걸로 하고}

10318 # 그러치 아느며는 이 반달게 떠러가꾸 도라가면 이게 떠는게 이짜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반달게 떨어갓고 돌아가면 이게 떠는거 있잖아요}

10318 # 예 철가 이러케 된거 가지고 이리이리 이러케 이러케 되서 베기 허구 {예 철가 이렇게 된거 가지고} {이리이리 이렇게 이렇게 돼서 베기 하고}

10318 # 그거루다 다 저거허구 그거자나요 훌치기루해서 저거헌거구 {그걸로다 다 저거하고 그러잖아요, 훌치기루해서 저거한거고}

10318 @ 그럼 그때 나온거슨 이제 이 껌찌리 다 인는 {그럼 그때 나온 것은 이제 이 껌질이 다 있는}

10318 @ 저 알맹이 알맹이가 되는거요 껌찌리 부터 인는거 {저 알맹이 알맹이가 되는거요 껌질이 붙어 있는거}

10318 # 그러쥬 그담 단계에는 이제 그걸 껌찌를 배끼는 거는 배껴야 되쥬 물방아까나라고 해서 {그렇쥬} {그 다음 단계에는 이제 그걸 껌질을} {벗기는 것은} {벗겨야 되쥬} {물방아간이라고 해서}

10318 # 그저네는 동네마다 {그전에는 동네마다}

10318 # 이 무리 내려 와가꾸 큰 저기 도라가꾸 이 {이 물이 내려 와갓고 큰 저기 도라갓고 이}

10318 # 이 방아깽이 이러케 해가꾸 찢는 그 동네마다 이썸서요 엔나렌 {이 방아깽이 이렇게 해가지고 찢는 그 동네마다 있었어요 옛날엔}

10318 # 거기서 찢는거지 {거기서 찢는것이}

10320 @ 그 벼가튼 경우에는 그걸 이제 찌그며는 {그 벼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찢으며는}

10320 @ 거치 이제 꺼끌꺼끌한 그 껌찌리 번껴지지 안썸니까 예 {겉이 이제 꺼끌꺼끌한 그 껌질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예}

10320 @ 그 번겨진 꺼글꺼글한 그 껌찌를 머라 합니까{그 벗겨진 꺼글꺼글한 그 껌질을 머라 합니까?}

10320 # 왕개 왕개{왕겨, 왕겨}

10320 @ 그럼 저 보리가튼 경우에는{그럼 보리같은 경우에는}

10320 @ 왕겨가 업찌요 {왕겨가 업찌요}

10320 @ 보리 알맹이가 인는데 {보리 알맹이가 인는데}

10320 @ 그걸 이제 그 껌찌를 이러케 갈며는 예 그 밀가루는 안되고{그걸 이제 그 껌질을 이렇게 갈면 그 밀가루는 안되고}

10320 @ 시커먼 가루가 생기지요 좀 부드럽찌 모탄데{시커먼 가루가 생기지요 좀 부드럽지 못한데}

10320 # 여기는 여기는 대개 {여기는 여기는 대개}

10320 # 밀을 시르면 시면찌 버리는 잘 잘안되요 {밀을 심으면 심었지 버리는 잘 잘 안되요}

10320 # 버리는 잘 안되고 {보리는 잘 안되고}

10320 # 버리를 심는 사라미 극소수다 쪼끄른 시머갓구 저거하니깐 그에대한 저거는 잘 모르지요 {보리를 심는 사람이 극소수로 조금은 심어갓고 저거하니까 그에 대한 저거는 잘 모르지요}

10319 # 예 그저네는 물방아까니라고 해서 저거{예 그전에는 물방아까니라고 해서 저거}

10319 # 아래 저 부대 안진데 거기가 동넨데{아래 저 부대 앞은데 거기가 동넨데}

10319 # 거기 왜 방아까니 이썬썬요 물방아까니{거기 방앗간이 있었어요}

10319 # 예 그 방아까네서 인제 {예 그 방앗간에서 이제}

10319 # 예 방아를 다 찌어 머꾸 {방아를 다 찧어 먹고}

10319 @ 그럼 그 쪼근 내가 인께꾼요 {그럼 그쪽은 내가 있겠군요}

10319 # 그럼요 네, 저 물 데서 내려오는거 그거 돌리는 내가 인찌요 {그럼요 네, 저 물 데서 내려오는 그거 돌리는 내가 있지요 }

10319 # 그 내가 방아 찌꾸 저거할 찌개는{그 내가 방아 찧고 저거할 적에는}

10319 # 빨래도 허구 거기서 물 사용허구{빨래도 하고 거기서 물 사용하고}

10319 # 항시 내려오쥬 그 저 저거해가꾸 {항시 내려오쥬 그 저거해갓고}

10319 # 방아 찌글 찌게 돈내서 방아찌꾸{방아 찧을 적에 돈내서 방아찧고}

10319 # 그런 시기로 지금 그 부대 아느로 드러가꾸 {그런 시기로 지금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가지고}

10319 # 부대 아네 이 그 저네 이썬썬요 {부대 안에 그 전에 있었어요}

10319 # 네 인제 다 이거 업썬지꾸 터도 업썬지다 시피 허구 {네 인제 다 이거 없어지고 터도 없어지다시피 하고}

10319 # 이 부대가 업서야 부대가 업서야 여기 발찌니 되지부대때매 {그러치 그러썬니다} 예부대가 이썬가꾸 발찌니라곤 업썬요 십년이십년동안 이 그 고대로{이 부대가 없어야 부대가 없어야 여기 발전이 되지 부대 때문에}{그렇지 그렇썬니다}{예 부대가 있어갓고 발전이라고는 없어요 십년이 이십년동안 그대로}

10321 @ 그 곡식 이제 알맹이를 더러 내고 난 뒤에 {그 곡식 이제 알맹이를 털어내고 난 뒤에}

10321 @ 고 다음 저 봄되면 이제 심기 위해서어디다가 보과늘 해야되지 안썬니까{그 다음

붓되면 이제 심기 위해서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10321 @ 고 보관하는 기구로는 어떻게 인썸니까 {그 보관하는 기구로는 기구로는 어떻게
 있습니까?}
 10321 # 대개 자기 각자가 그냥 지베서 보관해요 {대개 자기 각자가 그냥 집에서 보관해
 요}
 10321 @ 어디다 다마두거나 너어두어야 되지 안썸니까{어디다 담아두거나 넣어두어야 되
 지 않습니까?}
 10321 # 그러치요 모 대중 저거 어이 어려서 안될꺼는 얼지 안는데다 방에다 두고{그렇지
 요 모 대중 저거 얼어서 안될 것은 얼지 안는데다 방에다 두고}
 10321 # 또 저거 현거는 에 모 {또 저거 한거는 뭐}
 10321 # 팬차는 거는 바깥에 두구 종자라구 해서 종자는 {팬차는 거는 밖에다 두고 종자
 라고 해서 종자는}
 10321 # 정성껏 해서 그케 될따가 씨아터는 거니까{정성껏해서 그렇게 뒀다가 씨앗하는
 거니까}
 10322 @ 그 가을되며는 사네{그 가을되면 산에}
 10322 @ 나는 나무 중에서 {나는 나무 중에서}
 10322 @ 그 살림도구로 생활 생활도구를 만드는 {그 살림도구로 생활도구를 만드는}
 10322 @ 거스로는 어떤거시 인썸니까 예를 들면 빈짜리 만들기 위해서 {것으로는 어떤 것
 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빗자루 만들기 위해서}
 10322 # 짜리 인제 짜리나무 그런기 이꾸 {짜리 이제 짜리나무 그런게 있고}
 10322 # 그저네 옌나래는 {그전에 옛날에는}
 10322 # 도리께라구 이썸썸 이거이거 그건 마니 {도리께라고 있었어요 그건 많이}
 10322 # 그 그케 이제 {그케 이제}
 10322 # 그 큰 대는 누구 아들 그 도리께 아드리라구 허는데 {큰 대는 누구 아들 그 도리
 께 아들이라고 하는데}
 10322 # 그거는 물푸레 {그거는 물푸레}
 10322 # 물푸레라구 해 고걸루다 인제 벼다가 아주 오래 가으리며는 그케 벼다가 말리지
 요 {물푸레라고 해 그걸로다 이제 벼다가 아주 오래 가을이면 그걸 벼다가 말리지
 요}
 10322 # 말려서 노알따가 {말려서 놓았다가}
 10322 # 그거리 조수끼 만드러 가꾸저거하구 {그걸로 조숙히 만들어 갖고 저거하고}
 10322 # 그 대는 노관질모라구 {그 대는 노관질모라고}
 10322 # 건 끝장 끝장 자라 자라요 아주 자라기를 {그건 끝장 자라요 아주 자라기를}
 10322 # 그러니깐 그거루다 대게 인제 저거해서 {그러니까 그걸로다 대개 이제 저거해서}
 10322 # 다드며 깎꾸서 그 대로 그걸 맨들구 {다듬어 깎고서 그 대로 그걸 만들고}
 10322 # 그 맨들며는 그 대는 오래두록 쓰구 물푸레나무 그 아드름 {그 만들면 그 대는
 오래도록 쓰고 물푸레나무 그 아드름}
 10322 # 도리께 아드름 망가지면 또 갈구 그까진모{도리께 아드름 망가지면 또 갈고 그까
 짓 뭐}
 10322 # 그저넌 뭐 터가는대로 아주{그전엔 뭐 터가는대로 아주}
 10322 # 주 연장이랜써 예{주 연장이래서} (예)

10317 @ 그 {그}

10317 @ 산이나 드레 나는 나물종류는 좀 아는게 인삼니까 명는 나물{산이나 들에 나는 나물종류는 좀 아는게 있습니까 먹는 나물}

10317 # 대개 저거 하는 거시 취가 인꾸 취라구{대개 저거 하는 것이 취가 있고 취라고}

10317 # 취는 바깥마당에 요기도 이러케 취고{취는 바깥마당에 요기도 이러케 취고}

10317 # 그리구 마니 명는 저기헌거시{그리고 많이 먹는 저거한 것이}

10317 # 허 난 잘 모르겐는데{허 난 잘 모르겠는데}

10317 @ 식물도 좀 보며는 기어기 날찌도 모르겐군요. 그러치요 보며는 기어기 나지요{식물도 좀 보면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군요}(그렇지요 보며는 기억이 나지요)

10317 # 근데 또 이러케 머거도 이거 명는 나물 이 그 정도로 알지 이름조차도 그림 이름도 예{그런데 또 이러케 먹어도 이거 먹는 나물, 이 정도로 알지 이름조차도}(그럼 이름도){예}

10323 @ 그 지그른 가스라던지 {그 지금은 가스라든지}

10323 @ 또 조금 그저네는 연타니라든지 이걸 가지고 뽕까를 햐찌마는{또 조금 그전에는 연탄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뽕감을 햐찌마는 }

10323 @ 그저넌 전부다 사네 가서 {그전엔 전부다 산에 가서}

10323 @ 나무나 이런거 베서 햐찌 안씀니까 {나무나 이런거 베서 햐찌 안씀니까?}

10323 # 그림뇨 그 나무 아주 준비는 뽕감 겨울기 뽕감 준비는그거 그냥 겨울날 햐끼허구 {그럼요 그 나무 준비는 뽕감 겨울이 뽕감 준비는 그거 그냥 겨울날 햐끼하고}

10323 @ 어떤거뜨를 뽕까므로 주로 햐찌씀니까 {어떤 것들을 뽕감으로 주로 햐찌씀니까?}

10323 # 예 대개 예 사네 가서는 햐끼나무는 안햐끼요 {예 대개 산에 가서는 햐끼나무는 안햐끼요}

10323 # 대개 인제{대개 이제}

10323 # 소나무 쪼개서 인제 마니 허구{소나무 쪼개서 이제 많이 하고}

10323 # 대개 소나무가 만쵸{대개 소나무가 많쵸}

10323 # 그게 제일 햐끼 수월라구 또 저거허니까{그게 제일 수월하고 또 저거하니까}

10323 # 그리곤 {그리고는}

10323 # 머 가시달린거나 이런건 안는 저거구 {뭐 가시달린거나 이런건 안는 저거고}

10323 @ 그 소 소나무가 이제 가을되며는 이피 {그 소나무가 이제 가을되면 잎이}

10323 @ 미트로 이제 떨어지지 안씀니까 그걸 모라 그럼니까 그 가리라구 그러지 가리{밑으로 이제 떨어지지 안씀니까? 그걸 뭐라 그럼니까?}(그 가리라구 그러지 가리)

10323 @ 그 가리는 소느로 이러케 함니까 따른 기구로 이러케 모음니까{그 가리는 손으로 이러케 함니까? 다른 기구로 이러케 모음니까?}

10323 # 그 갈키라구 인쵸 이러케 갈키{그 갈키라고 있쵸 이러케 갈키}

10323 # 예 그거를 이러케 곱어가지고 모으면 {예 그거를 이러케 곱어가지고 모르면}

10323 # 지끄른 머 저거햐서 이 햐끼거튼거 햐끼햐갓꾸 {지금은 뭐 저거햐서 이 햐끼같은거 햐끼햐갓고}

10323 # 그 아네다 노쿠션 동그러케 햐끼 수두 인꾸 햐끼 저거햐서{그 안에다 햐끼고선 동그러케 햐끼 수두 있고 저거햐서}

10323 # 저건데 그전 햐끼거트면 그거를 마니 그거 햐끼 햐끼 지게에다 지구{저건데 그전 햐끼거트면 그거를 많이 그거를 햐끼 햐끼 지게에다 햐끼고}

10323 # 지게에다 엔나레는 집집마다 그 가리 퇴비가 다 인썸자나요{지게에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그 가리 퇴비가 있었잖아요}

10323 # 겨우레 때려구 지끄른 그런 저건 업꾸{겨울에 때려고 지금은 그런 저건 없고}

10323 @ 그담 이제 중중요한게{그다음 이제 중요한게}

10323 @ 가리보다 더 중요한게 부를 때야 되니까 나무가튼걸 저{가리보다 더 중요한게 부를 때야 되니까 나무같은 걸 저}

10323 @ 일정한 기리로 잘라서 차곡차곡 채우고 그래썸지 안썸니까 그걸 모라고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차곡차곡 채우고 그랬었지 안썸니까 그걸 뭐라고} 10323 # 나무마다 다르지요 꽤 가지고{나무마다 다르지요 꽤 가지고}

10323 # 장작 예 장자기라구 장자글{장작}{예}{장자기라고} (장자글)

10323 @ 꽤는 도구가 모열썸니까{꽤는 도구가 모였썸니까?}

10323 # 도끼{도끼}

10323 # 짜르는건 거두구 거두고{짜르는 건 거두고}{거두고}

10323 @ 도끼로 장자글 썰려든 미테 또 나무가튼게 이썸야 되지 안썸니까{도끼로 장작을 썰려면 밑에 또 나무같은게 있어야 되지 안썸니까?}

10323 # 바침뿍 예 그걸 모 바침뿍이라 그랜썸니까 바침목{바침목}{예 그걸 바침목이라 그랜썸니까?}{바침목}

10323 # 지금 이러케 저거한테 모르지 거이 그런그러키도 허구 똑바로{지금 이렇게 저거한테 모르지 그런 그렇기도 하고 똑바로}

10323 @ 모 보타니니 보탄 둥그러니 이런 마른 안썸구요{모 보탄이니 보탄 둥그러니 이런 말은 안썸고요?}

10323 # 근 몬드뻐 애긴데{그건 못들던 애긴데}

10323 # 줌 그게 마니 쓰는 마리 아니구 그냥 저거허든{줌 그게 많이 쓰는 말이 아니고 그냥 저거하면}

10323 # 장작패면 장작패는 가부다 해서 그게 모{장작패면 장작패는 가 보다 해서 그게 뭐}

10323 # 이름까지두 생각해 보지두 안코 무러본 적두 업꾸{이름까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물어본 적도 없고}

10323 @ 그다음에는 이제 그 마른 가지들 이런거 쳐서 {그다음에는 이제 그 마른 가지들 이런거 쳐서}

10323 @ 지고 오기도 그랜는데 마른가지를 가따가 모라 그래요{지고 오기도 그랜는데 마른가지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10323 # 머 삭 서까지 삭정이 모 이런말 삭쟁이 예 주근거{뭐 삭}{서까지}{삭정이 뭐 이런 말}{예 죽은거}

10323 # 삭정이라 그랜썸요 삭{삭정이라 그랜썸요?}

10323 # 삭정이{삭정이}{삭정이}

10324 @ 겨우리니 이 가으레 해가지고 겨울이나 그다음 뭐 봄 가튼때 먹기 위해서 어 갈무리 하는 채소라던지 머 이런 걸로는 어떤거시 인썸니까{겨울이니 이 가을에 해가지고 겨울이나 그다음 뭐 봄 같은 때 먹기 위해서 갈무리 하는 채소라던지 뭐 이런 걸로는 어떤 것이 있썸니까? }

10324 # 봄메 그다음 이제 그 시골에서는{봄에 그다음 이제 그 시골에서는}

10324 # 가으레 가으레 이제{가을에 가을에 이제}

10324 # 열무썰기 예에 그거를 이제 여꺼매다 노알따가{열무썰기}{예}{그거를 이제 엮어매다}

10324 # 끄려 멍는거 그런 저거가 인꾸{끓여 먹는거 그런 저거가 있고}

10324 # 그걸 쓰레기라구 해 쓰레기 쓰레기 예 쓰레기 {그걸 시래기라고 해, 시래기 시래기}{예} {시래기}

10324 # 예 그리구서 뭐 별루{예 그러고서 뭐 별루}

저거 업썬요 지금은 그저넌 그래꾸 지금은 모{저거 없어요 지금은 그전엔 그랬고 지금은 뭐}

10324 # 하다 몬태 배추도 겨우레 머글 수 인게끔 보관허구{하다 못해 배추도 겨울에 먹을 수 있게끔 보관하고}

10324 # 머 무우도 그리치마는 무슨{뭐 무도 그렇지만 무슨}

10324 # 우리가 그 옛날부터 아주 구덩이 파구서는 땅에다가{우리가 그 옛날부터 아주 구덩이 파고서는 땅에다가}

10324 # 예 구덩이 파구선 그러케 해 노쿠선{예 구덩이 파고선 그렇게 해 놓고선}

10324 # 막알따간 머글만치 한개 두개 끄내서 먹고 인제 그 그거시 아주 그저넌 상례고 {막알따간 먹을만치 한 개 두 개 꺼내서 먹고 이제 그것이 아주 그전엔 상례고}

10324 # 지끄른 머 그러케 멍는 사라미 업썬요{지금은 머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어요}

10324 # 그러케 멍는 건 장사꾸니나 해서 어떻게 내다 파는 {그렇게 먹는 건 장사꾼이나 해서 어떻게 내다 파는}

10324 # 저거가 이썬까 무가 피료가 시장에 가며는 겨우레 나오니까 무가 피료허면 시장에 가서 한두개 사다가 먹꾸{저거가 있을까 무가 필요가}{시장에 가면은 겨울에 나오니까}{무가 필요하면 시장에 가서 한두개 사다가 먹고}

10324 @ 그다메 인제 주로 배추나 무우가튼걸 그 양녀를 너어서 보관해서 멍는거 인썬습니까 소위{그다음에 이제 주로 배추나 무같은걸 그 양념을 넣어서 보관해서 먹는거 있잖습니까 소위}

10324 @ 김장한다 그러쥬 가으레 어 김장{김장한다 그러쥬 가을에 어 김장}

10324 @ 그 김장해논걸 뭐라고 그러니까 음식글 {그 김장해논 걸 뭐라고 그러니까? 음식을}

10324 @ 짐치라 그러니까 김치라 그러니까{짐치라 그러니까? 김치라 그러니까?}

10324 # 김장 김치지 모 {김장 김치지 뭐}

10324 @ 예 그 김치에 김치를 다물때 무리 인는거 하구 무리 업시 담는걸하구 두종류가 에 여기는{예 그 김치에 김치를 담을 때 물이 있는거 하고 물이 없이 담는 것하고 두 종류가} (에 여기는)

10324 # 무리 인는걸 갈따가 김치라 그러구 {물이 있는걸 김치라 그러고}

10324 # 또 무릅시 그냥 양념해서 저러케 허는 걸 짬지라 그래 짬지 그러쥬 {또 물없이 그냥 양념해서 저렇게 하는 걸 짬지라 그래}{짬지 그렇쥬}

10324 @ 짬지구 무리 인는게 김치{짬지고 물이 있는게 김치}

10324 @ 이 짬지 다물때는 양녀를 어떤걸 썬니까{이 짬지 담을때는 양념을 어떤 것을 썬니까?}

10324 # 대개 마니 쓰쥬 지끄른 모 그 옛나렌 전까리 업서저거 허니까 저까를 안써지만두

{대개 많이 쓰죠 지금은 모 그 옛날엔 젓갈이 없어 저거 하니까 젓갈을 안썼지만
도}

10324 # 그저네 였나래야 모 {그전에 옛날에야 뭐}

10324 # 꼬 꼬추까루 으레 드러가구 {고추가루 으레 들어가고}

10324 # 마늘 파 인제 이렇게 다 드러가지만두 지끄른 머 전까리{마늘, 파,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가지만도 지금은 뭐 젓갈이}

10324 # 갈치 전까루다 너쿠 인제 간 저거{갈치 젓갈로다 넣고 이제 간 저거}

10324 # 구할 수 인쓰니까 였나래 상에 자바봐야 새우전베께 더 드러가씨요 전까레{구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 상에 잡아봐야 새우젓 밖에 더 들어갔어요 젓갈에}

10324 @ 지그른 어떠썬니까 지금도 역시 짬지 다물때는 새우저줄 마니 썬니까{지금은 어
떻습니까? 지금도 역시 짬지 담을 때는 새우젓을 많이 썬니까?}

10324 # 아주 쓰지요 그건 였날부터 내려오던 저거니까 김치엔 새우저지 드러가야 한다는
{아주 쓰지요 그건 옛날부터 내려오던 저거니까 김치엔 새우젓이 들어가야 한다는}

10324 @ 그 멸치나 이런 생선 전까 가튼 거슨 거의 안쓰는 썬니까 {그 멸치나 이런 생
선 젓갈 같은 것은 거의 안쓰는 썬니까?}

10324 # 여기는 내륙지역이니까 들썬서요 네 {여기는 내륙지역이니까 덜 썬어요}(네)

10324 # 그리구 저 이 관광을 땡기다보니까는 여기 음식은 여기는 그런걸 가서 해변가에
서 무신 저거 사면 이게 모야 할 정도야 할 정도로 다 모르거든 그러썬니다 그래가
꾸 {그리고 관광을 다니다보니까는 여기 음식은 여기는 그런 것을 가서 해변가에서
무슨 저거 사면 이게 뭐야 할 정도야 할 정도로 다 모르거든}(그렇습니다){그래갖
고}

10324 @ 고속도로 생기고 도로가 이제크게 넓어지면서 이제 마니 드러완는 드러오게 되는
데{고속도로 생기고 도로가 이제 크게 넓어지면서 이제 많이 드러왔는 드러오게 되
는데}

10324 # 저는 한다레 한번씩 요 일똥서 이제 관광을 땡겨요 네 각처로다 해서 인제 거기
에 가치 땡기는데 그 머 이 혼자인쓰니까 모 사가주오는거꾸 업꾸 저거한테 사가지
고 와야 머 새우저지나 무신 조개저지나 이러케 간저리 땡겨 해 머글썰 알아야지
모{저는 한달에 한번씩 요 일똥서 이제 관광을 다녀요}(네){각처로다 해서 이제 거
기에 같이 다니는데 그 뭐 혼자 있으니까 뭐 사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저거한테
사가지고 와야 뭐 새우젓이나 무슨 조개젓이나 이렇게 간조리 된거 해 먹을 줄 알
아야지 뭐}

10326 @ 혹시 저 였나래는 그 소가튼거슬 마리쥬 이를 시키기 위해서 농사짓기 위해서도
{혹시 저 옛날에는 그 소같은 것을 말이쥬 일을 시키기 위해서 농사짓기 위해서도}

10327 @ 길러찌마는 이제 생계수다이나 돈을 벌기위해서 나미 소를 빌려서 키워서 준다거
나 또는 자기가 소를 키워서 크게 해서 또 판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소를 기르는 수
도 일찌 안썬니까{길렀지만 이제 생계수단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소를 빌려서
키워서 준다거나 또는 자기가 소를 키워서 크게 해서 또 판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소를 기르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327 # 그러치요 대개 얻는 사람문 나미꺼를 인제 에 저거 해가꾸 그게 크게 자라서 새
끼 나쿠 그리구 저거허문{그렇지요 대개 얻는 사람은 남의 거를 이제 저거 해갖고
그게 크게 자라서 새끼 낳고 그리고 저거하면}

10327 # 그 자기 소를 맨들고 그런 저거가 이썬꾸 에 엔나레 머 허다모테 밥걱쟁 안하는
 사라미에요 엔나레 그 아주 재사네 한 일부가 되언거든{그 자기 소를 만들고 그런
 저거가 있었고 옛날에 뭐 하다못해 밥 걱정 안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아주 재
 산의 한 일부가 되언거든}

10327 # 그거뚜 시고레서 땅마지기 해서 산다든 소파라서 산꺼든 판거 읍꾸{그것도 시골
 에서 땅마지기 해서 산다면 소팔아서 샀거든 판거 없고}

10326 @ 그러썬니다 소가 아주 큰 미쳐니쥬 그 소를 지베서 기르기 위해서는 그 피료한
 여러가지가 이썬야 되는데 {그렇썬니다 소가 아주 큰 밀천이쥬 그 소를 집에서 기
 르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10326 # 그럼요 {그럼요}

10326 @ 우선 소가 잘 수 인는 고시 이썬야 되는데 그 장소를 모라 그래썬요{우선 소가
 잘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를 모라 그랬어요?}

10326 # 마구칸 {마굿간}

10326 @ 마구칸 {마굿간}

10326 # 예 {예}

10326 @ 그다메 소 한테 그 뭘 미겨야 되지 안썬니까 소를 소 머기가 되는 걸 모라 그러
 썬니까 {그다음에 소 한테 그 뭘 먹여야 되지 안썬니까? 소를 소 먹이가 되는 걸
 뭇라 그랬썬니까?}

10326 # 끄려서 매기는 걸 여물이라 그러구 여물 예{끓여서 먹이는 걸 여물이라 그러고}
 (여물 예)

10326 # 그 모 대개 다 끄려서 매겔썬요 생거를 매기는 저거는 극소수에서 어찌다 급할
 썬게 저거해서 쥬 매겨서 끄릴 시가니 읍꾸 저거 헐썬게 어디 간따오므는 어떠케
 기냥 끄려쥬 수 읍꾸 그러니까 생거를 머게끔 주구서{그 뭇 대개 다 끓여서 먹였지
 요 생거를 먹이는 저거는 어찌다 급할 적에 저거해서 쥬 먹여서 끓일 시간이 없고
 저거 할 적에 어디 갔다오면 어떻게 그냥 끓여쥬 수 없고 그러니까 생 쥬를 머게끔
 주고서}

10326 # 다메 끄리고 그니칸 에 그저네 여기에 그 양식판게는 끄려 매기는 걸 주로 저거
 로 해썬요 {다음에 끓이고 그러니칸 그전에 여기에 그 양식판게는 끓여 먹이는 걸
 주로 저거로 했어요}

10326 @ 그 여물 이제 끄리는 거슬 머 한다 그럼니까 소 그걸 여무리라 그랜썬니까 또 여
 무리쥬 소죽 죽이라 그러구 여무리라구 대개 이제 {그 여물 이제 끓이는 쥬를 머한
 다 그럼니까? 소 그걸 여물이라 그랬썬니까? 또}{여물이쥬}{소죽}{죽이라 그러고
 여물이라고 대개 이제}

10326 @ 금 여물끄린다 이랜썬니까 여무를 끄리는 기구{그럼 여물 끓인다 이랬썬니까? 여
 물을 끓이는 기구}

10326 @ 가마썬 가마소테다가 아 소죽 썬다 이런 마른 안썬썬니까{가마썬 가마썬에다 소
 죽 썬다 이런 말은 안썬썬니까?}

10326 # 아니 그 그러케도 이제 솔죽 썬다구 그러기도 해요 여무리라구 그러기두 하구 소
 죽 썬다구 그러기두 허구{아니 그렇게도 이제 솔죽 썬다고 그러기도 해요. 여물이
 라고 그러기도 하고 소죽 썬다고 그러기도 하고}

10326 @ 여물 끄리려면 집가튼거 이런거나 집가튼거 주로 마른 걸 썬썬요{여물 끓이려면

짚 같은거 이런거나 짚 같은거 주로 마른 걸 썼지요.}

10326 # 그럼요 대개{그럼요 대개}

10326 @ 그걸 이제 그 자르는 기구는 모라 그랜썸니다{그걸 이제 그 자르는 기구를 뭐라 그랜썸니다?}

10326 # 작두 자두 응 예 {작두}{작두}{응}{예}

10326 # 그러니깐 옌나레 저거는 머 {그러니까 옛날에 저거는 뭐}

10326 # 이 곡식류로 매긴다는 거슨 상에 쌀찌어갠꾸서 그 등게 그거 매걸찌모 끄려서두 그냥 여물 쏘여 가꾸서 여물위에다가 저거해써 {이 곡식류로 먹인다는 것은 상에 쌀 지어갠고 그 등게 그거 먹었지 뭐 끓여서도 그냥 여물 쏘여 갠고서 여물 위에다가 저거했어}

10326 @ 여물 끄려 가지고 먹도록 할려면 그른까튼거시 인써야 되는데 그른을 모라 그랜썸니다 {여물 끓여 가지고 먹도록 할려면 그릇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릇을 뭐라 그랜썸니다?}

10326 # 그이 소가 멍는 그른 켁 켁 켁이라 그래썸요 {그 소가 먹는 그릇 켁, 켁, 켁이라 그래요}

10326 @ 궁 켁 {궁, 켁}

10326 # 켁이라구 그르지 보통 이제 저 여기서는 {켁이라고 그러지 보통 이제 저 여기서는}

10326 # 저 여물 여물켁이라구 구리구 {저 여물 여물켁이라고 그러고}

10326 @ 켁이라고 켁 예 예 그러 그러썸니다 예 켁 {켁이라고 켁 예 예 그렇썸니다}

10328 @ 그다미제 소 소를 이제 가지고 보메 노니나 바틀 갈려면 이제 나미 받 가튼데를 지나가게 되면 바테 시머노은거를 먹게 되며는 그걸 몬먹도록 이블 이러케 뭇망는게 인짚썸니다 {그다음 이제 소를 이제 가지고 봄에 논이나 밭을 갈려면 이제 남의 밭 같은 데를 지나가게 되면 밭에 심어놓은 것을 먹게 되면 그걸 못 먹도록 입을 이렇게 뭇 막는게 있잖썸니다?}

10328 # 예예 {예예}

10328 # 그 망이지모 소망 소망 주둥아리가 이러케 {그 망이지 뭇 소망 소망, 주둥아리가 이러케}

10328 # 몬먹찌 소 망이라 그랜썸니다{못먹지}{소망이라 그랜썸니다?}

10328 @ 두리망이라 무슨 두리망이라구두 하구 소망이라구두 하구 예 그래썸요{두리망이라 무슨 두리망이라고도 하고 소망이라고도 하고 예 그랜썸요}

10328 @ 그럼 이제 소를 몬따라 나도록주를 잡고 요 모게다 주를 걸잔썸니다 고 주를 모라 그랜썸니다 {그럼 이제 소를 못 달아 나도록 줄을 잡고 목에다 줄을 걸잔썸니다? 그 줄을 뭐라 그랜썸니다?}

10328 # 고삐 고삐 예예 {고삐}{고삐 예예}

10328 @ 예 그리고 모게 이러케 하는거슨요 나무가튼걸 이러케 만드려서 {그리고 목에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나무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10328 # 글썸 그제 생가기 안나는데 모 {글썸 그제 생각이 안나는데 뭇}

10328 # 예예 그런걸 키워 뵈썸나 모 {그런걸 키워 뵈었나 뭇}

10329 @ 그러면 이제 송아 소 새끼를 모라 그럼니다 {그러면 이제 소 새끼를 뭐라 그럼니다?}

10329 # 송아지쪼 모 {송아지쪼 뭐}

10329 @ 송아지쪼 예예 송아지가 어느정도 이제 크며는 코를 이러케 코에다가 이러케 나무 요러케 된걸 {송아지쪼 예예 송아지가 어느 정도 이제 크면 코를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된 걸}

10328 @ 끼우지요 그러치요 고걸 모라 {끼우지요}{그러치요}{그걸 뭐라}

10328 # 쿛 꼬똥네나 그러나 코똥네 코똥네 코똥레 코똥레 코똥레 응 {쿛 코똥레라 그러나 쿛똥네} {쿛똥네 코똥레} {코똥레}{코똥레}

10328 @ 코똥레를 맨다 그럼니까 코똥레를 낀다 꺾다 꺾다 그러쪼 코똥레 여기 꺾니꺾니까 아 예 {코똥레를 맨다 그럼니까 코똥레를 낀다 꺾다}{꺾다 그러쪼 코똥레 여기 꺾니 꺾니까}{아 예}

10328 @ 소를 농사를 진또록 하려면 우선 기를 들여야쪼 혼려늘 시키고 고런 길드리는 방버븐 어떤 거시 인쑤니까 인는지요 {소를 농사를 짓도록 하려면 우선 길을 들여야쪼. 혼려늘 시키고 그런 길들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는지요?}

10328 # 그러니까는 그저네 저거 할 쪼게는 이 목심 이 키우기 위해서 어 인나레 발귀해가꾸그이 저거해가꾸 나무를 해서 거기다 끌고 오게끔 맨드러쑤요 발귀라해서 그래가꾸 모미 인제 쑤 여기가 구더지고 저거 되면 고 고 고거 쑤 시켜 고러케 해가꾸 인제 여기 머리 모기 히믈 모게 히미 키워주는거쪼 {그러니까는 그전에 저거 할 적에는 이 목힘 키우기 위해서 옛날에 발귀라해갓고 나무를 해서 거기다 끌고 오게끔 만들었어요. 발귀라해서 그래갓고 몸이 이제 쑤 여기가 굳어지고 저거 되면 쑤시켜 그렇게 해갓고 이제 머리 목의 힘을 모으게 힘을 키워주는거쪼 }

10328 @ 금 노늘 갈 때 저 아프로 가라 윈쪼그로 가라 오른쪼그로 가라 이런거뜨를 다 이제 마리나 말로쑤 저 하잔쑤니까 예 그런 거 명령을 할 때 쓰는 말로는 어떤거시 인쑤니까 {그럼 논을 갈 때 저 앞으로 가라 윈쪽으로 가라 오른쪼공로 가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말이나 말로쑤 하지않습니까?}{예}{그런 거 명령을 할 때 쓰는 말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328 @ 가라고 할 때 {가라고 할 때}

10328 # 이러 이런 하른 가는 거구 {이러 이럿 하면 가는 거고}

10328 @ 이러 예 뒤 쪼그로 가라할 때는 {이러 예}{뒤 쪽으로 가라할 때는}

10328 # 어더어더 그래던가 어더어더 어 어더어더 {어더어더 그랬던가 어더어더 어 어더어더}

10328 # 어더 응 고뻬 그 시늬를 해가꾸 고뻬를 툭툭치면서 어더어더 허므는 {어더 응 고뻬 그 시늬를 해갓고 고뻬■를 툭툭치면서 어더어더 하면}

10328 # 윈쪼그로 가는 거구 오른쪼그로 할때는 이거는 반대쪼그로 아니{왼쪽으로 가는 거고} {아 오른쪽으로 가라 할 때는 이거는 반대 쪽으로} {아니}

10328 # 그 윈쪼그로 가면 고뻬자바 땡기면 되니까 {그 윈쪽으로 가면 고뻬 잡아 당기면 되니까}

10328 @ 그다음 그만가라고 서라고 할때는{그 다음 그만 가라고 서라고 할 때는}

10328 # 워워 워워 다 거의 비스타구노 워워 {워워}{워워 다 거의 비슷하군요 워워}

10329 @ 소를 부르는 그 명칭이 암소하고 황소하고 그 차이가 인쑤니까 {소를 부르는 그 명칭이 암소하고 황소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까?}

10329 # 모르겐는데요{모르겠는데요}

10329 @ 그러미제 소를 말할때에 암 수순노드로써 그 크 몸찌비 크고 한걸 뭐라그릅니까
또 암노드로써 그 뿌리 이러케 휘어진다던지 이런 소 또 새끼를 나치 모타는 소 이
런데 대한 이름 {그럼 이제 소를 말할 때에 암 수놈으로서 그 몸집이 크고 한 걸
뭐라 그릅니까? 또 암놈으로서 그 뿌리 이렇게 휘어진다던지 이런 소, 또 새끼를
낳지 못하는 소 이런데 대한 이름}

10329 # 난 또 모르게써 그런건 전혀 소를 키워보지도 안쿠 그냥 저거니깐 {난 또 모르겠
어 그런건 전혀 소를 키워보지도 않고 그냥 저거니깐}

10329 # 부릅때기니 모 황소니 황소는 보통 쓰지 {부릅때기니 뭐 황소니}(황소는 보통 쓰
지)

10329 # 예 황소는 써요 황소 {예 황소는 써요 황소}

10329 @ 보통 황소할 때 그건 순쏘지요 {보통 황소할 때 그건 수소지요?}

10329 # 예 순놈이에요 황소라구 그러구 {예 수놈이에요 황소라고 그러고}

10329 # 암소허머는 암 노미구 {암소하면 암놈이고}

10329 @ 새끼몬난는 소는 {새끼 못낳는 소는?}

10329 # 두쏘 예 둘쏘둘쏘 {둘쏘}(예?) {둘쏘 둘쏘}

10329 @ 둘 응 둘쏘 어 {둘}(응){둘쏘}(어)

10329 # 새끼 몬난는게 {새끼 못낳는게}

10329 @ 그담 소가 한살 때 두살 때 새살 짜리 이런 이르른 업썸니까 {그다음 소가 한 살
때 두 살 때 새살짜리 이런 이름은 없습니까?}

10329 # 음 모르게써요 그거는 {음 모르겠어요 그거는}

10330 @ 혹시 저 소 조은 소를 그 고르는 방법 가튼거를 드러본 적 업썸니까 {혹시 저 소
좋은 소를 그 고르는 방법 같은 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10330 # 업써요 소에 대해서 마니 아라야 알려구 키우던 사라미래야 그거를 알지 {없어요.
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알려구 키우던 사람이래야 그거를 알지}

10331 @ 그러썸니다 예 그다음 또 혹씨 드러 보신 말로써 엔나레는 이제 농사에 고용 된
사람드를 이제 머슴이라고 이르를 부쳤거든요 이제 사시른 그치 모섬 예 노동 제공
하는 그런 사라미지요 머슴도 어떤 여좌를 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다르다고 하
는데 상머스미니 경머스미니 {그렇썸니다 예 그 다음 또 혹씨 들어 보신 말로서 옛
날에는 이제 농사에 고용 된 사람들을 이제 머슴이라고 이름을 부쳤거든요 이제 사
실은}(모섬){예 노동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머슴도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
라서 명칭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상머슴이니 경머슴이니}

10331 # 아 머 그런저거지 예 이른 완전니 저거 할 수 인는 사라몬 상머스미구 그게 {아
뭐 그런저거지 예 일은 완전히 저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머슴이고 그게}

10331 @ 거 머슴사리를 하구 일정한 기가네 받는 그 대까 주로 쌀로써 받던지 그걸 모라
그랬썸니까 {거 머슴살이를 하고 일정한 기간에 받는 그 댓가 주로 쌀로써 받던지
그걸 뭐라 그랬썸니까?}

10331 # 글썸 수옥 {글세 수옥}

10331 @ 수곡 세금 세경 {수곡, 세금, 세경}

10331 # 배경이라 그러는가요 세경 배경 {배경이라 그러는가요?}(세경){배경}

10331 @ 배경이요 수공이라 하는지 배경이라고 {배경이요}(수공이라 하는지 배경이라고)

10331 # 수공은 매칠 이러케하고 쪼금씩 받는거시 수공이고 {수공은 몇일 이렇게하고 조

금씩 받는것이 수공이고}

10331 # 예 하이튼 {예 하여튼}

10332 @ 그 옛날에는 논농사 지을 땅이 업쓰면서 이제 그 지주드려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버비 인습니까 그때 그거슬 소자기라 하지 안습니까 예 그러쵸 그 소자근 어떤 시그로 이루어지고 소작방식게서 또 그 소작 분배하는 조건 요런건 드러 보셨습니까 {그 옛날에는 논농사 지을 땅이 없으면서 이제 그 지주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때 그것을 소자기라 하지 않습니까?}(예 그러쵸){그 소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소작방식에서 또 그 소작 분배하는 조건 요런건 들어보셨습니까?}

10332 # 그 분배하는 저거는 {그 분배하는 저거는}

10332 @ 또 한마지기에 땀씨를 낸다든지 {또 한마지기에 땀 씨를 낸다든지}

10332 # 그런 저거 시고레서 저거할 찌개는 대개 인제 저거시 어디 바시 한나자가리 인따 허며는 보통 천평을 마라는건데 한나자가리면 팔백평에서 천평 고 저거 할찌에 고거를 어드르는데 어 임마 그냥 작정하면 기냥 저거허구서 서루에서 작정하구서 어 들꺼예요 그 무신 아주 공 공인저긴 그제 업꾸 예 예 예 {그런 저거 시골에서 저거할 적에도 대개 인제 저것이 어디 밭이 한나자가리있다 하면은 보통 천평을 말하는 건데 한나자가리면 팔백평에서 천평 고 저거 할적에 그거를 얻으면 뭐 어 임마 그냥 작정하면 그냥 저거하고서 서로에서 작정하고서 얻을꺼예요 그 무신 아주 공인적

10333 @ 푸마씨라는 마리 일썬쪼요 {폼앗이라는 말이 있었지요?}

10333 # 예 폼만씨 {예 폼앗이}

10333 @ 고거는 어떤 시그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333 # 폼만씨는 대개 내가 하루 해주믄 이 사라미 와서 또 하루 해 주는게 그제 푸마시여 서로 이제 그러치 예 {폼앗이는 대개 내가 하루 해주면 이 사람이 와서 또 하루 해 주는게 그제 폼앗이에요. 서로 이제 그러치 예}

10333 # 서로 서로 인제 상이해서 혼자하기 모허구 허니까는 두리 가치 허구 또 여기 가서 가치 해주구 그제 서루 폼만씨예요 예 {서로 서로 이제 상의해서 혼자하기 뭐하고 하나까는 둘이 가치 하고 또 여기 가서 같이 해주고 그제 서로 폼앗이에요 예}

10333 @ 그 폼만씨는 어떤 경우에 주로 하게 됩니까 예 무슨 일을 할 때 또 어떠니를 할 때 {그 폼앗이는 어떤 경우에 주로 하게 됩니까 예 무슨 일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10333 # 시고레서는 그저네 푸만씨래는게 바슬 때도 푸마씨를 허는거구 노네 때도 푸만씨 허는 거구 며 이허는거 대개 혼자하기 모하믄 가치허자 그제 간꾸 하루 너 해주구 하루는 우리꺼 해가지구 이런시그로 벼농사 관계는 벼농사 관계는 농사 관계에서 나오는 말 마리에요 푸만씨라는게 {시골에서는 그전에 폼앗이라는게 밭을 때도 폼앗이를 하는 거고 논에 때도 폼앗이하는 거구 뭐 일하는게 대개 혼자하기 뭐하면 같이하자 그제 갖고 하루 너 해주고 하루는 우리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벼농사 관계는 벼농사 관계는 농사 관계에서 나오는 말 마리에요 폼앗이라는게}

10334 @ 노비라는 마를 드러보신 적 인습니까 뉘쓴다 뉘 녹쓴다 뉘뉘 {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뉘쓴다 뉘 뉘쓴다 뉘뉘}

10334 # 노비라구허믄 그저네 종이라구 그런 거야 종 {노비라고하면 그전에 종이라고 그

런거야 중}

10334 @ 그 노비 말고 뉘 {그 노비 말고 뉘}

10334 # 뉘 예 {뉘}(예)

10334 @ 뉘 노비라고 하는 거시 아마 그 날 날품 하는 사람 노비 뉘 {뉘 뉘이라는 것이 아마 그 날품 하는 사람}(노비){뉘}

10334 # 뉘비 아니 그냥 뉘 {뉘비?}(아니 그냥 뉘)

10334 # 으 녹 {으 녹}

10334 @ 뉘 {뉘}

10334 @ 노웁 뉘 {노웁 뉘}

10334 @ 노블 쓴다 이런 어 {뉘을 쓴다 이런}(어)

10334 # 거 하루 일허구서 하루 품값 뵈는게 그거지 모{거 하루 일하고서 하루 품값 받는 게 그거지 뵈}

10334 @ 그런 다너는 여기서 그 쓰는 걸 드러 본적 인는지요 드릴쎄요{그런 단어는 여기서 그 쓰는 걸 들어 본 적 있는지요} (들었어요)

10334 # 여기서는 그 모과가튼거 심쎄니까 {여기서는 그 목화같은거 심쎄니까?}

10401 @ 예 그니까 해방저네 그 땐 마니 시먼쎄 왜놈드리 그랜쎄요 왜놈드리 강제로 시머라 시머라 해 갇꾸 저거 허니까는 그리구 또 그게 처으메는 그런시기로 행지만두에 모과를 시머갇꾸 무명짜는데 인제 오슬해 입끼 위해서 그러케 해서 집집마다 할 수 인는 그 저거를 거 이 저걸뚜 해쎄쎄 {그러니까 해방전에 그 땐 많이 심었쎄. 왜놈들이 그랬어요. 왜놈들이 강제로 심어라 심어라 해 갇고 저거 하니까는 그리고 또 그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도 목화를 심어갇고 무명짜는데 인제 옷을 해 입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할 수 인는 그 저거를 거 저것도 했었지}

10401 # 근테 머 지끄른 해 지금 가미 그 얘기 허든 예 이그 모 그게 무슨 그런 소리 그런게 이쎄쎄냐는 시게 인제 {근테 뵈 지금 감히 그 얘기 하면 이그 뵈 그게 무슨 그런 소리 그런게 있었쎄냐 식에 이제}

10401 @ 어 모카 재배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기어기 나십니까 {목화 재배,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10401 # 그거 잘 모르는데요 부모드리 행쎄니까 그냥 이 왜놈드리 시켜서 행거예요 그때는 다 아주 고정저그로 열마를 시머서 {그거 잘 모르쎄는데요 부모들이 했으니까 그냥 이 왜놈들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때는 다 아주 고정적으로 열마를 심어서}

10401 @ 모카 그 시머서 어 그 소미 나오기 저네 이 봉우리 가튼거를 명는데 봉우리를 모라구 하시는 지 기어기 나십니까 다래 {목화 그 심어서 그 숨이 나오기 전에 봉우리 같은 거를 먹는데 봉우리를 뵈라고 하시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10401 # 글쎄요 모르겐네 {글쎄요. 모르쎄네}

10402 @ 그담 여기는 사미나 모시가튼거슨 {그다음 여기는 삼이나 모시같은 것은}

10402 # 음 사문 사문 이러케 시머갇꾸 거의 인제 까서 그거루다 이 점시 아주머니드리 여기다 비벼갇꾸 끼 다라케 끄늘 매는건테 그거 가지구서 인제 저거 해갇꾸 베를 짚거구 으{음 삼은 이렇게 심어갇고 거의 이제 까서 그걸로다 아주머니들이 여기다 비벼가지고 기다랗게 끈을 매는 건테 그거 가지고서 인제 저거 해갇고 베를 짚거고}

10402 # 모시는 모시는 여기선 모시를 저거헌 저기 업쎄요 {모시는 모시는 여기선 모시를

저거한 적이 없어요}

10402 @ 사물 이제 껌찌를 다 벗끼구 나면 가운데에 이제 나무거튼게 남찌 안씀니까{삼을 이제 껌질을 다 벗기고 나면 가운데 이제 나무같은게 남지 않습니까?}

10402 # 저립 저립 응 저리비라구 그랜써 {저립}{저립}{응 저립이라고 그랬어}

10402 @ 삼이플 가지고 담배 피워 보신적 인씀니까 {삼잎을 가지고 담배 피워 보신적 있 습니까?}

10402 # 그거 못피게 했자너 대마 대마초 저거 퍼 보지두 아날찌만두 그거 못피게 그거 {그거 못피게 했자너 대마 대마초. 저거 퍼 보지도 않았지만도 그거 못피게 그거}

10404 @ 그러니까 길쌈가튼건 잘 모르시겔꾸뇨 {그러니까 길쌈 같은 건 잘 모르시겔꾸뇨}

10404 @ 베짜고 하는거 모르쥬 {베짜고 하는거 모르쥬}

10404 # 그저네 저 부모드리 하는 걸 봐긴 봤찌 베 짜구 허는 거이 {그전에 저 부모들이 하는 걸 봤긴 봤지 베 짜고 하는 거}

10404 @ 보기만 하셧찌 그 명칭이라든지 그러는 거슨 잘 모르시겔꾸뇨 몰라요{보기만 하 셧지 그 명칭이라든지 그러는 것은 잘 모르시겔꾸뇨}{몰라요}

10407 @ 예 뽕나무 {뽕나무}

10407 # 여기 어 그건 시뎡썩썩썩 예 그저네 마니 그거 시뎡썩썩썩 {여기 그건 심었었어 요}{예}{그전에 많이 그거 심었었어요}

10407 @ 그 뽕나무 그 열매 {그 뽕나무 그 열매}

10407 # 오디 오디 예 {오디}{오디 예}

10408 @ 그담 뽕 뽕니플 먹꼬 사는 그 벌레 그게 몸니까 {그담 뽕 뽕잎을 먹고 사는 그 벌레 그게 뭇니까?}

10408 # 그거 모르겔썩 머 인제 누에 아니면 누에 응 누에 {그거 모르겔어 뭇 이제 누에 아니면}{누에}{응 누에}

10409 @ 누에 누에 치는 걸 보셧씀니까 {누에 누에 치는 걸 보셧습니까?}

10409 # 누에 치는거 쪼끄메서 받찌 {누에 치는거 쪼금해서 봤지}

10409 @ 구체저그로는 잘 모르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십니까?}

10409 # 그게 구체저그로 몰라 자를 세번 자야만 그게 누에고치 뎡든대는거야 그런거만 알 알고 {그게 구체적으로 몰라 잠을 세 번 자야만 그게 누에고치 만든다는거야 그 런거만 알고}

10409 @ 그 어 고치소게 드러인는게 몸니까 {그 고치 속에 들어있는게 뭇니까?}

10409 # 번데기 예 예 {번데기}{예 예}

10410 @ 누에 고치에서 {누에 고치에서}

10410 @ 뽏븐 실로 만든 처늘 {뽏븐 실로 만든 천을}

10410 # 무명 무명 {무명}

10410 @ 모과를 가지고 한거는요 {목화를 가지고 한거는요?}

10410 # 글썩 응 아 고치 아 고치에서 저거한거 {글썩 응 아 고치 아 고치에서 저거한 거?}

10410 @ 명 명지 명주 {명 명지 명주}

10410 # 명지라구 그래 아니 명주라구 그랜나 {명지라고 그래 아니 명주라고 그랬나?}

10412 @ 에 온 만드는 거나 바느질하는 건 잘 모르시겔꾸뇨 {옷 만드는 거나 바느질하는 건 잘 모르시겔꾸뇨}

10412 # 모르지요 {모르지요}

10501 @ 그 채소 재배에는 뿌리로 머글 수 인는 채소로는 어떤거시 인씀니까 여기서 기르는 거 중에서 {그 채소 재배에는 뿌리로 먹을 수 있는 채소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기르는 거 중에서}

10501 # 뿌리 당근 당근 예 무 그리구 어릴 때 생가기 또 안나는데 생가기 안나 {뿌리 당근}(당근 예){무 그리고 어릴 때 생각이 또 안나는데 생각이 안나}

10501 @ 그다음에 잎줄기 이피나 줄기를 멍는 채소는 어떤거시 인씀니까{그다음에 잎줄기 잎이나 줄기를 먹는 채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501 # 우선 배추가 인꾸 {우선 배추가 있고}

10501 @ 또 쌈싸 멍는거 {또 쌈 싸 먹는거}

10501 # 생추 예 생 생추 예 {상추}(예){생 생추}(예)

10501 @ 그다음에 무에서 나오는게 인쪼 {그 다음에 무에서 나오는게 있쪼?}

10501 # 열무 {열무}

10501 @ 씨래기 만드는 거 그걸 모라고 그럼니까 {씨래기 만드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럼니까?}

10501 # 뿌리 원 뿌부늘 {뿌리 윗부분을}

10501 # 무 쓰래기라 그러지 모 여기 그냥 여기선 대게 {무 시래기라 그러지 뭐 여기 그냥 여기선 대개}

10501 @ 무 청이라는 말도 씀니까 {무청이라는 말도 씀니까?}

10501 # 무총은 이러케 이 곧 저건 씨가 인저 저거헐 찌게 무총 나왈따 그러지 무청 글썽에 쫄때 쫄때가 나와서 그제 이제 꼬치 피구 무씨가 안찌 {무총은 이렇게 이 곧 저건 씨가 이제 저거헐 적에 무총 나왔다 그러지 무청 글썽 종대 종대가 나와서 그제 이제 꽃이 피고 무씨가 앓지}

10501 @ 음 또 바테서 나오는 거스로는 이플 멍는 거 그 양파 말고 가는거 인쪼 어 간장 가튼데 이 씨러서 너키도 하고 {음 또 밭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잎을 먹는 거 그 양파 말고 가는거 있쪼. 간장 같은데 썰어서 넣기도 하고}

10501 # 파 파 파라고 그럼니까 꽤 파 파 그거 여러가지가 인는데 파하구 우리 조기 시문 건뚜 부추라구 해야되나 모라구 해야데나? 부추 예예{파} (파 파라고 그럼니까? 꽤 파){파 그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하고 우리 저기 심은 것도 부추라고 해야되나 뭐라고 해야되나}(부추 예예)

10501 @ 그담에 썩가치 생긴걸로는 {그다음에 썩같이 생긴걸로는}

10501 # 썩까시 인쪼 썩까시라구 {숙갓이 있쪼 숙갓이라고}

10501 @ 그담 이제 예 석유 끼름 냄새가치 나는 거 좀 무레서 물괴인테서 나오는게 매나 립니까 미나립니까 {그다음 이제 석유 기름 냄새같이 나는 거 좀 물에서 물 고인테서 나오는게 매나리입니까 미나리입니까?}

10501 # 아 미나리 예 {아 미나리}(예)

10501 @ 그담에 열매를 멍는 채소로는 무어시 인씀니까 열매 {그다음에 열매를 먹는 채소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

10501 @ 채소 중에 {채소 중에}

10501 # 예 우선 매운거 {예, 우선 매운거}

10501 # 고추 예 {고추}(예)

10501 @ 그다으메 {그다으메}

10501 # 갑짜기 저거 허니까 생각뚜 안나네 {갑자기 저거 하니까 생각도 안나네}

10501 @ 그 보라색 나는 게 인쪼 요리케 열매가 요리케 바나나 가치 생긴 열매 여는거요
 {그 보라색 나는 게 있쪼,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바나나 같이 생긴 열매 여는거요}

10501 # 생각이 안나 가진가 가잔가 가지 간점치 가지 가지 가지 응 가지 {생각이 안나}
 (가진가 가잔가 가지 간점치){가지}{가지}{가지 응 가지}

10501 @ 그다메 이제 녁꿀가치 빠더 나가면서 이러케 둥그러케 여는거 인쪼 안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녁꿀같이 뻗어 나가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여는게 있지 않습니까?}

10501 # 수박 {수박}

10501 @ 수박또 인꼬 차매 또 차매도 인꼬 반찬으로 해멍는 건 차매 말고 호박 호박인꼬
 요 외라 그럼니까 오이라 그럼니까 {수박도 있고}(참외) {또 참외도 있고 반찬으로
 해먹는 건 참외 말고} (호박){호박 있고요 외라 그럼니까 오이라 그럼니까?}

10501 # 오이 오이 예 {오이}(오이 예)

10504 @ 요리 하는거는 그러코 나물 나물 산 나물 요 요근처 사네서 나는 나물로는 어떤
 거서 인는지요 {여리 하는 것은 그렇고 나물 산나물 요근처 산에서 나는 나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10504 # 예 사초 싹기래는게 인꾸 추가 인꾸 솔 혼넙 혼니빈가 그 이쭈 먹는게 이쑤요 그
 나무에서 이 싹나오는 거 그거 혼니비라구 이쭈 멍는게 그게 인꾸 예그리곤 생가기
 안나는데 {응 사초 싹이라는게 있고 추가 있고 솔 혼넙 혼니빈가 이쭈 먹는게 있어
 요 그 나무에서 싹나오는 거 그거를 혼니비라고 이쭈 먹는게 그게 있고}(예){그리
 고는 생각이 안나는데}

10504 @ 비듬 비드미란 나무리 인쑤니까 비듬하고 쇠비듬하고는 다릅니까 쇠 쇠비듬 그
 {비듬 비듬이란 나무리 있습니까 비듬하고 쇠비듬하고는 다릅니까? 쇠비듬}

10504 # 천비드미 인꾸 쇠비드미 인는데 참비드름 멍는데 쇠비드름 잘 안머거요{천비듬이
 있고 쇠비듬이 있는데 참비듬은 먹는데 쇠비듬은 잘 안먹어요}

10504 @ 고사리는 여기 잘 안나옵니까 {고사리는 여기 잘 안나옵니까?}

10504 # 고사리 나오지요 고비 고사리 {고사리는 나오지요 고비 고사리}

10504 @ 두릅 두릅또 이쑤요 더더근요 더덕뚜 인는데 하두들 마니 캐먹꾸 저거해서 또 잔
 디며 그런거뚜 인꾸 도라지 도라지 달 달래 달농개 달래 그또 이쑤요 달래래는거
 냉이는 냉이난 일찌감치 나오는 건데 저 이 판거 보다 점 먼침 이런 지여게 이런데
 망나는 거야 냉이가 예 {두릅?} (두릅도 있어요)(더더근요?)(더덕도 있는데 하도들
 많이 캐 먹고 저거해서){또}(잔디 머 그런것도 있고){도라지}(도라지){달 달래 달농
 개}(달래 그것도 있어요 달래라는거){냉이는}(냉이는 일찌감치 아오는 건데 판거
 보다 좀 먼저 이런 지역에 이런데 막나는 거야 냉이가){예}

10504 @ 혹시 그 질갱이라는 거 예 질갱이 아주 옛날엔 그 그 먹던거야 이런 데서 이런
 이런데 다 나요 마니나지요 도처에 예 근데 그거뚜 나는데만 나 예 이름 {혹시 그
 질갱이라는 거}(예 질갱이 아주 옛날엔 그 먹던거야 이런 데서 이런 이런데 다 나
 요) {그거 많이 나지요 도처에}(예 그것도 나는데만 나 예){이름}

10504 @ 그 이르미 질갱이 말구 다른 거뚜 인쑤니까 길짱구라든지 맵쟁이 맵쟁이 그런거
 몰라요 여기서는 질갱이 질갱이지 {그 이름이 질갱이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길
 장구라든지 맵쟁이}(맵쟁이 그런거 몰라고 여기서는 질갱이 질갱이지)

10508 @ 반찬 조리는 또 안맞겠고 전부다 부인드리 얘기 해야할꺼 가튼데 {반찬 조리는 또 안맞겠고 전부다 부인들이 얘기 해야할 것 같은데}

10516 @ 여기 전통저그로 내려오는 술로는 어떤 거시 인썸니까{여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술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516 # 전통이 대개 막걸리죠 막간리 {전통이 대개 막걸리죠 막걸리}

10516 @ 막 막간리 막간리 {막}{막걸리}{막걸리}

10607 @ 고걸 머라 그럼니까 지금 요리케 생긴거집 썰 위에 용마루 아니요 그럼 그 그부 부늘 요리 요런시그로 되인는거요 {그걸 뭐라 그럼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거 집 제일 위에 }(용마루){아니요}{그럼}{그 부분을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거요}

10607 @ 지붕이라 그럼니까 지붕이라 그럼니까 지붕 지붕 지붕 응 지둥이 아니구 지붕이야 지붕 예 기둥은 여기 바치든 그 인는거시 기둥이구 그러치요 예 예{지붕이라 그럼니까? 지붕이라 그럼니까?} (지붕){지붕 지붕 지붕}(응 지둥이 아니고 지붕이야){지붕 예}{기둥은 여기 바치면 그 있는 것이 기둥이고}{그러치요 예 예}

10607 @ 그 지붕 미테 이제 그 가르짜그로 큰 나무를 이러케 해서 {그 지붕 밑에 이제 그 가로짜으로 큰 나무를 이렇게 해서}

10607 # 그게 그게 대들보 {그게 그게 대들보}

10607 @ 대들뽀지요 응 {대들보지요}(응)

10607 @ 그담 이제 지붕에서 부터 이 요만큼 둥근 나무를 간따가 쪽쪽 이러케 걸치지 안썸니까 서까래 서까래 예 예 {그다음 이제 지붕에서부터 이 요만큼 둥근 나무를 갖다가 쪽쪽 이렇게 걸치지 않습니까?}(서까래){서까래 예 예}

10607 @ 으 서까래 이제 서까 바카트로 나온 부분 이게 지베서 요리케 서까래가 요리케 응 요리케 이쓰 이쓰며는 요요 부부늘 이걸 모라고 그럼니까 {으 서까래 이제 바깥으로 나온 부분 이게 집에서 이렇게 서까래가 이렇게}(응){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을 이걸 뭐라고 그럼니까?}

10607 @ 그 바깥 서까래가 이러케 보이지요 아니 글썄 {그 밖에 서까래가 이렇게 보이지요}(아니 글썄)

10607 # 으 기냥 모 저 그런데 그 생가기 아니 기냥 서까래 서까래 이 표혀니지 아우 머 추녀라던지 아 추녀{그냥 뭐 저 그런데 그 생각이 아니 그냥 서까래 서까래 이 표현이지}{뭐 추녀라던지}{아 추녀}

10607 # 예예 추녀 추녀 예예 그 꼬틀 추녀꼬시라구 그러는 저저거요 그러그러그러치 되썄요 추녀 마저 {예예}{추녀}{추녀 예예}{그 끝을 추녀 끝이라고 그러는 저거예요}{그렇지그렇지}{뵈어요 추녀 맞어}

10603 @ 그 이제 요 위에 부부네다 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제 지비 종류가 다르지 안썸니까 {그 이제 요 위에 부분에다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집이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10603 @ 그 지프로 가지고 이 여꺼서 하는 걸 그 여꺼서 만든 지비되머는{그 짚으로 가지고 엮어서 하는 걸 그 엮어서 만든 집이 되머는}

10603 @ 그 지븐 초가지비지요 초가지비쥬 그 초가 지비 지붕을 언줄 때에 지플 요리케 해서 넓찍하게 이러케 해서 이러케 언꼬 예 이응 여꺼서예요 이응 으응이라구 예 {그 집은 초가지비이지요}{초가지비쥬}{그 초가 집의 지붕을 엮을 때에 짚을 이렇게 해서 넓찍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엮고}{예 이응 엮어서예요}{이응}{이응이라고}

{예}

10603 @ 우선 그걸하고 제일 가운데에 이제 이러케 터러가지고 응 이제 산깎가치 써우지요 {우선 그걸하고 제일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털어가지고 응 이제 삿갓같이 써우지요}

10603 @ 고건 모라 그럼니까 용 용마루 용 용마루 에 이 저 매뉘에 이 저거하는거시 용마루구 그러썬니까 {그건 뭐라 그럼니까? 용}(용마루){용 용마루}(이 저 맨 위에 이 저거하는 것이 용마루고){그렇습니까?}

10603 # 그러구 에 제주도나 가야 그 이러케 이러케 부뜨러 매찌 전부 여기서는 머 별루 부뜨러 매는게 업썬썬요 그러쵸 그 쪼근 바라미 부러서 워낙 그 바라미 췌니까{그렇고 제주도나 가야 그 이렇게 이렇게 붙들어 매지 전부 여기서는 뭐 별로 붙들어 매는 게 없었어요}(그렇쵸){그 쪽은 바람이 붙어서 워낙 그 바람이 췌니까}

10603 # 오십빌년도에 {오십일년도에}

10603 # 제주도 제일 훈련소에 이러케 갇떠니 {제주도 제일 훈련소에 이렇게 갇떠니}

10603 # 짐마당이 이러케 구께 해가꾸 아주 망을 맨들다시 이러케 여그 십십짜루 {짐마당이 이렇게 굵게 해갓고 아주 망을 만들 다시 이렇게 여기 십자로}

10603 # (예) 그러케 해서 요버네 가따가 아 그케 다 어디로 간네 이러니깐{예 그렇게 해서 요번에 갔다가 아 그케 다 어디로 갔어? 이러니까}

10603 # 에 아이그 이 옛날 얘기하시네 그걸 어떻게 아시유 그래요 {아이고 이 옛날 얘기하시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래요}

10603 # 아 내가 그저네 여기 이썬썬니까 제일 훈련소 여기 이동은 점지 논산서 이리오면서 여그 와가꾸 내가 훈련바단는데 그니까 {내가 그전에 여기 있었으니까 제일 훈련소 여기 이동은 잠시 논산서 이리오면서 여기 와갓고 내가 훈련 받았는데 그러니까}

10603 # 아 그때는 이썬썬 지금 업썬썬 업썬썬 그리자나 {아 ㅜ때는 있어요. 지금 없어요 없어요 그러잖아}

10603 @ 전화 받 저나 왓썬니다 에 우리 지베 {전화 받 전화 왔썬니다}(에 우리 집에?)

10603 @ 그러니까 그때가 아주 옛날이 되서 에 {그러니까 그때가 아주 옛날이 되서}

10603 # 그때 가니까는 아주머니드리 이젠 물장구를 해갓꾸 지구 땡기드라구 예예 그러던 시덴데 그거꾸 무러보구 해떠니 에이 인제는 {그 때 가니까는 아주머니들이 이젠 물장구를 해갓고 지고 다니더라고}{예예}{그러던 시덴데 그것도 물어보고 했더니 에이 이제는}

10603 # 아직 우리 여기는 가테 그 그런 용마루 이러케 해꾸 그냥 쭈욱 이러케 허구 저거해 그 얘기는 쭈욱 해떠니 그 구경하썬네요 그러면서 금 그러니까 아직 옛날 촌 그 보관하는 거시 이떠라구 박물관 박물관 민속박물관 거기가서 보면 다 봄니다 그케 다 인썬니다 그러더라구 {아직 우리 여기는 같아. 그런 용마루 이렇게 하고 그냥 쭈욱 이렇게 하고 저거해. 그 얘기는 쭈욱 했더니 그 구경하썬네요. 그러면서 아직 옛날 촌 그 보관하는 것이 있더라고}{박물관}{박물관}{민속박물관}{거기가서 보면 다 봄니다 그케 다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10603 # 아 {아}

10603 @ 그 기와를 기와를 언즐때에 하나는 덮고 하나는 드러가고 이런 시그로 되지 안썬니까 {그 기와를 얹을 때에 하나는 덮고 하나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

까?)

10603 @ 고 고거는 위에 덮는 거타고 안에 드러가는 걸 하고 이르미 다르죠 나 몰라요 그거는 그러며는 {그 그거는 위에 덮는 것하고 안에 들어가는 것하고 이름이 다르죠?}(나 몰라요 그거는){그러면은}

10603 @ 이게 머 저 복잡하게 인는데 지블 직접 지어보거나 이러케 해야 되지 ㅎㅎㅎ 요러케 해가지고는 안되겠군요 {이게 뭐 저 복잡하게 있는데 집을 직접 지어보거나 이렇게 해야되지?}(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군요)

10607 @ 예 지브 각부분 명칭 이제 요 위열 뿌부를 머라 그럼니까 요 요조글 {집의 각 부분 명칭 이제 이 위 부분을 뭐라 그럼니까? 이 이 쪽을?}

10607 # 천반 예 천장 천장 {천반}(예?){천장 천장}

10607 @ 응 요 요 부부는데요 {응 이 이 부분은요?}

10607 # 그 벽이지 모야 벽 {그 벽이지 뭐야 벽}

10607 @ 응 배름빠기라는 말도 쓰 썼습니까 예 배름빠기라구 그 엔나렌 그랜는데 지꾸문 벽 {응 배름박이라는 말도 썼습니까}(예 배름박이라고 그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벽)

10607 # 기냥 그러구 마리아 왜 응 그담 이제 미테 여기 그 까는 거슨 엔나레는 기름 무긴걸 뭐가 까란찌 안씀니까 요 뒤 이 미테 지금 이 비닐 비닐 이쥬 예 지직 지지기라 그랜지 여 산 저 노인네드리 이러케 맨드러 {그냥 그러고 말이야 왜?}(그다음 이제 밑에 여기 그 까는 것은 옛날에는 기름 먹인걸 뭐를 깔았지 않습니까? 이 뒤 이 밑에 지금 비닐 있죠?){지직 지직이라 그랬지 산 저 노인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10607 # 깔구자 그 그거말구요 그 종이 푸를 발라가지고 응 장관 장관{깔고자}(그거 말고 요 그 종이 풀을 발라가지고){응 장관}(장관)

10607 @ 응 장관 미테 장관 깔기 저네 예 보통 그 닥종이나 신문지를 가지고 이제 한벌 미테 혹 위에다가 까는 거 저 부치는거 인찌 안씀니까{응 장관 밑에 장관 깔기 전에 보통 그 닥종이나 신문지를 가지고 이제 한 벌 밑에 혹 위에다가 까는 거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

10607 # 마분 마분지 가마니써봐 그걸 모라 그러나 이름만 묻는거지 지금 예예 그게 마분지지 아마 마분지 누르스름하구 짝분는거 {마분 마분지 가만있어봐 그걸 뭐라 그러나 이름만 묻는거지 지금?}(예예){그게 마분지지 아마 마분지 누르스름하고 짝 붙는거}

10607 @ 어 고 고 미테 아니 저 종이를 바르는 걸 글썸 {그 밑에 아니 저 종이를 바르는 걸} (글썸)

10607 # 그 종이 이르를 마라는 거구 종이 이름 말구 {그 종이 이름을 말하는 거고}(종이 이름 말고)

10607 @ 아 그러케 바르는 걸 초도비라 그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초배 초배 {그렇게 바르는 걸 초둑이라 그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초배){초배}

10607 @ 예 예 초배 할 때에 푸를 저 무쳐가지구 고 이러케 하는 그 도구 인짚습니까 고 걸{예 초배 할 때에 풀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도구 있잖습니까? 그걸} 10607 # 모라 그랜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0607 @ 되지 터리나 이런걸 가지고 만든 거 그 머 여기서 맨날해찌 저거허지 아는데 {돼지 털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든 거}(그 머 여기서 맨날했지 저거하지 아는데)

10607 @ 비알 귀알이라든지 이런 마른 몸뜨려 보셨습니까 {비알 귀알이라든지 이런 말은 못들어 보셨습니까?}

10607 # 예 업썸썸썸. 예{예 없었어요. 예}

10607 @ 그러며는 이제 그 장파늘 깔며는 약간 위로 요기 요러케 요러케 딱 끈는게 아니고 약간 올라오도록 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 장판을 깔면 약간 위로 여기 이렇게 딱 꿰는게 아니고 약간 올라오도록 하지요?}

10607 @ 그럼 이제 이 벽바른 건하고 그러치 예 예 예 {그럼 이제 이 벽바른 것하고}(그렇지 예예예)

10607 @ 요걸 요 부부늘 또 요러케 해서 그 바르는 거 인찌 안썸니까 고 부부늘 모라 그럼니까 {이걸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해서 그 바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뭐라 그럼니까?}

10607 # 몰라 그런거 예 그런걸 보면 해봐썸야 이르믈 알구 가르쳐 드리지 인제 굽또리란 마른 굽또리가 이 저거 저러니 굽또리 이거 {몰라 그런거 그런걸 보면 해봤어야 이름을 알고 가르쳐 드리지}(이제 굽도리란 말은){굽도리가 저거 저러니 굽도리 이거}

10607 # 이 굽또리라 그러지 {이 굽도리라 그러지}

10607 @ 요 요 부부네 응 응 요기 이 방빠닥 꺼정 건꾸 해간꾸 그 드러가는 그 저거를 굽또리라 허는 거 {이 이 부분에}(응 여기 이 방빠닥까지 걷고 해갖고 그 들어가는 그 저거를 굽도리라 하는 거)

10607 @ 그담 이제 문도 어 지금 이제 저거는 여다지라구 아니 저 미다지쥬 밀고 닫꼬 하는 거 {그다음 이제 문도 지금 이제 저거는 여단이라고 아니 저 미단이쥬 밀고 닫고 하는 거}

10607 @ 엔나렌 여다지지 안썸니까 {옛날엔 여단이지 않습니까?}

10607 # 예 이러케 이런거 여다지 {예 이렇게 이런거 여단이}

10607 @ 해해 네 지그믄 장서기 손자비로 되인데 엔나렌 똥구러케 되어 인찌 예예 고건 모라구 그랜썸니까 {네 지금은 장석이 손잡이로 되었는데 옛날엔 동그랗게 되어 있지}{예예}{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607 @ 문 문꼴기 문꼴 문꼴 문꼴기 문꼬리 문꼬루 문꼴기 응 문꼬리라구 그러지 문꼬리라 그랜썸썸 {문 문꼴기 문꼴}(문꼴){물꼴기 문꼬리 문꼬루 문꼴기}(응 문꼬리라고 그러지 문꼬리라 그랬지요}

10607 @ 그면 무늘 지금 저런 이러케 올려서 빼게 되인썸썸 엔나레는 예예예 요 요러케 드러가서 또 요러케 해서 뽕게 되인썸썸니까 요걸 모라 그랜썸니까 연장 {그러면 문을 지금 저런 이렇게 올려서 빼게 되었지요 옛날에는}{예예예}{이렇게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해서 뽕게 되었썸썸니까?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연장?}

10607 @ 돌 돌쩌기 뽕쪽 돌쩌기 예 돌쩌기 돌쩌기라 그래 {돌 돌쩌기 뽕쪽}(돌쩌기){돌쩌기}(돌쩌기라 그래)

10607 @ 그담이제 저쪽 지나갈래면 이제 무니 이러케 쪼끔 이러케 올라 올라온 부분 인찌 안썸니까 {그다음 이제 저쪽 지나가려면 이제 문이 이렇게 쪼끔 이렇게 올라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10607 # 문쩌방 문쩌방 예예 {문지방}(문지방 예예)

10607 @ 그 문 지금 문 다다 바라 요요 요문 아 이건 다 그런네 {그 문 지금 문 닫아 봐

라 이 이문 이건 다 그렇네}

10607 @ 요러케 요러케 이 격짜가치 요러케 해논걸 그 고걸 문 머라 그러쥬 건 문살 문살 {이렇게 이렇게 이 격자같이 이렇게 해놓은걸 그걸 문 뭐라 그러쥬?} (문살) {문살}

10607 @ 예 문살 문 문살 문살 문살 예예 {예 문살 문 문살}(문살){문살 예예}

10607 @ 그다미제 저 저거는 이제 큰데 그냥 약간 작게 작게 그 뚜러노은거 창문 창문 말
구요 엔나렌 지베 저러케 지금까지 창무를 만들지 안코 약간 요만큼 해서 이러케
뚜러서 방안만 환하게 하도록 {그다음 이제 저거는 이제 큰데 그냥 약간 작게 뚫어
놓은거 창문 말고요. 옛날엔 집에 저렇게 지금같이 창문을 만들지 않고 약간 이만
큼 해서 이렇게 뚫어서 방안만 환하게 하도록}

10607 @ 자다가 모 두드린다 이런말 일쥬 {자다가 뭐 두드린다 이런말 있쥬?}

10607 # 봉창 봉창 하하하 그러니까 아주 모르겐는데 {봉창}(봉창){하하하 그러니까 아주
모르겠는데?}

10607 # 너무 그 이제는 그런게 업꼬 안쓰니까 {너무 이제는 그런게 없고 안쓰니까}

10607 # 지금 절문 사람들한테 그거 무르면 하나 몰라 가튼 우리 마리레두 사용하지 아느
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그거 물으면 하나 몰라 같은 우리 말이레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10607 @ 이 방 요러케 쑥 드러간 부부늘 뭐라 그럼니까?{이 방 요렇게 쑥 들어간 부분을
뭐라고 그럼니까?}

10607 @ 글썸 요러케 된 요, 요 움팍 드러간 부분뇨. 방{글썸 요렇게 된 요, 요 움팍 들어
간 부분요. 방}

10607 # 구 방구석? 예, 예{구, 방구석? 예, 예}

10607 @ 방꾸석 요쪽 아네서 보면 방꾸서긴데요, 바깥에서 보며는 이 부부니 머가 됩니
까?{방꾸석 요쪽 안에서 보면 방꾸석인데요, 바깥에서 보며는 이 부분이 뭐가 됩니
까?}

10607 @ 머 멀 도라간다. 모통이, 모팅이, 모통이.{머 멀 돌아간다. 모통이, 모팅이, 모통
이.}

10607 # 아이구{아이구}

10607 @ 모팅이, 모통이, 모통이.{모팅이, 모통이, 모통이}

10607 # 아, 문, 모통이라 그러지. 모통이.{아, 문, 모통이라 그러지. 모통이}

10607 @ 그, 지그문 이제 업찌마는 엔나레는 지블 진꼬 집 바깥에 이제 이러케 흘기나 이
외부로부터 몬뜨러 오도록 이러케 썩썩찌 안씀니까? 둘러서 고걸 뭐라 그럼니까?
답...{그, 지금은 이제 없지마는 옛날에 집을 짓고 집 바깥에 이제 이렇게 흙이나
이 외부로부터 못 들어 오도록 이러케 썩, 썩지 않습니까? 둘러서. 고걸 뭐라 그럼
니까? 답..}

10607 # 그 울타리 아니야?{그 울타리 아니야?}

10607 @ 그 나무 가튼거슬 가지고 싸안썰 때는 그게 울타리가 되지요.{그, 나무 같은 것
을 가지고 썩았을 때는 그게 울타리가 되지요.}

10607 @ 그런데 이제 흑 흑뻑 가튼 걸 가지고 만드러썰 때는{그런데 이제 흙, 흙벽 같은
걸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10607 @ 다무락, 담부락, 담벼락{다무락, 담부락, 담벼락}

10607 # 담뻐락. 담뻐락, 담뻐라기 되겠군요요?{담벼락. 담벼락, 담벼락이 되겠군요요?}

10607 # 그래 여기서는 그거이 잘 안쓰는. 그런거두 읍꾸 그런거 잘 안써{그래 여기서는 그거이 잘 안 쓰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 잘 안 써.}

10607 @# 문도 지그른 이러케 돼 인찌만 엔나레는 이 나무나 풀가튼걸 이래가지고 여런 따 다닫따 헐쥬. 그걸 무슨 무니라 싸리문 싸리문{문도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 나무나 풀 같은 걸 이래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했쥬. 그걸 무슨 문이라 싸리문. 싸리문}

10607 @ 요거 뭐:라 그럼니까? 사람보는거{요거 뭐라 그럼니까? 사람 보는 거}

10607 # 색경이라 그랜쥬. 예저네 색경 엔나레{색경이라 그랜쥬. 예전에 색경, 옛날에}

10607 @ 그 자근게 인꼬 몸 전체가 보이는게 인꼬 고 이르미 좀 다르지 안썸니까? 얼굴만 보도록 요러케 인는게 인꼬{그 작은 게 있고 몸 전체가 보이는 게 있고. 고 이름이 좀 다르지 안썸니까? 얼굴만 보도록 요렇게 있는 게 있고}

10607 # 그 인제 엔나레 저거 할 썸게는{그 이제 옛날에 저거 할 적에는}

10607 # 색경이라 헐는데 지그른 거우리라 그러자너? 거울. 예{색경이라 헐는데 지금은 거울이라 그러잖아? 거울. 예}

10607 @ 체경이라는 말 드려 보썸썸니까? 체경은 큰거 저기 여자드리{체경이라는 말 들어 보썸썸니까? 체경은 큰 거. 저기 여자들이}

10607 # 머 화장할 저거할 썸게 모미 다 보이니까 그럼 다 그제 인제 체경이구{뭐, 화장할, 저거할 적에 몸이 다 보이니까 그럼 다 그제 이제 체경이고}

10607 @ 그러든 쥬그만항거 인쥬? 주머니에 너어가서 다니능거. 자궁거{그러면 쥬그만한 것 있쥬? 주머니에 넣어 가져 다니는 거. 작은 거}

10607 @ 그거 색경은 그런걸{그거 색경은 그런 걸}

10607 # 글썸 예에 모르젠는데. 응 쥬그만한거 고건 색경이라 그랜쥬. 예예{글썸, 예에, 모르겠는데. 응 쥬그만한 거 그건 색경이라 그랜쥬. 예예}

10607 @# 쥬곰 크면 거우리라 예 이렇 걸 거우리라 그러구{쥬곰 크면 거울이라 예, 이런 걸 거울이라 그러고}

10607 @# 명경이라고 하는 건또 드려보썸썸니까 명경이라구두 그런마리 이썸요. 거우를 말하능 거. 열, 열구리 이러케 보이도록 머니 보이도록{명경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 보썸썸니까? 명경이라고도 그런 말이 있어요. 거울을 말하는 거. 열, 얼굴이 이렇게 보이도록 면이 보이도록}

10607 # 몸 전체가 다 보이능게 체경이고. 예{몸 전체가 다 보이는 게 체경이고. 예}

10607 # 그건 뭐 지역마다 또 달라. 그건 말하능게 저거하니까{그건 뭐, 지역마다 또 달라. 그건 말하는 게 저거하니까.}

10610 @ 그 머 육십년대나 오십년대만 해도 어 나이 마는 사람드리 이 지베 타리나지 안토록 하기 위해서 집 아네도 여러가지 그 비는 데가 마니 이썸지 안썸니까?{그 머 육십년대나 오십년대만 해도 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 안에도 여러가지 그 비는 데가 많이 있었지 안썸니까?}

10610 @ 그건 이제 그 각 그 장소마다 시니 일파고 생각헐꺼든요. 아, 그, 그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각 그 장소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 그, 네. 그래서}

10610 @ 부어게서 인는 모시는 시늘?{부엌에서 있는 모시는 신을?}

10610 @# 조앙시니라 마를 들. 아, 주앙 주앙 주앙 주앙신 예예 그 인제 부어케도 시니

이썬서 주앙신{조앙신이라는 말을 들. 아, 주앙, 주앙, 주앙, 주앙신. 예예 그 인제 부엌에도 신이 있어서 주앙신}

10610 # 굴뚜게 여페 뒤에 인능건 모 머라 그러더라. 그제 뒤에{굴뚝에 옆에, 뒤에 있는 건 뭐라 그러더라. 그제 뒤에}

10610 @# 그 터쥔, 터주, 예예, 터주. 으{그 터쥔, 터주, 예,예 터주. 으}

10610 @ 성주도 인꼬 업또 인꼬 그 주앙신한테 빌때에 이제 그 무를 떠 노치 안썬니까? {성주도 있고 업도 있고 그 주앙신한테 빌 때에 이제 그 물을 떠 놓지 않습니까?}

10610 @# 그 깨끗하구 예 정한수 예 정한수 정한수 정한수{그 깨끗하고 예, 정한수, 예, 정한수, 정한수, 정한수}

10610 @ 지그믄 그렇 거 다 업쥔.{지금은 그런 거 다 업쥔.}

10610 # 아 지썬믄 머 그 지금 절믄 사람한테 그제 무르믄 그제 무신 소리냐 그럴꺼야.{아 지금은 뭐 그 지금 젊은 사람한테 그제 무르면 그제 무슨 소리냐 그럴꺼야.}

10613 @ 그담 이제 일상 생화를 하면서 어 꼭 지켜야할 그 금기 이래서는 안된다 하는 건 썩리 엔나렌 마니 이썬는데요.{그 다음 이제 일상 생활을 하면서 어, 꼭 지켜야할 그 금기,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10613 @# 예를 들면 정월 초하룻날에 머 바느를 빌리러 가지 안는다든지 또 문지방을 저 밭:꼬 가서는 안된다 하는 거. 이게 걸어갈 때 여 문지방 저기다가 밭:꼬 올라가면 아단썩꺼든요. 예 지금 예 그 나이머근 분트른 지썬두 문지방에 밭:꾸서 그리 가는 머 여러가지 저거예요{예를 들면 정월 초하룻날에 머 바늘을 빌리러 가지 안는다든지 또 문지방을 저 밭고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이게 걸어갈 때 여 문지방 저기다가 밭고 올라가면 아단썩꺼든요. 예, 지금 예, 그 나이 먹은 분들은 지금도 문지방에 밭고서 그리 가는 뭐 여러가지 저거예요.}

10613 # 안 조아하고. 그냥 너머가야지 문지방을 너머간다구 그러지 밭꼬 간테는 소리 아니거든. 예.{안 좋아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문지방을 넘어간다고 그러지. 밭고 간대는 소리 아니거든. 예.}

10614 @ 그다메 이제 정월 정초에 여자가 나의 지블 간다든지 이걸 그 금헐 금헐꺼든요. 그담 이제.{그 다음에 이제 정월 정초에 여자가 남의 집을 간다든지 이걸 그 금헐, 금헐꺼든요. 그 다음 이제.}

10614 # 식전 아치멘 묻까게 허구 (네네){식전 아침에는 못 하게 하구. (네네)}

10615 @ 그다메는 이제 그 애 나아썬 때 애 노으믄 함부로 저 상주가 그걸, 짐 묻간다든지.{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애 나았을 때, 애 낳으면 함부로 저 상주가 그걸, 짐 못 간다든지.}

10615 @ 그 초상, 초상난데 간파와서는 묻뜨러가고, 묻뜨러가구 또{그 초상, 초상난 데 갔다와서는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또.}

10615 # 월래 일쥔일가는 그제 썩썩 송치믈 허구서 추리비 영 금지지. 송치미라구 해간꾸. 예, 어.{원래 일쥔일간은 그제 썩썩 송침을 하고서 출입이 영 금지지. 송침이라 해갖고. 예, 어.}

10615 # 소나무에 저걸 파라구 인꾸 거다가 요만한 아주 으레 그 지:썩썩썩. 다 가.{소나무에 저걸 파라고 있고 거기다가 요만한 아주 으레 그 지썩썩썩. 다 가.}

10615 # 아 요즘 무신 어린애 나아따등가 무신 저거하거나 하는. (그러썩){아 요즘 무슨 어린애 낳았다든가 무슨 저거하거나 하는. (그렇썩)}

10615 # 그래서 양가구. 그 지키줄을 다란찌.{그래서 안 가고. 그 지키줄을 달았지.}

10615 @ 그렇걸로 기영나는 건 어떤 걸뜨리 또 이쓸까요?{그런 것으로 기억 하는 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10615 @ 요령건 안된다. 저령건 안된다.{요런 건 안 된다. 저런 건 안 된다.}

10615 # 그게 그건 상식찌그루 송침 헐때거나 아 그 집 추립 금지구나 하능 거를 양거구. 머, 가구 양가구는, 머, 부모드리 저거 되므는.{그게 그건 상식적으로 송침 했다거나 아, 그 집 출입 금지구나 하는 거를 안 거고. 머, 가고 안 가고는, 머, 부모들이 저거 되면.}

10615 # 아, 너 어려운 이를 저거 허기때메 상가찌베 가지말라. 이렇 그, 저거 현대등가.{아, 너 어려운 일을 저거 하기 때문에 상가집에 가지 말라. 이런 그, 저거 한다든가.}

10615 # 그런 저건데, 지금 사람 어디 머, 그렇걸 가리나?{그런 저건데, 지금 사람 어디 머, 그런 걸 가리나?}

10616 @ 혼인날 바다노코 상가찌베 양간다든지 이렇게 인쪼.{혼인날 받아놓고 상가집에 안 간다든가 이런 게 있쪼.}

10616 # 그러치요. 부정문.. 저:기 (부정탄다.){그렇지요. 부정문.. 저기, (부정탄다.)}

10801 @ 옰:나레 이제 이버넨 질뽕 가툽 거요. 질병, 옰:나레 마:니 발췌헐뎡 질병으로는 어떻 거시 이췌췌니까? (# 지끄메 저거헿거?) 지금 말고요 옰:나레.{옛날에 이제 이번에는 질병 같은 거요. 질병, 옛날에 많이 발생헿던 질병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지금에 저거한 거?) 지금 말고요 옛날에.}

10801 @ 지그른 머 의하기 발땡땡:서 대개 다 병워느로 다 간는데 옰:나레는 병워느로 갈 수도 업꼬 민간요뽕브로 해:서 고치는 수밖에 거이 업췌췌습니까? 그때 생기는 병으로췌는 어떻 거시.{지금은 머, 의학이 발달되어서 대개 다 병원으로 다 가는데 옛날에는 병원으로 갈 수도 업고 민간요뽕으로 해:서 고치는 수밖에 거의 업췌췌습니까? 그때 생기는 병으로서는 어떤 것이.}

10801 # 그..., 그니깐 지금 말하자른 열병인데 (@ 제:일 혼헿게 열병) 옰:병이라구 그랜찌, 옰:병. 옰:병이라구. 옰:병 걸리른 중는거루 알:구, 옰:나렌 그랜찌. 또 야기 업뎡 시저리니깐. 그 저너미 또 되구. 그니깐 묻가게 헿거구.{그...,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열병인데 (제일 혼한 게 열병) 옰:병이라고 그렷지, 옰:병. 옰:병이라고. 옰:병 걸리면 죽는 거로 알구, 옛날엔 그렷지. 또 약이 업뎡 시절이니까. 그 전옰이 또 되고. 그러니까 못 가게 한 거고.}

10801 # 또 (@ 일췌에) 호너커는 집또 애:드리 호너커는 지베 가지말라구 그러능거야. 그 옰, 옰:마간다구 해가꾸. 그 이 으하기 이제 발땡땡지 양코 저거 헿뎡 저거니까는. {또 (@ 일췌에) 호역하는 집도 애들이 호역하는 집에 가지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 옰, 옰:마간다고 해가지고. 그, 이, 의학이 이제 발달되지 업고 저거 헿뎡 저거니까.}

10801 # 그런 예가 또 사시른 업찌 아나 이췌끼 때무네 저넡되는 거가지구 (@ 주로 이제 제일 마날뎡 거시 호역인데) 호너꺼튼데.{그런 예가 또 사실은 업지 업아있었기 때문에 전옰되는 거 가지구 (@ 주로 이제 제일 많앗던 것이 호역인데) 헿역 같은 데.}

10801 @ 고거는 어떤 방버브로 치료를 할러구 헿는지요?{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러고 헿는지요?}

- 10801 # 예, 그런데 엔:날 싸람드른 그 시대가 야기 업썸쓰니까, 호녀 마마를 겨껴야 산다:는 저거가 인꾸, 너 호녀 마마 해써? 다해써? 이런 그 무름두 인찌어나?{예,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 시대가 약이 없었으니까, 홍역 마마를 겪어 산다는 저거가 있고, 너 홍역 마마 했어? 다 했어? 이런 그 물음도 있지 않나?}
- 10801 # 그니까 호녀 마마에 제:일 사라미 마니 죽꾸. 이제 병신되능 거 아는거니까. 호녀를 겨껴야 사는거루 알았썸요, 그저넌. 어리내를 나간꾸.{그러니까 홍역 마마에 제 일 사람이 많이 죽고. 이제 병신되는 거 아는 거니까. 홍역을 겪어야 사는 거로 알았어요, 그전에는. 어린애를 나아가지고.}
- 10801 @ 그거 때무네 참 마니 주걱찌요? (# 그럼 애:드른 저거 허니까는 참.){그거 때문에 참 많이 죽었지요? (# 그럼 애들은 저거 하니까는 참.)}
- 10803 @ 홍역하고 마마하고는 어떠케 달랠썸니까? (# 호녀근..){홍역하고 마마하고는 어떻게 달랠썸니까? (# 형역은..)}
- 10803 # 저그해가구 으레, 열병이라구 봐:야지. 그냥 저 이 한분 그 아라야 꼭 아라야 이제 저응이 돼능거구.{저거해가고 으레, 열병이라고 봐야지. 그냥 저 이 한 번 그 알아야 꼭 알아야 이제 적응이 되는 거고.}
- 10803 # 마:마는 예, 지금 그기 뭐라 그러나? 이에 특특특 해각꾸 뭐, (@ 곱보라 그러지요.) 곱보가 되지 그 잘모터므는.{마마는 예, 지금 그걸 뭐라 그러나? 이에 특특특 해가지고뭐, (@ 곱보라 그러지요.) 곱보가 되지 그 잘 못하면.}
- 10803 # 그거, 그거 허믄 그 아드리 저거 해써. 허 이러케 보며는 먼침 마마허는 사람한테다 가따 바치구서야 먹꾸 그랜따구.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저거해쓰니 야기 업쓰니깐 그러한 요:빠비 이제 이 저거 형거지. 그래 갇꾸.{그거, 그거 하면 그 아들이 저거 했어. 허, 이렇게 보며는 먼저 마마하는 사람한테다 (음식을?) 갖다 바치고서야 먹고 그랬다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저거 했으니 약이 없으니까 그러한 요법이 이제, 이, 저거 한 거지. 그래 가지고.}
- 10807 @ 이 마으레서는 약초 가튼 거슨 어떤게 나오니까?{이 마을에서는 약초 간은 것은 어떤 게 나오니까?}
- 10807 # 엔:나레는 썸, 약썸기라구 이썸. 약썸. (예) 그건 보통 마:느니까는 배가 아파두 먹꾸 체하거나 허믄 썸 데려서 상네로. 아이구, 저거허구 약초래능 거이 머.{옛날에는 썸, 약썸이라고 있어. 약썸. (예) 그건 보통 많으니까 배가 아파도 먹꾸 체하거나 하면, 썸 데려서 상네로. 아이구, 저거허구 약초라는 것이 머.}
- 10807 # 대개 운매가 마:니 저거헐뎌 거슨 칙뿌리나.{대개 운매가 많이 저거헐뎌 것은 칙뿌리나.}
- 10807 # 예, 잔데 씨 뿌리 줌치에 저거, 먼가 그 대개 인제 소화제 저거루다 해갇꾸. 고산뿌리 거통거. 고산뿌리 거통진 그 용모초라구 해갇꾸{예, 잔 데 씨, 뿌리 줌치(주머니?)에 저거, 무언가 그 대개 이제 소화제 저거로다 해가지고. 고산뿌리 같은 거. 고산뿌리 같은 것은 그 익모초라고 해서.}
- 10807 # 아주 접썸게 그 무:척 썸요, 아주. 그런 저거 마디 이제 업는 저거해서 캐:다먹꾸 대려먹꾸 배아프구 그냥 저거 허믄 그 캐:다 으레 머그머는 지금두 그거 머그므는 소:근 퍼나난 거요.{아주 저쪽에 그 무척 썸요, 아주. 그런 저거 맛이, 이제, 없는 저거해서 캐어다먹고 다려먹고 배 아프고 그냥, 저거 하면 그 캐어다 으레 먹으면 지금도 그거 먹으면 속은 편안한 거요.}

10807 @ 이, 그러케 써서. (# 먹기 힘들어서, 응 ㅎㅎ){이, 그렇게 써서. (먹기 힘들어서, 응 ㅎㅎ)}

10807 @ 그 칩이라 그럼니까? 칩. (# 예, 칩, 칩){그 칩이라 그럼니까? 칩 (예, 칩, 칩)}

10807 # 칩뿌리 (@ 예, 예 칩뿌리는 그게 만타 그래요?) 마나요. (@ 아니, 머:가 만타 그럼니까?){칩뿌리 (@ 예, 예 칩뿌리는 그게 많다 그래요?) 많아요. (@ 아니, 뭐가 많다 그럼니까?)}

10807 # 머 칩뿌리 거튼건 흔히 켈 쑈 인능거시 칩뿌리지. 원만한데 가든 다 인쓰니까.{머, 칩뿌리 같은 것은 흔히 켈 수 있는 것이 칩뿌리지. 웬만한 데 가면 다 있으니까.}

10807 # 그 칩뿌리 그, 팬차능 거예요. 근데 그 마:니 머글 피료는 업찌.{그 칩뿌리 그, 팬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

10807 # 왜냐든 예, 습관성이 될 쑈두 인꾸. 소화, 소화 기능은 도와주능 건 틀림업써, 칩뿌리가.{왜냐하면, 예, 습관성이 될 수도 있고. 소화, 소화 기능은 도와주는 건 틀림없어, 칩뿌리가.}

10807 @ 예, 감기에두 조:코. (응){예, 감기에도 좋고. (응)}

10807 @# 이 산, 여 근처 사네 마니 납니까? (# 칩뿌리? 만치요. 그리구 대:게 약쑈기래는 건뚜 그냥, 근데 그 하두 뜨더 먹꾸 해서 인는데나 인찌 업써.){이 산, 여 근처 산에 많이 납니까? (# 칩뿌리? 많지요. 그리고 대개 약쑈이라는 것도, 그냥, 그런데 그 하두 뜯어 먹고 해서 있는 데나 있지 없어.}

10807 # 그 여, 칩뿌리 거통 건 캐:서 말려간꾸 쪼끔씩 느쿠서 예, 지비서 인제 차 끄려 멩는데.{그 여, 칩뿌리 같은 것은 캐어서 말려가지고 조금씩 넣고 예, 집에서 이제 차 끓여 먹는데.}

10807 @ 예, 칩차, 칩차.{예, 칩차, 칩}

10224 #2 그리고 이제 집싸자들, 종사자드리 손따까야 되고, 피차 그.. 제:관드른 그대로 그 사에, 제:관드른 다:: 기지사도 그러치마는 절 두번하면 끝나는 거예요. 처어메 시작컬 제 한 번, 끝난 다아메 한 번인데, {그리고 이제 집사자들, 종사자들이 손 닙아야 되고, 피차 그 제관들은 그대로 그 사에, 제관들은 다 기제사도 그렇지마는 절 두 번하면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한 번, 끝난 다음에 한 번인데,}

10224 #2 무리메 사양도 그래. 또까태요. 다. 쪼끔 그 저 지영마다 차이찌미 일찌마는{무림의 사양도 그래. 똑 같아요. 다 조금 그 저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지마는}.

10224 @ 뭐 잔, 잔 올리고 또 절하고 뭐 올리고 뭐 하고 이런 절차드리 인찌 안습니까{뭐 잔, 잔 올리고 또 절하고 뭐 올리고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10224 #2 예, 그냥 흘기에 의해서 글쎄 구령에 의해서 따루는데,{예, 그냥 흘기(笏記)에 의해서 글쎄 구령에 의해서 (술을) 따르는데}

10224 @ 한 사라미 구령을 불러, 불러줍니까{한 사람이 구령을 불러, 불러줍니까?}

10224 #2 예, 그러치요. 그거야. 거기 흘기 잉는 사라미 익꼬 (예) 알래자라고, 지끔 차:니, 알래 소위 말해서. 이러지 여기서 흘리 무얼 실행할라고 나오며는 차:니래는 부니 인제 여기 와서{예, 그렇지요. 그거야, 거기 흘기 읽는 사람이 있고 (예) 안내자라고, 지금 찬이, 안내 소위 말해서, 이러지 여기서 흘리 무엇을 실행하려고 나오면, 찬이라는 분이 이제 여기 와서}

10224 #2 이제 처어메 잔 두르는 사라미 초헌관, 두:번째가 아헌관, 세:번째가 조헌관인데,

초헌관이 이제 (지리나 요운서) 처음부터 초헌관부터 자니 올라가야 하니까 (예), 그 때 인제 홀기를, {이제 처음에 잔 두르는 사람이 초헌관(初獻官), 두 번째가 아헌관(亞獻官), 세 번째가 종헌관(終獻官)인데, 초헌관이 이제 (지리나 요운서) 처음부터 초헌관부터 잔이 올라가야 하니까 (예) 그때 이제 홀기를}

10224 #2 초헌관 인제 그 자를 올려야 한다고 구령을 불른다고 하며는 한문을 쪽 읽는데 다 알지마는, 찬 읽는 소개자가 내려와서 구복하라고 알래해 가지고 올라가. 인제 지끔두 대개 그 학교를 배운 분드리기 때무네 시:장이구 군수 이:를 몰르지 안씀니까? 올리저그로 알래해가지고 순제(?) 의해서 잔 부어가지고 올리라구 하든 올리구 (나가라구 하면 나가두)다 도와주구 그래가지구 하능거지. {초헌관 이제 그 잔을 올려야 한다고 구령을 부른다고 하면 한문을 쪽 읽는데 다 알지마는, 찬 읽는 소개자가 내려와서 구복(口腹)하라고 안내해 가지고 올라가. 이제 지금도 대개 그 학교에서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이고 군수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안내해 가지고 순제(?)에 의해서 잔 부어가지고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도) 다 도와주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10224 @ 그..가정에서 제가 저..모실 때는 그러케는 안하지요 {그.. 가정에서 제가 저.. 모실 때에는 그러케는 안하지요?}

10224 #2 가정에서..(@ 지베서 그냥 기제사..) 사정에서는 이제 홀기 안 익꼬 그.. (수상자) 인짜나? (겨울) 지끄른 다 가치 배래하지. 참배하고. {가정에서 ..(집에서 그냥 기제사..) 사정에서는 이제 홀기 안 읽고 그.. (수상자) 있잖아?}

10224 #2 가정에서는 원:쪼기 집싸야 집싸자. 그 저 종사자가, 우집사 좌집싸하든 오른쪼게 인는 집싸하고 좌집싸하고 인제, 좌집싸가 잔 물려서 제:관한테 가서 자를 올리든 우집싸가 수를 따루지. 따로 자:를 올리든 원래는 (기대게서) 저기에 간따 놔야 되지마는 (예) 대개 제:관드리 노인네가 옴나레 갈 썬우고 도포 이거 자라기 익꼬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집싸가 바다다가 제자리에 노아. {가정에서는 왼쪽이 집사야. 집사자. 그 저 종사자가 우집사 좌집사하면 오른쪽에 있는 집사하고 좌집사하고 이제, 좌집사가 잔 물려서 제관에게 가서 잔을 올리면 우집사가 술을 따르지. 따로 잔을 올리면 원래는 (기대게서) 저기에 갖다 놓아야 되지마는 (예) 대개 제관들이 노인네가 옛날에 갓 썬우고 도포 이거 자락이 있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집사가 받아다가 제자리에 놓아.}

10224 #2 원치근 보니니 간따 노아야 돼. 그런데 (제물을) 채리구 행는데 여기 가라게서 떠리지구 하니까 집싸자드리 대행하구 항거지요. {원칙은 본인이 갖다 놓아야 돼. 그런데 (제물을) 차리고 했는데, 여기 가락에서 떨어지고 하니까 집사자들이 대행하고 한 것이지요.}

10224 #2 그래두 인제 그 실가미 안 나실꺼야. 천주교라구 그러시니까. 근데 아까두 그래쪼만 유교는 조상님 받드능게 근원이니까 (그러는데) 진짜 시니든 귀신두 아니구 우리가 마음썬그로 추상하능거지. 그리구 여기 오셔썬썬. 마으므루다가. 모듬 게 다 그러차나? 마음 자세가 중요항게 아듭니까? 음식뚜 정결해게 해야하구. {그래도 이제 그 실감이 안 나실 거야. 천주교라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아까도 그랬지만 유교는 조상님 받드는 것이 근원이니까 (그러는데) 진짜 신이면 귀신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추상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 오셨썬썬. 마음으로다가. 모든 것이 다 그러참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듭니까? 음식도 정결하게 해야하고.}

- 10226 #2 술찌키 말씀드려서 마니 안 채립니다. (하하) 제:관드리 자축한다고 조금채려 2
다 잡수고. 제:관드리 명능 거지뵈. {술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안 차립니다. (하하) 제
관들이 자축한다고 조금 차려서 다 잡수고. 제관들이 먹는 것이지 뵈.}
- 10226 @ 그러치요. 네, 산 사람 제사지요. {그렇지요. 예, 산 사람 제사지요.}
- 10226 #2 그날 그나를 추모하기 위해서 행사하능거야. {그 날 그 날을 추모하기 위해서 행
사하는 것이야.}
- 10226 #2 요즘은 제사 모시는 시는 어떠케 합니까? 어떤 지븐 보니까 저녁 때 하기도 하
고, 편리하게.. {요즘은 제사 모시는 시(時)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집은 보니까 저녁
때 하기도 하고, 편리하게..}
- 10226 #2 아.. 우리는 또 개방돼쵸요. 왜? 충무니, 오늘 도라가셨따면, 그 전날 제사 지냄
니다. 전날 충문도 오늘나레 일지늘 썸. (예) 그러치요? {아... 우리는 또 개방되었어
요. 왜? 축문이, 오늘 돌아가셨다면, 그 전날 제사 지냅니다. 전날 축문도 오늘 날에
일진을 썸. (예) 그렇지요?}
- 10226 @ 예. {예.}
- 10226 #2 근데 이 (시방향 상한예) 서울거튼 데서 마냐게 한다면 여러 사라미 모연는데
제:사지내고 지배 가야자나? (@ 예, 그러습니다.) {그런데 이 (시방향 상한예) 서울같
은 데서 만약에 한다면,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제사 지내고 집에 가야잖아? (예, 그
렇습니다.)}
- 10226 #2 그 다음날 아주 저녁 때 지내. 저녁 때. 일찌는 마즈니까는 그 전날 지내두 이날
일찌니까. 그리고 저녁뜰 자:시구 귀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에 따라 그런 방식그루
두 해야. {그 다음날 아주 저녁 때 지내. 저녁 때. 일진은 맞으니까 그 전날 지내도
이 날 일진이니까. 그리고 저녁뜰 자시고 귀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에 따라 그런
방식으로도 해야.}
- 10226 #2 꼬옥 뵈 전날, 여이 월래는 열뚜시에 지내. 아닌 밤중예. 그러니까 일찍 그 이튿
날 오후에 지내면 양반들 제:관들 다 귀가 할수두 익꾸. 바메 열뚜시에 끝난다면 갈
쭈두 업꾸. 잘 때두 업꾸. 얼른 쉽게 할수두 업꾸. 그러니까. {꼭 뵈 전날, 원래는 열
두시에 (제사를) 지내. 아닌 밤중예. 그러니까 일찍 그 이튿날 오후에 지내면 양반들
제관들 다 귀가 할수도 있고. 밤에 열두시에 끝난다면 갈수도 없고. 잘 때도 없고.
얼른 쉽게 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 10226 #2 그래 예나레는 한 잠 자다가 제:사 지냈짜나요. 진짜 한 잠 자다가 깨:서 세:수를
하는데, 지끄른 자질 아나두 손들 딱꾸 세:수를 하구 그러치요. (음) {그래 옛날에는
한 잠 자다가 제사 지냈잖아요. 진짜 한 잠 자다가 깨어서 세수를 하는데, 지금은
자지를 얹아도 손들 닦고 세수를 하고 그러치요. (음)}
- 10226 #2 그래서 일전 내가 그런 시그루 해쵸. 며느리, 아들한테 한 번 시버를 보이기 위
해서, 날짜가 오늘이지. 오늘인데 내일 지낸다 넬:들 와라. (예, 예) 각끝하다 보므는
며느리구 아들들 (선용기) 때 뵈 아라? 내자가 이십년 전서부터 병드려서 당이 함뻡
쫘이라도 다 준비구 지시구 다 해야 돼. (선용기 때) 침 온 사라미 뵈 어딘는지 어
떠케 아라. 그래서 와러.. {그래서 인전 내가 그런 식으로 했어. 며느리, 아들에게 한
번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날짜가 오늘이지. 오늘인데 내일 지낸다 내일들 오너라.
(예, 예) 각글(?)하다 보면 며느리고 아들들 (선용기 때) 때 무엇을 알아? 내자(內子)
가 이십년 전에서부터 병이 들어서 당(糖)이 합병증이라도 다 준비고 지시고 다 해

야 돼. (선용기 때) 처음 온 사람이 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와러..}

10226 #2 그래두 자소니 뭔지. 너이들 늑게 와라. 정신넉 가지구 (이어는 이치가) 되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구 나는 아예 음식 좀 간단하게 해. 아까두 해찌마는, 간단히 헨대 두 다 이 대:접할만큼 해야지. 여기 제:물보담두. 그래가지구 인제 신경을 쓰구 그러는데. 그래가지구 요 일찌네는 그러케 한 번 지내봐쎄요. 저녁 여섯씨 경에. {그래도 자손이 무엇인지. 너희들 늦게 오너라. 정신력 가지고 (이어는 이치가)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나는 아예 음식 좀 간단하게 해. 아까도 (말)했지마는 간단히 한다고 해도 다 이 대접할 만큼 해야지. 여기 제물(祭物)보다도. 그래서 이제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 일전에는 그렇게 한 번 지내 보았어요. 저녁 여섯시 경에.}

10226 #2 또 제:사 지내구 저녁겸 명능거야. 과거지내 저녁먹쎄요? 또 밤지제에 밤중에 또 밤머거야 돼. 이거 이중 삼중 불퍼늘 주고. 여기두 부다를 주구. (웅간)여서씨경 되든 제사지내구 저녁글 머그며는 저녁겸 (@ 다 조아하지요) 해결하지요.{또 제사 지내고 저녁겸 먹는 거야. 과거 지내 저녁 먹지요? 또 밤지제에 밤중에 또 밥 먹어야 돼. 이거 이중 삼중 불편을 주고. 여기도 부담을 주고.}

10226 #2 그래가지구 낭군이테 그 술 한잔 대접한다구 그래떠니 애드리 말려. 대접파지 마세요. 대저패두 용머거요. 왜? 무슨 요기냐? 아, 무슨 노무 제살 초저너게 지내따구 그래요. 그 네 마리 일리가 이따. 우리는 [...]게찌만, 모르는 사라는 (하하하하) {그래서 낭군이테(?) 그 술 한잔 대접한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말려. 대접하지 마세요. 대접해도 욕먹어요. 왜? 무슨 욕이니? 아, 무슨 놈의 세사를 초저녁에 지냈다고 그래요. 그것 네 말이 일리가 있다. 우리는 [...]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하하하하)}

10226 #1 왜냐하든, 이 주그든 저, 그, 귀시는 단체가 온다 그러는 거지...(@ 그러치요. 꼭 자정을 기다리다..닥 울기 저네 끝내:야 되는데) 그래 그래서 그런 마리 나오는데. {왜냐 하면, 이 죽음은, 저, 그, 귀신은 단체가 온다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요. 꼭 자정을 기다리다 답 울기 전에 끝을 내어야 되는데) 그래,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10226 #2 엔:나레는 그러구 꼭 찬 기리 익꾸 천짠 디리구 충무니(축문이) 끝나문 고글하게 돼:이쎄니다. (예, 예) 예고테고 하고 (예) 내가 곡카지 말라 그래떠니 인제 아주 간소시켜 버렐찌. 마음쎄그로 충분해. 그래 고글 아남니다.{옛날에는 그러고 꼭 찬 길 이 있고. 첫 잔 드리고 축문이 끝나면 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고테고 하고 (예) 내가 곡카지 마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주 간소화시켜 버렐찌. 마음적으로 충분해. 그래 곡을 안 합니다.}

10226 #2 (우리 메 너거치고) 상 당할 때 곡소리가 뭐 조용검니까? 예를 드려서. (@ 그러치요) 그 왜놈드른 절때 타인 아페서는 울지를 안는데. 눈물 안 흘리고. 소:그로 온다 이거야. 왜놈드른 (그러시캐) 근데 우리네는 그 구:시게 의해서 밤중에 지낼 쩌게 애고.. 대고.. 곡성이 바께 나가능거 조:치 아느니까 그만 두지.{(우리 메 너거치고) 상 당할 때 곡소리가 뭐 좋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 그렇지요.) 그 왜놈들은 절때 타인 앞에서는 울지를 앓는다고 해. 눈물 안 흘리고. 속으로 온다 이거야. 왜놈들은 (그러식해) 그런데 우리네는 그 구식에 의해서 밤중에 지낼 적에 애고.. 대고..곡성이 밖에 나가는 것 좋지 앓으니까 그만 두지.}

@ 또 어르신 뭐 생강나시는 이야기가.. 뭐:든지 하면 조켄는데요. {또 어르신 무엇 생각 나시는 이야기가 .. 무엇이든지 하면 좋겠는데요.}

#1 뭐 그냥 아무 얘가요?{뭐, 그냥 아무 얘가요?}

@ 그 관계 업습니다. 예.{그 관계 업습니다. 예.}

#1 그 저 이 (금방 모이) 이 강씨봉이라는 얘기 (@ 그거는 해썬니다) 해썬요? 예.{그, 저, 이, (방금 뵈) 이, 강씨봉이라는 얘기 (그것은 했습니다.) 했썬요? 예.}

@ 그냥 어디 놀로 가신 거라든지 기어기 생생한 걸로 해야 그냥 쭈욱 할 쭈 안 익게썬니 까?{그냥 어디 놀러 가신 것이라든지. 기억이 생생한 것으로 해야 그냥 쭈 할 수 있지 않겠썬니까?}

#1 으으, 지금...지금 저거에는 이.. 물론 이 지역에서 가튼 부락에서 살르는 그 저거를 모터 는데,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서로 뭐 승이 나니까 으, 방가이 한대등가 가까이 하는 거가 저거하는데, 이 광광을 땡기다 보니까는 이... 여자드리, 그 참.. 놀기가 조아요. (예) 왜냐하든, 뭐 부등켜 양꾸 뛰구 놀.. 노라두, 그... 인제 승이 고날만 지나든 고 만이니까 각 (@ 그러썬니다)짜가 모이는 데,(@ 그날 즐겁게 지내는 데) 그렇 그 유 리썬이 익꼬..{으으, 지금, 지금 저거에는, 이, 물론 이 지역에서 같은 부락에서 살면 그 저거를 못하는데, 남자 여자가 , 그러니까, 서로 뭐 흥이 나니까, 으, 반가이 한다 든가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한테, 이, 관광을 다니다가 보니까, 이, 여자들이, 그 참, 놀기가 조아요. (예) 왜냐 하면, 뭐, 부등켜 안고 뛰고 놀.. 놀아도, 그, 이제, 흥이 그날만 지나면 그만이니까 (그렇썬니다.) 각자가 모이는 데, (그날 즐겁게 지내는 데) 그런, 그, 유리한 점이 있고..}

#1 그러구 또.. 저거 되든 예, 남자보담도 여자드리 아주먼네드리 나을 썬게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나와요. 내가 볼썬게는 (@ 가정에 꼭 박혀 인따가) 그러치요 으, 박혀 인따가 스트레스 푸능 건, 나와서 맘대로 고날 지나든 그만이거든. 또 뭐 (@ 그러치 요)그런 그 저거가 익꼬. {그리고 또, 저거(※미지칭) 되면, 예,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아주머니들이 나을 적에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나와요. 내가 볼 적에는 (가정에 꼭 박혀 있다가) 그렇지요. 으, 박혀 있다가 스트레스 푸는 것은, 나와서 마음대로 그날 지나면 그만이거든. 또, 뭐, (그렇지요) 그런 그 저거가 있고.}

#1 아, 이러구나 하능 거슬 느낄 정도로다 저거하는데, 음, 그.. 예.. 내가 인제 한 아주머니 를 격꾸 저거했더니 근데 그 저, 정에..예, 좀 아쉬움 괴로우를 느낀 저거는 나타나 데요. (@ 그이, 평생 그래썬니까) 예, 그 왜냐하든 저 이 포:천 지나서 예, 인제 XX 리래는데 사:는 아줌마가 하나가 욱썬두:리야, 욱썬두:린데,{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다 저거하는데, 음, 그, 예, 내가 이제 한 아주머니를 꺾고 저거했더니. 그런데 그, 저, 정(情)에, 예, 좀 아쉬움, 괴로우를 느낀 저거는 나타나데요.}

@ 예,{예}

#1 욱썬두:린데 가치 으, 가치 이러케 안..저서, 인제 광광을 며칠, 면뻬늘 가치 하다 보니까 는 그 자기가 예에, 저건데 여자라, 아... 전부가 다르구나 하능 거슬 느껴썬요. 왜냐 하든, 그.. 저, 자기 사라온 얘기를 쭈욱 내가 묻썬 안는데 얘기하더라구.{(나이가) 욱십 둘인데, 같이, 으,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관광을 며칠, 몇 번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그, 자기가, 예에, 저건데, 여자라, 아, 전부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 하면, 그, 저, 자기 살아온 얘기를 쭈욱 내가 묻지 않는데 얘기하더라고.}

#1 남퍼니 사라 이썬 썬게 하도.. 그냥 계집썬만 허고 그냥 저거허구 해서. 그 새끼드를 데 리구 내가 아주..고생스럽게 사란따.{남편이 살아 있을 적에 하도, 그냥 계집썬만 하 고, 그냥 저거하고 해서. 그 새끼(자식)들을 데리고 내가 아주 고생스럽게 살았다.}

#1 예, 그런데 지끄메 와서는 아들 두레 딸 하나가 있는데, 두:째 아드리 구각, 구각 땡향에는 투철한 그 저거가 이썬각꼬 중앙무대까지 나간대요. (예, 예) 그래 개:가 도:늘 버려서 지금 생화론 아주 뭐 힘들지 양쿠, 사라가는 텐 하등에 저걸 받찌 안는다. 이런 얘기를 하몬서 자기 가정 얘기를 떠억 하더라구. {예,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국악, 국악 방향에는 투철한 그, 저거가 있어가지고 중앙무대까지 나간대요. (예, 예) 그래 그 애가 돈을 벌어서 지금 생활은 아주 뭐, 힘들지 않고, 살아가는 데에는 하등의 저걸 받찌 안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가정 얘기를 딱 하더라고.}

@ 예,{예}

#1 예, 그래썬는데, 그 여자들파 마:니 가치 안작꾸 가치 저거 해보니까는 그게 나타나., 왜냐하몬 그 정에 그:릭꾸 저거허던 사라몬, 예.. 그 아까두 애:기해찌만두, 먼쳐 이러케 해각꾸 꼬:리양꾸 키쓰를 하더라구.(아아,) 아수 이게 뭐야. 응 나미 보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몬 아니, 우리 조와서 하능건데 나몬 왜 으식카느냐? {예, 그랬었는데, 그 여자들과 많이 같이 앉았고, 같이 저거 해보니까 그게 나타나. 왜냐하면, 그 정에 그림고 저거하던 사람몬, 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져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 안고 키쓰를 하더라고. (아아,) 아서, 이게 뭐야. 응. 남이 보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아니, 우리 좋아서 하는 것인데 남은 왜 의식하느냐?}

@ 예,{예}

#1 아이, 쓰, 야아, 지끔 여자드리 이러쿠나. 으으, 흥흥 생가글 해봉거씨 인제 거기서 나온 생각이예요. 그리고 정에 기운 저건데. 여자드리 이렇게 다라보니까는 각까기야. 다, (다) 예, 애기 가까이 저거해썬, 혈곶 가터몬, 여자가 먼침, 남자가 이러케 텍 이러케 한 번 여여 허벅찌에다 소늘 대어보몬, {아이, 쓰, 야아, 지금 여자들이 이러구나. 으으, 흥흥, 생각을 해본 것이 이제 거기서 나온 생각이예요. 그리고 정에 기운 저건데. 여자들이, 이렇게 달아보니까 각각이야. 다. (다) 예, 애기 가까이 저거했을, 할 것 같으면, 여자가 먼져, 남자가 이렇게 텍, 이렇게 한 번 여기 허벅지에다 손을 대어보면,}

@ 예,{예}

#1 이 사람 저거를 아라요. 아주 지가 어르..저거해다가 사추지까지 소늘 꼬러다 대주는 여자가 인능가 하몬, 아주 이, 여기다 터억 대몬 여기까지만 와두, 사추리, 액, 저거허는 여자가 익꾸. 가지 각썬찌 여자가 인떠라는 거슬 내가 인제, 광광해:기 와서 겨꺼온 애:기를 하능거야. (예) 예, 그리고, 예.. 자기가 인제 그 에로우물 격꼬 모:든 저거한 사라몬, 예.. 잠시나마 그 위로를 박꼬시퍼하는 그 거시 여자에 저거고 심정이고, 게 그..여자 파아게 응 저거항 거슬 광광댕기몬서 느낀 거슬 말씀드리는 거야. 땅 거 업서. {이 사람 저거를 알아요. 아주 자기가 어르, 저거해다가 살까지 손을 끌어다가 대어주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이, 여기다 텍 (손을) 대면, 여기까지만 와도 살, 액!, 저거하는 여자가 있고. 가지 각썬의 여자가 있더라는 것을 내가 이제, 관광하고 와서 겪어온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예, 그리고, 예, 자기가 이제 그 외로움을 겨꼬 모든 저거한 사람몬, 예, 잠시나마 그 위로를 받고싶어하는 그 것이 여자의 저거고 심정이고, 그것이 그 여자 파악에 응, 저거한 것을 관광 다니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딴 것 없어.}

#1 예, 그리고 지끄몬요, 여:자드리 도늘 써요. (저는 저거 와가에서) 그런데(@ 지금 그러

치요) 남자가 돈 쓰는 경우도 인찌만도, 자기가 마음에 들거나 조와하구 저거허구, 저거할 꺼거트른 여:자가 사요. (예) 그런 저거가 인떠라구. @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권을 다) 예, 여자드리 가지구 이쓰니까, 게서 야, 시고리 이러케 달라지능구나 하능거슬 느낀 저물 애기하능거야 내가. (@ 그러썅니다. 예){예, 그리고 지금은요, 여자들이 돈을 써요. (저는 저거 와가에서) 그런데(지금 그렇지요) 남자가 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마음에 들거나 좋아하고 저거하고, 적할 것 같으면 여자가 사요. (예) 그런 저거가 있더라고.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권을 다) 예, 여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야, 시골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것을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렇썅니다. 예)}

@ 이게 옛날보다 더 다름 거는 마리쥬. 텔레비전이니 이렇게 게:속 방영되니까, 도시에서 이러나능 거슬 지방에서도 금방 볼썅 인꺼덩요. (예){이게 옛날보다 더 다른 것은 말이쥬. 텔레비전이니 이렇게 게속 방영되니까,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방에서도 금방 볼 수 있거덩요. (예)}

#1 예, 그럼요, 그럼 예, 안자보구 지금 시골 사라미라구 해서 (가) 아니구 아, 음음, 그 여비 그 저거해서 XX씨 그 저거하지 아냐? 그러므는 그양바니 나한테 뭐라고 하능가 하든, "세:상은 말세야, 다 돼썅.", "왜요?", "이거 봐, 아냐, 여기서는 인제 그런 저거가 저거지만, 시:장에 나가봐. 아냐 썅:파란 절믄 여, 처녀 아이드리구 절믄 것드리 아, 치마를 요러케 해서 익꾸서 마리아, 사추리가 다 비두룩 카, 이러구 땡긴다" 그 거야. 으? "그러니, 세상은 다 되지 아난느냐?"{예, 그럼요. 그럼 예, 앓아보고 지금 시골 사람이라고 해서 (가) 아니고. 아, 음음, 그 여비 그 저거해서 XX씨, 그, 저거하지 앓아? 그러면 그 양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은 말세야. 다 되었어.", "왜요?", "이것 봐, 아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저거가 저거지만, 시장에 나가봐. 아냐 새파란 젊은 여, 처녀 아이들이고 젊은 것들이, 아, 치마를 요렇게 해서 입고서 말이야. 살이 다 보이도록 카, 이러구 다닌다." 그거야. 으? "그러니, 세상은 다 되지 앓았느냐?"}

#1 그래서 내가 일파 "그거는 한가지만 생각헐썅 두:가지를 생각 안해받썅니다." 그러니까, "무신 생가글 해" 으, 그 나이가 구시비 뵈:쓰니까. "이거 봐요. 시대에 변:하능거는 마글썅가 업썅. 변:하능거를 누가 마가?"{그래서 내가 있다가, "그것은 한 가지만 생각헐썅 두 가지를생각해보지 앓았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 으, 그 나이가 구십이 되었으니까. "이것 봐요. 시대가 변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소. 변하는 것을 누가 막아?"}

#1 "시:장에 가서 그 그렇 거슬, 그거보담도 텔레비를 직쩍 볼썅에 뭐:가 뵈니까? 진 치마 이븐 뵈 봐:썅요?" 전부다 요러케 익꾸 땡기지. 음, 그리구 하능게 그러니까 그 따라 하능 거시 시대의 변:처니다 그거지. 으, "그러니까 그러케 요카지 마시오. 그거 요카믄 되레 용머거요." 저 영감 저거, 으, 저거허구. "그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오." 그 래떠니 그 다암부터믄 일체 이얘기를 아내. 헤헤, 그런 얘:기를 나한테다.{“시장에 가서 그, 그런 것을, 그것보다도 텔레비를 직접 볼 적에 뭐가 보입니까? 긴 치마 입은 뵈 보았어요?” 전부 다 요렇게 입고 다니지. 음, 그리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따라 하는 것이 시대의 변천이다 그거지. 으, “그러니까 그렇게 욱하지 마시오. 그것 욱하면 되레 욱 먹어요.” 저 영감, 저거, 으, 저거하고. “그,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해. 헤헤, 그런 얘기를 나한테다.}

#1 스, 그건.. 저거해떠니 아아, 그런 다암에 인제 쭉욱 얘기를 해떠니, 하하, "이:장 마를 드르니깐 참, 만는 얘기야." 그래가꾸 이해가(를) 하더라고. 예, 그와 가치 지금 변:하는 세월에는 예에, 여캥할쭈가 업서요. 따라야지. 음, 예. 그 여캥한대는 거슨 과거에 그 옐 썬 보권 저거해서 나오는 애:기에서 이제 여캥하라 하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는데 시대를 따르는 거시, 현재보다 변:하는 시대를 마글수는 업따. 내가 인제 그래떠니, 아하, 애:기 드려보니까, 참, 그러네. 그래서 순응하더라고.{스, 그건, 저거했더니, 아아,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얘기를 했더니, 하하, "이장 말을 들으니까 참, 맞는 얘기야." 그래서 이해가(를) 하더라고. 예, 그와 같이 지금 변하는 세월에는 예에, 역행할 수가 없어요. 따라야지. 음, 예. 그 역행한다는 것은 과거에 그 옛적 복원, 저거해서 나오는 애기에서 이제 역행하라 하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는데 시대를 따르는 것이, 현재보다 변하는 시대를 막을 수는 없다. 내가 이제 그랬더니, 아하, 애기 들어보니까, 참, 그러네. 그래서 순응하더라고.}

#1 그래, 그 영가미 지남, 내가 지나가면, "아, 이리 와." 예, 이레 그러케 좀 득구 시퍼해요.{그래, 그 영감이 지남, 내가 지나가면, "아, 이리 와." 예, 이렇게, 그렇게 좀 (애기를) 듣고 싶어해요.}

@ 자, 또 어르시는 여서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 저, 이 어르시는 이 이야기 혼자서 하시는 이야기를 그 저네, 좀 해 두어습니다. (#1 마니 해쓰니까) 어르신 중시므로, 요거 으식하시지 마시고, 요거 으식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까거치 쭉: 지나오신 거라든지, 이 느끼싱 거 그러거, 드르싱 거 이거 쭉 그냥, 이 뭐:시든지 조습니다.{자, 또 어르신은 여섯 시까지 끝내어야 하는데, 이, 저, 이 어르신(※주제보자)은 이 이야기 혼자서 하시는 이야기를 그 전에, 좀 해 두었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어르신 중심으로, 요것을 의식하시지 마시고, 요것을 의식하시지 마시고, 그냥 쭉 조금 전처럼 쭉 지나오신 것이라든지, 이 느끼신 것, 그런 것, 드르신 것, 이거 쭉 그냥, 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2 그래두, 조사장이 더 나운데.{그래도, 조 사장이 더 나운데.}

@ 아, 저 해 두어습니다. {아, 저 해 두었습니다.}

#2 그 뭐 아라야 말쓰를 디리지. 참고서 될만하게 업는데, 유이칸 말쓰를 해디리야 되는데.{그, 뭐, 알아야 말쓰를 드리지. 참고서 될 만한 것이 없는데, 유익한 말쓰를 해드려야 되는데.}

@ 제일 뒤 옐나레 경험하신 게 제일 나운데. 아까 그 군대 광게, 유기오 때 광게 경험담 얘기드를, 훨::썬 더 마능게 이슬 수 인제 양케습니까? 고런 것뜨를 지금 이제 다시 회상하는 그런 뜨스로 좀 애:기 해보시지요. {제일 뒤, 옛날에 경험사닌 것이 제일 나운데. 조금 전에 그 군대 관계, 6:25 때 관계 경험담 얘기들을, 훨썬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다시 회상하는 그런 뜻으로 좀 애기 해보시지요.}

#2 그 도움되는 말쭈도 아난데 우리가 늑게 귀향을 해가지고 지블 진따보니까는 우리지비 커요. 그 저네 일짜 지블. 게, 일짜 지블 왜 태켄냐 하믄 충청도 가서 받썬. 여긴 기억짜 지비요, 옐나레. 이웅으루다가 해 지따보믄 곡썬네는 빨리 썬거. 거기서 인제 차간을 한 거야. 충청도는 일짜 지빔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짜 지블 지어썬요. 인제 방이 세개에다가 쭉: 가운데 마루가 이꼬, 주방은 인제 옐:나레는 여페가 다룽거지. 그래가지구 쭉: 이따 보니까는 그러니까 큰 건:무리 업서서. 또 그 시대에는 인제 군

지역 아닙니까? 근데 항상 우리지비, 지끄른 관:사가 이찌마는, 연대장이고 누구고. 관사드른 업꾸 어디가다 세:드러 이싸람드리. {그 도움되는 말씀도 아닌데 우리가 늦게 귀향을 해가지고, 집을 짓다보니까 우리 집이 커요. 그 전에 일자(一字) 집을. 그제, 일자 집을 왜 택했느냐 하면, 충청도 가서 봤어. 여기는 기억자 집이요. 옛날에 이영으로 하여 짓다가 보면, 곡선(부분)에는 빨리 찍어.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한 거야. 충청도는 일자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 집을 지었어요. 이제 방이 세 개에다가 쪽 가운데 마루가 있고, 주방은 이제 옛날에는 옆이 다른 것이지. 그래서 쪽 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큰 건물이 없어서. 또 그 시대에는 이제 군(軍)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 집이, 지금은 관사가 있지만, 연대장이고 누구고. 관사들은 없고. 어디에 세들어 이 사람들이.}

#2 저넙지에 부연대장이 틀렸따구 봐쓸 찌개는 후임하면서 숙쏘꺼지 인게해 이 사람드리 자동저그루, 예, 항::상 그 지휘관드리 우리 지배 와서 인제 사:능거예요. 그러믄 그때 세부담 그냥 제:공을 해야 원칙인데 그냥 이 사람드리 한 달에 쌀 한가마 정도는 내: 그믄 큰도니야, 농초네서는. 게서, 주옥 그런 과정을 거쳐쨌는데, 한 버는 아까도 말씀 디렘찌마는 편무대 채김자가 우리 지비 오게 돼 이쨌요. 연대장이 이따가 그 통무대의 그 채김자가 완는데, 이사람드른 연대장보다 게:그븐 야찌마는 (@ 그러쨌니다) 직책찌그로 연대장드리 이 사라플 무시 모태요.{전임지에 부연대장이 틀렸다고 보았을 적에는, 후임하면서 숙고까지 인게해.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예, 항상 그 지휘관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세보다는 그냥 (숙소를) 제공을 해야 원칙인데, 그냥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쌀 한 가마 정도는 내. 그러면 큰 돈이야. 농촌에서는. 그래서, 쪽 그런 과정을 거쳐쨌었는데, 한 번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편무대 책임자가 우리 집에 오게 돼 있어요. 연대장이 있다가 그 특무대의 그 책임자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연대장보다 계급은 알지마는 (그렇습니다.) 직책적으로 연대장들이 이 사람을 무시 못해요.}

#2 그런데 이 사람 우끼는 얘기가 부카네서 월람해 온 사라미거든. 이:북 출시니야. 으 기밀쨌 더뿌네 여기 와 출쨌한다 이거야.(예){그런데 이 사람 웃기는 얘기가, 북한에서 월남해 온 사람이거든. 이북 출신이야. 으, 김일성 덕분에 여기 와 출쨌한다 이거야. (예)}

#2 기밀쨌이가 아니믄는 여기 나와서 통무대 그거를 할수 업따 이거지. 그래가지구 나와 지구 하는데, 이북 싸람드리 생활너기 강해요. (@ 강하지요) 그래가지구. 대:개 서울레나 그거 거::부드리 다: 이북출쨌드리야. 적쑤공권 빈소느로 와가지구 역:경을 디덕끼 때무네 그 성공헌거야. 여기 원주민드른 웬만허믄 안해요.{김일성이가 아니면 여기 나와서 특무대 그것을 할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나와 가지고 하는데, 이북 사람들이 생활력이 강해요. (강하지요.) 그래서 대개 서울레나 그거, 거부(巨富)들이 다 이북 출신들이야. 적쑤공권 빈손으로 와가지고 역경을 디뎠기 때문에 그, 성공한 것이야. 여기 원주민들은 웬만하면 안 해요.}

#2 아유 저건 뉘인데.{아유, 저건 무엇인데.}

#2 백:찌니까 아무거라두 해야돼. 그래 우리 일가..분도 으:주에서 온 사람도 익꾸. 우리 산 김쨌네, 대:개가 갑뿌에다, 거기두 이북쨌 온 사람드리 췌 갑뿌야. (예) 와가지구 다, 대: 성공을 향거쨌오. 현재에도 보믄는, 우리 여:네게도 보믄는 북칸 출쨌드리 만:치아나요? 정부에 그저 엔:나레 공무쨌:리허는 그저..강 누구니까? 이 사람 저:기

다: 부칸 출신드린데, 뭔가 그 사람드리 생활너지 강해요.{백지니까, 아무거나도 해야 돼. 그래 우리 일가 분도 의주에서 온 사람도 있고. 우리 안산 김썸데, 대개가 갑부예다, 거기다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갑부야. (예) (남쪽으로) 와 가지고 모두 대성공을 한 것이지요. 현재에도 보면, 우리 연예계에도 북한 출신들이 많지 않아요? 정부에 그, 저, 옛날에 국무총리하는 그, 저, 강 누구니까? 이 사람 저기, 다 북한 출신들인데, 무언가 그 사람들이 생활력이 강해요.}

#2 여기 경기도 뿐드른 온순해요. 여기에 사라메 성격나르미라고 그러지마는 도:별로두 성격글 무시모됩니다. 경상도라 하며는 거 (버빈는 대로도) 짜지 남성적이지 아주, 절라도는 절라도대루 건데 그 무시모태 지여글. 또, 예, 건데, 으음, 지끄른 건데 남썸 사람 절라도 짜람드리 출세하구 이짜나. 지끄른 또 허허.{여기 경기도 분들은 온순해요. 여기에 사람의 성격 나름이라고 그러지마는, 도별로도 성격을 무시 못합니다. 경상도라 하면, 거, 법 있는 대로도 짜지(?) 남성적이지 아주,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그런데 그 무시 못해, 지역을. 또, 예, 그런데, 으음, 지금은 그런데 남썸(南鮮) 사람, 전라도 사람들이 출세하고 있잖아. 지금은 또, 허허.}

#2 아:니 건데 과내 저:기 고향이 어디시요?(아니, 그런데 과내, 저기, 고향이 어디시요?)

@ 경:상남도 사:천요.{경상남도 사천요.}

#2 아:아, 그래서 인제 무관하단 말쓰미래꾼. 그래가지구 절라도 뿐들 지금 아주 출세하자나. 요로에, 요로에 다: 안자 이썸요. (@ 거의 지금 그러썸니다.) 먼점에는 부대루 너업거트른 연대장님미구 부대 연, 원사구 다: 경상도 뿐드린데, 정꾸니 배끼다보니까 주임 원사까지 뭐구 죄 이러케 돼. 이리 으시돼가. 으으.. 어제 회:가 이썸는데, 열:시 십썸차를 탈려구 여기 와 인는데, 여기 회장도 그때 막 나오더라고. 근데 그 하꼬가다 승용차가 딱 서더니 "일똥 나가세요?" 그러더라구. 그래서 "네, 일똥갑니다" 그랬더니, "타세요" 이거야.{아아, 그래서 이제 무관하단 말씀이였군. 그래서 전라도 뿐들 지금 아주 출세하잖아. 요로(要路)에 다 앓아 있어요. 먼젓번에는 부대로 너업(?)같으면, 연대장님이고 부대 연, 원사고 모두 경상도 뿐들인데, 정꾸니 바뀌다보니까 주임 원사까지 무엇이고 모두 이렇게 돼. 이리 으시되어 가. 으으, 어제 회가 있었는데, 열시 십 분 차를 타려고 여기 와 있는데, 여기 회장도 그때 막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상자형 승용차(지프차)가 딱 서더니, "일똥 나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일똥 갑니다." 그랬더니, "타세요." 이거야.}

#2 "아아니, 세워도 안 서는데, 우정 세워가지고 고맙게 이러케 태와주느냐"고 그러더니, 사보글 해썸. (아아) 인제 "일똥가는 기린데요. 예가 십년대쥬?" 그러더라고. 그래서 십년대라니깐 "십년대 주임원사가 우리 형님이예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경상도 말썸을 썸. (아아) 아, 이래서 경상도 뿌니 재애꾸나 내가 아란썸.{“아아니, 세워도 안 서는데, 일부러 세워가지고 고맙게 이렇게 태워주느냐”고 그랬더니, 사복을 했어. (아아) 이제 “일똥 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십년대이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십년대라고 하니까, “십년대 주임 원사가 우리 형님이예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경상도 말썸을 썸. (아아) 아, 이래서 경상도 분이 쟁구나(?). 내가 알았지.}

#2 그 표현하능거 보며는 알거든. 어디 출신이래능겉. (@ 그러썸니다. 쪽: 다녀쓰니까) 그런데, 경상도 뿌니 요버네 또 돼:썸요. 그런데 뭔:가 아주 뭐, 교수니미 경상도래 그렁거보담두 성격썸그로 남성저기야 저어 남썸 뿐드리. 그리구 이기 소백산매게 혈매글 탄는지. 경상도 뿐드리 지금 출세, 과거 출세 해썸다. 죄:다 대통령드를 세부늘

배추를 핵:꼬. 소맥(백)사네 산맥이 가서 정기가 몽친 모양이야. 그런데 그.. 사네 (대무?) 지혜가 무시모태요. 으 저.. 지관 애:기드른 그또 일리가 인는 애:기드리 아닌가.{그 표현하는 것 보면 알거든. 어디 출신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쪽 아녜오니 까) 그런데, 경상도 분이 요번에 또 됐어요. 그런데 무언가 아주 뭐, 교수님이 경상도라서 그런 것보다도, 성격적으로 남성적이야. 저어, 남선 분들이. 그리고 이것이 소백산맥의 혈맥을 탔는지, 경상도 분들이 지금 출세, 과거 출세 했수다. 죄다 대통령들을 세 분을 배출을 했고. 소맥(백)산에 산맥이 가서 정기가 몽친 모양이야. 그런데, 그, 산에 (대무?) 지혜가 무시 못해요. 으, 저, 지관 애기들은 그, 또, 일리가 있는 애기들이 아닌가.}

#2 그래서 먼저 서우레서 온 그 지리학 박사 선생니미 그 지반이나 향가지지요. 이양바니 간따니 논해서 허다모태 시:장이라도 그 지비 과거 시:장이 된 사라미 지비 그 선덜 가보른 뭇:가 산세에 나타난다 이거야. 이거 지리래능걸 무시할 수 업따. 이런 얘기를 해. 그런데 과거에두 이 지역게두 이XX 씨가 국회의원네 공무총리를 해짜나? 고성 이씨가. 거기 선대자리 먼찌게 썬때. 나는 뭇가 거기에도 무실 모태. 으, 거 명모기래능 거. {그래서 먼저 서울에서 온 그 지리학 박사 선생님이 그 집안이나 한 가지지요. 이 양반이 간단히 논해서, 하다못해 시장이라도 그 집이 과거 시장이 된 사람이 집에, 그 선대를 가보면, 무언가 산세에 나타난다 이거야. 이거, 지루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런데 과거에도 이 지역에도 이XX 씨가 국회의원에, 국무총리를 했잖아? 고성 이 씨가. 거기 선대 자리 멋지게 썬대. 나는 무언가 거기에도 무시를 못해. 으, 거, 명목이라는 것.}

#2 그리구 우리 지바네두 지끔 영어생활하는 김XX가 이짜나? 이 사람두 무임소 장관까지 했는데, (아까 대에) 삼형제 부느 추월 하라버지 산소 증:말 머뭇니다. 저 ()보러가니 그러니까 뭇:가 거기 연유가 된다고 봐야 되거찌. (음) 지리학 박사 애:길 드러니까 하나하나가 또 이해가 가는 이야기야. 예를 드러서, 예, 우리 이런 데서 교통사:고가 불시 날따구 해두, 그 지빌 가문 먼대 존가 뭇:가 그런 자리에다 행양지게 으, 모셔따 이거야. 아, 소그로 아, 그러구나 내 감동만 느꼈찌.{그리고 우리 집안에도 영어 생활하는 김XX가 있잖아? 이 사람도 무임소 장관까지 했는데, (아까 대에) 삼형제 분으 추월 할아버지 산소 정말 멋집니다. 저 ()보러가니 그러니까 뭇가 거기 연유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 (음) 지리학 박사 애길 들으니까, 하나하나가 또 이해가 가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예, 우리 이런 데에서 교통사고가 불시에 났다고 해두, 그 집을 가면, 몇 대 조인가 무언가 그런 자리에다가 행양지게 으, 모셨다 이거야. 아, 속으로 아, 그렇구나 내 감동만 느꼈지.}

#2 인제 노인 대하게도 가보르는, 열마디에 한 마디 능게줘 뭇:가. 아, 강사드리 항상 바뀌어요. 그게, 그런데 여기두 인제, 대학교:수문 대진대학교에서 교:수도 오구, 사회저 그론 유리에 거물꼭뜨리 오시구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 그 양반드리 말씀하시는 분드리 한두가지 회는 거저, 아.., 상사 함부니 두시간 똥안예요, 한 사시보분 강이를 하고 쉬언따가 또, 그 다으메 (제이 쿨), 드러가는데 두시간씨기야 한부니. (두시간씩) 예, 거기서 피료한 말씀드리 하나하나가 인제, 이찌. 그래서 요즈믄. 우리 노인 대하기 하절기라. 방하기야 요즈믄. (예) 구월따래 인제 다시 가는데,{이제 노인 대학에도 가보면, 열 마디에 한 마디 넘겨 주어, 무언가. 아, 강사들이 항상 바뀌어요. 그게, 그런데 여기도 이제, 대학 교수면 대진대학교에서 교수도 오고, 사회적으로는

유럽의 거물급들이 오시고 하는데, 한 마디 한 마디 그 양반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두 가지 회는 거저, 아, 상사 한 분이 두 시간 동안예요. 한 사십오분 강의를 하고 쉬었다가 또 그 다음에 (제이 쿨), 들어가는데 두 시간 썩어야. 한 분이. (두 시간 썩) 예, 거기서 필요한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있지. 그래서 요즈음은, 우리 노인대학이 하절기라. 방학이야 요즈음은. (예) 구월 달에 이제 다시 하는데,}

#2 거기 숙제냉게 뭐냐하며는, 간단하지 뭐. 학문 여러분 답파능게 아니구. 어느 강사에 강의가 뭔:가 실가미 나더냐? 그 실감나는 구저리 뭐:냐요. 기재해 오라. 그런데, 대:개 강사님들 보며는 한 팔십프로 정도는 다 아는 분드리야.{거기 숙제 낸 것이 뭐냐 하면, 간단하지 뭐. 학문 여러분 답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강사의 강의가 무언가 실감이 나더냐? 그 실감나는 구절이 무어냐요. 기재해 오라. 그런데 대개 강사님들 보면, 한 팔십프로 정도는 다 아는 분들이야.}

#2 대학교 교:수만 몰랐찌. 재:계비의 유지드른 다 그 참교름 향교에 정:X니미 오시지 또 이XX 씨라고 향토사 연:구소장님인데 이 양바니 팔쭈:니 너멤썩니다. (아아)팔쭈:니 너머가지고 팔쭈:잔치를 했는데 그때 한번 참썩글 해봤는데 뭐 화환이구 뭐 말도 못해. 그런데 이 어:르네 경너기 포천썩 출썩을 해가지구 YY에서 고등학교 교:장을 이:심면너늘 행:때. 교:편 (예) 그리고 고 다으메 경기도 교육위위를 여김행:꼬 오, 그래서 이양바니 향문썩그로 야:시능게 망꾸 그래서 강여늘 향:구게 그 이썩 조서니 그래도 ‘으:배게 나능거늘 유절쭈 인능거슨’ (예) 오:직 예이정신 때무니다. 예:절 때무네. 이 사라문 그걸 강의하더구면. 그래서 나도 전주 이가구 전주 니씨가 ‘의썩해서 누가 어:더닐’ 또한 ‘니거 일:해’ 완는데, 다, 그런 거 충성심과 예:절 그 마음가지구 때에 따라서는 굴곡뚜 이썩썩마는 솔썩히 그 양바니 이야길 해. 장단점도 이썩마는 그래두.{대학교 교수만 몰랐지. 재계비의 유지들은 다 그 참교름 향교의 정 X님이 오시지 또 이XX 씨라고 향토사 연구소장님인데, 이 양반이 팔쭈:니 넘었썩니다. (아아) 팔쭈:니 너머가지고 팔쭈:잔치를 했는데, 그때 한 번 참썩을 해봤는데, 뭐 화환이고 뭐, 말도 못해. 그런데 이 어른의 경력이 포천에서 출썩을 해가지고 YY에서 고등학교 교장을 이십 몇 년을 했대. 교편(?)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위원을 역임했고, 오, 그래서 이 양반이 학문적으로 아시는 것이 많고 그래서 강연을 한국의 그 이썩 조선이 그래도 ‘으백에 나는 건을 유절쭈 있는 것은(?)’ (예) 오직 예의정신 때문이다. 예절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을 강의하더구만. 그래서 나도 전주 이가고, 전주 이씨가 ‘의썩해서 누가 어더닐’ 또한 ‘닉어 일해’ 왔는데, 다, 그런 것 충성심과 예절, 그 마음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굴곡도 있었지마는, 솔썩히 그 양반이 이야기를 해. 장단점도 있지마는 그래두.}

#2 세:계사를 보더라도 그러케 오래똥안 지꺾년 그런 세대가 업썩파 이거지. 네, 그게 바로 충효사상과 예:절 때무네 그게 유지가 되얼파. 이 양바니 평까를 하시더구면. 그래서 아아, 마썩니다. 인제 그래썩.{세계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한 그런 세대가 없었다 이거지. 네, 그것이 바로 충효사상과 예절 때문에 그것이 유지가 되었다. 이 양반이 평가를 하시더구만, 그래서, 아아, 맞썩니다. 이제 그랫어.}

#2 그 다으메 저:기 이XX 씨라구. 이 양반도 역썩 경, 포천 출썩네다가 역썩 이 양반도 교장출썩 포천에서 며썩년 한 부니야. 이 양바니 와서 강여늘 하문 예이, 예이 때무네, 예이를 간따가 시문 강여늘 보는데, 그 부는 은퇴해가지구 교육공무원들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드를 예, 예절교유글 담당이래요. 그러니까 매일 가능게 아니

고, 그 고기서 예:절교유글 시키구, 때에 따라선 제주도꺼지두 간다 이거지. 내가. 이런 분드리 오시는 데, 판테 수강생드리. 아:니 기미 어째 교:사마다 다 아라? 아이, 교사 아는거는 그래도 아:는 처근해야 그런 분드리 기분 조아할 꺼 아니냐. 이제 말로 표현는 그럭커는데, 이러케 아:는 분드리 와가지구 강의를 하구 그래요. 근데, 여기 노인대학교는 학짱니미 이썬요. 학짱. (예) 학짱이 인는데 포쳐네 노인대하기 처으메 하나가 창설되억꼬 게에, 쭈욱 업썬썬요. 그러다가 음, YY에 노인대하기 또 하나 생겨꼬 고 다으메 YY하구 일똥에 노인대하기 또 창서리 두 군데, 그래서 조, 학썬드리 이쓰까 생가글 해썬썬요. 처으멘. 포:쳐네 하나 이썬두 그 학생 증원허기가 맨들 힘드려썬.(그 다음에, 저기, 이XX 씨라고. 이 양반도 역시 경, 포천 출신에다가 역시 이 양반도 교장출신, 포천에서 몇 십년 한 분이야. 이 양반이 와서 강연을 하면, 예의, 예의 때문에, 예의를 가져다가 시문 강연을 보는데, 그 분은 은퇴해 가지고 교육공무원들,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들을, 예, 예절교육 담당이래요. 그러니까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거기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제주도 까지도 간다 이거지. 내가 이런 분들이 오시는 데, 판 데 수강생들이, 아니, 김(金)이 어째 교사마다 다 알아? 아이, 교사 아는 것은, 그래도 아는 적은 해야 그런 분들이 기분 좋아할 것 아니냐? 이제, 말로 표현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는 분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노인대학교는 학장님이 있어요. 학장. (예) 학장이 있는데, 포천에 노인대학이 처음에 하나가 창설되었꼬. 그것이 썩 없었어요. 그러다가, 음, YY에 노인대학이 또 하나 생겼꼬, 그 다음에 YY하고 일똥에 노인대학이 또 창설이 두 군 데, 그래서 저, 학생들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포천에 하나 있어도 그 학생 증원허기가 매우 힘들었어.}

#2 그래 그 일똥이여그로다가 창서리 되었는데, 지금 학짱이 내 둘썬노메 은사예요. (예) 그래 인간썬그로 잘 알:지. 그런데 그래 그 부라게 노인회장이니까 공문상으로 경노당마다 며사람 차출해라는 공무니 와요. 일반 회원들만 몰르지. (#1 그래) 그러믄 책임자니까 예 피알할썬백께. 그런데 노인대학교 신청을 내라 그러믄 진짜 바빠서 갈 사람 업썬. 그러다 보면 경연자는 강이할 수는 업꼬. 업따구 이제 복명을 해야 할 꺼 아니야. 우리 사직삼 경노당에는 업따고 얘기를 하며는 이 양바니 장년부터 그래.{그래 그 일똥이 역으로다 창설이 되었었는데, 지금 학장이 내 둘썬놈의 은사예요. (예) 그래 인간적으로 잘 알지. 그런데 그래 그 부락의 노인회장이니까 공문상으로 경로당마다 몇 사람 차출하라는 공문이 와요. 일반 회원들만 모르지. (그래) 그러면 책임자니까, 예, 피알(PR)할 수밖에. 그런데 노인대학교 신청을 내라 그러면 진짜 바빠서 갈 사람 없어. 그러다 보면 경연자는 강의할 수는 업고. 업다고 이제 복명을 해야 할 것 아니야? 우리 사직 3(동) 경로당에는 업다고 얘기를 하면, 이 양반이 작년부터 그래.}

#2 아이, 정:히 업쓰면 XX 아버지라두 나가라 이거야. 그냥 안나가썬. 장녀네두. 금녀네 또 업따고 간떠이 금녀네 또 그래. (예) 그래서 할썬업썬 이제, 노인대학교 이과글 해가지구 금녀네 다니는데, 이 양바니 절라도 뿌니야. XXX이 양바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다며는 이 양반도 잘: 아시지마는 포쳐:네 노이니 지회가 이썬요. 행정관서로는 군청이놀(?) 항가지로. 계통이 인는데, 애당초에 그, 이:댕가 삼대째 XXX 씨라고 이 양바니. 노인, 저기..제:자여썬썬. XXX 이양바니. 그런데 거기 차지리 생긴게 뭐냐하믄 이 양바니 상조회를 간따가시니 이끌구 나가서썬요. 게 전회 노인 회:장니미 그

걸 조지글 항거지. 영리단체가 아니구, 이익금 가지구 운영허기 위해서 한는데, 쪽: 허다보니까는 이게 순화니 돼야 돼요. 도라가는 부니 인능가하며는 가입짜가 이썬요. 항상 충워니 돼야지 아냐? 이 자그미. 돈:바다가지구 도라가는 부를 보상해주야 하니까.{아이, 정히 없으면, XX 아버지라도 나가라 이거야. 그냥 안 나갔지. 작년에 도. 금년에 또 없다고 갔더니, 금년에 또 그래.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노인대 학교 입학을 해 가지고 금년에 다니는데, 이 양반이 전라도 분이야. XXX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 양반도 잘 아시지마는 포천에 노인이 지회가 있어요. 행정관서로는 군청이눌(?) 한 가지로. 계통이 있는데, 애당초에 그, 이 댕가 삼 대째 XXX 씨라고. 이 양반이 노인, 저기, 제자였었어. XXX 이 양반이. 그런데 거기 차질 이 생긴 것이 무엇이나 하면, 이 양반이 상조회를 ‘갖다가시니’ 이끌고 나갔었어요. 그것이, 전회 노인 회장님이 그걸 조직을 한 것이지. 영리단체가 아니고. 이익금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쪽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순환이 되어야 해요. 돌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입자가 있어요. 항상 충원이 되어야 하지 않아? 이 자금 이, 돈 받아 가지고 돌아가는 분을 보상해 주어야 하니까.}

#2 그래 여기에 더 가는 부는 계시고. 가이퍼는 사라문 적:꺼나 그른 이게 뭐가 그, 마이 나 스가 되게 돼 이썬요. (예) 근데 지회장 성거쩌게 요버네 그 사임헌 이동에 이 양바 니 인제 나왔는데 이동에 예라고 이 양바니 나가지구. 야, 이거 성거래능거 모썬게 꾸나 완저니 느꼈썬. 여페 안치구 상대방은 자기가 표를 억끼 위해서는 디리, 공격 글 까야돼. 저게 저걸 해야되나 하는데, 안쳐노쿠 여페서 상대방의 약저를 디리 인 제 공격글 하더라구. 그래 어떠케해서 표루다가 이 사라미 땀:짜아나? 그래 당서니 돼가지구 인제 임기가 삼너니예요. 예, 그래 그 후에 경노당 회장이 다 그렇건 아니 지만 뜨신는 인사드른 교체해야게꾸나 느꼈썬 그때. 그래가지구 삼년 후에 성거를 허는데, 대:결짜가 그 양반도 과거에 내:무좌장을 지내꼬, XXX 씨라고. {그래 여기 에 더 (돌아)가는 분은 계시고, 가입하는 사람은 적거나, 그러면 이것이 무언가 그,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회장 선거 적에 요번에 그 사임헌 이 동의 이 양반이 이제 나왔는데, 이동에 예라고 이 양반이 나(와) 가지고. 야, 이거 선거라는 것 못쓰겠구나. 완전히 느꼈어. 옆에 앉히고, 상대방은 자기가 표를 얻기 위해서는 들이 공격을 까야 돼. 저게, 저것을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앉혀놓고 옆 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들이, 이제, 공격을 하더라고. 그래 어떻게 해서 표로다 이 사 람이 (지회장이) 땀:잖아? 그래 당선이 되어 가지고 이제 임기가 삼년이에요. 예, 그 래, 그 후에 경로당 회장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뜻 있는 인사들은 교체해야 되 겠구나 (하고) 느꼈지. 그때. 그래서 삼년 후에 선거를 하는데, 대결자가 그 양반도 과거에 내무과장을 지냈고. XXX 씨라고.}

#2 이 양바니 포:처네 사시구 가차우니까 거기 운영과정 실제를 누가 더 잘 아라. 우리 지 방에서 뭐 압니까? 그래서 그 양바늘 협조를 해가지구 그때 협조한 사람 예:비일썬. 회:장 아니라도 행정저그루 안전하지. XXX이. 그래 나하구, 으, XXX이나? 회:장하구 두:리 그래가지구 피아를 허젠는데, 역썬 예, 지끔 정부를, ‘으:케되믄(?)’, 지끔 매 항가지지. 허너글 이, 이 회장이, 게두 삼년간 피아를 해 그 사라를 다 알자나. 새로 나온 사람 피알하기는 힘듭니다.{이 양반이 포천에 사시고 가차우니까 거기 운영과 정 실제를 누가 더 잘 알아. 우리 지방에서 뭐 압니까? 그래서 그 양반을 협조를 해 가지고 그때 협조한 사람 예비일썬. 회장 아니라도 행정적으로 안전하지. XXX이. 그

래 나하고, 으, XXX이냐? 회장하고 둘이. 그래서 피알(PR)을 하겠는데, 역시, 예, 지금 정부를 ‘어케되면(?)’ 지금 매 한 가지지. 현역을 이, 이 회장이, 그래도 삼년간 피알을 해. 그 사람을 다 알잖아. 새로 나온 사람 피알하기는 힘듭니다.}

#2 (예) 그래가지구 대:겨를 했는데, 이 양반 팔십표백개 모더덜썬. 그리구 전임 회:장은 게 두 뱅며표를 어더서 이십표 차요. 다시 재임 이:년. (예) 그래 이:녀를 했는데, 그래 두 그 당시 교체를 모태썬요. 게, 금녀네 임기가 이, 이:대 임기가 또 끝나서 또다시 선:출해게 돼이썬요. (아직) 아니 그래서 인제 선:추른 인제 사뭇 따래 지나간 과, 지나간 애: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 순:칙 공무니 웅게 돼이썬냐? 회장마다. 며될 며칠 날 회:장 선추리 이따하는 공문서가 나와요. 그리구 인제 거게 동시에 어, 지회장에 출마할 때 출마할 썬라든 며될며칠까지 신청서를 내라. 공무네 나옴니다. 일괄 그래 딱 공무늘 보니까는 사뭇이:십이일날 이:십오일나리 투폰나린데, 이:월이십이일까지 제출해라 그래서 내가 감 따서. 사무국장이 날짜 하루이트른 작가글 이르킬까 한다 른 작가글 이르킬썬는 업썬니다. 그럼 뜨신는 인사가 일거받썬 썬엔 아차 신청이리 지났꾸나 해가지구 등로글 모:타게 작썬이라구 그래. 그래서 어디서 항의가 드러간 는지 재공무니 완뎌라구. 작가글 이르썬썬니다. 이거야. 그래가지구 사뭇 며칠까지 제출해라. 박두해썬요.{(예) 그래서 대걸을 했는데, 이 양반 팔십 표밖에 못 얻었어. 그리고 전임 회장은 그래도 백 몇 표를 얻어서 이십 표 차요. 다시 재임 이년. (예) 그래 이 년을 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 교체를 못했어. 그래, 금년에 임기가 이, 이 대 임기가 또 끝나서 또 다시 선출하게 되어 있어. (아직) 아니, 그래서 이제 선출 은 이제 삼월 달에 지나간 과, 지나간 애: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 순:칙(?) 공문이 온 것이 되어 있잖아? 회장마다. 몇 월 며칠 날 회장 선출이 있다고 한니 공문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시에, 어, 지회장에 출마할 때 출마할 사람은 몇 월 며칠까지 신청서를 내라고 공문에 나옴니다. 일괄, 그래, 딱, 공문을 보니까 삼월 이십 이일 날, 이십 오일 날이 투표날인데. 이월 이십 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래서 내가 감 을 잡았어. 사무국장이 날짜 하루 이틀은 작각을 일으킬까 한 달은 작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뜻 있는 인사가 읽어보았을 적에, 아차 신청일이 지났꾸나 해 가지고 등록을 못하게 (할) 작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디서 항의가 들어갔는지 다시 공문이 왔더라고. 작각을 일으켰썬니다. 이거야. 그래서 삼월 며칠까지 제출해 라. 박두했지요.}

#2 그래두 공문 내:보낸대능게 사이린가 오일 압뚜구 등록하라구 다시 공무니 와썬. 그런데 우리네 두상하구 인는 사라미 함분인데 그 양바니 부리야부리야 이걸 험녀글 하 구, 선거운동을 기간두 업썬. 날짜 촉빠하게 맨드러 달도 아예 틀렷따가 요 그러케 임박썬는데 뭘. 그래두 어떠케 다나비 왜가지구 투표한 결과 그 양바니 백이십 육푼 가 얼마 억꼬, 정 그 회:장이 백녀푼 어더가지구 우리가 그거 왜, 추대하던 부니 당 선이 뻔썬요. (예) 그래 낙과늘 해:썬. 기타에서 왜:따. 그 매일 갈수도 업꼬. 지방에 서 얼마마네 항:상 전화로 무러보며는 언:제 취임식하느냐 그래떠니 아, 곧 타게 되 게썬요. 이사라든 나뻔하구 이뎡거지 으려니 해주랴. 이런데 항:상 보:고에 중앙회구 여나뻔에다 보:고를 정회워니 비호니 해가지구 자겨기 업:따고. 이이를 막 제기하능 거야 이게, 중앙회에다가.{(그래도 공문 내보낸다는 것이 사일인가 오일 앞 두고 등 록하라구 다시 공문이 왔어. 그런데 우리네 두상하고(※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 양반이 부랴부랴 이것을 협력을 하고, 선거운동을 가간도 업어. 날

짜가 촉박하게 만들어 달도 아예 틀렸다가 요, 그렇게 임박했는데 뭐. 그래도 어떻게 단합이 되어 가지고 투표한 결과, 그 양반이 백이십육 표인가 얼마 얻고, 정 회장이 백여 표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그거, 왜, 추대하던 분이 당선이 되었어요. (예) 그래 낙관을 해찌. 기타에서 되었다. 그 매일 갈 수도 없고. 지방에서 얼마만에 항상 전화로 물어보면, 언제 취임식하느냐 그랬더니, 아, 곧 하게 되겠지요. 이 사람은 낙관하고 있던 것이지. 으러니 해주랴. 이런데 항상 보고에 중앙회고 연합회에다 보고를 정회원이 비호니 해 가지고 자격이 없다고. 이의를 막 제기하는 것이야. 이게, 중앙회에다가.}

그러니 그이 돼:씀니까? 그거 명예지긴데, 기왕이든 성:거라며는 으 여기 다 그 성:거에 으 해서 표에 의해서 가:결되능걸루 승보글 하구 승자한테 협조를 하능게 야:량을 베푸 러야지.{그러니 그게 되었습니까? 그거, 명예직인데, 기왕이면 선거라면, 으, 여기, 다, 그, 선거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가결되는 것으로 승복을 하고 승자한테 협조를 하는 것이 아량을 베풀어야지.}

#2 노인회 단:체 늘그니가 시버를 보여야 될 텐데, 얼른 나쁘게 말해서 물구 느러진다 이거 야. 근데, 여기서는 이쪼게 추지늘 현 사람드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구 여기저기 요:로에 권:고해받:짜, 저:쪼게 행정쪼그루다 보고를 하지 그냥 해가지구 이거 히 미 이씀니까? 예 최:종저그루는 그, XXX 씨, 그러니까 중이 제머리 목각짜나 승자가. 그래가지구 주위 싸람드리 소송을 제:기해라 얘기를 해떠니 글썽:글썽:하더니 점:자는 부니, "아니, 그거 무슨 대단항거라구 뭐하러 소송까지 허구 그러느냐?"구. "나는 포기허겄따." 이러케 점:잔치요. 그러니까 별썽.{노인회 단체 늙은이가 시범을 보여야 될 터인데, 얼른 나쁘게 말해서 물고 늘어진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 쪽에 추진을 한 사람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저기 요로에 권고해 보았 자, 저쪽에 행정적으로 보고를 하지 그냥 해 가지고 이거 힘이 있습니까? 예, 최종 적으로는 그, XXX 씨,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꺾잖아. 승자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라. 얘기를 했더니, 글썽 글썽 하더니 점잖은 분이, "아니, 그거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뭇하거 소송까지 하고 그러느냐?"고. "나는 포기하겠다." 이 렇게 점잖지요. 그러니까 별썽.}

#2 이쪼게 추진한 사람드리 이짜나. 이 사람 임:기는 끈나찌마는 선출허기 전 판게 두구 거 기두 추종 세력뜨리 저 쪼게두 썽지. 그래서 언제 또다시 재성거한다 이러케 나와는 데, 그때가 이, 지방 성거::를 얼마 압꾸고 그런 께:니 버러전짜나요. 그래서 시:장두 양:쪼글 뭐라구 마를 모터지. 그럼 시장 과나래 지여게 노인이니까 이쪼게서 궁리를 해가지구 어떠케 좀 조절해달라 이래떠니, 그 시:장이 어떠케 조정을 해. 표루다가 여기에 마따 해이는데 인수잉게 아나구 사:고, 정 게워니니 뭐:니 해가지구 하는데. 그래서 그 사라를 떠억 불러서 시:장니미. (예) 당선자하구 전임 썽회장하구. 이러케 안치구, 그래 거기서 시:장니미 뭐:라그래? 두:부니 조:케 해결보시라구 썽 자리를 피해썽. 그 누구를 위힐 썽 업쓰니까는. 그러니 그 자리에서 그..전임회장 이야기가 그거 나는 직썽 무슨 그런 얘:기가 들려요. 임기가 연장이 돼:썽요. 인제 사:녀니나 아푸루. 먼저 삼녀닌데 (아아, 일련 느러) 아아, 인제 이양반 이야기가 "내가 이녕간 먼저 불테니까 이녕간 후임 보능게 어떠냐?"고 제이를 허더래. 게, 당선자가 "아이, 나는 그렇거 피료업따"하구 나감때. 왜, 아:니 그 결과 소송해뎀 [...] 지가 먼저 보 구. 고 다음 이:년 보라. 그러니 작썽이야 그게. 이년 그 다음에 그대루 헐라구 그러

능거 아니야? 작쩌니지 그게.{이쪽에 추진한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 임기는 끝났지마는 선출하기 전 ‘관계 두고(?)’ 거기에도 추종 세력들이 저 쪽에도 세지. 그래서 언제 또 다시 선거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가 이, 지방 선서를 얼마 앞 두고 그런 건(件)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양쪽을 뭐라고 말을 못하지. 그럼 시작 관할의 지역의 노인이니까, 이쪽에서 궁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좀 조절해 달라고 이랬더니, 그 시장이 어떻게 조정을 해. 표로 여기에 ‘마다 해이는데(?)’ 인수인계 안 하고, 사고, 정 계원이니 뭐니 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불러서 시장님이. (예) 당선자하고 전임 지회장하고. 이렇게 앉히고. 그래 거기서 시장님이 뭐라 그래? 두 분이 좋게 해결 보시라고. 쪽 자리를 피했어. 그 누구를 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서 그 전임회장 이야기가, 그것 나는 직접 무슨 그런 얘기가 들려요. 임기가 연장이 되었어요. 이제 사 년이니까 앞으로. 먼저는 삼 년인데, (아아, 일 년 늘어) 아아, 이제 이 양반 이야기가 “내가 이 년간 먼저 볼테니까 이 년간 후임 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를 하더라. 그래, 당선자가 “아이, 나는 그런 것 필요 없다.”하고 나갔대. 왜, 아니, 그 결과 소송했던 [...] 자기가 먼저 보고 그 다음 이 년 보아라. 그러니 작전이야, 그것이. 이 년 그 다음에 그대로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작전이지, 그것이.}

#2 그래 요버네 다시 허는데, 성:거를 허는데, 이 양바니 아직 후보로 안나올거야. 그 여기 자꾸 밀던 사래미 XXX이야. 그 참전용사 회장이야. 포천에. 그래 이 양반, 내가 그 저네 그래쎄. 외:래 그까지 사양을 허며는 대결짜 나와야 될텐데, 누구보다 게도 회장이 나오라구 마리아. 참전용사 회장이 회장 해야자나? "아이구, 내가 어텸하느냐?" 그러믄. 그래 혈쑤업씨 주위에서 권해서 그 싸라미 나와쎄요. 안나온다고 허믄, 이쑤게 또 무투표 당선을 시키지아나. 그나마 그래가지구두 엄널 해쎄서요. 이이가. 그 어튼 승사를 해야 될텐데 해가지구 추지를 형거쑤. 내안 저.. 썩억캐서 통할 수 인는 사람들. 그 나이 먹따 보니까 이 양반드리 성:거라구 하구 쑤욱 치르다보며는 재:미 이쎄요. 딱 일똥에 경노당이 슴, 이십삼개데. 경노당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봅니다. 내가 애:기해서 드를 쑤 인는 사라믄 이제 똥그라밀 치능거야. 그러구 좀 알쑤달쑤한 사라믄 삼각쑤 표시를 하구, 아예 절루 갈 싸라믄 각께폴 해가지구 그때부터 추지를 허능거야. 똥그래미표 하나하나, 이거는 이제 드릴만한 사라미니까 애:기를 허쑤. 고거시가 한 칠십프로 쟁도 돼. 참전용사회 회:장이 세:사라미야, 일똥팔레 회:장 니미.{그래, 요 번에 다시 하는데, 선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아직 후보로 안 나온 거야. 그, 여기 자꾸 밀던 사람이 XXX이야. 그 참전용사 회장이야. 포천에, 그래 이 양반, 내가 그 전에 그랬어. 외:래 그까지 사양을 하면, 대결자가 나와야 될 텐데, 누구보다 그래도 회장이 나오라고 말이야. 참전용사 회장이 회장 해야잖아? “아이구,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래 할 수 없이 주위에서 권해서 그 사람이 나왔어요. 안 나온다고 하면, 이쪽에 또 무투표 당선을 시키지 않아? 그나마 그래서도 염려를 했었어요. 이이가, 어쨌든 승산을 해야 될 텐데 해 가지고 추진을 한 것이지요. 내안 저, 썩억해서 통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나이 먹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선거하고 하고 쑤 치르다 보면, 재미 있어요. 딱, 일똥에 경로당이 슴, 이십 삼 개인데, 경로당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 봅니다. 내가 애기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똥그라미를 치는 거야. 그러고 좀 알쑤달쑤한 사람은 삼각 표시를 하고, 아예 저쪽으로 갈 사람은 가위표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추진을 하는 거야. 똥그라미표 하나하나,

이것은 이제 드릴 만한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지요. 그것이 한 칠십프로 정도 돼. 참 전용사회 회장이 세 사람이야. 일동 관내 회장님이.}

#2 또 유:대관계로써 회:장이 네:사라미고. 그럼 닐곱 싸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구 통할 쉰 인는 사라몬 다: 통허구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우리가 밀던 사라미 백사십네표를 어더썩요. 당선자 요버네. 저 양바는 먼저 어든 거마는 모:덕꼬, 그러니 노인네가 술 썩키 말해서 얼구레 똥칠헌거지 뭐야. (기침) 근데 거기에두 현명한 사:라미 인떠라 구. 투표직전네 공시기 업써 회이석상에. 썩썩 해가지구 궁민으레허구 뭐 어찌구 경과에 아푸루 어떠른 방버브로다가 투표를 한다 하는데, 저기서 안저서, 영편 달라 구 소늘 드러. 그 뭐:냐구 이쥬게서. 채김자가 업짜나 사무국장배께 더 이썩. (기침) {또 유대관계로서 회장이 네 사람이고. 그러면 일곱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통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통하고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우리가 밀던 사람이 백사십네 표를 얻었어요. 당선자 요번에. 저 양반은 먼저 얻은 것만큼은 못 얻고. 그러니 노인네가 술직히 말해서 얼굴에 똥칠한 것이지 뭐야. (기침) 그런데 거기에두 현명한 사람이 있더라고. 투표 직전에 공식이 없어 회의 석상에. 썩썩 해 가지고 국민의례하고 뭐 어찌고 경과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다가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저기서 앉아서 발 언권을 달라고 손을 들어. 그 뭐냐고 이쪽에서. 책임자가 없잖아. 사무국장밖에 더 있어? (기침)}

#2 내가 한마디 바련할테니까 마이크를 달라 이러니까, "바련 지금 안 됩니다" 이거야. 무얼 바련하는지도 모르니까, 안 된다능걸 무조건 나가능거야. 단상을 나가더니 마이크를 지가 스스로 자바. 이 양바니. 그 얘:길 허능거야. "나 지금 회:장 XXX 썩하고 두 친절하고, 썩욱 뉘뉘 내가 적꼭 밀려따" 이거야. 그러며는 정정당당하게 승자한테 승보글 하고 해야지, 이:대 이차까지 투표를 해가지구 되느냐? 지끄몬 사태를 해:라 이거야. 명예롭게. {내가 한 마디 발언할테니까 마이크를 달라 이러니까, "발언 지금 안 됩니다." 이거야. 무얼 발언하는지도 모르니까 안 된다는 것을 무조건 나가는 거야. 단상을 나가더니 마이크를 자기가 스스로 잡아.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지금 회장 XXX 썩하고도 친절하고, 썩 몇 대를 내가 적극 밀었다." 이거야.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승자한테 승복을 하고 해야지, 이 대 이차까지 투표를 해 가지고 되느냐? 지금은 사퇴를 해라. 이거야. 명예롭게.}

#1 오:른 마를 헨네 뭐.{옳은 말을 헨네 뭐.}

#2 그러니까 박썩가 터져요. 거기에서 표 꺾 또 깨끼구. 이 사라미 시킨 겐뚜 아니야. 스스로 다 이거 감:걸리키까지 웅거야. 그래가지구 여러 말로 하구 단상을 내려와썩. 나 저:쥬게 안자썩. 가서 악썩를 해썩. 고:맙다구. 그래 참. 그렇거 표현하기 힘든데. 아, 그 어떡커나 내가 화:가 나는데. 그래 돼가지구 이 양바니 당:서니 돼:짜나. 그래서 억꺼저께 취임시글 해썩요. (예){그러니까 박썩가 터져요. 거기에서 표가 꺾 또 꺾이고. 이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야. 스스로다 이거 감걸리키(?)까지 온 거야. 그래서 여러 말을 하고 단상을 내려왔어. 나 저쪽에 앉았어. 가서 악썩를 했지. 고맙다고. 그래 참, 그런 것 표현하기 힘든데. 아, 그 어떡하나 내가 화가 나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 양반이 당선이 뻔잖아. 그래서 엇거저께 취임식을 했어요. (예)}

#2 그래두 풍무네 들리능거는 떠억.. 소송한다고 그런데 이건데 뭐. 불법 성거행:떠니 위찌는(?) 아이 늘그니가 글썩 모:든 이레는 늘그니가 시버를 보여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걸 물구 느러지니까. 포:처네 노인회 아주 나기니 썩켜썩 사고뭉치 지역기

야.{그래도 풍문에 들리는 것은 떡, 소송한다고 그런데, 이건데 뭐. 불법 선거했더니 위찌는(?) 아이, 늙은이가 글썽 모든 일에는 늙으니가 시범을 보영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걸 물고 늘어지니까. 포천에 노인회 아주 낙인이 찍혀서 사고뭉치 지역이야.}

#2 먼점메 그, 찌게두 그레가주구 XXX 씨두 무어 공그를 띠어 멍느니 얼마니 이:동에 가서 고소를 해써 그나마지(?). 당선 되어가지구 띠어 머글께 뭐:가 이써. 적짜가 나서 마애(?)가지구 상지허다 보니까 회:비를 안 드려줘: 지그블 해야지 이거 마이너스라 할쥬 이써? 띠어 먹기는 뭘 띠어머글 도니 어디 이써 글썽. 그러케 저러케 사고뭉치 처가지구 일똥 YY촌 포천 노인회가 불미스럽게 되었는데. 몰라 XXX 씨가 잘: 한다고 그랜는데. 하하하. 예.. 그레가지구 끈나썽요. 그래서는 상조 저어기 참전용사회에서 가느냐 무릉거야. XXX가 참전용사회의 그 회:장 아니야? 포천회에두.{먼저 적에도 그래서 XXX 씨도 무어 공금을 띠어 먹느니 얼마니 이동에 가서 고소를 했어 그것도. 당선 되어 가지고 띠어 먹을 것이 뭐가 있어. 적자가 나서 곤란해(?) 가지고 상지하(?)다가 보니까 회비를 안 들어 줘, 지급을 해야지. 이것을 마이너스라 할 수 있어? 띠어 먹기는 뭘, 띠어 먹을 돈이 어디 있어, 글썽, 그렇게 저렇게 사고뭉치 처가지고 일똥 YY촌 포천 노인회가 불미스럽게 되었는데. 몰라 XXX 씨가 잘한다고 그랬는데. 하하하. 예,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는 상조, 저어기, 참전용사회에서 가느냐 물은 거야. XXX가 참전용사회의 그 회장 아니야? 포천회에도.}

#2 그리구 이 양바:니 나하구 영관썽이 인능게, 그 유리메 (#1 우리 일똥만 가능거야?) 으음, 유리메두 가튼 회원이쥬, XXX가. 또 무나워네 또 워니지. 유:림회원들, 문화회원들, 참전용사회 여기저기서 그냥 서:루들 성:거운동을 했쥬. 그래떠니 요 일쥬네 먼저 채XX 씨쥬게 당선시켜노코 일똥 안 내련는데 회장 한 잔 사. 아, 한 잔 사야지. 아, 성:거운동으루 알구, 아니야 성거운동으루 알믄 어때? 그래두 인제 성화에 그 나하구 두:리서 또 한 잔 샅:쥬. 어디가서 한 잔 사자. 내가 먹게 사능거지 뭐. 그레가지구 또 한 잔 산 이리 인네. 그거 무슨 저 명예지긴데 뭐:가 생긴다구 그래. 누가 또 {그리고 이 양반이 나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 그 유림(儒林)에, (우리 일똥만 가는 거야?) 으음, 유림에도 같은 회원이지요, XXX가. 또 문화원에 또 (회)원이지. 유림회원들, 문화회원들, 참전용사회, 여기저기서 그냥 서로들 선거운동 했지. 그랬더니, 요 일전에 먼저 채XX 씨 적에 당선시켜 놓고 일똥 안 내렸는데, 회장 한 잔 사! 한 잔 사요지. 아, 선거운동으로 알고, 아니야 선거운동으로 알면 어때? 그래도 이제 성화에 그 나하고 둘이서 또 한 잔 샅:지. 어디 가서 한 잔 사자. 내가 먹게 사는 거지 뭐. 그래서 또 한 잔 산 일이 있네. 그거 무슨 저, 명예직인데, 뭐가 생긴다고 그래. 누가 또.}

#2 선지 자체가 안 사주구 선 그 자리에 우리가 커피 갑쓸 [...] 우리 스스로 느낀다구 그래서 활동을 항거지.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두 이썽요. 아아, 이 노인네들 모썽겐꾸나 그랜는데. 이 유:리미 알지마는 아랜 마래서 노인회가 창설돼가지구 쭈욱 또 하네. 그 노무게. 한 시버년 내가 해요. (예) 께 총무가 썸 배껴짜나? 회장이 별썽 세시 배껴야 원치기야. 그래서 내가 그양 사임힐라구 총:무 시킬수두 업꾸. 아주 투표용지까지 맨드러가지구 식쭈네다가 짜악 저거노치. 으, 이똥 선출했따. 오:냐 그러니 처어멘 그래따.{선지 자체가 안 사주고 선 그 자리에 우리가 커피 값을 [...]. 우리 스스로 느낀다고. 그래서 활동을 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도 있어요. 아아,

이 노인네들 못 쓰겠구나 그랬는데. 이 유림이, 알지마는, 아랫 마을에 노인회가 창설되어 가지고 쪽 또 하네, 그 놈의 게, 한 십 여년 내가 (회장을) 해요. (예) 그래 총무가 셋 바뀌었잖아. 회장이 벌써 셋이 바뀌어야 원칙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사임하려고 총무에게 시킬수도 없고. 아주 투표용지까지 만들어 가지고 식순에다가 쪽 적어 놓지. 으, 임원 선출했다. 오냐 그러니 처음에는 그랬다.}

#2 경노당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알:께, 성:거하거나 말거나. 지내가 버리네. 후계자가 이씨야 이걸 인수인계를 하지. 또 그 다암에두 항게 이 아주 습관성이 돼버려써. 그다암부터는 근데 금년네는 진짜 내:놔야 돼.{경로당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알 게(뭘야), 선거하거나 말거나. 지내가 버리네. 후계자가 있어야 이것을 인수인계를 하지. 또 그 다음에도 한 것이, 이, 아주 습관성이 돼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금년에는 진짜 내놓아야 돼.}

#2 근데, 이에 논는데 이기 장:저를 애:기하는 사라미 억꼬 단점만 항상 내 귀에 들려. 총무가 다 이래요, 우린. 금년 한해두 취급 안하며 나는. 총무가 억꼬 감사가 억꼬 한데. 그저 쿵:거 요건만 총무한테 한두가지 지시만 하능거지. 회장이 모타른 내가 뭐 이런 시그로 하지 뭐. 아이구 또 부담가요, 그래두. (@ 그래도 그러습니다. 예) 그래가지구 어제두 이뭘들 교체시킬까 해가지구 술한잔 머근 동기가 어제는 일똥 경노당 회장들 회예요. 각 경노당마다. 거기서 바블 먹꼬. 두:시에 소지블 시켰는데 한시 반차 타기 위해서는 내가 빨리 조:퇴를 해야 돼. 나 바쁜 일이 이씨가지구 먼저 이러나니까 여러분들 정담들 나누시라구 나와가지구. 저..아래 터:미날에서는 한시 반차 배께 엄:는데. 거기가 장단찌미 인능게 뭐냐하며는 자리 잡는데는 그 아래가 조치마는 이 우에 한의약빵은 압뽀 시야가 탁 터 이씨.{그런데, 이에 놓는데, 이것이 장점을 애기하는 사람이 없고 단점만 항상 내 귀에 들려. 총무가 다 일해요, 우린. 금년 한 해도 위급 한 하며 나는. 총무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한데. 그저 큰 것 이것만 총무한테 한 두 가지 지시만 하는 거지. 회장이 못하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뭐. 아이구 또 부담가요, 그래두.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두 임원을 교체시킬까 해 가지고 술 한 잔 먹은 동기가 어제는 일똥 경로당 회장들 회예요. 각 경로당마다. 거기서 밥을 먹고. 두 시에 소집을 시켰는데, 한 시 반 차 타기 위해서는 내가 빨리 조퇴를 해야 돼.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정담들 나누시라구 하고 나와 가지고. 저 아래 터미널에서는 한 시 반 차밖에 없는데. 거기가 장단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리 잡는 데는 그 아래가 좋지만 이 위에 한의약방은 앞뽀 시야가 탁 터 있어.}

#2 지나가는 공찰 탈려며는 이 위로 올라와야 돼. 그래 그걸 차간 해가지구 일루 올라온 거야. 한의약빵 아페 가서 딱.. 인제 오늘은 우정 공차 탈래. 그럼 그 아페 나가 인능거지.{지나가는 공차를 탈려면 이 위로 올라와야 돼. 그래 그것을 착안 해 가지고 이리로 올라온 거야. 한의약방 앞에 가서 딱, 이제 오늘은 일부러 공차 탈래. 그러면 그 앞에 나가 있는 거지.}

#2 그러다 보니 저 아래 XXX. 그 착 카며 뽀 세우더니 “내려가시게요?”, “응, 가야지.” 그 게 아주 격쩍 겨자루 타구 올라가지구 여기 와서 회:기 저 개천 다루글 간는데, 그 사람 예:가미 또 이떠라구. 그래가지구 타구 와찌. 오늘두 예:가미 지베 가따 와야지. 그러구 내려가는 도중에 저:기 연시 시내문 아페, 누니 나빠요. 그런데 우산 바꾸능게 우리 가조긴가 누군가 진가밍가 하며 차 좀 세워봐요. 그때떠니 아에 달라

가조기 올라오능거야 (하하하) 전:화가 와때요 경노당에서. 나는 환자니까 어떻게 바비라도 먼저 머거렐라구 가는, 내려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아랍따구 나는 바블 여기서 대저를 잘: 박꾸 머건는데, 경노당에서 뭐하는지 경노당까지 내 간따 올테니 그런 줄 알라구 그래.{그러다 보니 저 아래 XXX. 그 착, 하면서 (차를) 싹 세우더니, “내려가시게요?”, “응, 가야지.” 그게 아주 격진 거자(?)로 타고 왔지. 오늘도 예감이 집에 갔다가 와야지. 그러고 내려가는 도중에 저기, 연시 시내문 앞에, (내가) 눈이 나빠요. 그런데 우산을 바꾸는 것이 우리 가족인가 누군가 긴가민가하며, “차 좀 세워봐요.” 그랬더니 아예 달라. 가족이 올라 오는 거야. (하하하) 전화가 왔대요. 경로당에서. 나는 밥을 여기서 대접을 잘 받고 먹었는데, 경로당에서 뭇하는지, 경로당까지 내 갔다 올테니 그런 줄 알라고 그래.}

#2 이사람들 큰 용건두 아닌데두 함버는 전화를 거러. 나 지금 바쁜 이리 이썸. 바루 이리 올라 와썸. 오주게 한잔 나눈 거슨 공예품 이짜나 경노당 별로. 그거 시장을 해. 먼저 시장이 끝나썸요. 그런데 이제. 내가 며녕 중으로 고참 아니야 그래두. 경험이썸. 그래 이 등그블 어떻게 미기느냐 노니가 똥는데, 그 공예품 강:사가 정국 순회하면서 그 강:사구 그래서 강:살 불러와썸요. 누굴 내보내 그걸. 위에 뿌니 와야지. 게 심사를 따악 시키는데, 오더니 어디가 이게 제일 우수하다. 그 다아메 요거나 저거다. 근 서너군데 허든 일, 이, 삼 등이 결정되능거 아니야? 그리구 이 양바니 YY를 가버려썸요. 그래 간 다아메 내가 애길 해썸야 거기서 한 마디. {이 사람들 큰 용건도 아닌데도 한 번은 전화를 걸어. 나 지금 바쁜 일이 있어. 바로 이리 올라 왔어. 오죽(?)에 한 잔 나눈 것은 공예품 있잖아? 경로당 별로. 그거 시장을 해. 먼저 시장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며녕(?) 중으로 고참 아니야 그래도. 경험이 있어. 그래, 이, 등급을 어떻게 먹이느냐 논의가 되었는데, 그 공예품 강사가 전국 순회하면서 그 강사고. 그래서 강사를 불러 왔어요. 누구를 내보내 그걸. 윗 분이 와야지. 그래 심사를 딱 시키는데, 오더니 어디가 이것이 제일 우수하다. 그 다음에 요거나 저거다. 근 서너군데 하면, 일, 이, 삼 등이 결정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이 양반이 YY를 가 버렸어요. 그래 (강사가) 간 다음에 내가 애길 했어. 거기서 한 마디.}

#2 이거 상타기 항거보담도 다 가치 노려근 해따. 시상권에 안 든다 허더래두. 일, 이, 삼 등에 상그를 축소시킬망정 마:니들 좀 확대시켜. 백부를 이 상계리를 모:털망정. 그 또 가:만할께구. 사회계장인가 지끄든? 사회계허구. 어디, 인는데 애:기를 했는데. 유을찌는 회계는 생각찌두 안는데, 사직 사라미 불러. 끈난는데 왜 부르나? 나 아예 포기를 해꺼든.{이거 상타기 한 것보다도 다 같이 노력은 했다. 시상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일, 이, 삼 등의 상금을 축소시킬망정 많이들 좀 확대시켜. 백부를 이 상계리(?)를 못할망정. 그 또 감안할 것이고. 사회계장인가 지금은? 사회계하고. 어디, 있는데 애기를 했는데. 유을지(?)는 회계는 생각지도 않는데, 사직 사람이 불러. 끝났는데 왜 부르나? 나는 아예 포기를 했거든.}

#2 게 장:려상이래나, 나, 원 이런. (하하하) 그래가지구 그 경노당에 가져와뎌 것 그 소계 심마뎌늘 너어썸. 그래서 어제 소집시킹게 경노당에 심마뎌늘 공그를 너을수두 억꾸 저뎌늘 소집시킬썸두 억꾸 그래 이뎌들 명칭을 이뎌회이다 해가지구 공예품 가지구 움지킨 사람들 거기에 움지킨 사라미 적극성을 띠웅게 XXX, 또.. 저기저기 누구냐. 응..XXX 또 말:모타는 사람 그리 기타 한 시며명 돼. 그래두 이뎌니 한 시며명 이십명 되지. 그래서 총:무보구 그래서 회:장이 시키능 거야. 여기 상금 가지구 심마뎌

가지구는 안 돼. 주머니 도니 쌈지 또니야. 모:자라능거 노인회 도네서 보태. 아라썬니다. 그래가지구 회:를 먹꾸 인제 갑작시리 어떠게. 송:어 횡가 똥가 거 일 킬로에 만오쳐원이라. 그래 십킬로만 사와. 그러른 시보마닐 아니야. 그 술까비 드러가른 이 십마닐 쟁도 그래가지구 인제 술 대저블 해찌.{그래 장려상이라나. 나, 원, 이런. (하하하) 그래서 그 경로당에 가져왔던 것, 그 속에 십만원을 넣었어. 그래서 어제 소집시킨 것이, 경로당에 십만원을 공금을 넣을 수도 없고, 전원을 소집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임원들 명칭을 임원회라 해 가지고 공예품 가지고 움직인 사람들, 거기에 움직인 사람이 적극성을 띄운 게 XXX, 또, 저기저기, 누구냐? 응, XXX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기타 한 십여명 돼. 그래도 임원이 한 십여명 이십명 되지. 그래서 총무 보고 그래서 회장이 시키는 거야. 여기 상금 가지고 십만원 가지고는 안 돼.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야. 모자라는 것은 노인회 돈에서 보태.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를 먹고 이제 갑작스럽게 송어횡가 똥가 그것 일 킬로에 만오쳐원이라. 그래 십 킬로만 사와. 그러면 십오만원 아니야? 그 술값이 들어가면 이십만원 정도, 그래서 이제 술 대접을 했지.}

#2 그때 참석 아는 사람 요글해두 혈쭈 억꾸. 이원회라구 명칭을 거러꺼등 내가. (#1 잘해찌 뭐) 이원회. 그래서 항상 내가 느끼는게. 머찌게 경노당 회:장이 한다능건 똥가 야유회나 잘허구 명능걸 조아하니 근본 목찌근 그건데 사라메 심니가 그게 아니자나.{그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욱을 해도 할 수 없고. 임원회라고 명칭을 걸었거든 내가. (잘했지 뭐.) 임원회. 그래서 항상 내가 느끼는 것이. 멋지게 경로당 회장이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야유회나 잘하고 먹는 걸 좋아하니, 근본 목적은 그것인데, 사람의 심리가 그게 아니잖아.}

#1 서울대 공문학과{서울대 국문학과}

#2 그래가지구 생가글하면 또 후계자라든지 저님드른 또 후계자 생가글 해야거든. 근데 사저네 킨 올리른 죄:다 모탄다고 그래. 한다 그러는 사라미 억끼는 업서. 게도 얼마나 운영혈 쭈 인는 사라믈 후계자로 세워야 원칙 아니야. (으) 그 저:네 한번 광광을 가서요. 관광을 가른 서해아니고 어디가른 회:집 아니야. 정:시메 회가 겨뜨리지. 거기서 마냥 자서썬. 그래 반:시간두 안돼가지구 거기서 어떠케 해:병까루 또 간는데 그 파라소링가 우산 서너개 꼬자노코 조가비 파는 데야. 단체가 안즐만한 데가 업다구. 얘기를 해썬 내가. 그 조개 자:실 뿐드른 개인저그로 자서라. 그리구 해두 그래두 생각 인는 사라믈 사서 먹떠라구. 그런데 먼저 간 XXX가 차에서 그 수리 열찌지근 해:찌. “형님 돈 애껴따 똥헐꺼야.” (허허허){그래서 생각을 하면, 또 후계자라든지, 전임들은 또 후계자 생각을 해야되거든. 그런데 사전에 킨 올리면, 죄 다 못한다고 그래. 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없기는 업어. 그래도 얼마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야 원칙 아니야? (으) 그 전에 한 번 관광을 갔어요. 관광을 가면, 서해안이고 어디 가면 횡집 아니야? 점심에 회가 곁들이지. 거기서 마냥 자썬어. 그래 반 시간도 안돼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변가로 또 갔는데, 그 파라술인가 우산 서너 개 꽃아놓고 조가비 파는 데야. 단체가 앓을 만한 데가 업다고. 얘기를 했어, 내가. 그 조개 자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서라. 그리고, 해도, 그래도 생각 있는 사람은 사서 먹떠라고. 그런데 먼저 간 XXX가 차에서 그 술이 어쩍지근 했지. “형님, 돈 아꼈다가 똥헐 거야.” (허허허)}

#1 먹때는데는 더 혈수가 업썬. 애끼능걸뚜 애끼는 거지마는 자리가 업짜나 단체적으루 채

김자가 봐쓸 찌개는 우선 그거부터 시찰해야 돼. 그러니 개인저그루 먹꾸 시퍼허능 거 먹찌 말래써. 먹구 시픈 사라문 사 자시라구 그래찌. 단체루 전체가 머글 찌개 단체도:니 나가능 거지, 한 두 사라미 머그르는 단체 돈: 줄 쭈는 업써. 그래서 하는 얘:기야.{먹는다는 데에는 더 할 수가 없어. 아까는 것도 아끼는 것이지만, 자리가 없잖아. 단체적으로 책임자가 봤을 적에는 우선 그것부터 시찰해야 돼. 그러니 개인적으로 먹고 싶어하는 거 먹지 마라고 했어. 먹고 싶은 사람은 사 자시라고 그랬지. 단체로 전체가 먹을 적에 단체 돈이 나가는 것이지. 한 두 사람이 먹으면 단체 돈 줄 수는 없어. 그래서 하는 얘:기야.}

#2 그래 그래두 그러찌. 바닥가에 와따 기냥간다 이거야. 그너므 돈 무얼꺼냐 이거야. (#1 공짜로만 머글 생각글 하니) 그래서 내가 이 나두 저:쪽 치넥거든. 채김자라르는 가정이나 세:정이나 똑 가태. 그 가정을 생각 아날 쭈 업써. 이 노인네 단체는 영구불러. 계소개 존소기 돼. 내가 회:장 보능거 아니야. 언젠가 인수잉게 돼야 돼. 자연스럭게 쓰구, 자녀그를 인계를 해야지. 애끼가지구 내가 머글랴고 그러능게 아니다. 그런데 자네가 그런 얘:기를 허며는 자네가 자네두 천년만년 살지는 모태.{그래 그래도 그렇지. 바닷가에 왔다가 그냥 간다 이거야. 그 놈의 돈 무엇할거야 이거야. (공짜로만 먹을 생각을 하니) 그래서 내가 이 나도 저쪽 친했거든. 책임자라면, 가정이나 세정이나 똑 같아. 그 가정을 생각 안 할 수 없어. 이 노인네 단체는 영구 불러. 계속해 존속이 돼. 내가 회장 보는 것 아니야. 언젠가는 인수잉게 돼야 돼. 자연스럽게 쓰고, 잔여금을 인계를 해야지. 아껴 가지고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자네가 자네도 천년만년 살지는 못해.}

#2 언제 간대문, 자네 부동산사니 인나? 그러문 자네 간 다:메 내가 당장에 다 파라 업쌔ل 거야? 예:를 드려서. 응. 게두 그 자소네 이 가정을 위해서 자손 줘야지 그러지. 응 다 탕진할꺼야? 내가 한다구. 내가 회장 그만둔다고 다 업쌔? 오래간마내 말근 정시네, “형님, 내가 수리 취해서 그래서. 미아내.” 그러니 건저가요. 아 따카지. 그래 글거머 거 수나기 머거야 내꺼가 되는 줄 아라요. 그래서 힘드려요.{언제 간다면(※죽는다면), 자네 부동산이 있나? 그러면 자네 간 다음에 내가 당장에 다 팔아 없앨 거야. 예를 들어서, 응, 그래도 그 자손의 이 가정을 위해서 자손(에게) 주어야지. 응, 다 탕진할 거야? 내가 한다고. 내가 회장(을) 그만 둔다고 다 없애? 오래 간만에 맑은 정신에, “형님, 내가 술이 취해서 그랬어. 미안해.” 그러니 건저가(?)요. 아, 딱하지. 그래 굵어 먹어 순하기(?) 먹어야 내 것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힘 들어요.}

#2 강XX, 얼마나 깡까망가? 그래두 감사두데. 처음 오는 나두 배우지는 모텐찌마는 경허미 인찌아나. 감사를 내가 지시를 한다구. 뭐뭐 요거 왜쩔 누구해. 그래 감사는 감사하는처근 해야될 꺼 아니야. 계:산상으로는 하나 더하기 둘 세:씨라능 거는 아무나 해. 요게 저 이거 영수하구 대:줄허구 특키나 이:중으로 된 나글 검, 검토를 해라. 이:중요기 쓰구 또 이 아래 써. 예:를 들어 그렁 거 이짜나. 예:를 그러타 이거야. 이:중으로 루 해가지구 계:산상으로 나와가지구 웬만한 사라문 그 계:산만 마이너스 뿌라스 자넥 얼마. 주안찌:물 두가 영수중이구 만나. 또 마:저두 이:중으로 기제가 돼 인능 게 인나. 나는 검토를 해봐.{강XX, 얼마나 깡까망가? 그래도 감사를 두데. 처음 오는 나두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경험에 있잖아. 감사를 내가 지시를 한다고. 뭐뭐, 요거 왜쩔(?) 누구해. 그래, 감사는 감사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산상으로는 하나 더하기 둘 셋이라는 것은 아무나 해. 요게 저, 이거, 영수하고 대조를 하고 특히나

이중으로 된 낙(?)을 검, 검토를 해라. 이중, 여기 쓰고 또 이 아래 써.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예를 그렇다 이거야. 이중으로 해 가지고 계산상으로 나와 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그 계산만 마이너스 플러스 잔액 얼마. 주안점을 두어서 영수증이고 만나. 또 (계산이) 맞아도 이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다. 나는 검토를 해 봐.}

#2 이:중으로 써두 회원드른 모르지, 아냐? 여기서 쓰구, 네, 날 지나가서 여기 또 뭐 얼마 써두.{이중으로 써도(※기록해도) 회원들은 모르지, 아냐? 여기서 쓰고, 예, 날 지나가서 여기 또 뭐 얼마 써도.}

#1 여기서 안자 피워 팬차나. 양쪽 문 여러 난:는데 뭐. 나두 대동회에서 이제 절문 사람드른 다 채검지구. 저거해는데. 땡 보기만 해져 간서븐 허지 양켄따. 하는 얘기를 해서, 일절 아내. 인제. 동네 이를 해.{여기서 앓아 피워, 팬참아. 양쪽 문 열어 놓았는데 뭐. 나두 대동회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책임지고. 저거하는데. 그냥 보기만 했지 간섭은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 일절 안해. 이제 동네 일을 해.}

#2 늘거니드리 그러니까 늘거서 얘기가 아니라 늘그니까 관여하능게 경허미 인따 천째. 그 래 엔:나레두 이런 얘기가 인짜나? 그 저네 중국써 항구기 어느 정도 저놈드리 현명항가 테스트허기 위해서 핑가 문젠 내써. 자네도 드린겐찌마는. 그 문제가 뭐냐하면은 아래 위 똑까튼 나무 (웅)를 보냈꾸. 그래 아래 위가 어딩가 규명해라. 이러구 에미허구 새끼허구 마를 똑까통거를 아주 보냈는데 어떻게 에미구 새끼냐? 나라에서 크은 두통꺼리지 뭐. 재상들 소지블 시켜노쿠 이제 왕이. 어전 회의를 여러 그 방식글 강구해두 아:는 사라미 업서. 크닐 나짜나 이걸. 중국에 대:국, 그 저네 대:국 아니야?{늙은이들이 그러니까 늙어서 얘기가 아니라 늙은이가 관여하는 것이 경험이었다, 첫째. 그래 옛날에도 이런 얘기가 있잖나? 그 전에 중국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저놈들이 현명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언가 문제를 내었어. 자네도 들었겠지마는. 그 문제가 뭐냐하면, 아래 위 똑같은 나무를 보냈고. 그래, 아래 위가 어딘가를 규명해라. 이러고 어미하고 새끼하고 말을 똑같은 것을 아주 보냈는데, 어떤 것이 어미고 새끼냐? 나라에서 큰 두통꺼리지 뭐. 재상들(을) 소집을 시켜놓고, 이제 왕이. 어전회의를 열어 그 방식을 강구해도 하는 사람이 없어. 큰일 났잖아, 이걸. 중국에, 대국, 그 전에 대국 아니야?}

#1 그럼 대:구기지.

#2 그래 어느 재:상이 지비 완는데두 그것뚜 근심꺼리자나? 근데 그 당시엔 고:려장을 지내게 되어 인때. 그렁 걸 버:블 어기구 음, 자기 어:르신네를 응그:니 응거시켜 노응거야. 그러니 자기 아버지가 응거자니 근심걱쟁 얼구레 "너 이거 지금 무슨 근심걱쟁이 인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항거야. 이런이런 문제가 나완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버비 업쓰니 근심 아날 쭈가 이릅니까. 해떠니. "응, 그래? 그 아래 우이 똑까튼 낭구는 무레다 띠우며는 가라 안는 쪼기 밋똥이다." 이거야. 똑까태두. (#1 아아, 그런 이유가 이썻꾸나) "그리구 마른, 모이를 주며는 먼저 명능게 새끼다." 이거야. 새끼는 체며니 업꺼등. (#1 아하, 그걸뚜) 에미는 새끼 머그라구. 그래서 아, 그러십니까? {그래, 어느 재상이 집에 왔는데도, 그것도 근심거리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려장을 지내게 되어 있대. 그런 것을, 법을 어기고, 음, 자기 어르신네를 은근히 은거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 자기 아버지가 은거자니까 근심 걱정 얼굴에, "너 이거 지금 무슨 근심 걱정이 있는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야. "이런이런 문제

가 나왔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근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응, 그래? 그 아래 위가 똑같은 나무는 물에다 띄우면 가라 앉는 쪽이 밀둥이다.”
이거야. 똑같아도. (아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말은, 모이를 주면, 먼저
먹는 것이 새끼다.” 이거야. 새끼는 체면이 없거든. (아하, 그것도) 어미는 새끼(가)
먹으라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2 오저네 YY에 가서 답뻔해 해썬. 내가 이력커른 뵈니다.{오전에 YY에 가서 답뻔을 했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뵈니다.}

#2 그래가지구 인제 이게 나무는 아래 위대루 균일하구 마른 이게 에미구 새끼다. 그래
모며니 돼:썬. 그때무네 왕이 그 재:상을 불러가지구 "아아니, 그 어디서 그런, 응,
혀나니 떠올란느냐?" "주글 쪼, 주글 쪼를 저썬니다." 그래떠니, 버블 어겨썬니까. "
그 주글쪼라니 무슨 얘:기야. 상그를 내려야지, 주글 쪼라니?" "사회 국뻔을 어기구,
우리 어르신네를 고려장을 아니 내구 응거시켜썬는데, 아버지한테 여쭙보니 그런 말
쓰믈 하셔썬 그러케 돼:썬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무는 아래 위대로 균일하고
말은 이게 어미고 새끼다. 그래 모며니 되었어. 그 때문에 왕이 그 재상을 불러가지
고 "아아니, 그 어디서 그런, 응, 현안이 떠올랐느냐?", "죽을 죄, 죽을 죄를 졌습니
다.", 그랬더니, 법을 어겼으니까. " 그 죽을 죄라니 무슨 얘:기야. 상금을 내려야지,
죽을 죄라니?" "사회 국법을 어기고, 우리 어르신네를 고려장을 아니 내고 은거시켰
었는데, 아버님께 여쭙워보니 그런 말썬을 하썬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2 그 교후니 이짜나. 그때부터 고려장을 폐:지시켄데능거야. 그래가지구, 경허믄 이따 이거
야 늘그니드리. 늘그니라구 죄:다 성호오거나 (#1 아, 그럼) 지바네두 하라버지나 아
버지가 찬수 일하능 거, 바로 그거야. 그래서 늘그니 잔소리한다구 그러지. (#1 내가
생가캐두 그냥) 황당한 이리지. {그 교후니 있잖아. 그때부터 고려장을 폐지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경험은 있다, 이거야 늙은이들이. 늙은이라고 모두 성호오(?)거나 (아,
그럼) 집 안에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찬수(?) 일 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 그래서
늙은이 잔소리한다고 그러지.}

#1 저건데, 따름건 패아느니까 잔소리가 되능거라구. 그런데 그거이 예, 가르키미라구 생각
커른 팬차는데, 잔:소리라구 생가글 하니까 잘모뻥거야.{저건데, 다른 것은 팬찮으니
까 잔소리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것이 예, 가르킴이라고 생각하면 팬찮은데, 잔소
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거야.}

#2 귀차는 존재지. 그러니까 자손드레게 귀차는 존재야 늘그니가.{귀찮은 존재지.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귀찮은 존재야, 늙은이가.}

#1 가만 이썬라. 이사람드리 오늘이믄 끝내겜파구 그러더니 어떠케 빨리해야지 인제.{가만
있어라. 이 사람들이, 오늘이면 끝내겠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빨리해야지 이제.}

#2 무얼 빨리해?{무엇을 빨리해?}

#1 뭐 이거 이거 저거헐꺼야.{뭐, 이것, 이것, 저거할거야.}

#2 이거 꺼썬요? (어?) 꺼썬?{이것 썬지요? (어?) 썬지?}

#1 이게 이게 책 이게 저거로 다 여게 으, 대화를 대:게 위해서 사실 그러타 그래두 아니다
그거지.{이게, 이게, 책, 이게, 저것으로 다 여기에, 으. 대화를 대개(?) 위해서 사실
그렇다, 그래도 아니다 그거지.}

#1 이거 하십썬다. 이거 일곱썬까지 하야 한다면서?{이거 하십시다. 이거 일곱 시까지 해야
한다면서?}

@ 아유, 왜, 떼에 놔서썸니까?{아유, 왜, 떼어 놓으셨습니까?}

#1 아? 뭐:래. 아니 꺼:저꺼등 이제, 예, 부리 꺼저씨니 빨쑤도 억:꼬. 그 다:메 이베다 물고 "교관님 불좀 주세요." 아아니, 가:미 육꾼 대위한테 훈련병이 불 좀 주세요 허구 담배뿌레 떠억 이러케 물구 불 좀 주세요 하니.{아? 뭐래? 아니, 꺼졌거든 이제, 예, 불이 꺼졌으니 빨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담배를) 입에다 물고, "교관님 불 좀 주세요." 아아니, 감히 육꾼 대위한테 훈련병이 불 좀 주세요 하고 담뱃불에 딱 이렇게 물고 불 좀 주세요 하니.}

#2 용감하지 뭐:야?{용감하지 뭐야?}

#1 그러니까 교:과니 가마:니 보더니 고개 끄떡끄떡하면서 하,하. 라이타를 제껴서 "야, 피워라" 그래요. 그래 이노미 참 몬:나서 그런지 용:가매 그런지 담:배를 그 아페서 버꿈:: 버꿈. 그런데 그 교:과니 피:다가 던징거야. 콩초야. 담배를 안주니까 그때 훈련병은. 그래 얼마나 담배가 얼마나 먹꾸시퍼게써. 이제 저그해서. 그래 뻘뻘 피니까, "야, 다 피웠나?" "아니, 조금 남아썸니다." 그래각꾸 이베 부리 부틀 쟁도루다 뻘뻘거리다가, "예, 다 퍼썸니다." "그래? 그러믄 내 아페 와." 그러니까 와 섰따. "차렷, 이자시가. 으으, 훈련병 새끼가 육꾼 대위 아페서 이자시가 이러케 서." (허, 허) "차렷!" 허니까 찬저터라구. "너가아 지금 훈련병이냐 뭐냐. 아무리 모른다 모른다 해두, 이러케 모:르는 새끼가 이씨? (허, 허, 허) 나는 육꾼 대위지만두 소령한테 담배뿌를 모파넨따 마리아. 그런데 이노무 새끼야, 훈련병이 육꾼 대위한테 담배뿔 주시오. (허,허,허) 이게 바:보냐 내가 몬:나서 그러냐? 똑또캐서 그러냐?" 마리아. 그래서 택: 후려갈겨 버려따. 그러니까는 모:르믄 아주 바보 노르슬 해, 바보 노르슬 아주 완저니.{그러니까 교관이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끄떡끄떡하면서, 하,하, 라이타를 젓혀서, "야, 피워라." 그래요. 그래 이 놈이 참 못나서 그런지 용감해서 그런지, 담배를 그 앞에서 버꿈버꿈. 그런데 그 교관이 (담배를) 피다가 던진 거야. 콩초야. (훈련소에서) 담배를 주지 않으니깐 그때 훈련병에게는. 그래 얼마나 담배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이제, 저그해서. 그래 뻘뻘 피우니까, "야, 다 피웠나?", "아니, 조금 남았썸니다." 그래서 입에 불이 붙을 정도로 뻘뻘거리다가, "예, 다 피웠썸니다." "그래? 그러면 내 앞에 와." 그러니까, 와서 섰다. "차렷, 이 자식아! 으으, 훈련병 새끼가 육꾼 대위 앞에서 이 자식아, 이렇게 서!" (허, 허.) "차렷!" 하니까 찬정(?)더라고. "네가 지금 훈련병이냐 뭐냐? 아무리 모른다, 모른다 해도, 이렇게 모르는 새끼가 있어? (허, 허, 허) 나는 육꾼 대위지만 소령한테 담뱃불을 못 따냈따 말이야. 그런데 이 놈의 새끼야. 훈련병이 육꾼 대위한테 담뱃불 주시오. (허, 허, 허) 이게 바보냐? 내가 못나서 그러냐? 똑똑해서 그러냐?" 마리아. 그래서 택 후려갈겨 버렸다. 그러니까 모르면 아주 바보 노릇을 해. 바보 노릇을 아주 완전히.}

@ 예, 이제 돼:썸니다. 그러믄는 아까 왕, 왕 이야기하셔썸니까?{예, 이제 됐썸니다. 그러면 아까 왕, 왕 이야기하셨습니까?}

#2 아니, 딴 우리 잡담해쥬오. 허,허,허.{아니, 딴, 우리 잡담했쥬. 허, 허, 허.}

#1 애:기 해 또. 허허허.{애기 해 또, 허허허}

또 뭐 경험하싱거 그렇거.{또, 뭐, 경험하신 것, 그런 것.}

#2 경험항 거 업는데. 또 그래가지구 (예) 역씨 유림 관계 말쓰를 디려야지 뭐. (예, 예) 그 저네 우리 선친 쪼개는 정:말 누가 투표허질 앙꾸 주위에서 사양을 허면서 추대를 허면 마:지 모태는데. 지끄믄 그걸뚜 민주화가 뵈는지 출:마를 해가지구 투표를 해가

지구 이루어져 이게. 그래가지구 음, 출마자드른 또 누가 제이를 땀:는지 절문 세대
 가 애:기해 항상. (예) 뱅마뉘씨글 내:구서 출마허게 땀드러야 한다 이거야. 그래 그
 걸 무:슨 지귀라구 그래두 세:사래미 출마해써 먼저메. (예) 지금 현지응겨 박XX 씨,
 (예) 또 정XX이라구 일똥머네 그 저네 이써서. 그리고 이XX 씨, 음, 뱅마뉘씨글 인
 제 내구 등노글 해가지구 투표를 허는데, 그제 투표래능게 이상해. 이:중성껴글 써야
 지. 내 절:루 간다구 애:길 모태 진짜, 양시를 소겨야지. 염녀마라 이런 시그루 나가
 야지. 으으. 그래두 이제 땡가 기타 인사드리 딱딱 찢러봐서 나보다 더 선배 양반드
 리 안땡져. 아란따구. 그 찢기는 판데다 찢지, 흐니 당선자. 불량자 창첼허는데 찢꼬,
 그런데 정XX 씨두 다:: 친절한 분들 아니야, 그러치만 게:두 원만하구 그래두 이끌
 구 나갈 쑈 인는 인사를 해야지. 친불친(親不親)으루다 갈 썩 업써. 그래가지구 허다보니까
 진짜 또 이XX 씨가 땀:는데, 기타 인사들 보기엔 미안허지. 게두 XX 씨는 헌말이라
 두 "나를 지지해 조깅쪼요." 그래. 그 너무 미아내. 나 이거, 그저 양심 성거허는데
 두. 그래가지구 XX 씨는 함번 낙서니 돼써서요.{경험한 것 없는데. 또 그래서 (예)
 역시 유립 관계 말씀을 드려야지 뭐. (예, 예) 그 전에 우리 선친 적에는 정말 누가
 투표하지를 앓고 주위에서 사양을 하면서, 추대를 하면 마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것
 도 민주화가 되었는지, 출마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이루어져 이게. 그래서 음,
 출마자들은 또 누가 제의를 했는지, 젊은 세대가 애기해, 항상. (예) 백만원씩을 내
 고서 출마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야. 그래 그것을 무슨 직위라고 그래두 세 사람
 이 출마했어, 먼저 번에. (예) 지금 현지의 박 XX 씨, (예) 또 정XX이라고 일동면의,
 그 전에 있었어. 그리고 이XX 씨, 음, 백만원씩을 이제 내구 등록을 해가지고 투표
 를 하는데, 그제, 투표라는 것이 이상해. 이중 성격을 써야지. 나는 저쪽으로 간다고
 애기를 못해, 진짜. 양심을 속여야지. 염녀 마라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으으, 그래두
 이제 무언가 기타 인사들이 딱딱 찢러보아서 나보다 더 선배 양반들이 안 되었지.
 알았다고. 그, (표를) 찢기는 판 데다 찢지. 흔히 당선자. 불량자가 창취(?)를 하는
 데에 찢고, 그런데 정XX 씨도 다 친절한 분들 아니야? 그렇지만 그래두 원만하고
 그래두 (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인사를 해야지. 친불친(親不親)으루다 갈 새가
 없어. 그래서 하다보니까 진짜 또 이XX 씨가 (당선이) 되었는데, 기타 인사들 보기
 엔 미안하지. 그래두 XX 씨는 헛말이라도, "나를 지지해 주었쪼지요?" 그래. 그 너
 무 미안해. 나 이거, 그저 양심 선거하는데도. 그래가지구 XX 씨는 한 번 낙선이 되
 었어요.}

#2 그런데 저너게 XX 애:기는 영남 똥, 아능게 마나. (황휘?) 으으, 그리구 YY 면:장을 지
 녁꼬. 지역쪼그로 그리구 저:기 그리구 저어 강XX 그 KK부 장:관 덕뿌네 면:장해.
 그땐 빼기니까 KK 장관이란 인사편 다 가지구 이써요 그때. 으 그래서 요버네 그
 제:장을 다 그만둔 사람 함경도 사람도 XX 덕뿌네 면:장항거야 그때. 그래가지구 꼭
 까지 물구 느러절쪼는데. 그래가지구 이제 요버네, 향교에는 전이를 선출하능가 하
 른 유:도회는 유:도 회장이 또 이써요.{그런데 저녁에 XX의 애기는 영남 End, 아는
 것이 많아. (황휘?) 으으, 그리고 YY 면장을 지냈고. 지역적으로 그리고, 저기, 그리
 고, 저어, 강XX 그, KK부 장관 덕분에 면장을 해. 그대는 뻥이니까 KK 장관이 인
 사권 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으, 그래서 요번에 그 제장(?)을 다 그만 둔 사람,
 함경도 사람도 XX 덕분에 면장을 한 거야, 그때.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번에, 향교에는 전이를 선출하능가 하면, 유도회는 유도 회장이 또

있어요.}

#2 유:도 회장을 선:출하게 댜는데 올해는 양:볼하구 투표를 안하구 한 사람 댜드려 낚:써. XXX라구 키 큰 사라미 한대. 그양반 그냥 회장 댜는데 여기 회이는 [...]허능게 댜:냐하며는 유도에는 도:니 하나도 업써요. 회:한다믄 회:비를 가지구 가야 댜:. 풍무를, 밥까블 내야댜:.그래 그래가지구. 정:정 해썬는데 일찌네 유도회 교유글 삼개며늘 한크라스를 해가지구 일똥면, 이동면, 하현면 삼개며늘 크라스를 해가지구 댜는데, 아아니, 풍무를 나오시라구 그러기두 미안헌데, 정심 어떻게 주능거냐, 아, 정시믄 대:저블 해야지 댜:냐 그러믄, 대:접퍼능게 문제가 아니구 자그믄 조:달해줘야지 안느냐 그랬더니 쪼끄믄 보태주는데, 자체저그루 해결해라 이거야. 거기두 진짜 도:니 업써요. 그래가지구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래두 만만헌데가 조합짱 아닌가? 조합짱한테 차자가써. 나하구 이동에 XX허구 하혀네 XX허구 그런 애로사하라는데, 그 X식당 이짜나 조합베 지하에. 그 지권들 항상 정시를 머겨요. 이 구내 식당에서 우리 식싸를 헐쭈 업느냐 그래더니, 왜 그러세요? 그 유도회 교유기 인는데, 그날 유도회원들 식쌀 줌 대:접패야 되겜는데 식당을 줌 어떻게 정해줄 쭈 업느냐 그래더니, 제공해 드리겜요. 난 식당제공이믄 요하에는 업능 거. 조합짱이 봐:달라구 직접 이야기 모태구 응그:니 녀저시 그래더니 처어뎡 빌려드린다고 그러더니 나중엔 정시 그러믄 우리가 대:저블 할겜요. 바:로 그거를 기대해뎡거지. 그래 이제 정:심 대:저블 댜는데 저기서는 조금 도와준다고 그랜는데, 해:겨른 댜:찌마는 일절 업:찌아나. 그래 기부니 나쁘자나 그래서 또 향이가 드러 강거지.{유도 회장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양보를 하구 투표를 안 하고 한 사람 만들어 놓았어. 김XX라구 키 큰 사람이 한대. 그 양반 그냥 회장 되었는데 여기 회이는 [...]하는 것이 댜냐하면, 유도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회를 한다면, 회비를 가지고 가야 댜. 풍무를, 밥값을 내야 댜. 그래 그래서. 정정(곤란?) 했었는데, 일전에 유도회 교육을 삼 개 면을 한 크라스를 해가지고 일똥면, 이동면, 하현면 삼 개면을 크라스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아니, 풍무를 나오시라고 그러기도 미안헌데, 점심 어떻게 주는 거냐? 아, 점심은 대접을 해야지. 댜냐 그러면, 대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금을 조달해줘야지 않느냐? 그랬더니 조금은 보태 주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거야. 거기도 진짜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구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만만한 데가 조합장 아닌가? 조합장한테 찾아갔어. 나하고 이동의 XX하고 하현의 XX하고. 그런 애로사를 하라는데, 그 X 식당 있잖아, 조합의 지하에. 그 직원들 항상 점심을 먹어요. “이 구내 식당에서 우리 식사를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 유도회 교육이 있는데, 그 날 유도회원들 식사를 줌 대접해야 되겜는데 식당을 줌 어떻게 정해줄 수 없느냐?”, 그래더니, “제공해 드릴겜요.” 나는 식당 제공이믄 요하에는 없는 거. 조합장이 봐달라고 직접 이야기 못하고 은근히 녀저시 그랬더니. 처음에는 빌려드린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정말 그러면 우리가 대접을 할겜요.” 바로 그것들을 기대했던 거지. 그래 이제 점심 대접을 했는데 저기서는 조금 도와준다고 그랜는데. 해결은 되었지마는 일절 없잖아? 그래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또 향의가 들어 간 거지.}

#2 그래가지고 안되니까. 유:도회장드리 모타겜파 그래 사표를 작썬해가지구 썬 세: 세 사라미 통게 사표를 제:출해써 그 다으메. 가떠니 유도회장은 업:꼬 유XX만 게시더라구 그래서 거기저 사무실 바루 여피니까. 그걸 전달하러 가떠니. 아란따구. 그 바루 지금 저 이짜나. 핸드포니 익끼 때무네 바:루 열라글 댜:는지 기다려라 이거야. 인제

회장이 오니까 기다려라 이거야. 아, 만나 입장만 난:하지뭘. 우리 바빠서 그냥 갑니다 허구 와버려쎄.{그래서 안 되니까, 유도 회장들이 못하겠다 그래, 사표를 작성해 가지고 셋, 세 사람이 통계 사표를 제출했어, 그 다음에. 갔더니, 유도회장은 없고 유XX만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기 저, 사무실 바로 옆이니까. 그걸 전달하러 갔더니. 알았다고. 그 바로 지금, 저, 있잖아?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했는지 기다려라 이거야. 이제 회장이 오니까 기다려라 이거야. 아, 만나면 입장만 난처하지 뭘. “우리 바빠서 그냥 갑니다.” 허구 와버렸어.}

#2 그래서 그 다아메 사과를 해짜나 또 차자와쎄요. 정:김 사면서 미안하게 댔:는데, 자금 조:다리 안돼서 그래쎄. 왜 안 데리구 시푸대? 그 변:명이야. 시:에서두 지원해주게 돼:이꺼등, 강:사들두 열:마 안되지만 강:사료두 줘야지. 그때 강:사 세:부니 완는데 그 강:사료는 안줬느냐 해떠니 강:사료는 그날 안 드릴 수 업꾸 우선 급쎄늘 돌려서 지그를 해따 이거야. 그건 변:명이야. 시:에서 주능건 디꺼덕 나오지 그노무게. 그래 나중에 혈쑤, 그때두 모며늘 해:꾸.{그래서 그 다음에 사과를 했잖아, 또 찾아 왔어요. 점심 사면서 미안하게 댔:는데, 자금 조달이 안 되어서 그랬어. 왜 안 데리고 싶대? 그 변명이야. 시:에서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 강:사들도 열:마 안 되지만, 강:사료도 줘야지. 그때 강:사 세 분이 왔는데, 그 강:사료는 안 줬느냐고 했더니, 강:사료는 그날 안 드릴 수 없고 우선 급전을 돌려서 지급을 했다, 이거야. 그것은 변명이야. 시:에서 주는 것은 제까닥 나오지, 그 놈의 것이. 그래 나중에 할 수, 그때도 모면을 했고.}

#2 요버네 영부, 관인, 영:종 삼개며네 유도회 교유기 일따구.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루어 Tm니까. 거기 유:도회장이 일똥은 어떻게 치룬쎄요? 그래서 어떻게 치루기는 제 닥자바 먹꺼리 회:비 거뒀가지구 정:심 사머견쎄요. 어떻게.{요번에 영부, 관인, 영종 삼 개 면에 유도회 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루었으니까. 거기 유도회장이 일똥은 어떻게 치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루기는 제 닥 잡아 먹꺼리 회비 거뒀가지고 점심 사 먹었지요. 어떻게.}

#2 아이, 풍무네 득끼엔 그게 아니던데요? 어디서 좀 나오구 또 어디서 도와 주었때는데, 그 사람 참 그 빨라. 아참:꼬 일똥농협에서 조합장님이 내:구. 유도회서 지웁그미 좀 나간대는데, 쪼끔 지워늘 해주더라고, 짬:박꾸두. 그래:두 으무저그로 그런 시그로 해:봐야지. 유도회엔 도:니 업쎄 진짜. 그러니 딱:청게 나야다 그러믄 정시를 대:접필쑤 있는 똥:가 기그미 확보되어 인는데, 이거 회:비가져오랜대 내가 참. 힘드려요. 매우 딱하는데 거:다 회:비 가져오라능거 밥깅 가져오라능 건데. 힘드려요 이거. 모:등게. 그래가주구.{아이, 풍문에 듣기엔 그게 아니던데요? 어디서 좀 나오고 또 어디서 도와 주었다는데, 그 사람 참 그, 빨라. 아참(?)고 일똥 농협에서 조합장님이 내고, 유도회에서 지원금이 좀 나간다는데, 조금 지원을 해주더라고. 짬박(?)고도. 그래도 의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봐야지. 유도회에는 돈이 없어 진짜. 그러니 딱한 것이 나야다(?) 그러면 점심을 대접할 수 있는 뭔가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거 회비를 가져오라고 한다. 내가 참 힘들어요. 매우 딱한데 게다가 회비 가져오라는 것은 밥값 가져오라는 건데. 힘들어요, 이거. 모든 게. 그래서.}

#2 예, 교:수니몬 여기 천주교라 하시는데, 유:도회가 발쎄니 아니면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역:꼬 늘그니드리 동: 가진 사라몬 안 가라들지. 그래가지구 발쎄니 안 돼:요 유도회가.{예, 교수님은 여기 천주교라 하시는데, 유도회가 발전이 아니면 바로 이거예요.

자기는 없고 늙은이들이 돈 가진 사람은 안 알아들지. 그래서 발전이 안 돼요, 유도 회가.}

@ 요즈믄 뭐 자체 기그미 든드니 이씨야 행사도 하고 그러지요.{요즘은 뭐 자체 기금이 든 든히 있어야 행사도 하고 그러지요.}

#1 경조 보든 점심 어:더 머그러니: 하구 가는 사람드리 다 기대하니깐{경조 보면, 점심 얻 어 먹으려니 하고 가는 사람들이 다 기대하니까.}

#2 그 여:유 찌늘 한번 향교에서 언:제 향교나 유도나 [...]다. 유도회 출씨니 정:계두 나가 구 거기에 장:이구 뭐:구 거기 출썬드린데, 한번 나오래서 인제 나간는데, 내일 모fp 서울 간:다 이거야. 서우레 뭐허루 가느냐 헐:떠니 데모하러 간대. 지나간 애:깁니다. 현정부가 드러서가지구 그, 호주제도 폐:지 또 동성동본 이거 그거 인제 허는데, 진짜 궁민드리 반:대는 하지만 단첼 움직일 쑈는 엄는 모양이야 이게. 정구게서들 간 는데, 별청에서두 광광 빠스 두:대를 대:절해가지구. 자금 업찌, 진짜 그래두 가씨 요.{그 여유 전을 한 번 향교에서 언제 향교나 유도나 [...]다. 유도회 출신이 경계도 나가고 거기에 장(長)이구 뭐구 거기 출신들인데, 한 번 나오라고 해서 이제 나갔는 데, 내일 모레 서울 간다 이거야. 서울에 뭐하러 가느냐고 했더니 데모하러 간대. 지나간 애깁니다. 현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그, 호주제도 폐지 또 동성동본 이거, 그거 이제 허는데, 진짜 국민들이 반대는 하지만 단체를 움직일 수 없는 모양이야, 이게. 전국에서들 갔는데, 별청에서도 관광 버스 두 대를 대절해가지고. 자금 없지, 진짜, 그래도 갔어요.}

#2 그러떠니 저쪼게서두 먼저 다 국케으사당 아페 뭐 저 광:장 이짜나요? 글루다 집결해가 지구 간는데, 도시라글들 먹:꼬 오후에 인제 글루 국경서방 아푸로 갈라는데 별췌 정:경드리 이 수:짜가 더 마나. 파악 (혜:방 안 너머) 거러갈 때가 이씨, 잘: 갈 때가 이씨. 그 광:장에서 마이크가지구 그저 큰소리 팡팡 고함만 치다가 왁찌 뭐. 그런데 일:쩔 이 사라미 방해할 안시켜 탄:반 디린떠니까 방해할 시키요. 여:주까가 방해할 안 시켜 그러케 대:규모루 해두.{그랬더니 저쪽에서도 먼저 다 국회의사당 앞에 뭐, 저, 광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집결해가지고 갔는데, 도시락을 먹고 오후에 이제, 그 쪽으로 국경서방 앞으로 갈라는데, 별서 전경들이 이, 숫자가 더 많아. 팡 해방(?) 안 넘어 걸어갈 데가 있어 잘 갈 데가 있어. 그 광장에서 마이크 가지고 그저 큰소리 팡팡 고함만 치다가 왔지, 뭐. 그런데 일절 이 사람이 방해할 안 시켜. 탄반(?) 디리떠니까(?) 방해할 시키요. 여주까(?)가 방해할 안 시켜, 그렇게 대규모로 해도.}

#2 그 다메 이차루 또 완는데 그 서울녁 광:장에서 또 헐는데, 그 때두 헐는데, 확성기를 어디서 그러케 장만했는지 몰라요. 확성기가 팡 큰:소리로 울려요 아주. 그래 거기는 주과니 이제 성균관네서 하구 유도회에서 해가주구 인제 하는데, 차에다 단상을 맨 드라가지고 차 두 개 큰 차하고 연결하니까 단상 훌륭하게 되데. 그러구 거기서 팡 팡대구 헐는데 그 다아메 와봐두 바녕 안 시키네 일절 뭐.{그 다음에 이차(二次)로 도 왔는데, 그 서울역 광장에서 또 했는데, 그때도 했는데, 확성기를 어디서 그렇게 장만했는지 몰라요. 확성기가 팡 큰소리로 울려요, 아주. 그래 거기는 주관이 이제 성균관에서 하고 유도회에서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차에다가 단상을 만들어가지고 차 두 개 큰 차하고 연결하니까 단상 훌륭하게 되데. 그리고 거기서 팡팡대고 했는 데, 그 다음에 와 봐도 반영을 한 시키네, 일절 뭐.}

#2 데모하는 듀:마 반네. 왜, 데모하든 저 새끼는 무슨 데모 요글 해췌찌. 근데, 그게 바루

데모야, 알:구 보니까. 어:이, 그래가지구 데모두 한번 두번 가봤찌 또. 그 저 우기, 농민 저..데모에 나귀에 데모니 해두 절라두 싸람드리 좀 차납 짚대:를 거기 사람들 와. 주도권 여기 피동저그루 나가요. 여기 농민드른. (예) 거기 싸람들 아주 무서워요 (@ 적끄찌기고 예) 절라도 능을. 그래두 그 저네 나귀에 이서두 하구 뭐. 송아지 새끼를 거래다가 내란:느니 우유를 뿌런느니 허자나? 예.. 헌데 유:도회서 하능거는 하나도 바녕이 안 돼요. {데모하는 듀마(?) 봤네. 왜, 데모하면, 저 새끼는 무슨 데모?하고 욕을 했었지. 그런데, 그게 바로 데모야, 알고 보니까. 어이, 그래서 데모도 한 번 두 번 가봤지, 또. 그, 저, 우기, 농민 저, 데모에, 나귀의 데모니 해도, 전라도 사람들이 좀 차납 짚대(?)를 거기 사람들 와. 주도권, 여기 피동적으로 나가요. 여기 농민들은. (예) 거기 사람들 아주 무서워요, (적극적이고, 예) 전라도 능을. 그래두 그 전에 나귀에 이서(?)도 하고 뭐. 송아지 새끼를 거리에다가 내어놓았느니, 우유를 뿌렸느니 하잖아? 예, 그런데 유도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2 박XX라구, 국책에 이원, 이양바니 원출씨니 포천이라네 포천 그 유리메서 이야기하는데, 이 양바니 선두저그루 나가써써, 그, 그, 개정허는데, 국책이원 오:심 면명이서. 국책이원 전체가 아니니, 거기에 박XX가 선두에 서가지구 해가지구. 박XX 이 지역꺼터 문 찍지 안는다구. 근데{박XX라구, 국회의 의원, 이양반이 원 출신이 포천이라네, 포천. 그, 유럽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양반이 선두적으로 나갔었어, 그, 그, 개정하는데, 국회의원 오십 몇 명이서. 국회의원 전체가 아니니, 거기에 박XX가 선두에 서가지고 해가지고. 박XX, 이 지역같으면 찍지 않는다고. 그런데}

#2 늘그니 히든 업저만 여~양여근 일따구 봐:야돼. 그래가지구 보는데, 요즘 이XX가 별루 안 나오데요? {늘으니 힘은 없지만, 영향력은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보는데, 요즘 이XX가 별로 안 나오데요?}

@ 요즈음 예, 뭘: 좀 할꺼까지 그러터니 영 이제 안 비치지요?{요즘 예, 뭘 좀 할 것같이 그러터니 영 이제 안 비치지요?}

#2 문XX, 이 양반도 쭈욱 안 나오더니 요즈음 며뻔 비취:조. 근데 노XX 대통령에 으닌이야. 문XX가. (예) 왜냐? 강XX 씨 표를 갈가 머그니까 요기도 승사니 땡거야. 그러니깐 노XX 대통령한테는 으닌이라구, 문XX가. 바루. 그래가 이러케 나라가 안정이 안 되자나요. {문XX, 이 양반도 쭈욱 안 나오더니 요즘 몇 번 비취주어. 그런데 노XX 대통령의 은인이야. 문XX가. (예) 왜냐? 강XX 씨 표를 갈가 먹으니까, 여기도 승산이 된 거야. 그러니까 노XX 대통령한테는 은인이라고, 문XX가. 바루. 그래가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안 되잖나요.}

#2 그래가지구 이 지여계두, 먼저메 구책이원 문XX, 이 양바니 사회에서 저년 몰라뎌 사라마예요. 그래가지구 구책이워는 뵈는데, 거기에 경력나네 그, 자기 저거 그거꺼지 나와써어. 저기, 뭐야? 그... 광 운동권까지. 이게 경노뵈는데, 여기는 뵈는데. 이:삼십 때는 그저 노:란 샤쓰래문 조타고 찌겨줘, 엉뚱이. 그 사라마 재:수해짜나요?{그래서 이 지역에도, 먼것번 국회의원 문XX, 이 양반이 사회에서 전연 몰랐던 사람이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되었는데, 거기에 경력란에 그, 자기, 저거, 그것까지 나왔어. 저기, 뭐야? 그, 광, 운동권까지. 이게 경로(?)되었는데, 여기는 뵈는데(?). 이삼십 대는 그저 노란샤쓰라면 좋다고 찍어줘, 엉뚱하게. 그 사람이 재수했잖아요?}

#2 그 과:닌 출씨닌데, 과:닌 싸람 이야기 드러보니까, 아::니 동:네서 이장 까마리도 안 뵈능게 국책이워니 돼:따 이거지. 그러문 그때는 뭘:라구 [...] 까라내리고 그대루 어디

서 공:천바다가지구 공:천바더니까 아, 그래가지구 그러케 돼:따가 도중 하차해짜나, 이부니. 그래서 차타구 가면서 성:건날 내가 이런 이야기해.: 무과난 사라미지. {그 관인 출신인데, 관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 동네에서 이장감도 안 되는 것이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거지.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 깔아내리고 그대로 공천을 받아가지고 공천 받으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가 도중에 하차했잖아.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선거날 내가 이런 이야기해. (나와는) 무관한 사람이지.}

#2 으:사를 딱 떠루거등. 요버네 어떻게 헐랴구 그래, 이래떠니 아이구 강XX 짝글 꺼예요. 왜 그리 강XX를 자라라써? 이래떠니. 자라라 아능거보담도 아:드리 거기다 찌거라 해:요.{의사를 딱 떨어뜨리거든. “요번에 어떻게 할라고 그래?”, 이랬더니, “아이구, 강XX 짝을 꺼예요.”, “왜? 그리, 강XX를 잘 알아서?”, 이랬더니, “잘 알아 아는 것 보다는 아들이 거기다가 찍어라 해요.”}

#2 그러니 이사라든 거기서 일: 까령봐?. (허허허) 아드리 찌거래해? 절른 사라미 아버지가 일:향두하는데, 이런 응.. (누가 찌거랬나? 허허허). {그러니 이 사람은 거기서 일 가령(?) 봐?. (허허허) 아들이 찍어라고 해? 젊은 사람이, 아버지가 일을 향도하는데, 이런 응.. (누가 찍어랬나? 허허허)}

#2 그땐 사람들 아, 아드리, 아드리 시킨대로 해쩌만 나중에는, 그래가지구 넌지시 이제 애:기를 허능거지. 상:판나두 무어터구 그래가지구 영:똥한 사람 뭐, 구궤의원들 맨들구 그런다구 마리아. 게 요즘은 달라요 의:면군들두. 왜?{그 따위 사람들, 아, 아들이 시킨대로 했지만, 나중에는, 그래서 넌지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상판(얼굴?)이 나도 무엇하고, 그래서 영똥한 사람 뭐, 국회의원 만들고 그런다고 말이야. 그래, 요즘은 달라요, 의면군(?)들도. 왜?}

#2 인:도저긴 차워내서 부카네 도와주능 거는 존데, (응) 우리 국민두 이저 몬싸는 영세민들 얼마나 만듭니까? 양:고기니 비:료니 무상 그 지워늘 해주는데, 우리 농민드른 백푸로 인상을 시켜 비론때를. 사오쳐넌 짜리가 지금 구천 얼마지? 팔천 얼마 그래요.{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응) 우리 국민도 이제 못사는 영세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양곡이니 비료니 무상 그 지원을 내주는데, 우리 농민들은 백푸로 인상을 시켜, 비료 대금을. 사오천원 짜리가 지금 구천 얼마지? 팔천 얼마 그래요.}

#2 오늘도 보며는 도와주나 향가지야, 비:료 까븐. 개:를 올려가지구 제는 가따준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는 데를 무허범:죄라구 인식글하지. (예) 나라가 주능거야 우리드리 주능거야 응? 비:료 한 포에 싸서 곱쩌레 주는, 반포 살 꺼 한 포에 소비 처뉘늘, 예를 드려, 그래 처부늘 그러케 평까 아나지 아나요?{오늘도 보면, 도와주나 한 가지야, 비료 값은. 개를 올려가지고 채는 갖다 준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는 데를 무허범죄라고 인식을 하지. (예) 나라가 주는 거야 우리들이 주는 거야, 응? 비료 한 포에 싸서 곱절에 주는, 반포 살 것 한 포에 소비 천원을, 예를 들어, 그래 처분을 그렇게 평가 안하지 않아요?}

#2 그 이제, 그래서 내가 이얘기가 그전부터 얘기를 해써. 현:대통령이 김XX에 팔춘 짝 느러진 정칠하구 이따. 사:추니든 쪼끔 더 빨란는데, 팔춘 짝 응그::니 여기에 동조하능 거다.{그, 이제, 그래서 내가 이얘기가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 현 대통령이 김XX의 팔춘 짝 늘어진정치를 하고 있다. 사촌이면 조금 더 빨랐는데, 팔춘 짝, 은근히 여기에 동조하는 거다.}

#2 뭘: 마라느냐 하며는, 부카네서 제이하능게 아니, 방공뺨 폐지하라. 미군 철수해라. 게:
속 중:시일관 그거 주장하능 게 뭐:야? 그 응그::히게 추정을 허지아나? 그러게 팔춘
평도루 허지아나 이게:. 그리구 인천네 매가더 장구네 동상을 철거기킨다구 매가더
원사 때무네 통일이 안 땀:따 이거야.{무얼 말하느냐 하면, 북한에서 제의하는 것이,
아니, 반공법 폐지하라. 미군 철수해라. 계속 시종일관 그거 주장하는 것이 뭐야?
그, 은근하게 추정을 하잖아? 그러게 팔춘 정도로 하잖아, 이게. 그리고 인천의 맥아
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시킨다고. 맥아더 원수 때문에 통일이 안 났다, 이거야.}

#2 바:루 원수 정권거트든 그게 즈으메 그래 부르진능거 아닙니까? 통일이 되든 매가더[...]
끄테 통일 다 돼썸썸. 부산까지 내려오길, 낙동강까지 가썸는데, 으으, (@ 그러치요)
그 그 사람들레 그 사람들허구 뭐:쓸 그 지적글 합니까 뭘:니까 (기침소리) 그건 한
심해요.{바로 원수 정권같으면, 그게 처음에 그래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통일이 되
면, 맥아더 [...] 끝에 통일이 다 났었지. 부산까지 내려오기를, 낙동강까지 갔었는
데, 으으, (그렇지요) 그,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하고 무엇을, 그, 지적을 합니까, 뭘
니까? (기침 소리) 그건 한심해요.}

#2 그래가지구 이 몰:르는 무산자드른 아무건뚜 몰:르능 거, 이 사람드른 좌측계를 동경한
단마리아. 사:라메 심니가 영:똥헌 생가가게 돼:이따구요. 게에, 게: 받짜 하여간 혹
사 당하는 거슬 권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줘요.{그래가지구 이 모르는 무산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 사람들은 좌측예를 동경한단 말이야. 사람의 심리가 영똥헌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 그래 보았자 하여간 혹사 당하는 것을 권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줘요.}

@ 이제 엔:나래(으) 비해서는 마니 달라전썸썸 (예), 농민들도. 상황판다늘 잘 하시고 (예
예) 정:보가 워낙 빠르니까 (으으){이제 옛날에 (으)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지요.
(예), 농민들도. 상황판단을 잘 하시고 (예예) 정보가 워낙 빠르니까. (으으)}

#2 그래가지고 요버네두 봐:요 지방성거예구 뭐:구. 다: 벌써로 막 끄직:항 거지. (이, 이 이
지금) 뭘 그 한나라당 한나라당 인무리 축 출충형 게 아니야 바파보자는 으요게서
일판 상, 탄:테루다가 이거 지질 허능 거지이. (예){그래서 요번에도 봐요. 지방선거
예고 뭘고. 다 벌써로 막 끄직한 거지. (이, 이, 이, 지금) 뭘, 그 한나라당, 한나라당
인물이 축, 출충한 게 아니야. 바파보자는 의욕에서 일단 상, 탄 테로다가 이거 지지
를 하는 것이지. (예)}

#2 통:이리 가튼 나라가 통이른 빨리 돼:야지마는 그 부카네서 월남해온 그분들하구 이산
가족드른 따킨 애:기지마는 우리 국민들루 바라봐썸 썸게 통일되어서 반가울 꺼 업:
썸니다. 세금만 엄청나게 매겨질 거요. 머겨살리기 위해서느은.{통일이, 같은 나라가
통일은 빨리 되어야하지마는, 그 북한에서 월남해온 그 분들하고 이산 가족들은, 딱
한 이야기지마는 우리 국민들로 바라봤을 적에, 통일되어서 반가울 것 없습니다. 세
금만 엄청나게 매겨질 거요. 머겨살리기 위해서는.}

@ 점진저그로 안하며는 굉장하지요. 통일된다고 다 돼능 게 아닌데. (#2 그림){점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하지요. 통일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그림)}

#2 쯔 아이구 한심해: 도다.{쯔, 아이구, 한심하도다.}

#2 오느리 파썸 이십치리리라.{오늘이 팔월 이십칠일이라.}

@ 이십치리립니다. 오늘 벌써 사이리.{이십칠일입니다. 오늘 벌써 사일이.}

#2 음:녀그로. 윤:다리, 윤:다리 껴서 추서기 아직 머릴썸. 우린, 우린 저{음력으로, 윤달이,

윤달이 끼서 추석이 아직 멀었어. 우린, 우린 저,}

@ 시월, 시월 이월부터 오일까지 연휴당가 뭐 징금다리 휴간가 (#2 예, 예, 거기) 이러케 돼:이때요. 이 귀:한 다레도 생이리 인는 사라미 인떠군요.{시월, 시월 일일뵈 오일 까지 연휴당가 뭐 징금다리 휴간가? (예, 예, 거기)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이 귀한 달에도 생일이 있는 사람이 있더군요.}

#2 예, 예 그야 그러치요. (#1 윤:치뤄리?) (예) 그러치요. 그때두 인찌요. {예, 예, 그야 그렇지요. (윤칠월?) (예) 그렇지요. 그때도 있지요.}

@ 십년마네. (예){십년만에. (예)}

#2 어, 우리두 인제 금:추를 해야 될텐데. 십일 때조 하라버지. 우리 선친 모신 고 아:네가 십일때조. 고 아:네 때에 모시고 인는데, 십일때 하라버지 금:추를 한다 허더래두. 딴 거기는 청년드리 허지 뭐 다 아내요. 명칭만 대동금초라: 허구{어, 우리도 이제 금초를 해야 될텐데. 십일 대조 할아버지. 우리 선친 모신 그 안에가 십일 대조. 그 안에 대에 모시고 있는데, 십일 대 할아버지 금초를 한다 하더래두. 다른 거기는 청년들이 하지 뭐 다 안 해요. 명칭만 대동금초라 하구} 그러케 오래 돼시면 그 일때에 산소가 상:다이 널:게 분포되어 익꺄꾼요. {그렇게 오래 되어 있으면 그 일대에 산소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겠군요.}

#2 거기:: 우리 시빌때조 모:석꼬, 또 그:: 위루다가 으 칠때조 함분 계시구 그리구 저::기 각, 각꺄봉, 예를 드려 이동, (예) 또 남산재, 사향성 큰::산마다 아까두 지를 무시모 턴다구 엔:나레 하라버지드리 게도 그 명당짜리가 이쓰까::하고 차자다니메서 쓰싱 거야. 그러케 지금 후생드리 애:를 먹찌어나 인제는.{거기 우리 십일 대조 모셨고, 또 그 위로다가, 으, 칠 대조 한분 계시구. 그리고, 저기, 각, 각꺄봉, 예를 들어 이동, (예) 또 남산재, 사향성 큰 산마다 아까도 지(地)를 무시 못한다고 옛날에 할 아버지들이, 그래도 그 명당 자리가 있을까? 하고 찾아다니면서 (묘를) 쓰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후생들이 애를 먹잖아, 이제는.}

#2 그때는 사니고 막 기어올라 가볼 텐데, 지금 사람들 뭐 거러가 봤습니까? 사네가기 힘드 러요. 등:산하는 사람 업찌그루 등사네 가지마는 기냥 가마:니 이편 사람들 사네 가 기 힘드러요.{그때는 산이고, 막 기어올라 가볼 때인데, 지금 사람들 뭐 걸어가 봤습 니까? 산에 가기 힘들어요. 등산하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등산에 가지마는 그냥 가 만히 있던 사람들 산에 가기 힘들어요.}

@ 그래서 요즘 뭐 저 납골당이니 이렇게 (예) 어떠습니까 그런 쪼그로 얘기가 자주 안 나 옵니까?{그래서 요즘 뭐 저 납골당이니 이런 것이 (예) 어떻습니까? 그런 쪽으로 얘 기가 자주 안 나옵니까?}

#2 글썄 그래서 나두 글 추진할랴구 그런는데 글썄 (아푸로 그러케 뵈꺼예요.) 근데 그제 뜯때루 안 돼요. 그이 자그미 수바니 뵈야하는데, (도:니 마:니 들대요).{글썄, 그래 서 나도 그것을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글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게 뜻대로 안 돼요. 그것이, 자금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대요?)}

#1 그게 기이리 좀 가야지. 지금 저거하기는 힘드러.{그게 기일이 좀 가야지. 지금 저거하 기는 힘들어.}

@ 근데 거기 이제 이 납골땅이라능 게 안쪼게다가{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납골땅이라는 것 이 안쪽에다가}

#2 인제 이 여기 모양으로 인제 돌:루다하구 여기 무니 인는데 공간이지. 공가네다가 이거

진열장을 쭉 캐놓거야 그 주위에다가 먹끼 드러가게끔. 요리케 해놔:는데, 거기 대해서 이제 세부저그루 뭘 말하냐 하든, 노인네라는게, 노인네드리 관씨미 이쓰니까. 먼저메 포쳐네 납꼴...당 묘하는 그 업체가 드려쵸요. 근데 그냥바니 장:인냐?{이제 이 여기 모양으로 이제 돌로 해가지고 여기 문이 있는데 공간이지. 공간에다가 이거 진열장을 쭉 해놓은 거야. 그 주위에다가 몇 기(基)가 들어가게끔. 요렇게 해놓았는데, 거기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뭘 말하냐 하면, 노인네라는 게, 노인네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먼저 번에 포천에 납꼴당하는 그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장인이나?}

#2 그래 나는 돈:버러 와두 사회에 화원한다. 그러구 아, 근: 천주교라구. 이 양반은 무슨 교:야. 교회면서 진짜 사회봉:사한다구 이래가아 돈: 버러면서 그런데 이 양바니 노인네들 광광을 시켜쵸.{그래 나는 돈 벌어 와두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구 아, 그건 천주교라구. 이 양반은 무슨 교:야? 교회면서 진짜 사회봉사한다구 이래가아 돈 벌면서, 그런데 이 양반이 노인네들 광광을 시켰어.}

#2 이리 일뚱:, 이:동 해야 일개 면마:난 관광빠스 하나가지구 자락꺼말:꺼, 포천팔래 얼마니까?{이리 일뚱, 이:동 해야 일개 면 만한 관광버스 하나가지고 자락꺼말:꺼(?), 포천 안내 얼마입니까?}

#2 즈우 거머쥐고 피아를 해쵸 나꼴..당하고, 언:쟁가는 그 장기진 암목 바라가 일:하능거지.{죽, 거머쥐고 피알(PR)을 했어 납꼴당하고. 언젠가는 그 장기진 안목 바라가 일하는 거지.}

#2 그 잘 안되는지 언:제 가보니까 폐소허구 업쵸.{그, 잘 안 되는지 언제 가보니까 폐소(廢所)하구 업어.}

@ 근데 그 낙꼴땅 그 이야기 드르니까 경비가 뵈게마니 들고요.{그런데 그 납꼴당, 그 이야기 들으니까 경비가 되게 많이 들고요.}

@ 예, 안쪼게다가 뼈까루를 요리케요리케 그 칸카니 그러 찬쵸니까? (예,) 그제:: 우리:: 전통저긴 그 관스베 이하머는 잘 만쵸 안는 거시 아니냐? 그 흑 흘게 미테다가 무더야 뵈는데, 이게 공간 쪼게다 이러케 두능거 아닙니까? (예){예, 안쪼게다가 뼈까루를 요리케 요리케 그 칸칸이 그렇잖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 전통적인, 그, 관습에 의하머는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 흑, 흑에 밑에다가 묻어야 되는데, 이게 공간 속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 아닙니까? (예)}

@ 근데 일:본 경우는 어떠냐 하머는, 이 무덤드리 그냥 동네 여페 익꺼덩요. 일보는 일찍부터 이 무덤제가 업쵸저쵸니다. (예) 그러머는 항 가족 항 가조기나 한 지반가트머는, 이런 탑까치요, 요:러케 하나 세우고 그 미테다가 그냥 뼈를 가루를 그냥 넌능겁니다. (야아:) 그러니까 이러케 뭐: 백개니 이백개니 이러케 너을 피료가 업능거지요. 그 미테다가 너코닥꼬 그러니 정쵸이지요. 아 뼈가 여 미테 일따지, 사실 그 드러가머는 노가서 업쵸저버리거등요. (예){그런데 일본 경우는 어떠냐 하머는, 이 무덤들이 그냥 동네 옆에 있거등요. 일본은 일찍부터 이 무덤제가 업쵸저쵸니다. (예) 그러머는 한 가족, 한 가족이나 한 집안 같으면, 이런 탑같이요, 요렇게 하나 세우고 그 밑에다가 그냥 뼈를 가루를 그냥 넣는 겁니다. (야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백 개니 이백 개니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밑에다가 넣고 닫고. 그러니 정쵸이지요. 아, 뼈가 여 밑에 있다는 그것이지. 사실 그 들어가면 녹아서 업쵸저 버리거등요. (예)}

@ 근데 왜 그 뼈드를 이:: 아네다가 이러케 두는지, 그게 좀: 마찌 안능거 각꼬,그걸 만드는데 엄:청나게 도니 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그런데, 왜, 그 뼈들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두는지, 그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걸 만드는데 엄청나게 돈이 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2 돈: 인는 사람드른 면어글 디려서 한대요. 아, 그러구 우리네 영세민드른 인제 며천, 그냥 며천두 벅차지이.{돈이 있는 사람들은 몇 억을 들여서 한대요. 아, 그리고 우리네 영세민들은 이제 몇 천, 그냥 몇 천도 벅차지.}

@ 근데 사실 이런 돌:하고 해가지고 무슨 가문 어떤 집 가. 해가지고 뒤쫓게다가 이제 이름드르 쓰고 그 미테다가 그냥 뼈:가루만 너코 그러니까 간:단하지 안썸니까? 가까이 이스니까 언:제든지 와서 일러네 한 번씩 씹습니다. 이러케 (@ 그러치요){그런데 사실 이런 돌:하고 해가지고(※돌 비석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가문 어떤 집 가(家). 해가지고 뒤쫓게다가 이제 (자손들의) 이름들을 쓰고 그 밑에다가 그냥 뼈:가루만 넣고,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일년에 한 번씩 씹습니다. 이렇게 (그렇지요)}

#2 그러니 가차운데 저기, 이XX네 지바네 그 우리 집 여페다야 이짜나, (#1 화장해서?) 으으, 그래가지구 이XX 양바니 고미를 해애.{그러니 가까운데 저기, 이XX네 집안에 그 우리 집 옆에다가 있잖아? (화장했어?) 으으, 그래서 이XX 양반이 고미를 해.}

#1 이XX네 사니까 그냥 자기네 사네.{이XX네 사니까 그냥 자기네 산애.}

#2 아니, 산보담도 땅드지 그분두 우때가 여기저기 산재돼쓰니 한 데루다 집결시킹거지이. 근데 그 한 육천한 오:백기 드러갈때요. (하이) 근데 그 그때기 어디서 나왔느냐 하믄, 판 데에 그 임야-를 파라가지구 공짜루 생긴 도:니니까 해써.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생긴 도:니 업꾸, 이거 성금가지구 헐래니까 히미들지이. 근데. 예에, 그게 한 육천 한 오:백 드러따구 그러는데 그래 내가 생각카지 이:백끼가 드러가기루 뻬때요. 그러믄 나는 쪼꼬마케 축소시켜서 백끼 쟁도라, 우때엘 위주로하구.{아니, 산보다도 땅드지(?) 그 분도 윗 대가 여기저기 산재되었으니 한 데로다 집결시킨 거지. 그런데 그 한 육천 한 오백이 들어갔대요. (하이) 그런데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믄, 판 데에 그 임야를 팔아가지구 공짜루 생긴 돈이니까 (납골당을) 했어.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생긴 돈이 없고, 이거 성금가지구 하려니까 힘이들지. 그런데. 예에, 그게 한 육천 한 오백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생각카지 이백 기가 들어가기로 했대요. 그러면 나는 조고맏게 축소시켜서 백 기 정도라, 윗대를 위주로 하고.}

#2 후소는 자기가 강씨:ㄴ가를 알구이쓰므는 우서는 목찌근 선대조, 선대조는 한강의 물찌 게루 공가늘 두능거여. 가에 해자해두 자기가 가구 시프믄 가구 말티믄 말구 그건 그런데, 근데 이:백 때리니까 백개 쟁두루 추쓰루 모우두 그때기 축쏘시키니까 그때기 좀 덜지 앙..챜나 이러케 생가기 되능거지. 무영가 실처네 옹겨야 될텐데 큰니리지. 으으.{후손은 자기가 강 찢가가를 알고 있으면, 우선은 목적은 선대조, 선대조는 한 가의 유찌게(?)로 공간을 두는 거여. 가에 해자(?)해도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테면 말고 그건 그런데, 그런데 이백이라고 하니까 백 개 정도로 추스려 모우면, (숫자를) 축소시키니까 금액이 덜지 않챜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무영가 실처에 옹겨야 될텐데 큰일이지. 으으.}

@ 그럼 지금 추진 중이구만요?(그럼 지금 추진 중이구만요?)

#2 요버네 인제 대전 금초찌게 바리를 해봐야지요. 내 내자두 결싸반대야. 왜? 구태여 문중

에서 마:를 드러가며 헐라그러느냐 이거지.{요번에 이제 대전의 금초 적에 발의를 해봐야지요. 내 내자도 결사 반대야. 왜? 구태여 문중에서 말을 들어가며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지.}

#2 지금 생존자들부터 모:실랴구 그러능게 아니야 글세에. 선대조, 누가 그 차자가서 의제 실제로래 그 선대조를 실제로 까비 그 어른드를 모:시는데. 거기다 여유저그루다가 카늘 맨드능거지 뭐. 으.{지금 생존자들부터 모실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글썄. 선대조, 누가 그 찾아가서 의제 실제로래. 그 선대조를 실제로 그 어른들을 모시는데 거기다 여유적으로다가 칸을 만드는 거지 뭐. 으.}

#2 근데 누가 뼈를 가라구 강요는 아내애. 후:손드리라 잉간. 그대루 딱 고기만 드러가게 헐쑤는 업짜나. 여유이게 여:부늘 맨드능거지 뭐.{그런데 누가 뼈를 가라고(※갈도 록) 강요는 안해. 후손들이라. 그러니까, 그대로 딱 거기만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 아? 여유 있게 여분을 만드는 거지 뭐.}

#2 근데 그 경험자들 얘:기 드르니까 그 낙골함두 돌:루 형게 이썬요. 근데 돌:루하며는 으 으으 똥가하든 이게 공기가 안드러가가지구 거기서 또 벌레지가 생긴대는 마리 이썬 어. 그래가지구 새루 계:량한 으으 조오리다가 박쓰시그로 노겨가지구 또 항 것뚜 이때나. {그런데 그 경험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 납골함도 돌로 한 게 있어요. 그 런데 돌로하며는, 으으으, 무언가하면, 이게 공기가 안 들어 가서 거기서 또 벌레가 생긴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새로 계량한, 으으, 조오리(?)다가 박쓰식으로 녹여서 또 한 것도 있대나.}

#2 으, 그, 나골함:두 구구각찌리예요. 그리구 그맥차이가 또 어디 인능거지이. 그러기에 문 다블하구 또 비싸게 하는 사람드른 저어기 여:중가 어디 그,거 도기공장 이짜나? 거기다 아주 약골 하나다가 글씨라든 글씨 그대루 그게 낙골하매 명시가 되게 나오- 오그루능거지 그렇 거는 좀 비싸지 또.{으, 그, 납골함도 구구 각질이에요. 그리고 금액 차이가 또 어디 있는 거지. 그러기에 문답을 하구 또 비싸게 하는 사람들은, 저어기, 여주인가 어디, 그, 도기공장 있잖아? 거기다 아주 약골 하나에다가 글씨라 면 글씨 그대로, 그게, 납골함에 명시가 되게 나오게 하는 거지. 그런 거는 좀 비싸 지 또.}

#2 그이, 지금 국가에서두 그걸 권장하능 게 나라에서. 시:에서 그러니까 지원그를 주지아 나 그걸허며느은. 그 지 [...] 가지구는 안돼. 지원그든 그 형식게 지나지 안능거구. {그이, 지금 국가에서도 그것을 권장하는 게, 나라에서. 시:에서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잖아, 그걸하면. 그 지 [...] 가지고는 안돼. 지원금은 그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 고.}

#1 그래 장:려허는 이미에서 지원그를 주능거시지 뭐.{그래, 장려하는 의미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지, 뭐.}

#2 그, 지원그를 바들려르는 신청을 내야돼 허가신청. 그냥 우리 뭐 허가... 신:청해가는 과 정이 까:다롭따니까. (그러치){그,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내야 돼. 허가신청. 그 냥 우리 뭐 허가신청해가는 과정이 까다롭다니까.(그렇지)}

#2 그래서, 으, 전준니씨네가 나..안테 고미늘 해.육싸시 요 월래온추를 모태 그러치 어터케 그러니. 엔:나래 화모:캐 땔쩍게 누가 화모:캐 때라 그래썬. 재수 나:뿌며는 사밀간 벽 걸리능거야.{그래서, 으, 전주 이 씨네가 나한테 고민을 해. 육싸시(?) 요, 원래 온추(?)를 못해. 그렇지. 어떻게 그러니? 옛날에 화목(火木)해 (불을) 땔 적에 누가

화목해 때라 그랬어? 재수 나쁘면 삼일 간 벽 걸리는(?) 거야.}

#2 그 다: 걸리능게 아니자나. 그 이른 된다면, 누가 워:나니 이씨 가지구 밀:구허라든 물을까. 스스로 와서 이거 무허가 설치했느냐구 무를 사람 하나두 업써.{그 다 걸리는게 아니잖아? 그 일은 된다면, 누가 원한이 있어서 밀고하라면 모르까. 스스로 와서 이거 무허가 설치했느냐고 물을 사람 하나도 없어.}

#2 걱찌을 마라. 그러까 와 그러까 하더니 이 양반 한부는 동네다가 회시글시켜써. 그냥. {걱찌을 마라. 그럴까, 그럴까 하더니 이 양반 한 번은 동네다가 회식을 시켰어. 그냥.}

#2 글쎄 설명을 내가 해:찌 이러케. 선대주를 모셔 올라 그러니 얼마나 승조 사:상이 투철하냐? 이걸 칭찬하기 위해서. 그 완전히 끝나짜나? 끝난 다메두. 또 한번 회시글 시키구. 그 회식 두 번 시켜써요.{글쎄, 설명을 내가 했지, 이렇게. 선대주를 모셔 오려고 그러니 얼마나 승조 사상이 투철하냐? 이걸 칭찬하기 위해서. 그 완전히 끝났잖아? 끝난 다음에도. 또 한 번 회식을 시키고. 그 회식 두 번 시켰어요.}

#2 Y로 나올 싸라미 차제 한 싸라미 [...] 역써. 그길루 웅거지. 그러니까 그게 힘드러, 그게.{Y로 나올 사람이 차제에 한 사람이 [...] 역시. 그 길로 온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 그게.}

#2 게 우리 마으레두 지금 축산농가드리 만치아나? 옴:나랜 집찌비 돼:지, 소를 키워가지구 악취가 나두 마:를 아낸는데, 이거 근:대가 돼:서 그런지이 뭐하는지 누가 하든 뭐어 악취난다. 뭐뭐 어이서 키우느냐? (호호호) {그래 우리 마을에도 지금 축산농가들이 많잖아? 옛날에는 집집이 돼지, 소를 키워서 악취가 나도 말을 안했는데. 이거 근대가 되어서 그런지, 뭐하는지, 누가 (축산을) 하면, 뭐, 악취난다. 뭐뭐, 어디서 키우느냐? (호호호)}

#2 으 근데, 그래두 하나하나 이이에 제기를 허든 이에 버베 저:추기 된다 이거야. 근데, XX네 소가 이:찌. 저어 아래 XX네가 또 막싸 새로 지어찌 아냐? 소물고는 회:관 아페 이짜나. {으, 근데, 그래도 하나하나 이의(異意)의 제기를 하면, 이에 법에 저촉이 된다 이거야. 근데, XX네 소가 있지. 저어 아래 XX네가 또 막사 새로 지었잖아? 소물고(?)는 회관 앞에 있잖아?}

#2 그래두 인제 그냥저냥 지:내가능거야 인제, 그렁 거뚜 응그니 귀썰허는 사라미 이따구. 언:제부터 이러케 깨끄터게 말그니 공기 사라. 농초네서, 가치 키워야 살:지 무슨 애:기냐구 마리아.{그래도 이제 그냥저냥 지내가는 거야, 이제. 그런 것도 은근히 귀썰하는 사람이 있다고. 언제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맑으니 공기 살아. 농촌에서 같이 키워야 살지 무슨 애:기냐고 말이야.}

#2 우리 경:노당에, 요 뭐 광광간다 하르는 그래두 십만원 이십만원 부주를 해:요.{우리 경로당에, 요, 뭐, 광광간다 하면, 그래도 십만원, 이십만원 부조를 해요.}

#2 그래 언젠가는 저너게 내려오라 이래. 뭐 왜 그러느냐 그래떠니. 채김지가 가지닌데 양:가. 절문 사라미 어리내 동네우녕에 대해서 그런데 무슨 회이나 그래떠니 고기서 와서 회일 개최한다 이거야 그 추리장에서.{그래 언젠가는 저너에 내려오라 이래. 뭐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책임질까 가지닌데(?) 안 가. 젊은 사람이 어리내 동네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무슨 회이나 그래떠니 고기서 와서 회의를 개최한다 이거야. 그, 추리장에서.}

#2 그 절문 사람들 저 총무 장에 참석 그 아라서 해. 나 피곤해서 모까게써. 으 거기서 으

사 드르러 와떠래. 이거 어떠커든 조으냐구 그래서.{그 젊은 사람들 저 총무 장에 참석 그 알아서 해. 나 피곤해서 못 가겠어. 으, 거기서 의사 들으러 왔더래.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고,그래서.}

#2 글썄 그:는 어떠거느냐구. 그리구 마래때나? 그 동의서가 첨부가 돼야 돼. 동의서를 하든 나중에 또 동년상에 용:먹짜나 동:네에서. 그러니까 내가 회:에 양가구 기피형거지. {글썄, 그것은 어떡하느냐고. 그리고 말았다나? 그 동의서가 첨부가 돼야 돼. 동의서를 하든 나중에 또 동연상(?)에 욱 먹잖아, 동네에서. 그러니까 내가 회의에 안 가고 기피한 거지.}

#2 근데 어디서 고:바리 드리간는지. 지금 영창생활하:구 문장구고 안 바다. (하하하){그런데 어디서 고발이 들어갔는지. 지금 영창 생활 하고 문 잠그고 (전화를) 안 받아. (하하하)}

#2 어여쁜 먼:데 사람드리 이주형거야 예를 드려서 새나지:니 이런데 어다 우:바도 언:쟁가는 바로 직썌대루 가능거 아니지만 응그:니 지하로 해서 그 피:서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지 예를 드려,{어염(?)은 먼 데 사람들이 이주한 거야, 예를 들어서, 새낫이니 이런 데. 어다 우바(?)도 언젠가는 바로 직선대로 가는 거 아니지만, 은근히 지하로 해서 그 피서(?)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지, 예를 들어.}

#1 그 지역 아니구 딴 사라마 해:두 응그니 (어어 어어){그 지역 아니고 딴 사람이 해도 은근히 (어어 어어)}

#2 그래서 그 사람두 안 돼:쥬. 솔:쥬 근데 거기 여기가 그대리 별:판이어썌는데, 오 자:꾸 자리가 지뎠나 보기 시러니까 동사네 내버리구 내이리가 잘 안 보구, 가깝게 가든 지대가 노퍼진거지. 착까다 부웅게이비 오오 그럼. 그래가지구 동:사니 왜가지구. 힘들구 모:든 사어비.{그래서 그 사람도 안 됐지. 솔쥬(히), 그런데 거기 여기가 그대리 별판이었었는데, 오 자꾸 자리가 지뎠나 보기 시러니까 동산에 내버리고. 내이리가 잘 안 보고, 가까이 가면 지대가 높아진 거지. 착, 갇다 부웅게. 오오 그럼. 그래서 동산이 되어서. 힘들고 모든 사업이.}

#2 어이에 원치그루 헨다든 험게 하나두 업썌. 허허, 다아 버베 저:추글 박게 돼:이쥬.{어이(?)의 원칙으로 한다면 할게 하나도 없어. 허허, 다 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지.}

#2 그래가지구 요버네 큰:국허구 요버네 일똥 이동 화혀네서 크:게 잘똥똥게, 시위를 뽑는데 XX가 공처늘 바달짜나 X당에. 근 파:른 디리 굶는단 말: 가치,내면 싸라미라야 만나두 보구 그래서 교:지서가 오자나? 아, YY 사람 시켜봐짜 그 시임하는 만나러 차저를 갈 꺼야 여기 평생에 올까 글썄.{그래서 요번에 큰국(?)하고 요번에 일동 이동, 화현에서 크게 잘똥 된 게, 시위(시위원?)를 뽑는데 XX가 공천을 받았잖아? X당에. 그것은 팔은 들어 굶는다는 말과 같이, 내면 사람이라야 만나도 보고 그래서 교지서가 오잖아? 아, YY 사람 시켜봤자 그, 시임하는, 만나러 찾아를 갈 거야, 여기 평생에 올까, 글썄.}

#2 이걸 일똥의 면면 싸라미 이거 감정가지구 해가지구 일똥표가 딴 데루 꺼져버리구 그러니까 이런 마:리 되게썌여 으으. 으 두:리 나왈따든 몰라 여기서 이 지구에서, 하나는 여기서 거저 하나 선:출해주어야하는데 그걸 아내 조가지구 그래서 저기 이저네 시:에 그저 XX두 박XX 고차미구 그에 이 사람두 사퇴를 허구 공천 모빠자짜나.{이걸 일동의 몇몇 사람이, 이거, 감정가지고 해서 일똥표가 딴 데로 꺼져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겠어? 으으, 으, 둘이 나왔다면 몰라, 여기서 이 지구에서. 하나는

여기서 거저 하나 선출해 주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해 주어서 그래서 저기 이전에 시
에 그저 XX두 박XX 고참이고, 그에 이 사람도 사퇴를 하고 공천 못 받잖아?}

#2 화혀네 X가 아주 저 으:장꺼지 해써꾸. 똑:또캐 이 양반. 조하베 감사써꾸 그러는데, 이
양반두 공천 몰박꾸 XX야 공천 바단짜나. 그런 상대면에서나 일치 당겨리 돼야지.
두:리 나와따른 가리질 수가 이써. 엉뚱헌 성우 이 싸라미 되게 허는데, 한 나잘 이
버노거던 근 뭘로 봉사하랴 이 버노 부치는데 투표 용지는 그게 잘 모뎌써 순서가
사버네 가서 이써 거기 위에 X당에두 김XX가. 그에 요:기두 착까글 이르켜써, 일똥
에서 계획쪼가 탄 데로 간 사람 이써.{화현에 X가 아주 저, 의장까지 했었고. 똑똑
해 이 양반. 조합의 감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두 공천 못 받고, XX야 공천 받
았잖아. 그런 상대면에서나 일치 단결이 돼야지. 둘이 나왔다면 가리질 수가 있어.
엉뚱한 XX, 이 사람이 되게 하는데, 한 나잘 이 번호거든. 그건 뭘로 봉사하랴 이
번호 붙이는데 투표 용지는 그게 잘 못 땀어. 순서가 사 번에 가서 있어. 거기 위에
X당에두 김XX가. 그래, 여기도 착각을 일으켰지, 일똥에서 계획쪼가 탄 데로 간 사
람 있지.}

#2 이:버늘 달구 찌글 투표용지에 쪽: 서구보니 근데 XX당이 쪽 나오니까는 예라 하나 내
써요. 그게 멀:원짜가 이쓰니까 여기서 차이가 생긴 거야 일똥 싸라미이. 복쑤 공처
니니까 그게. 으으 그러니 지지하던 사람들 정말 어글허구 분통이 터지니 당사자야
오죽컬 꺼야 예:를 드러서{이 번을 달고 찍을 투표 용지에 쪽 서고보니, 그런데 XX
당이 쪽 나오니까는 예라 하나 났어요. 그게 멀 원(遠) 자가 있으니까 여기서 차이
가 생긴 거야, 일똥 사람이. 복쑤 공천이니까, 그게. 으으, 그러니 지지하던 사람들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니 당사자야 오죽할 거야, 예를 들어서}

#1 육빠니 누구래써써?{육 번이 누구랬었지?}

#2 육빠는 몰:라, 아 사:버는 이XX야 글썸.{육 번은 몰라. 아, 사 번은 이XX야, 글썸.}

#1 아니, 그거는 면 저거구 육빠네 도이원 나온 이 사라메, 저 버네 저어기 포:천 여자가
나한테 차자 와떠라구. 가튼 감씨든 좀 협조해주시우 그러더라구. (음) 여자를 하나
데리구 와서 데려 온가봐 어떠케 그 사람 따린지. 다방에 와서 차를 한 잔 머그면서
그 얘기를 해줘. 그래 가꾸서는 예, 예 탄 저거를 해 도와 줄 수는 업찌만두 나 자
시니야 모또와 주겐느냐? 하하하 하니까는 걱정 마시오. 그래 탄 사람까지 이끌구
소래가 협조해준다는 마른 모탄다. 그리구 뭐냐 저거 해떠니 응, 차까블 딱 내가 인
제 저거해떠니 아, 여 차값이, 내 동네 차저운 손니든 내가 내야지 이래떠니. 차까블
저거 빼서가꾸 여기에 노쿠 자기가 차값 내구 가더라. 그러더니 추입마자가고 이튼
날 와써어. (으응) 얘기 드린따구 마리아.{아니, 그거는 면(의) 저거고 육 번에 도위
원 나온 이 사람의, 저 번에, 저어기, 포천 여자가 나한테 찾아 왔더라고. 같은 값이
면 좀 협조해주시오. 그러더라고. (음)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 데려 온가 봐 어떻
게 그 사람 딸인지. 다방에 와서 차를 한 잔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줘. 그래 가지고,
예, 예 탄 저거를 해 도와 줄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이야 못 도와 주겠느냐? 하하하,
하니까는 걱정 마시오. 그래 탄 사람까지 이끌고 소래가 협조해준다는 말은 못한다.
그리구 뭐냐 저거 해떠니 응, 차값을 딱 내가 이제 저거했더니 아, 여 차값이, 내 동
네 찾아온 손님은 내가 내야지, 이랬더니. 차값을, 저거 뺏아가지고 여기에 놓고 자
기가 차값을 내고 가더라. 그러더니 추입마자(?)가 그 이튿날 왔어. (으응) 얘기 들
었다고 말이야.}

#2 먼저 도이워네 XX당이야 그 사라미. KK약방에 장:조카래. 그 사라미 며:네 한 번 와떠라구. 그래서 아, 염녀 말라구. 마리아 묻끄래. 협조해주게따고 그래야지 그래가지구. 으으, 사칠약빵 잘 안다구 염녀말라구 그래쎄. 아, 그러니깐 일똥은 쉬쉬다쑤 그래. 아아 아이구. (허허허){먼저 도위원에 XX당이야, 그 사람이. KK약방의 장조카래, 그 사람이. 면에 한 번 왔더라고. 그래서 아, 염려마라고. 말이야 못 그래. 협조해주겠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으으, KK약방 잘 안다고 염려마라고 그랬지. 아, 그러니깐 일똥은 쉬쉬다쑤(?) 그래. 아아 아이구. (허허허)}

#2 우리 여기는 조침이지요. 조침미야 그. 아침 해가 뜰쎄게 그 침거치 저 바늘거치 보여서 해가 비치니까 그 조침미라구두 그러구 아까두 월래 조침이구 조침 살메가 조침이라구 그래선는데, 차에서 보든 조침미가 조침미가 그든 무슨 저 악센트 잘모터든 욱커는 바름거태 이게 아침 조짜 바늘 침짜 (네) 조침..이게 조침사니야 여기가. 아치메 해가 뜨면 그 인제 반짝반짝커니 그 등에. 그래가지구 거기서 조침이라는 유:래가 댜:는데, 으으, 우리 사:당 마으른 고가 달라,그래 사지기는 본 부락 아니야 사당 마리, 행정적으루 여:러 그렇대가 나뉘쎄마는 사당머래 저 아:래 낭기완네가 바치라구 활떡 까는데 그 빼알 바세{우리 여기는 조침이지요. 조침이야. 그, 아침 해가 뜰 적에 그 침같이, 저 바늘같이 보여서 해가 비치니까. 그 조침이라고도 그러고. 아까도 원래 조침이구. 조침 살메가 조침이라구 그랬었는데. 차에서 보면 조침이가, 조침이가, 그 무슨, 저, 악센트 잘 못하면 욱하는 발음 같아. 이게 아침 조(朝)자 바늘 침(針)자 (네) 조침. 이게 조침산이야, 여기가. 아침에 해가 뜨면 그 이제 반짝반짝하니 그 등에. 그래서 거기서 ‘조침’이라는 유:래가 되었는데, 으으, 우리 사당 마을은 고가 달라. 그래 사직 2는 본 부락 아니야? 사당 마을이, 행정적으로, 여러 그렇대(?)가 나뉘었지마는, 사당머리에 저 아래 낭기완네가(?) 밭이라구 활떡 가는 데 그 비탈 밭에}

#1 어네 마:래 사당이뎡 거 아니야? (으으){어내 마을에 사당 있던 것 아니야?}

#2 어, 거기 기와짱이 나와요. 그래서 인제 그래서 인제 그 확씨리 몰르지 사당: 올치구에서 인제 사당말로다가 명명이 댜:때. 그니까 뉘가{어, 거기 기와짱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확실히 모르지. 사당, 올치구에서 이제 사당 마을로 명명이 댜:었다. 그러니까 뉘가}

#1 사당이 이쎄뎡 거니까 사당마리지.{사당이 있었던 거니까 사당마을이지.}

#2 그래가지구 요 일쎄네 중앙경원 원장하구 대활 나뉘는데, 사당이란 이해가 앙 간다 이거야. 사당마:린데 이거 사당말 유래가 앙 감니다 이거야. 아 그러케 전설로 내려온다 그래떠니 사당이라믄는 이태조 어와 함경도로두가 갈따가 되 다라오는데 사당이라믄는 왕으 그 선대를 모시는 데가 사당인데, 거다가 어테 그어양을 모션느냐 이러구 나한테 반:무늘해 그래서. 그냥도 뉘가 다늘 모우고서 기워늘 디린다믄 사당이라구두 말할 수 인능 거 아니야?{그래가지구 요 일쎄네 중앙경원 원장하구 대활 나뉘는데, 사당이란 이해가 앙 간다 이거야. 사당마:린데 이거 사당말 유래가 앙 감니다 이거야. 아 그러케 전설로 내려온다 그래떠니 사당이라믄는 이태조..가 함경도로두가 갈따가 되 도라오는데 사당이라믄는 왕으 그 선대를 모시는 데가 사당인데, 거다가 어테 그어양을 모션느냐 이러구 그러케 또 나한테 반:무늘해 그래서. 그냥도 뉘가 다늘 모우고서 기워늘 디린다믄 사당이라구두 말할 수 인능 거 아니야?{그래가지구 요 일쎄네 중앙경원 원장하구 대활 나뉘는데, 사당이란 이해가 앙 간다 이거야. 사

당마:런데 이거 사당말 유래가 양 갑니다 이거야. 아 그러케 전설로 내려온다 그래
 터니 사당이라며는 이태조 어와 함경도로두가 갈따가 되 다라오는데 사당이라므는
 왕으 그 선대를 모시는 데가 사당인데, 거다가 어테 그어양을 모션느냐 이러구 나한
 데 반:무늘해 그래서. 그냥도 뭔가 다늘 모우고서 기워늘 디린다믄 사당이라구두 말
 할 수 인능 거 아니야?{그래서 요 일전에 중앙경원 원장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
 당이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사당마을인데 이거 사당마을 유래가 안 갑니다 이거
 야. 아 그렇게 전설로 내려온다 그랬더니 사당이라며는 이태조가 함경도로 갔다가
 되돌아 오는데, 사당이라면 왕의 그 선대를 모시는 데가 사당인데, 거기에다 어떻게
 그 SS를 모셨느냐 이라고 그렇게 또 나한테 반문을 해 그래서. 그냥도 뭔가 단을
 모우고서 기원을 드린다면 사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 어디 사당요?

#2 우리 마우리 사당마을이거덩. 나는 그 사당마리라구. 이해가 양간다구 그래서 이해가 가
 시거나 양가시거나 게두 땡:가 다니 이썬따. 그래가지구 사당말로 건무리 업꾸. 그에
 과거 보믄 거기에서 그 옴:나레 기왓장드리 나오거덩요 지금두 간가니. 그러니까 그:
 때 이태조 썬겐 아:드칸 옴날 애:기고. 내가 판단해썬 썬겐 역시 강씨봉 유래 모양으
 루 그 시대에 땡:가 그 땡 기원하기 위해서 다늘 모우고서 기원하지 아난나?{우리
 마을이 사당마을이거든. 나는 그 사당마을이라고.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이해가
 가시거나 안 가시거나 그래도 무언가 단이 있었다. 그래서 사당마을로 건물이 없고.
 그에 과거 보믄 거기에서 그 옛날에 기왓장들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간간이. 그러니
 까 그때 이태조 적에는 아득한 옛날 애:기고. 내가 판단했을 적에는 강씨봉 유래 모
 양으로 그 시대에 무언가 그 무엇을 기원하기 위해서 단을 모우고서 기원하지 안왔
 나?}

#1 이썬 이:저네 이 자리 고시 이썬서 사당이 여기가 이따구 아네 드려이썬요. 여기가 사
 당, 여기가 사당마우리지.{이썬 이전에 이 자리 곳(?)이 있어서 사당이 여기에 있
 다고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가 사당, 여기가 사당마을이지.}

@ 예 예, 그러지 예, 서우레 사당 사당동도, 동내 정씨 사당이 이꺼등요. 크게. 근데 여기는
 이따가 불타꺼나 업썬저꺼나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요. (#1,2 예예, 그러치){예, 예,
 그러지 예, 서울의 사당, 사당동도, 동래 정씨 사당이 있거든요. 크게. 그런데 여기는
 있다가 불탔거나 없어졌거나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요. (예예, 그렇지)}

#2 그래가지구 사정리라하믄 사당마으를 {그래서 사직리라 하면 사당마을을}

@ 아, 사직, 사직, 왜 이르믄 사직이라구.{아, 사직, 사직, 왜 이름을 사직이라고}

#2 아, 이거 사당마으른 인제 이레 함뽕뽕:가지구 왜놈드리 사정니루다가 명명을 한 거지
 요. 사당마우리니까. 왜놈드리 아 사정리 그다가(흙착음?) 거:기 사당마우리 유래가
 저:기 워니니 거기서 사정니루다가 왜놈드리 인제 명명을 하여 요 아페 치워노은 거
 야.{아, 이거 사당마을은 이제 일본에 합병되어서 왜놈들이 사직리로 명명을 한 거
 지요. 사당마을이니까. 왜놈들이, 아, 사직리 게다가 거기 사당마을이 유래가 저,
 원인이 거기서 사직리로 왜놈들이 이제 명명을 하여 요 앞에 치워 놓은 거야.}

@ 그.. 월래 사직카며는 국가{그, 월래 사직이라고 하면 국가}

#2 그래서 사직뽕이라구두 그러구{그래서 사직뽕이라고도 그러고}

@ 항 국가가 태어난 고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쭝기 사정니믄 태봉국하고 어떻 관계가 이썬
 썬.{한 국가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쭝이 사직리면 태봉국하고 어떤 관계

가 있을지.}

#2 글썸, 그래서 거기에 여뉴되지 안나 그 이태조 (으) 대궐: 거기서 아드칸 엔:날 애:기구
그래서 거기 여뉴되지 안나 이러케 생가기 되능거예요. (#1 그래요){글썸, 그래서
거기에 연유되지 않나. 그 이태조 (으) 대궐:는 거기서 아득한 옛날 애기고 그래서
거기 연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1 그 저:네 뭐 으 그{그 전에 뭐, 으, 그}

@ 그 강씨봉이 이꼬 궁 뭐:가 이스니 요쪼게 틀림업시 뭐:가 이씨쉴{그 강씨봉이 있고, 궁
뭐:가 있으니 요쪼게 틀림없이 뭐:가 있었을}

#1 왕건이가 천도오고 그래가고 인제 이 여기까지 피란 나오고 해쓰니 사당이 그 당시 이
씨쉴 아난나?{왕건이가 천도 오고 그래 가고 이제 이 여기까지 피란 나오고 했으니
사당이 그 당시 있었지 않았나?}

#2 그러니 그 당시에는 태봉구게 이거 요충지라구 봐야돼:. 왜 그러냐 하며는 (@ 그러썸니
다) 사당마을을 여기 너머가다보든 활터라는 활터 지끄른 사격짜이지 활터면 이 궁으
루다가 연썸짜이라구 봐야지 활터가 인(@ 그러치요), 예.{그러니 그 당시에는 태봉
국의, 이거, 요충지라고 봐야돼. 왜 그러냐 하면 (그랬습시다) 사당마을을 여기 넘어
가다보면 활터라는 활터, 지금은 사격장이지 활터면 이 궁으로 연습장이라고 봐야
지. 활터가 있(그렇지요), 예.}

@ 그래서 모르던 그 시기 시절에 요쪼게 중요한 (예, 예) 정부기관이 이씨쉴 꺼 가태요.{그
래서 모르던 그 시기 시절에 요쪼게 중요한 (예, 예) 정부기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 지금 돼:지는 면마리 기르십니까? 마:니 기르십니까? {지금 돼:지는 몇 마리 기르십니까?
많이 기르십니까?}

#2 강아지요. (@ 아, 강아지요?) 하하하, 강아지는 왜 키우느냐 하든 담:배까비라두 할까
하구 헨는데 인제는 소드기 업썸요. 왜 (@ 그러썸니까?) 늘그:니가 키우니까 안 돼.
자급자조 새끼 내:가지구 키워야하는데 스테레하고 무신 노무 개드렁강 암놈 이따른
언젠가 발정기 올까 하구 기다리니 해를 미기능 거야. 근데 인제 그래가지구 확대
몹시키구 인는데, 그게 이익되는 저미 뭐 인느냐 하며는 나한테 건강에 조아요. 그
게 이쓰니까 부대에두 가 째:두 가져오구. 그 노미 업쓰른 가마:니 방구서게 나째자
구 이썸거야. 그런데 그래두 아침저녁 개지베 가가지구 금태낭하구 개죽주구 그게
나에 건:강에 도움을 주능 거요. 결론저그로는. (@ 그러네요){강아지요. (아, 강아지
요?) 하하하, 강아지는 왜 키우느냐 하면, 담배값이라도 할까 하고 했는데 인제는 소
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늙은이가 키우니까 안 돼. 자급자조 새끼 내어가지고
키워야 하는데 스테레하고 무슨 놈의 개들인가 암놈 있다면 언젠가 발정기 올까 하
고 기다리니 해를 먹이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확대를 못 시키고 있는데. 그게
이익되는 점이미 뭐가 있느냐 하면 나한테 건강에 좋아요. 그것이 있으니까 부대에
도 가서 째도 가져오고. 그 놈이 없으면 가만히 방구석에서 낮잠 자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래두 아침저녁 개집에 가서 금태낭(?)하고 개죽 주고 그게 나의 건강에 도
움을 주는 거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네요)}

@ 아니, 부대에 째를 가져와서 미길 정도면 수짜가 망케꾼요?{아니, 부대의 째를 가져와서
먹일 정도면 숫자가 많겠군요?}

#2 아니, 쪼끄만 무테기라서 해요. 오 그래 그나마두, 수짜가 업쓰니까 또 이온 사람 노봐
주지 그나마도. 예, 부대에선 재를 넣기문 안 되니까. 그때 지나른 악취가 나서 (@

그러습니다) 그날 그날 백프로 딱 제거시키야 돼:요. (예){아니, 조그만 무테기라서
해요. 오, 그래 그나마도, 숫자가 없으니까 또 이웃 사람 나누어주지 그나마도. 예,
부대에서는 재를 넘기면 안 되니까. 그때가 지나면 악취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날
그날 백프로 딱 제거시키야 돼요. (예)}

#2 내가 요 아페 푸때꺼 가져오지 아나. 짜:메 대해서는 아주 이 양바니 알지만 아주 고차
미예요.{내가 요 앞에 부대 것을 가져오지 않아? 짬에 대해서는 아주 이 양반이 알
지만 아주 고참이예요.}

@ 예.{예}

#2 지금 일개 중대가 인는 자린데 과거에 우리 일가집들 특 터썬는데 자유당 시에 증:발
당해썬요. 그때는 나라도 무상엔 보:상 못해썬요. 보:상비를 탈려면 그 소속빠가 안
된다구 그래썬. 그 자리에 대대로 안자썬꺼덩 쭉욱 그때부터 내 짜:를 이용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대며는 연:대보다 홀려늘 더 봐요.{지금 일 개 중대가 있는 자린데,
과거에 우리 일가집들 특 텃었었는데 자유당 시에 증발 당했어. 그때는 나라도 무상
엔 보상 못했어. 보상비를 탈려면 그 소속비가 안 된다고 그랬어. 그 자리에 대대
로 앉았었거든, 쭉, 그때부터 내 짬을 이용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대면 연대보다
혼련을 더 봐요.}

#2 그래서 연대루 와썬. 그걸 포길허구. 그 짜:를 이용할라니까 여기서 또 차자와썬. 짜미
피료허나 이거야. 그래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깐 심제 특공대에서 웅거야 또. 특수부
대니까 게두 주부시글 잘:주니까. 짜:문 그래두 에이끄브루 나와. 그나마 상급부대면
더 특대울 받썬 아나요?{그래서 연대로 왔지. 그걸 포길하고. 그 짬을 이용할라니까
여기서 또 찾아왔어. 짬이 필요하냐 이거야. 그래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KK 특공
대에서 온 거야, 또. 특수부대니까 그래두 주부식을 잘 주니까. 짬은 그래두 A급으
로 나와. 그나마 상급부대면 더 특대우를 받지 않아요?}

#2 그래가지구 이제 심제에를 짜:를 실러 다녀썬. 근데 그때는 수를 망 머거썬요. 개:망나니
구. (예) 지끄른 이제 수를 상가능 게 뭐냐하든 그 체면이 이썬. 과거엔 잘못 뺄망
정 노인 회:장이 수리나 먹:꾸 그런 직책이 뭘:지 그래서 술 취하지 양케끔 내가 노:
려글 허지. 근데.{그래서 이제 KK에를 짬을 실러 다녀썬. 그런데 그때는 술을
막 먹었어. 개망나니구. (예) 지금은 이제 술을 삼가는 게 뭐냐하면 그 체면이 있
지. 과거엔 잘못 되었을망정 노인 회장이 술이나 먹고 그런 직책이 뭘:지 그래서 술
취하지 양케끔 내가 노력을 하지. 그런데.}

#2 짬: 그때 경운기를 가지고 이러:케 그 이제 이 길 타구 이:동으루 가야 되는데 그때 느
저썬. 짬:실러 가다보니까. 어떻게 저 판 널 보다보니까. 카:부를 이리 트러가지구
오는데 큰 차가 라이트를 켜:구 오니까, 이거 잘 분간을 못하썬따라구. 그래 배:
수로다가 겨우 썬바다 그 차 디러바등게 아니라 아피 잘 안보이니까. 그래가지구
여기 사람 나 주근 줄 아라썬요. 경운기 뒤지퍼 가지구 내가 그 쏘게 드러가썬썬니
까 그래두 요 주위 싸람드리 아무게 주거따구 날:리치구 안식꾸가 까무라쳐서 우울
해썬썬.{짬, 그때 경운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이 길 타고 이동으로 가야 되
는데, 그때 늦었어. 짬 실러 가다보니까. 어떻게 저 판 일 보다보니까. 커부를 이리 틀
어서 오는데 큰 차가 라이트를 켜:구 오니까, 이거 잘 분간을 못하썬더라고. 그래 배
수로다가 겨우 썬바다. 그 차 드리받은 게 아니라.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 나 죽은 줄 알았어. 경운기 뒤집혀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갔었으니까. 그

래도 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개 죽었다고 난리치고 안식구가 까무라쳐서 우울했었지.}

@ 마니 다치지는 아느냐?{많이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2 다치지는 아내씨요 근데. 겨우 인제 전:부{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겨우 이제 전부}

#2 텨 예게 경사 저노른 앞바퀴늘게 (예) 전:보글 형거야. 아, 그래가지구 모며늘 해져요.
{텨예게(?) 경사 저 높은 앞바퀴늘게(?) (예) 전복을 한 거야. 아, 그래서 모며늘 했지요.}

#1 운명이라구 봐야해. XX이 봐.{운명이라고 봐야 해. XX이 봐.}

#1 정관사 가다 주궁 거.{정관사 가다가 죽은 거.}

#2 또 열:마 이따가 짜:물 씨꺼가지구 오는데, 세워리 흐른 다메. 여기 X 씨네 구멍가게 할 짜게야. (응) 이 경운기가 느려요. 대로상에 운저늘 하능 게 아니거든. 난 예 운저늘 허는데, 삼: 단 운전 중에 [...]가 대:로상에서. 삼: 단, 일 따는 그 다으른 빨릅니다. 그게. 저:기 요기서 한 오시, 오십메타 전방에 인제 성며네 지께 쟁도 되써. 삼단 가져오던 요가 그 주인 몰르까 저기서 달려오던 경운기가 으메 여:기 오기 직짜에 그 게 봉고차 저어기 타이타닝가 뭐:야 일단 차 짐차 여게 핵 드로더니 (아) 그노무 차 후미를 디리바둥 거야, 경운기가. 근데 새차고 예, 남바 그게 짜부러져써.{또 열마 있다가 짬을 썰어서 오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기 X 씨네 구멍가게 할 적에야. (응) 이 경운기가 느려요. 대로상에 운전을 하는 게 아니거든. 난 예 운전을 하는데, 삼단 운전 중에 [...]가 대로상에서. 삼 단, 일 단은 그 다음은 빠릅니다, 그게. 저기, 요기서 한 오시, 오십 메타 전방에 이제 성면의 집게 정도가 되었어. 삼단 가져오던 요가(?) 그, 주인 모르까 저기서 달려오던 경운기가, 으메, 여기 오기 직자에, 그게, 봉고차, 저어기, 타이탄인가 뭐야. 일 단 차 짐차가 여게 핵 들어오더니 (아) 그 놈의 차 후미를 들이받은 거야, 경운기가. 그런데 새 차고, 예, 남바 그게 짜부러졌어.}

#2 나는 보니까, 아페 차 디레 라이트가 깨:지구 뭐 이래떠라구. 그에 아, 이거 내가 나무차를 디려바다서 안 돼꾸나 소그로 느끼구 인능 거지. 그런데 그 차 땅 내리더니 남자는 가마니 인는데 여자가 절른 여이니 오더니 촌:놈 하라버지가 나무 새 차 디려바달따 이거야 변상하라 이거야.{나는 보니까, 앞에 차 디레 라이트가 깨지고 뭐 이랬더라고. 그에 아, 이거 내가 남의 차를 들여받아서 안 됐구나, 속으로 느끼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차 딱 내리더니 남자는 가만히 있는데 여자가 젊은 여인이 오더니 촌놈 할아버지가 남의 새 차 들여받았다 이거야, 변상하라 이거야.}

#2 그래 헐 마리 이써야지. 그래두 굼병이두 발브른 꿈틀댄다구. 여보 당신들 차만 망가져써? 내 경운기두 라이트 깨:져써. 이거 변:상해. 어, 이거 만오쳐닐만 변:상을 해. 그래떠니. 별:로무 하라버지 다 보쥔때 나무 차 디려박꾸. 큰소리 팡팡 친다구. 큰소리 하든 내 꺼뚜 망가진는데. 무슨 변:상을 해달라구 그래.{그래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도 굼병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여보, 당신들 차만 망가졌어? 내 경운기도 라이트 깨졌어. 이거 변상해. 어, 이거 만오천원만 변상을 해. 그랬더니. 별놈의 할아버지 다 보쥔대. 남의 차 들여받고. 큰소리 팡팡 친다고. 큰소리 하면 내것도 망가졌는데. 무슨 변상을 해달라고 그래.}

#2 그래두 마딘 그 소그루 거비나요. 교통법꾸두 몰르는데, 파출소루 저:날 헐는지, 그 시저렌 그 백차가 업써 그저. (예) 오도바이 타구 경찰과니 따악 오더니 쓰으 상황을 보더니 위아가라떠가 답빠늘 해. 운저는 가마:니 인는데.{그래도 마딘(?) 그 속으로 겁

이나요. 교통법규도 모르는데, 파출소로 전화를 했는지, 그 시절에는 그 백차가 없
어. 그저, (예) 오토바이 타고 경찰관이 딱 오더니 썩 상황을 보더니 위아가라 (?)떠
가 답변을 해. 운전은 가만히 있는데.}

#2 이 차가 이 경운기 추월했느냐 그러니까, 추월해따 이거야. 그래요? 그런데 저 아저씨가
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아 저 아저씨가 엉뚱:하게 라이트가 깨:절따구 만:오쳐널
변:상을 해달라구 그래서 나무 차는 디러바다 노쿠. 엉뚱한 하라버지야. 그래요?{이
차가 이 경운기를 추월했느냐 그러니까, 추월했따 이거야. 그래요? 그런데 저 아저
씨가 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아, 저 아저씨가 엉뚱하게 라이트가 깨졌다고 만오천
원 변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남의 차는 들여받아 놓고. 엉뚱한 하라버지야. 그래요?}

#2 만:오쳐널 디려요. 그러더라고. 그 소그루 저노무 경찰과니 미천나?. 소글나미 타구. 그
러니 이 양바니 뭐:라 그러냐 하믄. 당신네가 사:고를 안내고 그냥 가쓰믄 다행이지
마는, 사:골내고 가면서 여기서는 이기 지님노가 아니지 안느냐 지님노가. 여기 차가
꺼꺼드로는 기리 아니래. 우리가 그렁 걸 압니까? 이 차는 경운기가 드리갈 쥘 아라
찌. 그래두 삼다네 노오니까 이게 꺼꺼 화악 드러오니까는 후미를 디리 바들 쭈배
끼. 아, 그래가지구. {만오천원 드려요. 그러더라고. 그 속으로 저 놈의 경찰관이 미
쳤나? 소글나미(?) 타고. 그러니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네가 사고를 안
내고 그냥 갔으면 다행이지마는, 사고를 내고 가면서 여기서는 이게 진입로가 아니
지 않느냐? 진입로가. 여기 차가 꺾어 들어오는 길이 아니래. 우리가 그런 걸 압니
까? 이 차는 경운기가 들어갈 줄 알았지. 그래도 삼 단에 놓아서 이게 꺾어 확 들어
오니까 후미를 들이 받을 수밖에. 아, 그래서.}

#2 그 여자가 이익 그렁그렁대면서 만:오쳐널 주더라고. 그러니까 경찰과는 그대로 가버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 하믄 아아, 경찰관 지역을 탄다 이거야. 어 무슨 지역을 타느
냐구. 왜는 몰:르지 그 사람. 게 당신 어디서 와쑤. 그래떠니 YY에서 와때. 그 일뚱
파출소서 와쓰니까. 오오, 그래가지구 모:며늘 하구, 보:상을 바다가지구 그래, 라이
트 값 열:마 됩니까? 그 이튼날 파출쑤엘 가쑤. 담:배 인제 한보루 사가지구. 그래
그 출짱 와편 그 경찰과니 이때라구. 어제 고마왈따구 담:배나 드리려구. 아아, 별쑤
리 다들 그냥 가주가라구 망무가네 안 바다. {그 여자가 이익 그렁그렁대면서 만오
천원 주더라고. 그러니까 경찰관은 그대로 가버려. 그러더니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아
아, 경찰관 지역을 탄다 이거야. 어, 무슨 지역을 타느냐고. 왜는 모르지 그 사람. 그
래 당신 어디서 왔오. 그랬더니 YY에서 왔대. 그 일뚱 파출소에서 왔으니까. 오오,
그래서 모면을 하고, 보상을 받아서 그래. 라이트 값 얼마 됩니까? 그 이튼날 파출
소에를 갔어. 담배 이제 한 보루 사가지고. 그래, 그 출장 왔던 그 경찰관이 있더라
고. 어제 고마왔다고. 담배나 드리려고. 아아, 별소리 다 듣, 그냥 가지고 가라고 막
무간에 안 받아.}

#2 이건 와이루가 아니구 내가 치하루다가 한보루 사가지구 완는데, 사가지구 기냥 가주가
겐느냐구. 그리고 주어버렘찌. (예) 아, 그래서 모면해쑤요. 하하하.{이건 뇌물이 아
니고 내가 치하로 한 보루 사가지구 왔는데, 사가지구 그냥 가지고 가쑤느냐고. 그
리고 주어버렸지. (예) 아, 그래서 모면했어요. 하하하.}

#2 그러구 오토바이두 한번 또 혼:낭게, 대:개 토요일날 이료일날 잔채를 해:요. (예) 그예
이료일날 잔채를 해쑤 일뚱 갑따가 그때만 해두 지끔보단 절머쓰니까. 오토바이를
타구 나무 잔채를 가구. 오토바이를 탈쓰니까 수를 인제 델:머거 그나른 평상시는

마냥 멍는데, 그리구 오후에 인자 오다보르느 토요일날 오며는 차드리 꼬리를 물구 나가요. 쭈욱. 나도 오후에 가치고개 저 고갯 너머서 싹 오는데, 꼬릴 망 물구 뒤에 차들 인제 하나 라이트 나는 경운기가 그걸 다라꺼등. 뒤에 차가 오더라구. 한번 가보자구 나는 내 코스로만 여부로만 가는데, 어떤 노무 차가 하나가 화악 추월해 가더니 핵 트는데 오도바이 아푸루다가 확 친다. 이 노무 차가 디리 대능 거야. 요 그 다리 건:너가기 직찌니지 그때.{그리구 오토바이도 한 번 또 혼난 게, 대개 토요일날 일요일날 잔치를 해요. (예) 그에 일요일날 잔치를 했어. 일동 갔다가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젊었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남의 잔치를 가고. 오토바이를 탔으니까 술을 이제 덜 먹어, 그 날은. 평상시는 마냥 먹는데. 그리고 오후에 이제 오다 보면 토요일날 오면, 여기는 차들이 꼬리를 물고 나가요. 쭈욱. 나도 오후에 가치고개 저 고갯 넘어서 싹 오는데, 꼬릴 막 물고 뒤에 차들 이제 하나 라이트, 나는 경운기가 그걸 달았거든. 뒤에 차가 오더라고. 한 번 가보자고 나는 내 코스로만 옆으로만 가는데, 어떤 놈의 차가 하나가 확 추월해 가더니 핵 트는데 오토바이 앞으로다가 확 친다. 이 놈의 차가 들이 대는 거야. 요, 그 다리 건너가기 직전이지 그때.}

#2 그래 내가 오토바이 그 노무 차 미테 디리바드르네 내가 트러전짜나. (예) 그래가지구 이 라이트 깨:지구, 여기가 좀 뜨끔하더라구 이러나보니까는 여기가 홀렁 까지구 갑싸기는 피가 안 나요. 근데 인제 벌:거게만 허지. 그래떠니, 이 양바니 차를 세워노터니 오토바이 여기 봐:두지구 내 차 타시라 이거야.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거야. 아이 팬찬타구. (호호호) 아이, 그래두 가보셔야 된다고. {그래 내가 오토바이 그 놈의 차 밑에 들이받으면서 내가 틀어졌잖아. (예) 그래서 이 라이트 깨지고, 여기가 좀 뜨끔하더라고 일어나 보니까는 여기가 홀렁 까지고 갑싸기는 피가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벌정게만 하지. 그랬더니, 이 양반이 차를 세워놓더니 오토바이 여기 놓아두시고 내 차 타시라 이거야.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거야. 아이 팬찬다고. (호호호) 아이, 그래두 가보셔야 된다고.}

#2 하두 그래 인자 그 차를 탈찌. 타구서 중앙병워느루 인제 일똥 그래 이료일 나린테 원장이 인떠라구. 그래 인제 가기 도중에 이 양바니 뭐:라 그러냐 든 실례지마는 아저씨가 술 잡썩고 술끼메 이 차를 디리 바단따 그러세요. (하하하하) 그래 난 그래라구 그랜찌똥. 그래서 가보니까 병원 아니나 달라. 원장이 또 술 잡싸꾸면, 그래. 술 머견따구 그랜찌똥.{하도 그래 이제 그 차를 탔지. 타고서 중앙병원으로 이제 일동 그래, 일요일날인데 원장이 있더라고. 그래 이제 가기 도중에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실례지마는 아저씨가 술 잡수고 술김에 이 차를 들여받았다 그러세요. (하하하하) 그래 난 그래라고 그랜찌똥. 그래서 가보니까 병원 아니나 달라. 원장이 또 술 잡썩구면, 그래. 술 먹었다고 그랜찌 똥.}

#2 그래 인제 뭐, 응급 며치레 뭐 발라주구 주사 노:쿠 그래 나와쎄. 아니 여보, 내가 언제 당신 차를 디리바단쎄. 디리바단따구 그러라 그래. 아이 그래야 이제 염까루 나와요. 하하 으으.{그래 이제 뭐, 응급 며칠에. 뭐 발라주고 주사 놓고 그래 나왔어. 아니 여보, 내가 언제 당신 차를 들여받았어. 들여받았다고 그러라 그래. 아이, 그래야 이제 (비용이) 염가로 나와요. 하하 으으.}

#2 내가 그 사고를 이르킹 것처럼 해야지 내가 과실 내:따른 병워네서 엉뚱헌 도:늘 달래요. {내가 그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해야지. 내가 과실 냈다면 병원에서 엉뚱한 돈을 달래요.}

@ 요 사라몬 도니 이써 보이니까 마니 부르지요.{요 사람은 돈이 있어 보이니까 많이 부르지요.}

#2 음, 그래가지구 오구서는 이 양바니 싹 보니까 요거 깨:징 거 한 오:마뉘니몬 수리허게 써요. 그러니까 오:마뉘늘 디리끼니까 수리를 허세요. 그러더라구. (하하하하) 나두 십년 저네 오도바이를 타썬는, 타구 그랬는데, 여기 무리 조타 그래서 물쭙 뜨로 와 따가 그러케 뽐썬니다. 이거야. 그러냐구. 그래 우리 지브로다 알래해써. 그래 우리 지브로 가자구. 그래 커필 대저블 하구 우리 무를 뜨구, 그때 며느리가 그날 와 이 써서. 이료일 나리니까. 간 다크메 무슨 소니미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떠니 에이, 아버질 다친 사라를 커피 대접파구 물 주구 그런다구. 그래두 그게 아니잔나? (호호호호호) 으으.{음, 그래서 와서는 이 양반이 싹 보니까 요거 깨어진 거 한 오만 원이면 수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만원을 드릴것이니까 수리를 하세요. 그러더라구. (하하하하) 나도 십년 전에 오도바이를 탔었는, 타구 그랬는데, 여기 물이 좋다고 그래서 물 쭙 뜨러 왔다가 그렇게 뽐썬니다, 이거야. 그러냐고. 그래 우리 집으로다 안 내를 했어.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래 커필 대접을 하고 우리 물을 뜨고, 그때 며느리가 그날 와 있었어. 일요일날이니까. (그 사람이) 간 다음에 무슨 손님이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에이, 아버질 다친 사람을 커피 대접하고 물 주고 그런다고.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 (호호호호호) 으으.}

#2 살:다보몬 그러통급 이써요. 계획까닌 그거 우연저그루다가, 으으.{살다가 보면 그렇던 급(?) 있어요. 계획 아닌 그거 우연적으로다가, 으으.}

@ 아이, 그 중에 위험한 고비를 여러번 넘겨썬꼐요.{아이, 그 중에 위험한 고비를 여러 ■
ㄱ ㄴ 넘겨썬꼐요.}

#2 예.{예}

#1 나는 이XX가 오도바이를 터영 차타구 허문서 산가사썬. 이걸 내가 태워다 지베까지 데려다 주게 그래. 아아 시러. 나 오도바이 안 타. 나 그전부터 오도바이 마니 탄 사라미야. 으, 팬차나 오도바이 익숙케 팬차나. 아이 썬, 나는 오도바이 타몬 부라내서 못 타. 그래떠니 아 글썬 타라니까. 내가 처음 이걸 사각꾸서 으 처음 타능 거이까는 내가 지베까지 데려다주썬따구.{나는 이XX가 오도바이를, 터영 차 타고 가서 샀어. 이것 내가 태워다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그래. 아아, 싫어. 나 오도바이 안 타. 나 그전부터 오도바이 많이 탄 사람이야. 으, 팬찮아 오도바이 익숙해 팬찮아. 아이 썬, 나는 오도바이 타면 불안해서 못 타. 그랬더니 아, 글썬 타라니까. 내가 처음 이걸 사가지고 으, 처음 타는 것이니까 내가 집에까지 데려다주썬다고.}

#1 아, 그런데 이XX 이 가세루 와쓰몬 조켄는데, 차례 선 위루 그대루 와. 하유 역시 (하하하) 어이 업써서 위험하이께니. 그러니까 하이 그 무얼 모르는 소리구만. 아이 이진 내 차서니야 차 서언. (호호호) 이게 내 차선이구 하는데, 뭐 어떤 노미 무얼 어떻게 해. 오도바이두 차구 차두 찬데 마리아야.{아, 그런데 이XX이 가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차례 선 위로 그대로 와. 하유, 역시 (하하하) 어이가 없어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하이, 그 무얼 모르는 소리구만. 아이 이진 내 차 선이야, 차 선. (호호호) 이게 내 차 선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놈이 무얼 어떻게 해. 오도바이도 차고 차도 찬데 말이야.}

#1 그러니까 여푸로 이러케 서서 가며는 아 이 새끼드리 가다가 툭 치몬 패니 나곤드러 사:고 난 다크메야. 이진 내 선 위루 가니까는 무얼 어찌 쏘오서? 기간 아무 쏘리

마라. 내가 법규를 아니까. 아 그런데두 차가 뒤에 따라오른 부란하구 (하하하) 아이 내가 그런대서 오도이 안탄다 그래두 대에구 타라구 처음 타써.{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서서 가면 아, 이 새끼들이 가다가 툭 치면 괜히 나뒀굴어 사고 난 다음에 야. 이걸 내 선 위로 가니까는 무얼 어찌 쏘오서(?)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마라. 내가 법규를 아니까. 아 그런데도 차가 뒤에 따라오면 불안하고 (하하하) 아이, 내가 그런대서 오도이(?) 안탄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타라고. 처음 탔어.}

#2 근데, 만오천원 처하구 오도바이만 나쁜 타라구 이러나두 염녀말라는데, 나두 마니 타라든 꼬라구 나두 자신 이써서 타라 그러며는 그 사람두 똑가를 꺼다 이거쥬. 으, 나쁜 태우는데 나미 또 타라든 아주 부란해. (호호) 근데, 사:라미 그 예:가미 이상하데. 그 전엔 교통이 불편해져 아나요? 일뚱서 내 양:무네 볼 리리 이써쥬. 근데 XX가 삼박 트메서 다방에 노:상 들락날락캐쥬. 게, 다방에서 그런데 지금 어디 갈려나구 그래. 그래서 양:무네 좀 갈라 그런다구 그래떠니 아이 그럼 내가 태워다 디리게. {그런데, 만오천원 처하구 오도바이만 나쁜 타라고. 일어나도 염녀말라는데. 나도 많이 타라면 꼬라고. 나두 자신 있더서 타라 그러면 그 사람도 똑 같을 거다 이거쥬. 으, 나쁜 태우는데 나미 또 타라든 아주 불안해. (호호) 그런데, 사람이 그 예감이 이상하데. 그 전엔 교통이 불편했지 않아요? 일뚱에서 내 양문에 볼 일이 있었어. 그런데 XX가 삼박 트메서 다방에 노상 들락날락했어. 그래 다방에서 그런데 지금 어디 갈려나고 그래. 그래서 양문에 좀 갈라 그런다고 그랬더니 아이, 그럼 내가 태워다 드릴게.}

#2 XX의 오도바이 이꺼등 그때. 그럼 그러라구 그러구 타쥬요. 그래가지구 세나지글 해:서 그 삼팔교를 지나서 패주걸 그 아까 패주걸 거기 쫓 가는데, 한 오:심메타 전 뒤에서 봐:두 보이지 아나요? 중고등학생쥬 자전거를 타구가는데, 뭔:가 부란하구 저걸 디리받찌이 험서 아주 부란해 죽겔떠라구. (#1 그 예:가미) 으 예:가미. 근:데 진짜 가더니 콧 그걸 디리받네. 아아, 그러니까 그 자동차두 아이두 쓰러지고 오도바이도 쓰러지고 나두 나두 그러니까 이 쓰봉이 공구리 바다게 그냥 확 깨끼구 그러니 까지구 그래쥬. 너 팬차느냐 나두 이래쥬. 팬찬대. 이 아파쥬 꺼야 그 나두. 여기서 팬찬대는 시그루 뭐 거리 팬차나 이루. {XX의 오도바이가 있거든 그때. 그럼 그러라고 그러고 탔어요. 그래서 세나직을 해서 그 삼팔교를 지나서 패죽걸 그 아까 패죽걸 거기 쫓 가는데, 한 오십 메타 전 뒤에서 봐도 보이지 않아요? 중고등학생쥬 자전거를 타고가는데, 뭔가 불안하고 저걸 들여받지 하면서 아주 불안해 죽겔떠라고. (그 예감이) 으, 예감이. 그런데 진짜 가더니 콧 그걸 들여받네. 아아, 그러니까 그 자동차도 아이도 쓰러지고 오도바이도 쓰러지고 나도. 나도 그러니까 이 바지가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확 깔이고. 그러니 까지고 그랬어. 너 팬찮으냐 나도 이랬지. 팬찮대. 이 아팠을 거야 그 나도. 여기서 팬찮다는 식으로 뭐 그리 팬찮아 이루.}

#2 팬차나요 팬차나요 이러니까 다행이다구 이제. 그대로 지나 완는데, 아 그 사:라미, 이:상하다 저걸 받찌이 이아메 들꾸 진짜 받떠라구 이상하게 (#1 그 예:가미 조치아나). 그 담부터는 XX가 타라면 안 타. 나두 오도바이는 안 타. 음 겐나쥬. 그래가지구 이제 오도바이두 한 번 그러케 다쳐봐쥬. 그래가지구 나두 마:니 다쳐쥬요 그러케. {팬찮아요, 팬찮아요, 이러니까 다행이라고, 이제. 그대로 지나 왔는데, 아, 그 사람이(※사람이라는 것이), 이상하다고 저것을 받지 이아메(?) 들고 진짜 받떠라고 이상하게. (그 예감이 좋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XX가 타라면 안 타. 나도 오도바이

는 안 타. 음, 겁나죠.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도 한 번 그렇게 다쳐 봤었고. 그래서
나도 많이 다쳤어요 그렇게.}

제2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 | | | |
|-----------|---------------|-----------|-----------------|
| 20101 | 벼 | 20101 | 벼라구, 베펜 |
| 20102 | 이삭 | 20102 | 벼이삭이구 |
| 20103 | 볍씨 | 20103 | 벼씨 |
| 20104 | 못자리 | 20104 | 모자리지머 |
| 20105 | 모판 | 20105 | 모판 |
| 20106 | 쟁기 | 20106 | 호리, 홀리라 그러구, 쟁기 |
| 20107 | 보습 | 20107 | 벼삽 |
| 20108 | 벼 | 20108 | 벳이라구 |
| 20108-0-1 | -이 | 20108-0-1 | 벳이라구 |
| 20109 | 극쟁이 | 20109 | 벼삽 |
| 20110 | 씨레 | 20110 | 씨:레 |
| 20111 | 번지 | 20111 | 번지 |
| 20112 | 모내기 | 20112 | 모내기 |
| 20113 | 흙덩어리 | 20113 | 흑땡어리 |
| 20114 | 고무래 | 20114 | 고물개 |
| 20114-1 | 고무래(곡식용도) | | |
| 20114-2 | 고무래(재 용도) | | |
| 20114-3 | 고무래(흙 용도) | | |
| 20114-4 | 고무래(미는 데 사용) | | |
| 20114-5 |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 | |
| 20115 | 쇠스랑 | 20115 | 쇠스랑 |
| 20116 | 곡괭이 | 20116 | 곡괭이, 곡괭이 |
| 20117 | 괭이 | 20117 | 괭이 |
| 20118 | 삽 | 20118 | 사비구 |
| 20119 | 호미 | 20119 | 호미 |
| 20120 | 농기구 | 20120 | 농기구 |

| | | | |
|---------|---------------------------|---------|----------|
| 20121 | 김 | 20121 | 김: |
| 20122 | 김매다 | 20122 | 김:맨다 |
| 20123 | 애벌 매다 | 20123 | 앤눈 |
| 20123-1 | 두벌 매다 | 20123-1 | 두벌논매기 |
| 20123-2 | 마지막(세벌) 김매기 | 20123-2 | 세벌논매기 |
| 20124 | 논두둑 | 20124 | 논뚜렁이지머 |
| 20125 | 밭둑 | 20125 | 밭뚜렁 |
| 20126 | 밭두둑 | 20126 | 밭뚜둑 |
| 20127 | 밭고랑 | | |
| 20128 | 밭이랑 | 20128 | 이랑 |
| 20128-1 | (밭이랑을) <u>타다/갈다/째다/파다</u> | 20128-1 | 이랑을 쟈:다 |
| 20128-2 | 이랑밟기 | | |
| 20129 | 보리 | 20129 | 보리 |
| 20129-1 | 가을보리 | 20129-1 | 가을뿐리 |
| 20129-2 | 봄보리 | 20129-2 | 봄뿐리 |
| 20130 | 보리쌀 | 20130 | 보리쌀 |
| 20131 | 가을갈이 | 20131 | 가알카리 |
| 20132 | 깎부기 | 20132 | 깎북이라고 |
| 20133 | 두엄 | 20133 | 똥:이라고 그래 |
| 20134 | 거름 | 20134 | 거름 |

2.1.2. 타작

| | | | |
|---------|------------|---------|--------------------------|
| 20201 | 추수하다 | 20201 | 바심하다, 가알겼이(소량), 추수한다(대량) |
| 20202 | 벼단 | 20202 | 벼판이지머 |
| 20202-1 | 벼단(한 줌정도) | 20202-1 | 벼판 |
| 20202-2 | 벼단(타작할 정도) | 20202-2 | 벼판 |
| 20202-3 | 벼단(한 아름정도) | 20202-3 | 벼판 |
| 20203 | 가리(積) | 20203 | 나까리 |
| 20204 | 가리다(積) | 20204 | 가린다 |
| 20205 | 벧가리 | 20205 | 베나까리, 벼나까리 |
| 20206 | 날가리 | 20206 | 나까리 하는거는 |
| 20207 | 타작 | 20207 | 타:작 |
| 20208 | 벼훑이 | 20208 | 훑치게 |

| | | | |
|-----------|-----------------------|-----------|------------|
| 20208-1 | 그네 | 20208-1 | 벼훔치개 |
| 20209 | 개상 | 20209 | * |
| 20209-1 | 자리개 | 20209-1 | * |
| 20209-2 | 자리개질 | 20209-2 | * |
| 20210 | 도리깨 | 20210 | 도리깨 |
| 20210-1 | 도리깨장부 | 20210-1 | 도리깨장부 |
| 20210-2 | 도리깨열 | 20210-2 | 도리깨 아들 |
| 20210-3 | 도리깨꼭지 | 20210-3 | 도리깨꼭찌 |
| 20211 | 벧짚 | 20211 | 베짚이구, 지비라구 |
| 20211-0-1 | -을 | | |
| 20211-0-2 | -에 | | |
| 20212 | 새 떼기 | 20212 | 직꼬갱이 아니야 |
| 20213 | 쭈정이 | 20213 | 쭈쟁이라 그러구 |
| 20214 | 티 | 20214 | 티 |
| 20215 | 까끄라기 | 20215 | 까끄랭이 |
| 20216 | 풍구 | 20216 | 풍구 |
| 20217 | 원두막 | 20217 | 원두막 아니야 |
| 20218 | 허수아비 | 20218 | 허쭈애비, 허쭈아비 |
| 20219 | 흥년 | 20219 | 승년 |
| 20220 | 머슴 | 20220 | 모슴 |
| 20221 | 놉 | 20221 | * |
| 20221-0-1 | -을 | | |
| 20221-1 | (놉을) <u>사다/얻다/부리다</u> | | |
| 20222 | 폼앗이 | 20222 | 푸마시 |
| 20223 | 폼샐 | 20223 | 폼쌈, 폼깍을 |
| 20223-0-1 | -으로 | 20223-0-1 | 삭이라 그래지 삭 |

2.1.3. 방아 찧기

| | | | |
|-------|------|-------|------------|
| 20301 | 방아 | 20301 | 절구 아니야 |
| 20302 | 디딜방아 | 20302 | 밭방아 |
| 20303 | 방앗공이 | 20303 | 방아쟁이, 방아꾼이 |
| 20304 | 방아확 | 20304 | 방아확이야 |
| 20305 | 물레방아 | 20305 | 문내방아 |
| 20306 | 연자방아 | 20306 | 연재방아 |

20307 절구
 20308 절구통
 20309 절구공이
 20310 절구질
 20311 겨
 20312 보릿겨
 20313 왕겨
 20314 등겨
 20315 김불
 20316 껍질

20307 절구
 20308 절구통은
 20309 절구공이, 절구팽이
 20310 절구질
 20311 게라고 , 쌀께
 20312 보리께라 그러구
 20313 왕:게
 20314 등:게
 20315 김불이야
 20316 껍질이 지머

2.1.4. 곡물

20401 곡식
 20402 찹쌀
 20403 멍쌀
 20404 쌀보리
 20405 조
 20406 차조
 20407 메조
 20408 좁쌀
 20409 작다
 20410 조이삭
 20411 수수
 20411-1 붉은색 수수
 20411-2 장목수수
 20411-3 찰수수
 20411-4 메수수
 20412 수수깥
 20413 옥수수
 20413-1 찰옥수수
 20413-2 메옥수수
 20414 귀리
 20415 메밀
 20416 콩

20401 곡식
 20402 찹쌀이지요
 20403 멍쌀
 20404 *
 20405 조
 20406 차조가 익꾸
 20407 메조
 20408 좁쌀이지머
 20409 잘고
 20410 조이삭걸은데
 20411 수수걸은데
 20411-1 *
 20411-2 *
 20411-3 찰수수
 20411-4 메수수
 20412 수수깥
 20413 옥수수
 20413-1 찰옥수수(차진 것)
 20413-2 메옥수수(메진 것)
 20414 *
 20415 메물인가?
 20416 콩 아니예요

20417 콩깍지
20418 메주
20419 매달다
20420 띄우다
20421 곰팡이
20422 강낭콩
20423 콩기름
20424 깨
20424-1 참깨
20424-2 들깨
20425 고소하다

20417 콩깍지
20418 메주
20419 매달아 노쿠 자요.
20420-뜯다하문은
20421 곰팡이가
20422 강낭콩겉은데
20423 콩기름이라구 그래지머
20424 깨
20424-1 참깨
20424-2 들깨
20425 고소하다

2.1.5. 채소

20501 채소
20502 나물
20502-1 나물(밭, 재료)
20502-2 나물(밭, 반찬)
20502-3 나물(들, 재료)
20502-4 나물(들, 반찬)
20502-5 나물(산, 재료)
20502-6 나물(산, 반찬)
20503 푸성귀
20504 다듬다
20505 반찬
20506 무
20507 썰다
20508 무청
20509 시래기
20510 무말랭이
20511 장다리무
20512 배추
20513 고갱이
20514 오이
20515 오이지

20501 채:소이지
20502 나물(산나물)
20503 푸성기
20504 다듬는다
20505 반찬이 만타
20506 무:
20507 썰:다(썰:어서)
20508 무:청, 무:앞이지머
20509 쓰래기
20510 무말랭이지머
20511 장다리무:
20512 배:추
20513 구갱이
20514 오이

| | | | |
|---------|--------|---------|-------------|
| 20516 | 오이소박이 | 20516 | 오이소배기 |
| 20517 | 가지(茄子) | 20517 | 가지 |
| 20518 | 호박 | 20518 | 호:박 |
| 20519 | 고구마 | 20519 | 고구마구나 |
| 20520 | 감자 | 20520 | 감자 |
| 20520-1 | 잘다 | 20520-1 | 잘다 |
| 20521 | 우엉 | 20521 | * |
| 20522 | 파 | 20522 | 파 |
| 20523 | 고추 | 20523 | 고추, 꼬추 |
| 20524 | 시금치 | 20524 | 시금치, 씨금치 |
| 20525 | 미나리 | 20525 | 미나리 |
| 20526 | 부추 | 20526 | 부추 |
| 20527 | 상추 | 20527 | 생추 아니야? |
| 20528 | 마늘 | 20528 | 마늘 |
| 20529 | 생강 | 20529 | 생:(보편적), 생강 |
| 20530 | 냉이 | 20530 | 냉이 |
| 20531 | 달래 | 20531 | 달래 |
| 20532 | 도라지 | 20532 | 도라지 |
| 20533 | 더덕 | 20533 | 더덕 |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 | | | |
|---------|-------|---------|--------------|
| 20601 | 쌀밥 | 20601 | 쌀밥이쥬 |
| 20602 | 찬밥 | 20602 | 찬밥(보편적), 시근밥 |
| 20602-1 | 더운밥 | 20602-1 | 더운밥이라 그러구 |
| 20603 | 조밥 | 20603 | 조밥이라구 |
| 20604 | 누룽지 | 20604 | 누룽갱이 |
| 20605 | 눌은밥 | 20605 | 누룬밥, 누룽지라구 |
| 20606 | 송늬 | 20606 | 송님이라구 |
| 20607 | 뜨물 | 20607 | 뜨물 |
| 20608 | 김(蒸氣) | 20608 | 김: |

| | | | |
|-----------|------------------------|-----------|------------|
| 20609 | 갱죽(羹粥) | 20609 | 쓰레기 죽 |
| 20610 | 싱겁다 | 20610 | 싱겁따 |
| 20611 | 국수 | 20611 | 국쭈 |
| 20612 | 칼국수 | 20612 | 칼국쭈 |
| 20612-1 | <u>기계국수/틀국수</u> | | |
| 20613 | 건더기 | 20613 | 건테기 |
| 20613-1 | 국물 | 20613-1 | 궁물 |
| 20614 | 고명 | 20614 | * |
| 20615 | 꾸미 | 20615 | 꾸미라 구래 |
| 20616 | 미역 | 20616 | 미역국이 지머 |
| 20617 | 김(海苔) | 20617 | 김: |
| 20618 | 수제비 | 20618 | 수제비 |
| 20619 | 끼니 | 20619 | 끼니 |
| 20620 | 미음 | 20620 | 미음이 라구 |
| 20620-1 | (미음을) <u>끓이다/쭈다/삶다</u> | 20620-1 | 끄린다 그러쥬 |
| 20621 | 옛기름 | 20621 | 죽 쏜다 |
| 20622 | 식혜(食醴) | 20622 | 식케 |
| 20623 | 식혜(食醴) | 20623 | * |
| 20624 | 달다(甘) | 20624 | 달다 |
| 20625 | 가루 | 20625 | 가루 |
| 20625-0-1 | -에 | 20625-0-1 | 가루에다 |
| 20625-0-2 | -을 | 20625-0-2 | 가루를 |
| 20625-0-3 | -도 | | |
| 20626 | 밀가루 | 20626 | 밀까루 |
| 20627 | 밀기울 | 20627 | 밀끼울 |
| 20628 | 미숫가루 | 20628 | 미수까루, 미시까루 |

2.2.2. 반찬과 별식

| | | | |
|-------|------|-------|----------------|
| 20701 | 간장 | 20701 | 간장 |
| 20702 | 된장 | 20702 | 된장, 된:장 |
| 20703 | 고춧가루 | 20703 | 고추까루, 고춧까루 |
| 20704 | 고추장 | 20704 | 고추장 |
| 20705 | 소금 | 20705 | 소금 |
| 20706 | 김치 | 20706 | 김치(현재), 짬찌(이전) |

20707 김장
 20708 깍두기
 20709 나박김치
 20710 담그다
 20710-0-1 -고
 20710-0-2 -어라
 20711 양념
 20712 버무리다
 20713 버섯
 20713-0-1 -이
 20714 콩나물(재료)
 20714-1 콩나물(반찬)
 20714-2 숙주(나물)
 20715 두부
 20716 비지
 20716-1 비지떡
 20717 달걀
 20718 가래떡
 20719 시루떡
 20720 송편
 20721 빗다
 20722 흰떡
 20723 고물
 20724 팔죽
 20725 새알심
 20726 백설기
 20727 튀밥
 20728 술
 20729 막걸리
 20730 소주
 20731 부침개

20707 김장
 20708 깍두기
 20710 당근다
 20711 양념
 20712 버무리조
 20713 버섯
 20713-0-1 버서비 만타
 20714 콩나물
 20714-1 콩나물 무치는 것
 20714-2 녹두는 쑥쭈나물이라구
 20715 두부
 20716 비지(콩비지)
 20716-1
 20717 겨란(현재), 달걀이지(이전)
 20718 가래떡
 20719 시루떡
 20720 송편
 20721 비저라, 빈는다
 20722 *
 20723 고물
 20724 팔죽
 20725 웅새미
 20726 백설기
 20727 튀밥
 20728 술
 20729 막걸리
 20730 소주
 20731 부침개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20802 가마솥

20801 부뚜막
 20802 가마솥은

20802-0-1 -을

20802-0-2 -에

20803 아궁이

20803-0-1 -이

20804 그을음

20805 불쏘시개

20806 연기

20806-1 내(煙氣)

20807 그을리다

20808 부지깽이

20809 부삽

20810 냄다

20811 냄비

20812 그릇

20812-0-1 -을

20813 뚜껑

20814 주발 뚜껑

20815 사발 뚜껑

20816 술뚜껑

20817 밥주걱

20818 숟가락

20819 젓가락

20820 종지

20821 보시기

20822 뚝배기

20823 접시

20824 조리

20825 이남박

20826 바가지

20827 행주

20828 행구다

20829 설거지

20830 개숫물

20831 찌꺼기

20832 화로

20833 화롯불

20802-0-2 소테

20803 아궁지

20803-0-1 아궁지가 크다

20804 거망, 그으름

20805 쏘시개

20806 영기

20807 근내따.

20808 부지깽이

20809-1 그물개

20809 부삽이라고

20810 맵따

20811 냄비

20812 박끄룻이지머

20813 뚜꺼이지머, 냄비뚜껑

20814 주발뚜껑이래는거 일쑤.

20815 대접이라구 그러쥬

20816 술뚜껑이라고

20817 주걱

20818 수갈이라고, 수저

20819 저갈

20820 종지

20821 *

20822 뚝빼기

20823 접씨

20824 조:리

20825 이남박

20826 바가지

20827 행주

20828 싱군다

20829 설거지

20830 재순물

20831 찌꺼기

20832 화:루

20833 화:루뿔이지요

20834 부젓가락

20834-0-1 -이

20834-1 불순가락

20835 다리쇠

20836 석쇠

20837 도시락

20838 바구니

20839 뒤주

20840 찬합

20841 강판

20842 개다리소반

20834 부적칼이구

20835 다리썰래는거는

20836 석쇠

20837 도시락

20838 종댕이, 대래키

20839 두지

20840 차납이라고 있어

20841 강판이라구

20842 개다리소반이라구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2 벽

20903 다락

20904 벽장

20905 감추는거나

20906 흙

20907 돌쩌귀

20907-1 암작

20907-2 수작

20908 미단이

20909 여단이

20910 덧문

20911 열다

20912 문고리

20913 자물쇠

20914 간히다

20915 열쇠

20901 암뺑

20902 벽이요 벽

20903 다락

20904 벽장

20905 감추는거나 쑹기는거나, 쑹긴다

20906 흙:이 나따

20907 돌:쪼기

20908 미다지

20909 여단이라고 있어요

20910 덧문이지머

20911 연:다, 열:구 이따, 여러쥬라

20912 문꼬리

20913 자무이통

20914 가쳐따

20915 열:쇠

20916 잠그다
 20917 구멍
 20917-1 쥐구멍
 20918 찢다
 20919 구들
 20920 흙받기
 20921 흙손
 20922 흙갈
 20922-1 흙갈(나무로 만든 것)
 20922-2 흙갈(쇠로 만든 것)
 20923 바르다
 20924 장판
 20925 종이
 20926 도배
 20927 구석
 20928 굽도리
 20929 깨끗하다
 20930 문지방
 20930-0-1 -에
 20931 틈
 20932 가장자리
 20933 가운데
 20934 시렁
 20935 살강
 20936 선반
 20937 서랍
 20938 경대
 20939 거울
 20940 걸다
 20941 호롱

20916 장근다
 20917 문꾸녕, 구녕을 뚫른거
 20917-1 쥐구멍이쥬
 20918 찢는다, 찢저라
 20919 구들
 20920 흑빠끼젯지머
 20921 흑손이라구
 20922 흑칼이라구 그래요

 20923 바른다
 20924 장판이지, 지직(왕골, 벼찌브루 만든거)
 20925 종이
 20926 도배
 20927 구석
 20928 굽뚜리라고 그러지
 20929 깨끗하다
 20930 문찌방
 20930-0-1 문찌방에 올라서지 마라
 20931 틈이지머
 20932 가장자리는, 가생이
 20933 가운데
 20934 씨렁은
 20935 *
 20936 선반
 20937 서랍
 20938 경대구나, 색경
 20939 거울을
 20940 거러라, 건:다 그러쥬
 20941 등잔이라구, 호롱빨이라고

2.3.2. 건물

21001 지붕
 21001-0-1 -에

21001 지붕, 지붕이라고 그러지
 21001-0-1 지붕에서

| | | | |
|-----------|------|-----------|------------|
| 21002 | 기와 | 21002 | 기와 |
| 21003 | 기와집 | 21003 | 기와집이예요 |
| 21004 | 수키와 | 21004 | * |
| 21005 | 암키와 | 21005 | * |
| 21006 | 대들보 | 21006 | 대들뿐 |
| 21007 | 서까래 | 21007 | 서까래 |
| 21008 | 추녀 | 21008 | 추녀지머 |
| 21009 | 처마 | 21009 | 처마 |
| 21010 | 오두막 | 21010 | 오두막은 |
| 21011 | 초가집 | 21011 | 초가집 |
| 21012 | 이영 | 21012 | 이영: |
| 21012-0-1 | -에서 | | |
| 21013 | 용마름 | 21013 | 용마루 |
| 21014 | 기스락 | 21014 | 지시랑물, 처마끗 |
| 21015 | 낙숫물 | 21015 | 낙씨물이라고 그러지 |
| 21015-1 | 기스락물 | 21015-1 | 지시랑물이라고 |
| 21016 | 사닥다리 | 21016 | 새다리 |
| 21017 | 용마루 | 21017 | 용마루 |
| 21018 | 토방 | 21018 | * |
| 21019 | 댓돌 | 21019 | 대뿔 |
| 21020 | 마루 | 21020 | 마:루허먼은 |
| 21020-0-1 | -에 | 21020-0-1 | 쫑마루지머 |
| 21021 | 툃마루 | 21021 | 툃마루 |
| 21022 | 기둥 | 21022 | 기둥이지머요 |
| 21023 | 주춧돌 | 21023 | 주춧뿔 |
| 21023-0-1 | -을 | 21023-0-1 | 주춧또리라는게 |
| 21024 | 굴뚝 | 21024 | 굴:뚝 |

2.3.3. 마당

| | | | |
|-----------|-----|-----------|-----|
| 21101 | 뜰 | 21101 | 뜰: |
| 21102 | 마당 | 21102 | 안마당 |
| 21103 | 넙다 | 21103 | 넙따 |
| 21103-0-1 | -어서 | 21103-0-1 | 넙버서 |
| 21104 | 넙히다 | 21104 | 넙핀다 |

21105 곳간
 21106 외양간
 21107 마구간
 21108 광
 21109 헛간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대
 21112 장독 뚜껑
 21113 변소
 21113-1 똥장군
 21114 올타리
 21115 담
 21115-0-1 -에
 21115-0-2 -도
 21116 사립문
 21117 뒤결
 21117-0-1 -에
 21118 바깥
 21118-0-1 -에
 21119 모퉁이
 21120 모서리

21105 광:(작은 곳), 곡간(넓은 곳)
 21106 외양간
 21107 *
 21108 광:
 21109 헛간이라구 하는거는
 21110 쓰레기지머
 21111 장:뚝뚝이라고 그러나
 21112 장:뚝뚝
 21113 두칸(가장 오래 전), 변소(오래 전), 화장실(현재)
 21113-1 똥장군
 21114 올타리
 21115 담이라 그래지
 21115-0-1 담에 올라갔다
 21115-0-2 담두
 21116 싸리문
 21117 뒤결
 21117-0-1 뒤껴테
 21118 바깥
 21118-0-1 바깸테 나가라. 바깸 나가 놀아라.
 21119 모퉁이
 21120 모서리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21202 윗마을
 21203 이웃
 21203-0-1 -이
 21203-0-2 -에
 21204 마을가다
 21205 우물
 21206 두레박
 21207 샘(泉)
 21208 가(邊)
 21208-0-1 -을

21201 마을이구
 21202 원마을
 21203 이웃
 21203-0-1 이우시
 21203-0-2 이우세 산다
 21204 마실 간다(보편적), 마을에 간다
 21205 운물
 21206 타레박인데
 21207 샘:허문, 샘:물이쪼 뭐
 21208 가생이

21208-0-2 -에

21209 물지게

21210 가게

21211 싸다

21212 비싸다

21213 흥정

21214 중매인(거간꾼)

21215 잔돈

21216 에누리

21217 거스름돈

21218 거스르다

21219 꾸다(借)

21219-0-1 -어야

21220 구두쇠

21221 맡기다

21222 나머지

21223 덤

21224 묶

21224-0-1 -을

21225 빚

21225-0-1 -을

21225-0-2 -에

21226 이자(利子)

21227 심부름

21228 두름

21228-1 축

21228-2 꽤

21228-3 접

21228-4 씬

21228-5 두름

21228-6 단/뭇(작은 묶음)

21228-7 단/뭇(서너 개 묶음)

21228-8 툇

21228-9 모숨

21229 켄레

21230 마지기

21209 물찌개라

21210 가게라 그러쥌

21211 싸다

21212 비싸다

21213 흥정

21214 중개인

21215 잔돈

21216 에누리

21217 거시름똥이라 그래

21218 거실러다

21219 꾀:다(쥌 긴 기간), 꾀달라, 빌린다(잠깐)

21219-0-1 빌려야

21220 구두쇠(보편적), 노랭이

21221 매꺄따

21222 나머지 똥은

21223 덤:

21224 목썸

21224-0-1 목썸

21225 빚이

21225-0-1 빚을 꺄아야지

21225-0-2 빚에

21226 이:자

21227 썸:부름

21228 두름이라고 그러지

21228-1 축

21228-2 꽤

21228-3 접

21228-4 씬

21228-5 *

21228-6 단, 다발(일본말)

21228-7 단

21228-8 툇

21228-9 쥌

21229 켄레

21230 마지기, 평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21231 꾸러미

21232 그루

21233 포기

21234 저울

21235 자루(包袋)

21235-0-1 -을

21235-0-2 -에

21236 하나

21236-1 한-개

21236-2 한-되

21236-3 한-말

21237 둘

21237-1 두-개

21237-2 두-되

21237-3 두-말

21238 셋

21238-1 세-개

21238-2 세-되

21238-3 세-말

21239 넷

21239-1 네-개

21239-2 네-되

21239-3 네-말

21240 다섯

21240-1 다섯-개

21240-2 다섯-되

21240-3 다섯-말

21241 여섯

21241-1 여섯-개

21241-2 여섯-되

21241-3 여섯-말

21242 일곱

21242-1 일곱-개

21242-2 일곱-되

21242-3 일곱-말

21231 꾸러미, 줄

21232 그루

21233 포기

21234 저울예요

21235 푸대(큰 것), 자루(작은 것)

21235-0-2 자루에

21236 한나

21236-1 항개

21236-2 한되

21236-3 한말

21237 둘

21237-1 두개

21237-2 두되

21237-3 두말

21238 셋

21238-1 세개

21238-2 석되(때), 세되(셀 때)

21238-3 세말

21239 넷

21239-1 네개

21239-2 녅되(때)

21239-3 너말

21240 다섯

21240-2 다섯되(때)

21240-3 다섯말

21241 여섯

21241-2 여섯되

21241-3 여섯말

21242 일곱

21242-1 이구개

21242-2 일곱되

21242-3 일곱말

21243 여덟
 21243-1 여덟-개
 21243-2 여덟-되
 21243-3 여덟-말
 21244 아홉
 21244-1 아홉-개
 21244-2 아홉-되
 21244-3 아홉-말
 21245 열
 21245-1 열-개
 21245-2 열-되
 21245-3 열-말
 21246 스물
 21246-1 스무-개
 21246-2 스무-되
 21246-3 스무-말
 21247 서른
 21247-1 서른-개
 21247-2 서른-되
 21247-3 서른-말
 21248 마흔
 21248-1 마흔-개
 21248-2 마흔-되
 21248-3 마흔-말
 21249 쉰
 21249-1 쉰-개
 21249-2 쉰-되
 21249-3 쉰-말
 21250 예순
 21250-1 예순-개
 21250-2 예순-되
 21250-3 예순-말
 21251 일흔
 21251-1 일흔-개
 21251-2 일흔-되
 21251-3 일흔-말

21243 여들
 21243-1 여들개
 21241-32 여덜뵈
 21243-3 여들말
 21244 아홉
 21244-1 아홉개
 21244-2 아홉뵈
 21244-3 아홉말
 21245 열
 21245-1 열개
 21245-2 열뵈
 21245-3 열말
 21246 수물
 21246-1 수무개
 21246-2 수무되
 21246-3 수무말
 21247 서른
 21247-1 서른개
 21247-2 서른되
 21247-3 서른말
 21248 마흔
 21248-3 마흔말
 21248-1 마흔개
 21248-2 마흔되
 21249 췌:
 21249-1 췌:개
 21249-2 췌:되
 21249-3 췌:말
 21250 예순
 21250-1 예순개
 21250-2 예순되
 21250-3 예순말
 21251 이른
 21251-1 이른개
 21251-2 이른되
 21251-3 이른말

| | | | |
|---------|-------|---------|-------------|
| 21252 | 여든 | 21252 | 여든 |
| 21252-1 | 여든-개 | 21252-1 | 여든개 |
| 21252-2 | 여든-되 | 21252-2 | 여든되 |
| 21252-3 | 여든-말 | 21252-3 | 여든말 |
| 21253 | 아흔 | 21253 | 아흔 |
| 21253-1 | 아흔-개 | 21253-1 | 아은개 |
| 21253-2 | 아흔-되 | 21253-2 | 아흔되 |
| 21253-3 | 아흔-말 | 21253-3 | 아흔말 |
| 21254 | 백 | 21254 | 백 |
| 21254-1 | 백-개 | 21254-1 | 백개 |
| 21254-2 | 백-되 | 21254-2 | 백되 |
| 21254-3 | 백-말 | 21254-3 | 백말 |
| 21255 | 이백 | 21255 | 이백이지머 |
| 21256 | 한둘 | | |
| 21256-1 | 한두-개 | 21256-1 | 한두개 |
| 21256-2 | 한두-되 | 21256-2 | 한두되지머 |
| 21256-3 | 한두-말 | 21256-3 | 한두말 |
| 21257 | 두셋 | | |
| 21257-1 | 두세-개 | | |
| 21257-2 | 두세-되 | | |
| 21257-3 | 두세-말 | | |
| 21258 | 두서넛 | | |
| 21258-1 | 두서너-개 | | |
| 21258-2 | 두서너-되 | | |
| 21258-3 | 두서너-말 | | |
| 21259 | 서넛 | | |
| 21259-1 | 서너-개 | 21259-1 | 세네개, 서너개 |
| 21259-2 | 서너-되 | 21259-2 | 서너되 |
| 21259-3 | 서너-말 | 21259-3 | 서너말 |
| 21260 | 네댓 | | |
| 21260-1 | 네댓-개 | 21260-1 | 너더대개, 네다섯개 |
| 21260-2 | 네댓-되 | | |
| 21260-3 | 네댓-말 | 21260-3 | 너더댄말 |
| 21261 | 대여섯 | | |
| 21261-1 | 대여섯-개 | 21261-1 | 대여섯개, 다섯여섯개 |
| 21261-2 | 대여섯-되 | 21261-2 | 대여섯되 |

21261-3 대여섯-말
 21262 예닐곱
 21262-1 예닐곱-개
 21262-2 예닐곱-되
 21262-3 예닐곱-말
 21263 일여덟
 21263-1 일여덟-개
 21263-2 일여덟-되
 21263-3 일여덟-말
 21264 여덟아홉
 21264-1 여덟아홉-개
 21264-2 여덟아홉-되
 21264-3 여덟아홉-말
 21265 여남은
 21265-1 여남은-개
 21265-2 여남은-되
 21265-3 여남은-말

21261-3 대연말

 21262-2 여닐곱되

 21263-1 일여덟개, 일구여덟개
 21263-2 일여덟되
 21263-3 일여덟말

 21264-2 팔구되
 21264-3 팔구말

 21265-1 열똥개 된다, 여라문개, 여라똥개, 여라문개
 21265-2 여라문되
 21265-3 여라문말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3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5 두렁이
 21306 무늬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9 두루마기
 21310 의복
 21311 구겨지다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3 쪼고리
 21304 색똥조고리
 21305 두렁이라고
 21306 무늬인가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9 두루마기 아니야?
 21310 으복
 21311 구겨진다

| | | | |
|-----------|---------------------------|-----------|-----------------------|
| 21312 | 옷고름 | 21312 | 고름 |
| 21313 | 단추 | 21313 | 단추 |
| 21314 | 동정 | 21314 | 동정 |
| 21315 | 겉 | 21315 | 것 |
| 21315-0-1 | -에 | 21315-0-1 | 것에 묻었다 |
| 21315-0-2 | -을 | 21315-0-2 | 것이야 것 |
| 21316 | 홀옷 | 21316 | 호dot이쥬 |
| 21317 | 겹옷 | 21317 | 겨붓 |
| 21318 | 잠방이 | 21318 | 잠방이 |
| 21319 | 누더기 | 21319 | 누데기 옷 |
| 21320 | 거지 | 21320 | 거지 |
| 21321 | 구겉 | 21321 | 동양 |
| 21322 | 조끼 | 21322 | 조끼 |
| 21323 | 내의 | 21323 | 내이 |
| 21324 | 껴입다 | 21324 | 껴임는다 |
| 21325 | 소매 | 21325 | 소매 |
| 21326 | 주머니 | 21326 | 주머니지머 |
| 21327 | 호주머니 | 21327 | 호주머니 |
| 21328 | 허리띠 | 21328 | 석때라 그러구(장식 있는 것), 허리띠 |
| 21329 | 탱기 | 21329 | 탱기 |
| 21330 | 도포 | 21330 | 도:포 |
| 21331 | 삿갓 | 21331 | 삭갓 |
| 21331-0-1 | -에 | 21331-0-1 | 삭까세 |
| 21332 | 고깔 | 21332 | 고깔이지머 고깔 |
| 21333 | 사모 | 21333 | 사모 |
| 21334 | 유건 | 21334 | 망건이구나 망건 |
| 21335 | 대님 | 21335 | 대님 |
| 21336 | 감발 | 21336 | * |
| 21337 | 짚신 | 21337 | 집썸 |
| 21338 | 미투리 | 21338 | 미투리라 그러지 |
| 21338-1 | (짚신을) <u>삼다/만들다/트다/겉다</u> | 21338-1 | 미투리 삼:는다 그래요 |
| 21339 | 나막신 | 21339 | 나막썸 |
| 21340 | 설피 | 21340 | * |

2.4.2. 바느질과 세탁

| | | | |
|-------|----|-------|----|
| 21401 | 명주 | 21401 | 명지 |
|-------|----|-------|----|

21401-1 명주실
21402 목화
21402-1 목화다래
21403 무명
21403-1 무명실
21404 씨아
21405 자새
21406 물레
21407 베
21408 길쌈
21409 골무
21410 반질고리
21411 가위
21411-0-1 -을
21411-0-2 -에
21412 마르다(裁)
21412-0-1 -고
21412-0-2 -어라
21413 형겅
21413-0-1 -을
21413-0-2 -에
21414 바늘
21415 꿰다
21415-0-1 -고
21415-0-2 -어라
21416 바느질
21417 재봉틀
21418 끈
21419 노끈
21420 참바
21421 매듭
21421-1 (매듭을) 맷다/짓다/엮다/묶다
21422 보자기
21423 이불
21424 솜
21425 포근하다

21401-1 명지실
21402 모과
1402-1 목화다래 *
21403 무명
21403-1 무명실은
21404 씨아
21405 *
21406 물레
21407 베
21408 기쌈
21409 골미, 골무그러기도
21410 반지끄르시구나 반지끄룻
21411 가위

21411-0-2 가위에
21412 마른다고

21413 형겅

21413-0-2 형거비라고
21414 바늘
21415 꿰다
21415-0-1 꿰구 이따
21415-0-2 꿰어라
21416 바느질
21417 자방틀
21418 끈
21419 노끈이라구
21420 바
21421 매듭
21421-1 매듭 진는다
21422 보재기
21423 이불이지머
21424 솜:
21425 포근하다

21426 홀이불
 21427 겹이불
 21427-1 숨이불
 21428 누비이불
 21429 베개
 21430 베갯잇
 21430-0-1 -에
 21431 목침
 21432 퇴침
 21433 망석
 21434 담요
 21435 빨래하다
 21436 빨랫방망이
 21437 빨래터
 21438 빨랫줄
 21439 다리미
 21439-1 다림질
 21440 인두
 21441 다듬잇방망이
 21442 다듬잇돌
 21443 다듬이질

21426 혼니불
 21427 겹니불이구
 21427-1 숨니불
 21428 누비이불
 21429 보개
 21430 보갯넙
 21430-0-1 보갯니비
 21431 목침
 21432 퇴침은
 21433 방서기지
 21434 담:요라는 것은
 21435 빨래헌다
 21436 빨래방망이
 21437 빨래터지머
 21438 빨래줄
 21439 대리미
 21439-1 대림질
 21440 인두
 21441 다드미뽕뽕이라고 그러지
 21442 다드미뽕
 21443 흥두깨, 방뽕이질이지머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21502 설
 21503 설달 그림날
 21504 묵은세배
 21505 올해
 21505-0-1 -는
 21505-1 작년

21501 설:
 21502 설:이라고 해요
 21503 서:딸 그림
 21504 *
 21505 오래쫄 오래
 21505-1 장년

21505-2 재작년
 21505-3 내년
 21505-4 후년
 21505-5 내후년
 21506 작은설
 21507 웃
 21507-0-1 -을
 21507-0-2 -에
 21507-1 웃놀이
 21508 웃가락
 21508-1 도
 21508-2 개
 21508-3 걸
 21508-4 웃
 21508-5 모
 21509 단둥
 21509-1 외동무니
 21509-2 두동무니
 21509-3 석동무니
 21509-4 녀동무니
 21509-5 막둥
 21509-6 단둥무니
 21510 보름
 21510-1 삭망
 21511 추석
 21512 망월
 21513 쥐불놀이
 21514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21514-2 긴막대
 21515 수수께끼
 21516 호미씻이
 21517 팽과리
 21518 장구
 21519 걸두리
 21520 무당

21505-2 재장년
 21505-3 내년
 21505-4 후년이지
 21505-5 *
 21506 작은설

 21507-0-2 유시 나따
 21507-1 윤노리
 21508 육가락
 21508-1 도
 21508-2 개:
 21508-3 걸:
 21508-4 웃
 21508-5 모
 21509 어퍼간다

 21509-2 두동사니는, 두동무니
 21509-3 석똥무니에요

 21509-6 *
 21510 보름, 대:보름
 21510-1 *
 21511 추석
 21512 망월이(정월 대보름의 둥근 달)
 21513 쥐불놀이라고 해서
 21514 자:치기라 그러쥬 자:치기
 21514-1 *

 21515 수수께끼
 21516 *
 21517 껍메기
 21518 장구
 21519 저누리, 제누리(전에 쓰던 말), 새:뽕
 21520 무:당

21520-1 박수
 21521 고수레
 21521-1 고수레!
 21522 짐쟁이
 21523 상여(喪輿)
 21524 굴건
 21525 제사
 21526 제기
 21527 귀신
 21528 도깨비

21520-1 박쭈
 21521 고수레
 21521-1 고수레 하고
 21522 짐쟁이
 21523 상여
 21524 굴관
 21525 제:사
 21526 제:기라
 21527 귀신
 21528 도:깨비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21602 굴레
 21603 명에
 21604 길마
 21605 부리망
 21606 구유
 21607 작두
 21608 풀
 21609 여물
 21610 쇠죽
 21611 쇠죽바가지
 21612 수레
 21613 끌다
 21613-0-1 -고
 21614 바퀴
 21615 새끼(繩)
 21615-1 새끼(짐승의)
 21616 망태기
 21617 떡둥구미
 21618 거적
 21619 가마니
 21619-1 가마니틀

21601 고삐
 21602 굴레게쫂 굴레
 21603 명지
 21604 길마가
 21605 소망
 21606 꿩
 21607 작뚜
 21608 풀 베러 간다
 21609 여물이에요 여물
 21610 쇠죽
 21611 여물뺨
 21612 수레구
 21613 끈다
 21613-0-1 끌구 이따 그래
 21614 바퀴
 21615 새끼
 21615-1 새끼
 21616 망태
 21617 둥구미
 21618 덕석이에요
 21619 가마니
 21619-1 가마니틀인데

21620 돛자리
 21621 자리틀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다
 21622 왕골
 21623 삼태기
 21623-1 쪼 삼태기
 21623-2 싸리 삼태기
 21624 멍석
 21625 어레미
 21625-1 고운채
 21625-2 굵은채
 21626 대장장이
 21627 대장간
 21628 풀무
 21629 모루
 21630 모루채
 21631 갈퀴
 21632 집게
 21633 장도리
 21633-1 노루발
 21634 툇
 21634-0-1 -에
 21635 도끼
 21636 자루(柄)
 21636-0-1 -을
 21636-0-2 -에
 21637 갈고리
 21638 췌기
 21639 송곳
 21639-0-1 -에
 21640 뽕죽하다
 21641 솥돌
 21641-0-1 -에
 21642 맷돌
 21642-1 수쇠
 21642-1 암쇠

21620 돛짜리는
 21621 자리틀이지머
 21621-1 찼다고 그러쥌
 21622 왕골이 마니 사용
 21623 삼태기
 21624 멍석이랴 그랬어요
 21625 얼게미구, 올게미라고 그러지
 21625-1 채
 21626 대장간-대장쟁이, 승냥간-승냥쟁이
 21627 승냥간, 대장간, 대:장간이라구
 21628 풍구지머
 21628 *
 21630 *
 21631 갈퀴
 21632 짝깨
 21633 장:돌이라구
 21633-1 *
 21634 툇
 21634-0-1 토베
 21635 도:끼
 21636 자루
 21636-0-2 자루에
 21637 갈고리
 21638 췌:기
 21639 송:곳
 21639-0-1 송곳에
 21640 뽕주카다
 21641 솥똥
 21641-0-1 솥똥레
 21642 맷똥 아니야
 21642-1 솥췌구
 21642-2 암췌

21643 지계
 21644 밭채
 21645 지계 작대기
 21646 막대기
 21647 몽둥이

21643 지계
 21644 지계사리지며 지계쌀
 21645 지계 짝때기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21702 광주리
 21703 소쿠리
 21704 함지
 21705 풀비
 21705-1 귀알
 21706 독
 21706-0-1 -에
 21707 물독
 21708 항아리
 21709 단지
 21710 물동이
 21711 빠리
 21712 옹기
 21713 표주박
 21714 키(箕)
 21715 떡살
 21716 다식판
 21717 시루
 21717-0-1 -을
 21717-0-2 -에
 21718 시룻밑
 21718-0-1 -에
 21719 시룻번
 21720 부싯돌
 21720-0-1 -을
 21721 부시

21701 비짜루 아니야
 21702 광주리
 21703 *
 21704 함진데
 21705 풀빠라구
 21705-1 *
 21706 독아니야 독
 21706-0-1 독에다
 21707 물뜯
 21708 요게 대개 항아리라구
 21709 단지라고
 21710 동이 아니야 물뚱이
 21711 빠:리
 21712 옹기쟁이
 21713 *
 21714 키에요
 21715 *
 21716 다식판걸은데
 21717 시루

 21717-0-2 저 시루에다 찌는게 떡
 21718 시룻밧
 21718-0-1 시루미테 묻었다 그러쥬
 21719 시루뺨
 21720 부싯돌이지며

 21721 부시

| | | | |
|-----------|------|-------|------------------|
| 21722 | 부식깃 | 21722 | 부식깃 |
| 21723 | 담배 | 21723 | 담배 아니야 |
| 21724 | 담뱃대 | 21724 | 담배때 |
| 21725 | 담배설대 | 21725 | 담배때 |
| 21726 | 담배통 | 21726 | 담배통이구 |
| 21727 | 물부리 | 21727 | 물뿌리인가 |
| 21728 | 담배쌈지 | 21728 | 담배쌈지 |
| 21729 | 부채 | 21729 | 부채 |
| 21730 | 토시 | 21730 | 토시 |
| 21731 | 벼루 | 21731 | 벼루 |
| 21732 | 가락지 | 21732 | 엔날 예찍은 가락지라고, 반지 |
| 21733 | 비녀 | 21733 | 비녀 |
| 21734 | 참빗 | 21734 | 참빗이라는거는, 참빗이라는거야 |
| 21734-0-1 | -을 | | |
| 21734-0-2 | -에 | | |
| 21735 | 얼레빗 | 21735 | 얼게빗 |
| 21736 | 세숫대야 | 21736 | 세수때 |
| 21737 | 비누 | 21737 | 비누 |
| 21738 | 도투마리 | 21738 | 도투마리 맞아요 |
| 21739 | 활대 | 21739 | * |
| 21740 | 잉앗대 | 21740 | * |
| 21741 | 부티 | 21741 | * |
| 21742 | 도롱이 | 21742 | 여기서는 그냥 우장 |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 | | | |
|-------|------|-------|------|
| 21801 | 이마 | 21801 | 이마 |
| 21802 | 이마빼기 | 21802 | 이마빼기 |
| 21803 | 눈자위 | 21803 | 눈짜위 |
| 21804 | 검은자위 | 21804 | 눈뚱자 |
| 21805 | 흰자위 | 21805 | 흰자위 |
| 21806 | 눈꺼풀 | 21806 | 눈꺼풀 |

21807 거적눈
21808 눈썹
21808-0-1 -이
21809 속눈썹
21809-0-1 -이
21810 눈두덩
21811 안경
21812 안경집
21813 돋보기
21814 주름살
21814-0-1 -이
21815 앳되다
21816 수염
21817 구레나룻
21817-0-1 -을
21818 코
21818-0-1 -이
21819 콧수염
21820 코딱지
21821 콧구멍
21821-0-1 -을
21821-0-2 -에
21822 콧물
21823 입술
21823-0-1 -에
21824 다물다
21825 어금니
21826 덧니
21827 휘파람
21828 침
21829 삼키다
21830 가래(痰)
21831 빨다
21832 혀
21833 혓바늘
21834 귓볼

21807 처진눈
21808 눈썹
21808-0-1 눈썹비
21809 눈썹
21809-0-1 눈썹비
21810 눈두둑, 눈두두기
21811 안경
21812 안경쩍
21813 돋빼기
21814 주름쌀
21814-0-1 주름싸리
21815 애때보인다
21816 쉬움
21817 구레날
21817-0-1 구레나를
21818 코
21818-0-1 코가
21819 콧썩음
21820 코딱찌
21821 코꾸멍
21821-0-1 코꾸멍을
21821-0-2 코꾸멍에서
21822 콤물
21823 입술
21823-0-1 입쭈레
21824 다문다, 다물라
21825 어금니
21826 던니
21827 회빠람
21828 침
21829 생킨다
21830 가래
21831 배타, 뱀:는다
21832 혀, 혀빠닥
21833 혀빠늘
21834 귀뿔, 귀부랄

21835 귀고리
 21835-1 귀걸이
 21836 귀지
 21837 귀이개
 21838 소리
 21839 엇들다
 21840 귀청
 21841 귀밑
 21841-0-1 -을
 21842 관자놀이
 21843 기미
 21844 주근깨
 21845 턱
 21846 턱수염
 21847 뺨
 21847-1 볼
 21848 가름하다
 21849 보조개
 21850 머리카락
 21851 비듬
 21852 기계충
 21853 정수리
 21854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21856 가르마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21857 가마
 21857-1 가마(鼎)
 21857-2 가마(轎)
 21857-3 가마(질그릇)
 21857-4 가마(가마니)
 21858 뒤통수
 21859 뒷덜미
 21860 목
 21861 멍살

21835 귀거리
 21836 귀젓, 귀거리
 21837 귀이개
 21838 소리
 21839 열:뜯는다, 흠채드러
 21840 귀청
 21841 귀미테[kü]
 21841-0-1 귀미테
 21842 관자노리
 21843 기미
 21844 주근깨
 21845 턱
 21846 턱뺨
 21847 뺨
 21848 개름허다
 21849 보지개
 21850 머리카락
 21851 비듬
 21852 기계춤
 21853 정배기
 21854 대:머리
 21855 곱쓸머리
 21856 가르마
 21856-1 가르마 탄다
 21857 가마
 21857-1 가마
 21857-2 가마
 21857-3 가마
 21857-4 가마
 21858 뒤통수
 21859 뒤덜미
 21860 목
 21861 멍쌀

2.6.2. 상체

| | | | |
|-----------|--------|-----------|-------------|
| 21901 | 어깨 | 21901 | 어깨 |
| 21902 | 밀치다 | 21902 | 밀친다 |
| 21903 | 겨드랑 | 21903 | 겨드랑 |
| 21904 | 등 | 21904 | 등 |
| 21905 | 가슴 | 21905 | 가슴 |
| 21906 | 결리다 | 21906 | 결린다 |
| 21907 | 갈비뼈 | 21907 | 갈비때 |
| 21908 | 허파 | 21908 | 허파 |
| 21909 | 쓸개 | 21909 | 쓸개 |
| 21910 | 콩팥 | 21910 | 콩팥 |
| 21910-0-1 | -에 | 21910-0-1 | 콩파세 |
| 21910-0-2 | -을 | | |
| 21911 | 팔 | 21911 | 팔 |
| 21912 | 팔꿈치 | 21912 | 팔꿈치 |
| 21913 | 팔짱끼다 | 21913 | 팔짱긴다 |
| 21914 | 손톱 | 21914 | 손톱 |
| 21915 | 오른손 | 21915 | 오른손 |
| 21916 | 왼손 | 21916 | 왼:선 |
| 21917 | 다르다 | 21917 | 다르다 |
| 21917-0-1 | -아서 | | |
| 21917-1 | 틀리다 | 21917-1 | 틀리다 |
| 21918 | 왼손잡이 | 21918 | 왼:손재비 |
| 21919 | 엄지손가락 | 21919 | 엄지 |
| 21920 | 집게손가락 | 21920 | 인지, 찌깨 송꾸락 |
| 21921 | 가운뎃손가락 | 21921 | 중지, 가운데 송꾸락 |
| 21922 | 약손가락 | 21922 | 약찌 |
| 21923 | 새끼손가락 | 21923 | 새끼 송꾸락 |
| 21924 | 생인손 | 21924 | 새인손 |
| 21925 | 사마귀 | 21925 | 사:마귀 |
| 21926 | 손아귀 | 21926 | 소나귀 |
| 21927 | 손목 | 21927 | 숨목 |
| 21928 | 뺨 | 21928 | 뺨 |
| 21929 | 허리 | 21929 | 허리 |
| 21930 | 지팡이 | 21930 | 지팡이 |

21931 옆구리
 21932 간지럽다
 21933 간지럼
 21934 잔허리
 21935 근육
 21936 배꼽
 21937 목물

21931 역꾸리
 21932 간지럽따
 21933 간지럼
 21934 개:미허리
 21935 그:늑
 21936 배꼽
 21937 등물

2.6.3. 하체

22001 복사뼈
 22002 발가락
 22003 발바닥
 22004 발톱
 22005 냄새
 22006 고린내
 22007 굳은살
 22008 정강이
 22009 종아리
 22010 장딴지
 22011 회초리
 22012 무릎
 22012-0-1 -을
 22012-0-2 -에
 22013 오금
 22014 엉덩이
 22015 궁둥이
 22016 볼기
 22017 멍
 22018 멍울
 22019 가랑이
 22020 사이
 22021 살
 22021-0-1 -이
 22021-0-2 -을

22001 복숭아뼈
 22002 발꾸락
 22003 발빠닥
 22004 발톱
 22005 냄:새
 22006 코린내
 22007 굳:살
 22008 정갱이
 22009 종아리
 22010 장:딴지
 22011 회초리
 22012 무릅
 22012-0-1 무르블
 22012-0-2 무르베
 22013 오금
 22014 엉덩이
 22015 궁텅이
 22016 볼기
 22017 멍:
 22018 멍우리
 22019 가랭이
 22020 새:
 22021 사추리
 22021-0-1 사추리가

| | | | |
|-----------|--------------------------------|-----------|---------|
| 22022 | 사타구니 | 22022 | 사타구니 |
| 22023 | 가래툰 | 22023 | 가래툰 |
| 22023-0-1 | -을 | 22023-0-1 | 가래툰시 |
| 22024 | 허벅다리 | 22024 | 허벅찌 |
| 22025 | 넙적다리 | 22025 | 넙적따리 |
| 22026 | 가부좌(跏趺坐) | 22026 | 책쌍다리 |
| 22026-1 | 가부좌(跏趺坐) <u>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u> | 22026-0-1 | 책쌍다리 한다 |

2.6.4. 질병과 생리

| | | | |
|---------|-------------------------|---------|----------|
| 22101 | 감기 | 22101 | 강:기 |
| 22102 | 기침 | 22102 | 기침 |
| 22103 | 재채기 | 22103 | 재채기 |
| 22104 | 사레 | 22104 | 사:리 |
| 22104-1 | (사레) <u>들리다/만나다/걸리다</u> | 22104-1 | 사:리가 들려따 |
| 22105 | 딸꾹질 | 22105 | 딸꿀쩔 |
| 22106 | 트림 | 22106 | 트:림 |
| 22107 | 곰보 | 22107 | 곰:보 |
| 22108 | 천연두 | 22108 | 마:마 |
| 22109 | 여드름 | 22109 | 여드름 |
| 22110 | 학질 | 22110 | 학쩔 |
| 22110-1 | 하루거리 | | |
| 22110-2 | 이틀거리 | | |
| 22110-3 | 매일 앓는 학질 | | |
| 22111 | 홍역 | 22111 | 호녁 |
| 22112 | 볼거리 | 22112 | 볼거리 |
| 22113 | 땀띠 | 22113 | 땀띠 |
| 22114 | 두드러기 | 22114 | 두투러기 |
| 22115 | 버짐 | 22115 | 버짐 |
| 22115-1 | 마른버짐 | 22115-1 | 마른버짐 |
| 22115-2 | 진버짐 | 22115-2 | 진버짐 |
| 22115-3 | 도장 버짐 | 22115-3 | 도장부수름 |
| 22116 | 문둥이 | 22116 | 문:둥뻥 |
| 22116-1 | 문둥병 | | |
| 22117 | 부스럼 | 22117 | 현:디 |
| 22117-1 | 종기 | 22117-1 | 종기 |

| | | | |
|-----------|------------|-----------|------|
| 22118 | 고름 | 22118 | 고름 |
| 22119 | 곰기다 | 22119 | 곰긴다 |
| 22120 | 난쟁이 | 22120 | 난쟁이 |
| 22121 | 사팔뜨기 | 22121 | 사팔뜨기 |
| 22122 | 언청이 | 22122 | 혜청이 |
| 22123 | 소경 | 22123 | 장:님 |
| 22123-1 | 당달봉사 | | |
| 22124 | 애꾸 | 22124 | 애꾸눈 |
| 22125 | 눈곱 | 22125 | 누꼽 |
| 22126 | 다래끼 | 22126 | 대래끼 |
| 22126-1 | 다래끼(눈 위쪽) | | |
| 22126-2 | 다래끼(눈 아래쪽) | | |
| 22127 | 질름발이 | 22127 | 질름바리 |
| 22128 | 곰사등이 | 22128 | 곰추 |
| 22129 | 귀머거리 | 22129 | 귀머거리 |
| 22130 | 말더듬이 | 22130 | 말더드미 |
| 22131 | 병어리 | 22131 | 병어리 |
| 22132 | 잠꾸러기 | 22132 | 장꾸러기 |
| 22133 | 줄리다 | 22133 | 줄립따 |
| 22134 | 하품 | 22134 | 하춤 |
| 22135 | 줄음 | 22135 | 조름 |
| 22135-0-1 | -을 | 22135-0-1 | 조루물 |
| 22135-0-2 | -에 | | |
| 22136 | 잠꼬대 | 22136 | 잠꼬대 |

2.7. 육아

| | | | |
|-----------|----------|-----------|------|
| 22201 | 입뿔 | 22201 | 입뿔 |
| 22201-0-1 | -을 | 22201-0-1 | 입뿔슬 |
| 22202 | 갓난아이 | 22202 | 간난애기 |
| 22203 | 어린아이 | 22203 | 어리내 |
| 22204 | 경기(驚氣)하다 | 22204 | 정기한다 |
| 22205 | 눅히다 | 22205 | 누핀다 |
| 22206 | 계집아이 | 22206 | 기 지배 |

| | | | |
|---------|-------------------------|---------|--------|
| 22207 | 예쁘다 | 22207 | 이:뿌다 |
| 22208 | 사내아이 | 22208 | 사내아이 |
| 22209 | 아우 | 22209 | 아우, 동생 |
| 22209-1 | 아우보다 | 22209-1 | 아우본다 |
| 22209-2 | 아우 타다 | 22209-2 | 아우탄다 |
| 22210 | 야위다 | 22210 | 애려따 |
| 22211 | 쌍둥이 | 22211 | 쌍둥이 |
| 22212 | 오줌 | 22212 | 오줌 |
| 22213 | 똥 | 22213 | 똥 |
| 22214 | 기저귀 | 22214 | 기저기 |
| 22215 | 뉘다(排便) | 22215 | 누킨다 |
| 22216 | 방귀 | 22216 | 방:귀 |
| 22216-1 | 뀌다 | 22216-1 | 뀐다 |
| 22217 | 구린내 | 22217 | 쿠린내 |
| 22218 | 구리다 | 22218 | 쿠리다 |
| 22219 | 포대기 | 22219 | 포대기 |
| 22220 | 기지개 | 22220 | 기지개 |
| 22220-1 | 기지개를 <u>켜다/하다/쓰다/펴다</u> | 22220-1 | 기지개 핀다 |
| 22221 | 거짓말 | 22221 | 거:진말 |
| 22222 | 남부끄럽다 | 22222 | 부꾸럽따 |
| 22223 | 겉쟁이 | 22223 | 겉쟁이 |
| 22224 | 불쌍하다 | 22224 | 불쌍하다 |
| 22225 | 죄암죄암 | 22225 | 침침 |
| 22226 | 곤지곤지 | 22226 | 곤지곤지 |
| 22227 | 따로따로 | 22227 | 따루따루 |
| 22228 | 도리도리 | 22228 | 도리도리 |
| 22229 | 짹짹 | 22229 | 짹짹 |
| 22230 | 부라부라 | 22230 | 부라부라 |
| 22231 | 걸음마 | 22231 | 거름마 |
| 22232 | 아장아장 | 22232 | 아장아장 |
| 22233 | 넘어지다 | 22233 | 쓰러진다 |
| 22234 | 곤두박질 | 22234 | 곤두박쩔 |
| 22235 | 안기다 | 22235 | 앙긴다 |
| 22236 | 바람개비 | 22236 | 바람개비 |
| 22237 | 호드기 | 22237 | 호들기 |
| 22238 | 숨바꼭질 | 22238 | 술레잡끼 |

22239 소꿉놀이
 22240 사금파리
 22241 연
 22241-1 방패연
 22241-2 가오리연
 22242 질리다
 22243 고누
 22244 땅뺨기
 22245 팽이
 22246 딱지치기
 22247 구슬
 22248 그네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22249 밧싰개
 22250 굴렁쇠
 22251 굴리다
 22251-0-1 -고
 22251-0-2 -어야
 22252 자전거
 22253 목말
 22254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22256 썰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22256-2 송곳
 22257 엄살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22258 부아

2.8. 친족

22301 아버지
 22301-1 아버지(호칭)
 22302 어머니
 22302-1 어머니(호칭)

22239 도꿉노리
 22240 사금파리
 22241 연
 22241-1 방패연
 22241-2 *
 22242 질려따
 22243 *
 22244 땅뺨끼
 22245 팽이
 22246 딱지치기
 22247 구슬
 22248 구네
 22248-1 구네 뛰다
 22249 미씨개
 22250 굴렁쇠
 22251 굴린다
 22251-0-1 굴리구

 22252 자정구
 22253 무등
 22254 말타기
 22255 다름박질
 22256 쓰케토

 22256-2 꼬쟁이
 22257 엄:살
 22257-1 엄:살 부린다
 22258 화가 난다

| | | | |
|---------|----------|---------|--------|
| 22303 | 할아버지 | 22303 | 하라부지 |
| 22303-1 | 할아버지(호칭) | | |
| 22304 | 할머니 | 22304 | 할머니 |
| 22304-1 | 할머니(호칭) | | |
| 22305 | 남편 | 22305 | 남편 |
| 22305-1 | 남편(호칭) | 22305-1 | 여보 |
| 22306 | 아내 | 22306 | 안싸람 |
| 22306-1 | 아내(호칭) | 22306-1 | 여보 |
| 22307 | 형 | 22307 | 형님 |
| 22307-1 | 형(호칭) | 22307-1 | 형님, 형 |
| 22308 | 아우 | 22308 | 동생 |
| 22308-1 | 아우(호칭) | 22308-1 | 아무개 이름 |
| 22309 | 누나 | 22309 | 누님 |
| 22309-1 | 누나(호칭) | 22309-1 | 누나 |
| 22310 | 누이 | 22310 | 누이동생 |
| 22310-1 | 누이(호칭) | 22310-1 | 아무개 이름 |
| 22311 | 자식 | 22311 | 자식 |
| 22312 | 말아들 | 22312 | 마다들 |
| 22313 | 막내 | 22313 | 망내 |
| 22314 | 오라버니 | 22314 | 오라버니 |
| 22314-1 | 오라버니(호칭) | | |
| 22315 | 오빠 | 22315 | 오빠 |
| 22315-1 | 오빠(호칭) | | |
| 22316 | 언니 | 22316 | 언니 |
| 22316-1 | 언니(호칭) | 22316-1 | 언니 |
| 22317 | 아버 | 22317 | |
| 22317-1 | 아버(호칭) | 22317-1 | 애비야 |
| 22318 | 어미 | 22318 | 에미 |
| 22318-1 | 어미(호칭) | | |
| 22319 | 손자 | 22319 | 손주 |
| 22320 | 손녀 | 22320 | 손녀 |
| 22321 | 사위 | 22321 | 사위 |
| 22321-1 | 사위(호칭) | 22321-1 | 박서방 |
| 22322 | 외손자 | 22322 | 외손주 |
| 22323 | 외손녀 | 22323 | 외손녀 |
| 22324 | 꾸짖다 | 22324 | 꾸짖는다 |

| | |
|------------------|-----------------------|
| 22324-0-1 -고 | 22324-0-1 꾸직꾸 |
| 22324-1 나무라다 | 22324-1 나무래다 |
| 22325 총각 | 22325 총각 |
| 22326 처녀 | 22326 처녀 |
| 22327 혼인 | 22327 결혼 |
| 22327-1 혼인식 | 22327-1 혼인한다 |
| 22328 혼인 잔치 | 22328 결혼잔치 |
| 22329 장가가다 | 22329 장:개간다 |
| 22329-1 시집가다 | 22329-1 시집간다 |
| 22330 혼숫감 | 22330 혼수감 |
| 22331 함 | 22331 함: |
| 22332 겹사돈 | 22332 겹싸돈 |
| 22333 새색시 | 22333 새애기 |
| 22333-1 새색시(호칭) | 22333-1 새댁 |
| 22334 시아버지 | 22334 시아번님 |
| 22334-1 시아버지(호칭) | 22334-1 아번님 |
| 22335 시어머니 | 22335 시어먼님 |
| 22335-1 시어머니(호칭) | 22335-1 어먼님 |
| 22336 비위 | 22336 비우 |
| 22337 아주버니 | 22337 시아주버니, 시숙 |
| 22337-1 아주버니(호칭) | 22337-1 아주버니 |
| 22338 서방님 | 22338 시동생 |
| 22338-1 서방님(호칭) | 22338-1 서방님 |
| 22339 도련님 | 22339 시동생 |
| 22339-1 도련님(호칭) | 22339-1 되른님 |
| 22340 형님 | 22340 형님 |
| 22340-1 형님(호칭) | 22340-1 형님 |
| 22341 시누이 | 22341 고모 |
| 22341-1 시누이(호칭) | 22341-1 고모님 |
| 22341-2 아가씨 | 22341-2 애기씨 |
| 22341-3 아가씨(호칭) | 22341-3 시누이 |
| 22342 올케 | 22342 올케 |
| 22342-1 올케(호칭) | 22342-1 언니, 누구 엄마, 올케 |
| 22343 매형 | 22343 매형 |
| 22343-1 매형(호칭) | 22343-1 매형 |
| 22344 매제 | 22344 매제 |

| | | | |
|---------|-----------------|---------|---------------|
| 22344-1 | 매제(호칭) | | |
| 22345 | 큰아버지 | 22345 | 크나부지 |
| 22345-1 | 큰아버지(호칭) | 22345-1 | 크나부지 |
| 22345-2 | (아버지의 둘째 형) | 22345-2 | 둘째 크나부지 |
| 22345-3 | (아버지의 셋째 형) | 22345-3 | 세째 크나부지 |
| 22346 | 큰어머니 | 22346 | 크너머니 |
| 22346-1 | 큰어머니(호칭) | | |
| 22346-2 |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 | |
| 22346-3 |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 | |
| 22347 | 큰집 | 22347 | 큰댁, 큰집 |
| 22348 | 작은아버지 | 22348 | 삼촌, 자근 아버지 |
| 22348-1 | 작은아버지(호칭) | 22348-1 | 자근아버지 |
| 22349 | 작은어머니 | 22349 | 송모, 자근 어머니 |
| 22349-1 | 작은어머니(호칭) | 22349-1 | 송모, 자근 어머니 |
| 22350 | 삼촌 | 22350 | 삼촌 |
| 22350-1 | 삼촌(호칭) | 22350-1 | 삼촌 |
| 22351 | 아저씨 | 22351 | 아저씨 |
| 22351-1 | 아저씨(호칭) | 22351-1 | 아저씨 |
| 22352 | 아주머니 | 22352 | 송모, 아주머니, 송모님 |
| 22352-1 | 아주머니(호칭) | 22352-1 | 아주머니 |
| 22353 | 조카 | 22353 | 조카 |
| 22354 | 조카딸 | 22354 | 조카딸 |
| 22355 | 고모 | 22355 | 고모 |
| 22355-1 | 고모(호칭) | 22355-1 | 고모 |
| 22356 | 고모부 | 22356 | 고모부 |
| 22356-1 | 고모부(호칭) | 22356-1 | 고모부 |
| 22357 | 고종 | 22357 | 고종 |
| 22358 | 이모 | 22358 | 이모 |
| 22358-1 | 이모(호칭) | 22358-1 | 이모 |
| 22359 | 이모부 | 22359 | 이모부 |
| 22359-1 | 이모부(호칭) | 22359-1 | 이모부 |
| 22360 | 이종 | 22360 | 이종 |
| 22361 | 외삼촌 | 22361 | 외삼촌 |
| 22361-1 | 외삼촌(호칭) | 22361-1 | 외삼촌 |
| 22362 | 외숙모 | 22362 | 외송모 |
| 22362-1 | 외숙모(호칭) | 22362-1 | 외송모 |

| | | | |
|-----------|-----------|-----------|---------|
| 22363 | 외종 | 22363 | 외종 |
| 22364 | 외할아버지 | 22364 | 외하라부지 |
| 22364-1 | 외할아버지(호칭) | 22364-1 | 외조부 |
| 22365 | 외할머니 | 22365 | 외할머니 |
| 22365-1 | 외할머니(호칭) | 22365-1 | 외할머니 |
| 22366 | 장인 | 22366 | 자인 |
| 22366-1 | 장인(호칭) | 22366-1 | 자인어른 |
| 22367 | 장모 | 22367 | 장:모님 |
| 22367-1 | 장모(호칭) | 22367-1 | 장:모님 |
| 22368 | 처남 | 22368 | 처남 |
| 22368-1 | 처남(호칭) | 22368-1 | 처남 |
| 22369 | 처남댁 | 22369 | 아주머니 |
| 22369-1 | 처남댁(호칭) | 22369-1 | 처녀메댁 |
| 22370 | 홀아버 | 22370 | 호라비 |
| 22371 | 홀어미 | 22371 | 과부 |
| 22372 | 계모 | 22372 | 서:모 |
| 22372-1 | 계부 | 22372-1 | 으부다부지 |
| 22373 | 아저씨 | 22373 | 아저씨 |
| 22373-1 | 아저씨(호칭) | 22373-1 | 아저씨 |
| 22374 | 아주머니 | 22374 | 아주머니 |
| 22374-1 | 아주머니(호칭) | 22374-1 | 아주머니 |
| 22375 | 사나이 | 22375 | * |
| 22376 | 영감 | 22376 | 영:감 |
| 22376-1 | 할망구 | 22376-1 | 할망구 |
| 22377 | 나이 | 22377 | 나이 |
| 22377-0-1 | -를 | 22377-0-1 | 나이를 |
| 22378 | 환갑 | 22378 | 황:갑, 회갑 |
| 22378-1 | 환갑 잔치 | 22378-1 | 회갑잔치 |
| 22379 | 사투리 | 22379 | 사:투리 |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 | | | |
|-------|-----|-------|-----|
| 22401 | 물고기 | 22401 | 물꼬기 |
|-------|-----|-------|-----|

| | | | |
|-----------|----------|---------|------|
| 22402 | 민물고기 | 22402 | 민물꼬기 |
| 22403 | 피라미 | 22403 | 피래미 |
| 22404 | 지느러미 | 22404 | 지느래미 |
| 22405 | 아가미 | 22405 | 아가미 |
| 22406 | 창자 | 22406 | 창자 |
| 22407 | 송사리 | 22407 | 송사리 |
| 22408 | 헤엄 | 22408 | 헤엄 |
| 22409 | 메기 | 22409 | 머기 |
| 22410 | 자라 | 22410 | 자라 |
| 22411 | 거북 | 22411 | 거부기 |
| 22412 | 미꾸라지 | 22412 | 미꾸리 |
| 22413 | 개구리 | 22413 | 개구리 |
| 22414 | 올챙이 | 22414 | 올:챙이 |
| 22415 | 두꺼비 | 22415 | 두꺼비 |
| 22416 | 거머리 | 22416 | 거:머리 |
| 22417 | 다슬기 | 22417 | 달팽이 |
| 22418 | 우렁이 | 22418 | 우렁이 |
| 22419 | 고등 | 22419 | * |
| 22420 | 달팽이 | 22420 | 달팽이 |
| 22421 | 새우 | 22421 | 새우 |
| 22421-1 | 새우(민물 대) | | |
| 22421-2 | 새우(민물 소) | | |
| 22421-3 | 새우(바다 대) | | |
| 22422-4 | 새우(바다 소) | | |
| 22422 | 새우젓 | | |
| 22422-0-1 | -이 | | |
| 22423 | 가재 | 22423 | 깍:재 |
| 22424 | 갈치 | 22424 | 칼치 |
| 22425 | 고등어 | 22425 | 고등어 |
| 22426 | 가오리 | 22426 | 가오리 |
| 22427 | 가자미 | 22427 | * |
| 22428 | 멸치 | 22428 | 멸치 |
| 22429 | 명태 | 22429 | 명태 |
| 22429-1 | 동태 | 22429-1 | 동태 |
| 22429-2 | 황태 | 22429-2 | * |
| 22429-3 | 노가리 | 22429-3 | * |

22429-4 북어
 22429-5 생태
 22430 조기
 22431 도미
 22432 뱀장어
 22433 낚시
 22434 미끼
 22435 낚싯대
 22436 얼레
 22437 조개
 22438 소라

22429-4 부거
 22429-5 *
 22430 조기
 22431 *
 22432 뱀장어
 22433 낚씨
 22434 미끼
 22435 낚씨때
 22436 *
 22437 조개비
 22438 소:라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22502 날벌레
 22503 파리
 22503-1 쉬파리
 22504 쉬슬다
 22505 가시
 22506 진딧물
 22506-1 (진딧물) 끼다/얹다/생기다
 22507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22508-1 암컷
 22508-2 수컷
 22509 메뚜기
 22510 여치
 22511 사마귀
 22512 벌
 22512-1 (벌) 치다/기르다/키우다
 22513 땅벌
 22514 나비
 22515 하루살이
 22516 풍뎅이

22501 벌레, 버러지
 22502 날벌레
 22503 파:리
 22503-1 쉬파리
 22504 쉬쓴다
 22505 가시
 22506 진뎡물
 22506-1 안는다, 안저따
 22507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22508-2 까드레기
 22509 메뚜기
 22510 찌르레기
 22511 사:마귀
 22512 부얼
 22513 땅뎡
 22514 나비
 22515 하루사리
 22516 풍뎅이

| | | | |
|---------|--------|---------|------|
| 22517 | 모기 | 22517 | 모기 |
| 22518 | 장구벌레 | 22518 | * |
| 22519 | 매미 | 22519 | 매:미 |
| 22520 | 개똥벌레 | 22520 | 개똥벌레 |
| 22521 | 반딧불 | 22521 | 반디뿔 |
| 22522 | 거미 | 22522 | 거미 |
| 22523 | 굼벥이 | 22523 | 굼:벥이 |
| 22524 | 구더기 | 22524 | 구더기 |
| 22525 | 노래기 | 22525 | 노래기 |
| 22526 | 그리마 | 22526 | 그리마 |
| 22527 | 지네 | 22527 | 지네 |
| 22528 | 개미 | 22528 | 개:미 |
| 22529 | 바구미 | 22529 | 바구미 |
| 22530 | 진드기 | 22530 | 진드기 |
| 22531 | 벼룩 | 22531 | 벼루기 |
| 22532 | 이 | 22532 | 이 |
| 22532-1 | 서캐 | 22532-1 | 서캐 |
| 22532-2 | 빈대 | 22532-2 | 빈대 |
| 22533 | 송충이 | 22533 | 송충이 |
| 22534 | 귀뚜라미 | 22534 | 귀뚜라미 |
| 22535 | 누에 | 22535 | 누에 |
| 22536 | 고치 | 22536 | 누에고치 |
| 22537 | 번데기 | 22537 | 뻥데기 |
| 22538 | 지렁이 | 22538 | 지렁이 |
| 22539 | 회충(蛔蟲) | 22539 | 거위 |
| 22540 | 소금쟁이 | 22540 | 소곰쟁이 |
| 22541 | 방개 | 22541 | 방개 |

2.9.3. 가축

| | | | |
|-------|------------|-------|-----|
| 22601 | 가축 | 22601 | 가축 |
| 22602 | 암소 | 22602 | 암소 |
| 22603 | 송아지 | 22603 | 송아지 |
| 22604 | 송아지 부르는 소리 | 22604 | 메- |
| 22605 | 황소 | 22605 | 황소 |

| | | | |
|-----------|-------------------|-----------|---------|
| 22606 | 길들이다 | 22606 | 길드린다 |
| 22606-1 |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 22606-1 | 이리 |
| 22606-2 |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 22606-2 | 위어 |
| 22606-3 |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아) | | |
| 22606-4 |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아) | | |
| 22606-5 | 소 모는 소리(뒤로 물리나라) | | |
| 22607 | 쇠고기 | 22607 | 소고기 |
| 22608 | 고기(肉) | 22608 | 고기 |
| 22609 | 둘치 | 22609 | 둘소 |
| 22610 | 꼬리 | 22610 | 꼬리, 쫘지 |
| 22611 | 망아지 | 22611 | 말망아지 |
| 22612 | 당나귀 | 22612 | 당나귀 |
| 22613 | 갈기 | 22613 | * |
| 22614 | 돼지 | 22614 | 대:지 |
| 22614-1 | 멧돼지 | 22614-1 | 산돼지 |
| 22615 | 주둥이 | 22615 | 주덩이 |
| 22616 | 돼지 머리 | 22616 | 돼:지머리 |
| 22617 | 돼지우리 | 22617 | 돼:지우리 |
| 22617-1 | 오래오래 | 22617-1 | 오래오래 |
| 22618 | 개(犬) | 22618 | 개: |
| 22618-1 | 수캐 | 22618-1 | 수캐 |
| 22618-2 | 암캐 | 22618-2 | 암캐 |
| 22619 | 강아지 | 22619 | 강아지 |
| 22620 | 염소 | 22620 | 염소 |
| 22621 | 고양이 | 22621 | 고양이, 팽이 |
| 22621-1 | 수고양이 | 22621-1 | 수코양이 |
| 22621-2 | 암고양이 | 22621-2 | 암코양이 |
| 22622 | 토끼 | 22622 | 토끼 |
| 22623 | 거위(鵞) | 22623 | 거위 |
| 22624 | 암탉 | 22624 | 암탉 |
| 22625 | 병아리 | 22625 | 병아리 |
| 22626 | 모으다 | 22626 | 모이게 한다 |
| 22627 | 수탉 | 22627 | 수탉 |
| 22627-0-1 | -이 | 22627-0-1 | 수타기 |
| 22628 | 벼슬(鷄冠) | 22628 | 벼실 |
| 22629 | 부리 | 22629 | 주둥이 |

22630 모이
22630-0-1 -을
22630-1 모이다
22631 닭털
22632 닭똥
22633 어리
22634 닭장
22635 둥우리
22636 날개
22637 깃
22637-0-1 -을

22630 모이
22631 닭털
22632 닭똥
22633 다구리
22634 닭짹
22635 둥우리
22636 날개
22637 깃
22637-0-1 기시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2 살쾡이
22703 여우
22704 원숭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0-1 -이
22706-0-2 -를
22707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10 뱀
22711 도마뱀
22712 구렁이
22713 살모사
22714 생쥐
22715 박쥐
22716 거꾸로
22717 다람쥐
22718 새(鳥)
22719 꿩지

22701 호랑이
22702 살쾡이
22703 여위
22704 원숭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0-1 노루가 크다
22706-0-2 노루 자바따
22707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10 뱀:
22711 도마뱀
22712 구렁이
22713 살모사
22714 생:쥐
22715 박:쥐
22716 까꾸로
22717 다람쥐
22718 새
22719 꿩지

| | | | |
|-----------|-------|-----------|------|
| 22720 | 솔 개 | 22720 | 솔 개미 |
| 22721 | 독수리 | 22721 | 독쭈리 |
| 22722 | 제비(燕) | 22722 | 제비 |
| 22723 | 두루미 | 22723 | 두루미 |
| 22724 | 소쩍새 | 22724 | 서쪽새 |
| 22725 | 평 | 22725 | 꿩 |
| 22726 | 장끼 | 22726 | 쟁끼 |
| 22727 | 까투리 | 22727 | 까투리 |
| 22727-1 | 꺼병이 | 22727-1 | * |
| 22728 | 종달새 | 22728 | 종달새 |
| 22729 | 빼꾸기 | 22729 | 빼꾸기 |
| 22730 | 기러기 | 22730 | 기러기 |
| 2731 | 뜸부기 | 22731 | 뜸북새 |
| 22732 | 올빼미 | 22732 | 올빼미 |
| 22733 | 까치 | 22733 | 까치 |
| 22734 | 딱따구리 | 22734 | 딱따구리 |
| 22735 | 덧 | 22735 | 덧 |
| 22735-0-1 | -을 | 22735-0-1 | 더체 |
| 22736 | 올가미 | 22736 | 올개미 |

2.10. 식물

2.10.1. 꽃과 풀

| | | | |
|-------|------|-------|------|
| 22801 | 진달래꽃 | 22801 | 진달래꽃 |
| 22802 | 철쭉꽃 | 22802 | 철쭉꽃 |
| 22803 | 민들레 | 22803 | 민들레 |
| 22804 | 맨드라미 | 22804 | 맨드래미 |
| 22805 | 봉선화 | 22805 | 봉수아꽃 |
| 22806 | 파리 | 22806 | 파리 |
| 22807 | 해바라기 | 22807 | 해바래기 |
| 22808 | 꽃봉오리 | 22808 | 곶뽕오리 |
| 22809 | 시들다 | 22809 | 시드른다 |

22810 질경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22811 빨기
 22812 비름
 22813 쇠비름
 22814 씹바귀
 22815 고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22816 고사리
 22817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22819 도꼬마리
 22820 억새
 22821 갈대
 22822 이끼
 22823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2825 수세미
 22826 덩굴
 22827 덩불
 22827-1 가시덤불
 22828 잔디

22810 질갱이
 22810-1 질갱이

 22812 비듬
 22813 쇠비듬
 22814 씹바기
 22815 고들빠기

 22816 고사리
 22817 고비
 22818 도깨비 바늘
 22819 도꼬마리
 22820 억새풀
 22821 갈때, 갈따리
 22822 이끼, 바위옷. 바위나리
 22823 아주까리, 피마주
 22824 담쟁이
 22825 수세미
 22826 덩굴
 22827 덩불
 22827-1 가시덤불
 22828 때짱

2.10.2. 나무

22901 소나무
 22902 솔방울
 22903 관솔
 22904 솔가리
 22905 그르모으다
 22906 뽕나무
 22907 오디
 22908 도토리

22901 소나무
 22902 솔뽕울
 22903 광솔
 22904 가리
 22905 궁는다
 22906 뽕나무
 22907 오지
 22908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22910 상수리
 22911 옷
 22911-0-1 -으로
 22912 버드나무
 22913 느티나무
 22914 그림자
 22914-1 그늘
 22915 숲
 22915-0-1 -을
 22915-0-2 -에
 22916 시원하다
 22917 찢레
 22918 칩
 22918-0-1 -에
 22919 가지(枝)
 22920 끝
 22920-0-1 -이
 22920-0-2 -에
 22920-0-3 -을
 22921 삭정이
 22921-1 삭정이를 따다/썬다/하다
 22922 나무
 22922-0-1 -을
 22922-0-2 -에
 22923 나무하다
 22924 그루터기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22925 등걸
 22926 장작
 22927 패다
 22928 부스러기
 22929 숯
 22929-0-1 -이
 22929-0-2 -을
 22929-0-3 -에

22909 떡갈나무
 22910 상수리
 22911 옷
 22911-0-1 오시 올라따
 22912 버드나무 정자나무
 22913 느티나무
 22914 그림자
 22914-1 그늘
 22915 수피
 22915-0-1 수플
 22915-0-2 수페

 22917 찢레
 22918 칩
 22918-0-1 치기
 22919 가지
 22920 꼬시
 22920-0-1 꼬시
 22920-0-2 꼬세

 22921 삭정이
 22921-1 탄다
 22922 나무

 22922-0-2 나무에
 22923 낭구하러 간다
 22924 구루테기
 22924-1 뿌리
 22925 등걸
 22926 장작
 22927 팬:다
 22928 부스러기
 22929 숯
 22929-0-1 수시
 22929-0-2 수슬
 22929-0-3 수세

22930 불잉걸
22931 싹
22932 잎
22932-0-1 -을
22932-1 잎사귀
22933 가랑잎
22934 뿌리

22930 수딩걸
22931 싹
22932 잎
22932-0-1 이피
22932-1 입싸기
22933 가랑잎
22934 뿌리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23002 돌배
23003 복숭아
23004 꽃감
23005 홍시
23006 고욤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9 자두
23010 오얏
23010-0-1 -을
23011 석류
23012 모과
23013 과일
23014 꼭지
23015 밤
23015-1 밤송이
23015-2 꽃밤
23015-3 알밤
23015-4 쌍동밤
23016 보늬
23017 호두
23018 가래(楸子)
23019 개암
23020 머루

23001 능금
23002 돌배
23003 복숭아
23004 곡감
23005 홍시
23006 고염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9 자두
23010 왜:주
23011 *
23012 모과
23013 과일
23014 꼭찌
23015 밤:
23015-1 밤:송아리
23015-2 폰뽕
23015-3 아람
23015-4 두톨배기
23016 버미
23017 호두
23018 가래
23019 개암
23020 머루

23021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23023 으름
 23024 참외
 23025 딸기
 23025-1 딸기(밭, 재배)
 23025-2 딸기(밭, 야생)
 23025-3 딸기(들, 재배)
 23025-4 딸기(들, 야생)
 23025-5 딸기(산, 재배)
 23025-6 딸기(산, 야생)
 23026 뱀딸기
 23027 마름(菱)

23021 다래
 23022 *
 23023 *
 23024 차미
 23025 딸:기
 23025-4 들:딸기
 23026 뱀:딸기
 23027 *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23102 기슭
 23102-0-1 -에
 23103 골짜기
 23104 메아리
 23105 고함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23106 묘
 23107 뿔자리
 23107-1 광중
 23108 구덩이
 23109 비탈
 23110 가파르다
 23111 언덕
 23112 낭떠러지

23101 산뿔오리, 꼭떼기
 23102 기슬기
 23102-0-1 기슬기에
 23103 골짜기
 23104 메아리
 23105 고함
 23105-1 (고함) 친다, 지른다
 23106 모이, 무덤
 23107 모이짜리
 23107-1 광중(지인다)
 23108 구덩이
 23109 비탈
 23110 가파르다
 23111 언덕
 23112 벼랑, 낭떠러지

23113 들(野)
 23113-0-1 -에
 23114 벌
 23115 갈림길
 23116 헤어지다
 23117 바위
 23117-0-1 -을
 23117-0-2 -에
 23118 돌(石)
 23118-0-1 -을
 23118-0-2 -에
 23119 자갈
 23120 모래
 23120-0-1 -를
 23121 진흙
 23121-1 찰흙

23113 들:
 23113-0-1 드:레
 23114 벌판
 23115 갈림길
 23116 헤어진다
 23117 바위
 23117-0-1 바위를 든다
 23117-0-2 바위에 걸터안는다
 23118 도리라구
 23118-0-1 도를 골라낸다
 23118-0-2 도레
 23119 자갈
 23120 모래
 23120-0-1 모래를 퍼너어라
 23121 지룩, 지:느기라 하문
 23121-1 차룩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23202 거품
 23203 개운하다
 23204 도랑
 23204-1 붓도랑
 23205 독
 23206 잠기다
 23207 개울
 23208 내(川)
 23209 미역 감다
 23210 발가숭이
 23211 목욕하다
 23212 수채
 23213 개골창
 23214 시궁창
 23215 웅덩이

23201 물
 23202 거품
 23203 개운하다
 23204 도랑
 23204-1 보또랑
 23205 띄우
 23206 잠긴다, 쟁긴다
 23207 개울
 23208 *
 23209 미역 껌는다
 23210 벌거숭이
 23211 모교칸다
 23212 시구이창
 23213 시구이창 또랑
 23214 *
 23215 웅덩이

23216 수렁
 23217 늪
 23217-0-1 -에
 23218 배(船)
 23219 나루터
 23220 돛
 23220-0-1 -에
 23221 돛대
 23222 돛배
 23223 돛 줄
 23224 돛 줄
 23225 거루
 23226 상앗대
 23227 개(펼)
 23228 물
 23228-0-1 -으로
 23229 밀물
 23230 썰물
 23231 가라앉다
 23232 그물
 23233 해녀

23216 수렁
 23217 늪
 23217-0-1 누베
 23218 배
 23219 나루터
 23220 도슬 다라라
 23220-0-1 도세
 23221 도때
 23222 돛배
 23223 돛줄
 23224 돛줄
 23225 *
 23226 사때
 23227 개빨
 23228 *
 23229 *
 23230 *
 23231 가라안는다
 23232 그물
 23233 해녀

2.11.3. 시후

23301 새벽
 23302 새벽밥
 23303 아침
 23304 아침밥
 23305 점심
 23306 저녁
 23307 설핏하다
 23308 노을
 23308-0-1 -을
 23309 불그레하다
 23310 해거름

23301 새벽
 23302 새벽밥
 23303 아침
 23304 아침밥
 23305 점:심
 23306 저녁
 23307 *
 23308 노을
 23308-0-1 노으를 보고 이따
 23309 불구수름:하다
 23310 *

| | | | |
|-----------|------|-----------|---------|
| 23311 | 땅거미 | 23311 | 땅꺼미 |
| 23312 | 봄 | 23312 | 봄 |
| 23313 | 여름 | 23313 | 여름 |
| 23314 | 더위 | 23314 | 더위 |
| 23315 | 추위 | 23315 | 추위 |
| 23316 | 가을 | 23316 | 가을 |
| 23316-0-1 | -에 | 23316-0-1 | 가으레 |
| 23317 | 겨울 | 23317 | 겨울 |
| 23317-0-1 | -에 | 23317-0-1 | 겨우레 |
| 23318 | 얼음 | 23318 | 어름 |
| 23319 | 오늘 | 23319 | 오늘 |
| 23320 | 내일 | 23320 | 내일 |
| 23321 | 모레 | 23321 | 모레 |
| 23322 | 글피 | 23322 | 글피 |
| 23323 | 그글피 | 23323 | 그글피 |
| 23324 | 어제 | 23324 | 어저께, 어제 |
| 23325 | 그저께 | 23325 | 그저께 |
| 23326 | 그그저께 | 23326 | 그거저께 |
| 23327 | 훗날 | 23327 | 훈날 |
| 23328 | 하룻날 | 23328 | 초하루 |
| 23329 | 이튿날 | 23329 | 초이틀 |
| 23330 | 사흘날 | 23330 | 초사흘 |
| 23331 | 나흘날 | 23331 | 초나흘 |
| 23332 | 닷셋날 | 23332 | 초닷새 |
| 23333 | 엿셋날 | 23333 | 초엿새 |
| 23334 | 이렛날 | 23334 | 초이레 |
| 23335 | 여드렛날 | 23335 | 초여드레 |
| 23336 | 아흐렛날 | 23336 | 초아흐레 |
| 23337 | 열흘날 | 23337 | 여를 |
| 23338 | 하루 | 23338 | 하루 |
| 23339 | 이틀 | 23339 | 이틀 |
| 23340 | 사흘 | 23340 | 사흘 |
| 23341 | 나흘 | 23341 | 나흘 |
| 23342 | 닷새 | 23342 | 닷새 |
| 23343 | 엿새 | 23343 | 엿새 |
| 23344 | 이레 | 23344 | 이레 |

23345 여드레
23346 아흐레
23347 열흘
23348 한나절
23348-1 반나절
23349 그믐
23349-1 그믐께
23350 지금
23351 아직
23352 이제
23353 이미
23354 요즈음
23355 금방

23345 여드레
23346 아흐레
23347 여를
23348 한나절
23348-1 반나절
23349 그믐
23349-1 그믐께
23350 지금
23351 아직
23352 이제
23353 이미
23354 요즘
23355 금방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23401-0-1 -이
23401-0-2 -을
23402 따스하다
23403 아지랑이
23404 응달
23405 양달
23406 비(雨)
23407 가랑비
23408 이슬비
23409 안개
23410 는개
23411 무지개
23412 소나기
23413 갑자기
23414 홍수
23415 번개
23416 천둥
23417 벼락

23401 벼시
23401-0-1 벼세

23402 따스하다
23403 아지랭이
23404 응지
23405 양지
23406 비
23407 가랑비
23408 이슬비
23409 양개
23410 *
23411 무지개
23412 소나기
23413 갑짜기
23414 홍수
23415 병개
23416 천둥
23417 벼락

| | | | |
|-----------|-------|-----------|----------------|
| 23418 | 무섭다 | 23418 | 무섭따 |
| 23419 | 함박눈 | 23419 | 함방눈 |
| 23420 | 싸락눈 | 23420 | 싸리눈 |
| 23421 | 밭자국 | 23421 | 밭짜국 |
| 23422 | 진눈깨비 | 23422 | 진눈깨비 |
| 23423 | 우박 | 23423 | 우박 |
| 23424 | 고드름 | 23424 | 고드름 |
| 23425 | 햇무리 | 23425 | 햐무리 |
| 23426 | 달무리 | 23426 | 달무리 |
| 23427 | 둥글다 | 23427 | 둥글다 |
| 23428 | 은하수 | 23428 | 으나수 |
| 23429 | 금성 | 23429 | * |
| 23430 | 가뭄 | 23430 | 가뭄 |
| 23431 | 마르다 | 23431 | 마른다 |
| 23431-0-1 | -어서 | 23431-0-1 | 말라서 |
| 23432 | 위 | 23432 | 위 |
| 23433 | 아래 | 23433 | 아래 |
| 23434 | 왼쪽 | 23434 | 왼쪽 |
| 23435 | 오른쪽 | 23435 | 오른쪽 |
| 23436 | 걸 | 23436 | 여페(+에), 겨테(+에) |
| 23436-0-1 | -에 | 23436-0-1 | 겨테 |
| 23437 | 회오리바람 | 23437 | 회오리바람 |
| 23438 | 북풍 | 23438 | 북풍 |
| 23439 | 남풍 | 23439 | 남풍 |
| 23440 | 동풍 | 23440 | 동풍 |
| 23441 | 서풍 | 23441 | 서풍 |

제3편 음운

1. 음운 체계

1.1. 단모음

| | | | |
|-----------|----------|-----------|------|
| 31001-0-1 | 테(輪)-이/가 | 31001-0-1 | 테가 |
| 31001-0-2 | 테(輪)-보다 | | |
| 31002-0-1 | 태(胎)-이/가 | 31002 | 태 |
| 31002-0-2 | 태(胎)-보다 | | |
| 31003-0-1 | 떼(群)-이/가 | 31003 | 떼 |
| 31003-0-2 | 떼(群)-보다 | | |
| 31004-0-1 | 때(時)-이/가 | 31004-0-1 | 때가 |
| 31004-0-2 | 때(時)-보다 | | |
| 31005-0-1 | 틀(機)-이/가 | 31005 | 틀 |
| 31005-0-2 | 틀(機)-보다 | | |
| 31006-0-1 | 털(毛)-이/가 | 31006 | 털 |
| 31006-0-2 | 털(毛)-보다 | | |
| 31007-0-1 | 글(文)-이/가 | 31007 | 글 |
| 31007-0-2 | 글(文)-보다 | | |
| 31008-0-1 | 걸(옷)-이/가 | 31008 | 걸 |
| 31008-0-2 | 걸(옷)-보다 | | |
| 31009-0-1 | 기(旗)-이/가 | 31009 | 기 |
| 31009-0-2 | 기(旗)-보다 | | |
| 31010-0-1 | 귀(耳)-이/가 | 31010 | 귀(단) |
| 31010-0-2 | 귀(耳)-보다 | | |

| | | |
|-----------|--------------|--------------|
| 31011-0-1 | 시(生時)-이/가 | 31011 시 |
| 31011-0-2 | 시(生時)-보다 | |
| 31012-0-1 | 쉬(蠅卵)-이/가 | 31012 쉬(단) |
| 31012-0-2 | 쉬(蠅卵)-보다 | |
| 31013-0-1 | 쇠(鐵)-이/가 | 31013 쇠(단) |
| 31013-0-2 | 쇠(鐵)-보다 | |
| 31014-0-1 | 외:국(外國)-이/가 | 31014 외:국(단) |
| 31014-0-2 | 외:국(外國)-보다 | |
| 31015-0-1 | 왜국(倭國)-이/가 | 31015 왜:국 |
| 31015-0-2 | 왜국(倭國)-보다 | |
| 31016-0-1 | 쉬:다(休)-이/가 | 31016 쉼:다(단) |
| 31016-0-2 | 쉬:다(休)-보다 | |
| 31017-0-1 | 쇠:다(설을~)-이/가 | 31017 쉼:다(단) |
| 31017-0-2 | 쇠:다(설을~)-보다 | |
| 31018-0-1 | 베(布)-이/가 | 31018 베 |
| 31018-0-2 | 베(布)-보다 | |
| 31019-0-1 | 배(船)-이/가 | 31019 배 |
| 31019-0-2 | 배(船)-보다 | |
| 31020-0-1 | 배(腹)-이/가 | 31020 배 |
| 31020-0-2 | 배(腹)-보다 | |
| 31021-0-1 | (떡)매-이/가 | 31021 메 |
| 31021-0-2 | (떡)매-보다 | |
| 31022-0-1 | 매(鞭)-이/가 | 31022 매 |
| 31022-0-2 | 매(鞭)-보다 | |

| | | | |
|-----------|-------------|-------|------|
| 31023-0-1 | 메:다(擔)-이/가 | 31023 | 멘:다 |
| 31023-0-2 | 메:다(擔)-보다 | | |
| 31024-0-1 | 매:다(繫)-이/가 | 31024 | 맨:다 |
| 31024-0-2 | 매:다(繫)-보다 | | |
| 31025-0-1 | 떼:다(分離)-이/가 | 31025 | 텐:다 |
| 31025-0-2 | 떼:다(分離)-보다 | | |
| 31026-0-1 | 때:다(炊)-이/가 | 31026 | 뎌:다 |
| 31026-0-2 | 때:다(炊)-보다 | | |
| 31027-0-1 | 베:다(切斷)-이/가 | 31027 | 벤:다 |
| 31027-0-2 | 베:다(切斷)-보다 | | |
| 31028-0-1 | 배:다(孕胎)-이/가 | 31028 | 뵤:다 |
| 31028-0-2 | 배:다(孕胎)-보다 | | |
| 31029-0-1 | 세:다(算)-이/가 | 31029 | 센:다 |
| 31029-0-2 | 세:다(算)-보다 | | |
| 31030-0-1 | 새:다(漏泄)-이/가 | 31030 | 샌:다 |
| 31030-0-2 | 새:다(漏泄)-보다 | | |
| 31031-0-1 | 뒤(後)-이/가 | 31031 | 뒤(단) |
| 31031-0-2 | 뒤(後)-보다 | | |
| 31032-0-1 | 되(升)-이/가 | 31032 | 되(단) |
| 31032-0-2 | 되(升)-보다 | | |
| 31033-0-1 | 게:(蟹)-이/가 | 31033 | 게: |
| 31033-0-2 | 게:(蟹)-보다 | | |
| 31034-0-1 | 개:(犬)-이/가 | 31034 | 개: |
| 31034-0-2 | 개:(犬)-보다 | | |

1.2. 이중모음

| | | | |
|-----------|-------------|------------|--------|
| 31035-0-1 | 여럿(多)-이/가 | 31035-0-1 | 여러시 |
| 31035-0-2 | 여럿(多)-보다 | | |
| 31035-0-3 | 여럿(多)-을/를 | | |
| 31036-0-1 | 물결(波)-이/가 | 31036-0-1 | 물껴리 |
| 31036-0-2 | 물결(波)-보다 | | |
| 31036-0-3 | 물결(波)-을/를 | | |
| 31037-0-1 | 예:의(禮儀)-이/가 | 31037-0-1 | 예이가 |
| 31037-0-2 | 예:의(禮儀)-보다 | | |
| 31037-0-3 | 예:의(禮儀)-을/를 | | |
| 31038-0-1 | 계:획(計劃)-이/가 | | |
| 31038-0-2 | 계:획(計劃)-보다 | | |
| 31038-0-3 | 계:획(計劃)-을/를 | 31038-0-3 | 계획글(단) |
| 31039-0-1 | 규칙(規則)-이/가 | | |
| 31039-0-2 | 규칙(規則)-보다 | | |
| 31039-0-3 | 규칙(規則)-을/를 | 31039-0-3 | 규치글 |
| 31040-0-1 | 휴일(休日)-이/가 | 31040-0-14 | 휴일 |
| 31040-0-2 | 휴일(休日)-보다 | | |
| 31040-0-3 | 휴일(休日)-을/를 | | |
| 31041-0-1 | 교통(交通)-이/가 | 31041-0-1 | 교통이 |
| 31041-0-2 | 교통(交通)-보다 | | |
| 31041-0-3 | 교통(交通)-을/를 | | |
| 31042-0-1 | 효:자(孝子)-이/가 | 31042 | 효자 |
| 31042-0-2 | 효:자(孝子)-보다 | | |
| 31042-0-3 | 효:자(孝子)-을/를 | | |
| 31043-0-1 | 웬일(何事)-이/가 | 31043 | 웬:닐 |

31043-0-2 웬일(何事)-보다
31043-0-3 웬일(何事)-을/를

31044-0-1 궤:(짹)(櫃)-이/가
31044-0-2 궤:(짹)(櫃)-보다
31044-0-3 궤:(짹)(櫃)-을/를

31044 궤

31045-0-1 왜란(倭亂)-이/가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3 왜란(倭亂)-을/를

31045 왜란

31046-0-1 헛대(鷄架)-이/가
31046-0-2 헛대(鷄架)-보다
31046-0-3 헛대(鷄架)-을/를

31046 헛

31047-0-1 원망(怨望)-이/가
31047-0-2 원망(怨望)-보다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7 원:망

31048-0-1 권:투(拳鬪)-이/가
31048-0-2 권:투(拳鬪)-보다
31048-0-3 권:투(拳鬪)-을/를

31048 권:투

31049-0-1 의논(議論)-이/가
31049-0-2 의논(議論)-보다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49 으논

31050-0-1 무늬(紋)-이/가
31050-0-2 무늬(紋)-보다
31050-0-3 무늬(紋)-을/를

31050 무늬

31051-0-1 왕(王)-이/가
31051-0-2 왕(王)-보다
31051-0-3 왕(王)-을/를

31051 왕

31052-0-1 과자(菓子)-이/가

31052 과자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31053-0-1 이:리
31053-0-2 일(一)-보다

31054-0-1 일:(事)-이/가 31054-0-1 이:리
31054-0-2 일:(事)-보다

31055-0-1 매(鞭)-이/가 31055-0-1 매:가
31055-0-2 매(鞭)-보다

31056-0-1 매:(驚)-이/가 31056-0-1 매:가
31056-0-2 매:(驚)-보다

31057-0-1 밤(夜)-이/가 31057-0-1 바:미
31057-0-2 밤(夜)-보다

31058-0-1 밤:(栗)-이/가 31058-0-1 바:미
31058-0-2 밤:(栗)-보다

31059-0-1 눈(眼)-이/가 31059-0-1 누:니
31059-0-2 눈(眼)-보다

31060-0-1 눈:(雪)-이/가 31060-0-1 누:니
31060-0-2 눈:(雪)-보다

31061-0-1 말(馬)-이/가 31061-0-1 마:리
31061-0-2 말(馬)-보다

31062-0-1 말(斗)-이/가 31062-0-1 마:리
31062-0-2 말(斗)-보다

31063-0-1 말:(言)-이/가 31063-0-1 마:리

31063-0-2 말:(言)-보다

31064-0-1 손(客)-이/가

31064-0-1 소니

31064-0-2 손(客)-보다

31065-0-1 손(手)-이/가

31065-0-1 소니

31065-0-2 손(手)-보다

31066-0-1 손:(孫)-이/가

31066-0-1 소:니

31066-0-2 손:(孫)-보다

31067-0-1 배(梨)-이/가

31067-0-1 배가

31067-0-2 배(梨)-보다

31068-0-1 배:(倍)-이/가

31068-0-1 배:가

31068-0-2 배:(倍)-보다

31069-0-1 벌(罰)-이/가

31069-0-1 버를

31069-0-2 벌(罰)-보다

31070-0-1 벌:(蜂)-이/가

31070-0-1 부워:리

31070-0-2 벌:(蜂)-보다

31071-0-1 솔(松)-이/가

31071-0-1 소리

31071-0-2 솔(松)-보다

31072-0-1 솔:(刷)-이/가

31072-0-1 소:리

31072-0-2 솔:(刷)-보다

31073-0-1 줄(鉉)-이/가

31073-0-1 주를

31073-0-2 줄(鉉)-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31074-0-1 주:리

31074-0-2 줄:(연장)-보다

31075-0-1 돌:(石)-이/가

31075-0-1 도:리

31075-0-2 돌:(石)-보다

31076-0-1 담(牆)-이/가

31076-0-1 다미

31076-0-2 담(牆)-보다

31077-0-1 담:(膽)-이/가

31077-0-1 다:미

31077-0-2 담:(膽)-보다

31078-0-1 들:(野)-이/가

31078-0-1 들:

31078-0-2 들:(野)-보다

31079-0-1 달-(懸)-고

31079-0-1 달더라

31079-0-1 달-(懸)-더라

31080-0-1 달-(甘)-고

31080-0-1 달더라

31080-0-2 달-(甘)-더라

31081-0-1 달:-(熱)-고

31081-0-1 달더라

31081-0-2 달:-(熱)-더라

31082-0-1 갈-(換)-고

31082-0-1 갈더라

31082-0-2 갈-(換)-더라

31083-0-1 갈-(磨)-고

31083-0-1 갈더라

31083-0-2 갈-(磨)-더라

31084-0-1 갈:-(耕)-고

31084-0-1 갈더라

31084-0-2 갈:-(耕)-더라

31085-0-1 걷-(收)-고

31085-0-1 걷는다

31085-0-2 걷-(收)-더라

31086-0-1 걷:-(步)-고

31086-0-1 걷:는다

31086-0-2 걷:-(步)-더라

31087-0-1 적-(書)-고

31087-0-1 적떠라

31087-0-2 적-(書)-더라

31088-0-1 적:-(小)-고

31088-0-1 적:떠라

31088-0-2

적:-(小)-더라

2. 음운 과정

2.1. 활용

32001-0-1 막-(防)[ㄱ]-지

32001-0-1 막찌 마

32001-0-2 막-(防)[ㄱ]-고

32001-0-2 막꾸

32001-0-3 막-(防)[ㄱ]-더라

32001-0-3 막떠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32001-0-4 마그니까

32001-0-5 막-(防)[ㄱ]-아/어(았/었다)

32001-0-5 마가두 조타

32002-0-1 흐르-(流)[ㅡ]-지

32002-0-1 흐르지

32002-0-2 흐르-(流)[ㅡ]-고

32002-0-2 흐르구

32002-0-3 흐르-(流)[ㅡ]-더라

32002-0-3 흐르더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32002-0-4 흐르니까

32002-0-5 흐르-(流)[ㅡ]-아/어(았/었다)

32002-0-5 흘러서

32003-0-1 오-(來)[ㅓ]-지

32003-0-1 오지

32003-0-2 오-(來)[ㅓ]-고

32003-0-2 오구

32003-0-3 오-(來)[ㅓ]-더라

32003-0-3 오더라

32003-0-4 오-(來)[ㅓ]-으니까

32003-0-4 오니까

32003-0-5 오-(來)[ㅓ]-아/어(았/었다)

32003-0-5 와두

32004-0-1 듣-(聞)[ㄷ 변]-지

32004-0-1 듣찌 마

32004-0-2 듣-(聞)[ㄷ 변]-고

32004-0-2 득꾸

32004-0-3 듣-(聞)[ㄷ 변]-더라

32004-0-3 듣떠라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32004-0-4 드르니까

32004-0-5 듣-(聞)[ㄷ 변]-아/어(았/었다)

32004-0-5 드러도 조치만

32005-0-1 많:-(多)[ㄴᄃ]-지

32005-0-1 만치

32005-0-2 많:-(多)[ㄴᄃ]-고

32005-0-2 만꾸

| | | | |
|-----------|----------------------|-----------|------|
| 32005-0-3 | 많:-(多)[ㄴㅎ]-더라 | 32005-0-3 | 만터라 |
| 32005-0-4 | 많:-(多)[ㄴㅎ]-으니까 | 32005-0-4 | 마느니까 |
| 32005-0-5 | 많:-(多)[ㄴㅎ]-아/어(왔/었다) | 32005-0-5 | 마나두 |
| 32006-0-1 | 말-(任)[ㅌ]-지 | 32006-0-1 | 말찌 |
| 32006-0-2 | 말-(任)[ㅌ]-고 | 32006-0-2 | 말꾸 |
| 32006-0-3 | 말-(任)[ㅌ]-더라 | 32006-0-3 | 말떠라 |
| 32006-0-4 | 말-(任)[ㅌ]-으니까 | 32006-0-4 | 마트니까 |
| 32006-0-5 | 말-(任)[ㅌ]-아/어(왔/었다) | 32006-0-5 | 마타두 |
| 32007-0-1 | 알:-(知)[ㄹ]-지 | 32007-0-1 | 알:지 |
| 32007-0-2 | 알:-(知)[ㄹ]-고 | 32007-0-2 | 알:구 |
| 32007-0-3 | 알:-(知)[ㄹ]-더라 | 32007-0-3 | 알:더라 |
| 32007-0-4 | 알:-(知)[ㄹ]-으니까 | 32007-0-4 | 아:니까 |
| 32007-0-5 | 알:-(知)[ㄹ]-아/어(왔/었다) | 32007-0-5 | 아라두 |
| 32008-0-1 | 감:-(閉眼)[ㄱ]-지 | 32008-0-1 | 감찌 마 |
| 32008-0-2 | 감:-(閉眼)[ㄱ]-고 | 32008-0-2 | 강꼬 |
| 32008-0-3 | 감:-(閉眼)[ㄱ]-더라 | 32008-0-3 | 감떠라 |
| 32008-0-4 | 감:-(閉眼)[ㄱ]-으니까 | 32008-0-4 | 가므니깐 |
| 32008-0-5 | 감:-(閉眼)[ㄱ]-아/어(왔/었다) | 32008-0-5 | 가마두 |
| 32009-0-1 | 벗-(脫)[ㅍ]-지 | 32009-0-1 | 벌찌 |
| 32009-0-2 | 벗-(脫)[ㅍ]-고 | 32009-0-2 | 벌꾸 |
| 32009-0-3 | 벗-(脫)[ㅍ]-더라 | 32009-0-3 | 벌떠라 |
| 32009-0-4 | 벗-(脫)[ㅍ]-으니까 | 32009-0-4 | 버스니까 |
| 32009-0-5 | 벗-(脫)[ㅍ]-아/어(왔/었다) | 32009-0-5 | 버서두 |
| 32010-0-1 | 올:-(可)[ㄹㅎ]-지 | 32010-0-1 | 올치 |
| 32010-0-2 | 올:-(可)[ㄹㅎ]-고 | 32010-0-2 | 올쿠 |
| 32010-0-3 | 올:-(可)[ㄹㅎ]-더라 | 32010-0-3 | 올터라 |
| 32010-0-4 | 올:-(可)[ㄹㅎ]-으니까 | 32010-0-4 | 오르니까 |
| 32010-0-5 | 올:-(可)[ㄹㅎ]-아/어(왔/었다) | 32010-0-5 | 오라두 |
| 32011-0-1 | 입-(着衣)[ㅂ]-지 | 32011-0-1 | 입찌 |
| 32011-0-2 | 입-(着衣)[ㅂ]-고 | 32011-0-2 | 입꾸 |

| | | |
|-----------|------------------------|-----------------|
| 32011-0-3 | 입-(着衣)[ㅂ]-더라 | 32011-0-3 입떠라 |
| 32011-0-4 | 입-(着衣)[ㅂ]-으니까 | 32011-0-4 이부니 |
| 32011-0-5 | 입-(着衣)[ㅂ]-아/어(왔/었다) | 32011-0-5 이버두 |
| 32012-0-1 | 바꾸-(換)[ㄷ]-지 | 32012-0-1 바꾸지 |
| 32012-0-2 | 바꾸-(換)[ㄷ]-고 | 32012-0-2 바꾸구 |
| 32012-0-3 | 바꾸-(換)[ㄷ]-더라 | 32012-0-3 바꾸더라 |
| 32012-0-4 | 바꾸-(換)[ㄷ]-으니까 | 32012-0-4 바꾸니깐 |
| 32012-0-5 | 바꾸-(換)[ㄷ]-아/어(왔/었다) | 32012-0-5 바뀔두 |
| 32013-0-1 | 덮-(覆)[ㅍ]-지 | 32013-0-1 덮찌 |
| 32013-0-2 | 덮-(覆)[ㅍ]-고 | 32013-0-2 더꾸 |
| 32013-0-3 | 덮-(覆)[ㅍ]-더라 | 32013-0-3 덮떠라 |
| 32013-0-4 | 덮-(覆)[ㅍ]-으니까 | 32013-0-4 더푸니깐 |
| 32013-0-5 | 덮-(覆)[ㅍ]-아/어(왔/었다) | 32013-0-5 더퍼두 |
| 32014-0-1 | 묻:- (問)[ㄷ 변]-지 | 32014-0-1 묻찌 |
| 32014-0-2 | 묻:- (問)[ㄷ 변]-고 | 32014-0-2 묻꾸 |
| 32014-0-3 | 묻:- (問)[ㄷ 변]-더라 | 32014-0-3 묻떠라 |
| 32014-0-4 | 묻:- (問)[ㄷ 변]-으니까 | 32014-0-4 무르니깐 |
| 32014-0-5 | 묻:- (問)[ㄷ 변]-아/어(왔/었다) | 32014-0-5 무러두 |
| 32015-0-1 | 낫:- (癒)[ㅅ 변]-지 | 32015-0-1 낫찌 |
| 32015-0-2 | 낫:- (癒)[ㅅ 변]-고 | 32015-0-2 나:꾸 |
| 32015-0-3 | 낫:- (癒)[ㅅ 변]-더라 | 32015-0-3 낫:떠라 |
| 32015-0-4 | 낫:- (癒)[ㅅ 변]-으니까 | 32015-0-4 나으니깐 |
| 32015-0-5 | 낫:- (癒)[ㅅ 변]-아/어(왔/었다) | 32015-0-5 나아두 |
| 32016-0-1 | 닫-(閉)[ㄷ]-지 | 32016-0-1 닫찌 마라 |
| 32016-0-2 | 닫-(閉)[ㄷ]-고 | 32016-0-2 닫꾸 |
| 32016-0-3 | 닫-(閉)[ㄷ]-더라 | 32016-0-3 닫떠라 |
| 32016-0-4 | 닫-(閉)[ㄷ]-으니까 | 32016-0-4 다드니까 |
| 32016-0-5 | 닫-(閉)[ㄷ]-아/어(왔/었다) | 32016-0-5 다다도 |
| 32017-0-1 | 쫓-(追)[ㅈ]-지 | 32017-0-1 쫓찌 |
| 32017-0-2 | 쫓-(追)[ㅈ]-고 | 32017-0-2 쫓꾸 |

| | | |
|-----------|---------------------|----------------|
| 32017-0-3 | 쫓-(追)[츠]-더라 | 32017-0-3 쫓떠라 |
| 32017-0-4 | 쫓-(追)[츠]-으니까 | 32017-0-4 쫓츠니깐 |
| 32017-0-5 | 쫓-(追)[츠]-아/어(왔/었다) | 32017-0-5 쫓차두 |
| 32018-0-1 | 베:-(枕)[네]-지 | 32018-0-1 베:지 |
| 32018-0-2 | 베:-(枕)[네]-고 | 32018-0-2 베:구 |
| 32018-0-3 | 베:-(枕)[네]-더라 | 32018-0-3 베:더라 |
| 32018-0-4 | 베:-(枕)[네]-으니까 | 32018-0-4 베:니까 |
| 32018-0-5 | 베:-(枕)[네]-아/어(왔/었다) | 32018-0-5 벼:두 |
| 32019-0-1 | 깨:-(破)[헤]-지 | 32019-0-1 깨:지 |
| 32019-0-2 | 깨:-(破)[헤]-고 | 32019-0-2 깨:구 |
| 32019-0-3 | 깨:-(破)[헤]-더라 | 32019-0-3 깨:더라 |
| 32019-0-4 | 깨:-(破)[헤]-으니까 | 32019-0-4 깨:니까 |
| 32019-0-5 | 깨:-(破)[헤]-아/어(왔/었다) | 32019-0-5 깨:두 |
| 32020-0-1 | 펴-(伸)[ㅍ]-지 | 32020-0-1 피지 |
| 32020-0-2 | 펴-(伸)[ㅍ]-고 | 32020-0-2 피구 |
| 32020-0-3 | 펴-(伸)[ㅍ]-더라 | 32020-0-3 피더라 |
| 32020-0-4 | 펴-(伸)[ㅍ]-으니까 | 32020-0-4 피니깐 |
| 32020-0-5 | 펴-(伸)[ㅍ]-아/어(왔/었다) | 32020-0-5 피두 |
| 32021-0-1 | 밝-(明)[ㄹ]-지 | 32021-0-1 박찌 |
| 32021-0-2 | 밝-(明)[ㄹ]-고 | 32021-0-2 바꾸 |
| 32021-0-3 | 밝-(明)[ㄹ]-더라 | 32021-0-3 박떠라 |
| 32021-0-4 | 밝-(明)[ㄹ]-으니까 | 32021-0-4 발그니까 |
| 32021-0-5 | 밝-(明)[ㄹ]-아/어(왔/었다) | 32021-0-5 발가서 |
| 32022-0-1 | 삶:-(烹)[ㅍ]-지 | 32022-0-1 삼:찌 |
| 32022-0-2 | 삶:-(烹)[ㅍ]-고 | 32022-0-2 상:꾸 |
| 32022-0-3 | 삶:-(烹)[ㅍ]-더라 | 32022-0-3 삼:떠라 |
| 32022-0-4 | 삶:-(烹)[ㅍ]-으니까 | 32022-0-4 살므니깐 |
| 32022-0-5 | 삶:-(烹)[ㅍ]-아/어(왔/었다) | 32022-0-5 살마두 |
| 32023-0-1 | 읊-(吟)[ㅍ]-지 | 32023-0-1 읊푸지 |
| 32023-0-2 | 읊-(吟)[ㅍ]-고 | 32023-0-2 읊푸구 |

| | | | |
|-----------|--------------------|-----------|------|
| 32023-0-3 | 음-(吟)[ㄹ]-더라 | 32023-0-3 | 을푸더라 |
| 32023-0-4 | 음-(吟)[ㄹ]-으니까 | 32023-0-4 | 을푸니깐 |
| 32023-0-5 | 음-(吟)[ㄹ]-아/어(왔/었다) | 32023-0-5 | 을퍼두 |

| | | | |
|-----------|---------------------|-----------|------|
| 32024-0-1 | 밟:-(踏)[ㅅ]-지 | 32024-0-1 | 밟찌 |
| 32024-0-2 | 밟:-(踏)[ㅅ]-고 | 32024-0-2 | 밟꾸 |
| 32024-0-3 | 밟:-(踏)[ㅅ]-더라 | 32024-0-3 | 밟떠라 |
| 32024-0-4 | 밟:-(踏)[ㅅ]-으니까 | 32024-0-4 | 밟부니깐 |
| 32024-0-5 | 밟:-(踏)[ㅅ]-아/어(왔/었다) | 32024-0-5 | 밟바두 |

| | | | |
|-----------|----------------------|-----------|-----|
| 32025-0-1 | 하-(爲)[ㅏ 변]-지 | 32025-0-1 | 허지 |
| 32025-0-2 | 하-(爲)[ㅏ 변]-고 | 32025-0-2 | 허구 |
| 32025-0-3 | 하-(爲)[ㅏ 변]-더라 | 32025-0-3 | 허더라 |
| 32025-0-4 | 하-(爲)[ㅏ 변]-으니까 | 32025-0-4 | 허니깐 |
| 32025-0-5 |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 32025-0-5 | 헤:두 |

| | | | |
|-----------|--------------------|-----------|-----|
| 32026-0-1 | 맺-(結)[ㅈ]-지 | 32026-0-1 | 매찌 |
| 32026-0-2 | 맺-(結)[ㅈ]-고 | 32026-0-2 | 매꾸 |
| 32026-0-3 | 맺-(結)[ㅈ]-더라 | 32026-0-3 | 매떠라 |
| 32026-0-4 | 맺-(結)[ㅈ]-으니까 | 32026-0-4 | 매즈니 |
| 32026-0-5 | 맺-(結)[ㅈ]-아/어(왔/었다) | 32026-0-5 | 매저두 |

| | | | |
|-----------|---------------------|-----------|------|
| 32027-0-1 | 엷:-(無)[ㅈ]-지 | 32027-0-1 | 엷:찌 |
| 32027-0-2 | 엷:-(無)[ㅈ]-고 | 32027-0-2 | 엷:꾸 |
| 32027-0-3 | 엷:-(無)[ㅈ]-더라 | 32027-0-3 | 엷:떠라 |
| 32027-0-4 | 엷:-(無)[ㅈ]-으니까 | 32027-0-4 | 엷스니까 |
| 32027-0-5 | 엷:-(無)[ㅈ]-아/어(왔/었다) | 32027-0-5 | 엷써두 |

| | | | |
|-----------|--------------------|-----------|------|
| 32028-0-1 | 앉-(坐)[ㄴ]-지 | 32028-0-1 | 안찌 |
| 32028-0-2 | 앉-(坐)[ㄴ]-고 | 32028-0-2 | 안꾸 |
| 32028-0-3 | 앉-(坐)[ㄴ]-더라 | 32028-0-3 | 안떠라 |
| 32028-0-4 | 앉-(坐)[ㄴ]-으니까 | 32028-0-4 | 안즈니까 |
| 32028-0-5 | 앉-(坐)[ㄴ]-아/어(왔/었다) | 32028-0-5 | 안저두 |

| | | | |
|-----------|-------------|-----------|-----|
| 32029-0-1 | 비비-(刮)[ㅣ]-지 | 32029-0-1 | 비비지 |
| 32029-0-2 | 비비-(刮)[ㅣ]-고 | 32029-0-2 | 비비구 |

| | | | |
|-----------|---------------------|-----------|------|
| 32029-0-3 | 비비-(刮)[ㅣ]-더라 | 32029-0-3 | 비비더라 |
| 32029-0-4 | 비비-(刮)[ㅣ]-으니까 | 32029-0-4 | 비비니까 |
| 32029-0-5 | 비비-(刮)[ㅣ]-아/어(왔/었다) | 32029-0-5 | 비벼두 |

| | | | |
|-----------|--------------------|-----------|-----|
| 32030-0-1 | 끄-(消)[ㅡ]-지 | 32030-0-1 | 끄지 |
| 32030-0-2 | 끄-(消)[ㅡ]-고 | 32030-0-2 | 끄구 |
| 32030-0-3 | 끄-(消)[ㅡ]-더라 | 32030-0-3 | 끄더라 |
| 32030-0-4 | 끄-(消)[ㅡ]-으니까 | 32030-0-4 | 끄니까 |
| 32030-0-5 | 끄-(消)[ㅡ]-아/어(왔/었다) | 32030-0-5 | 꺼두 |

| | | | |
|-----------|--------------------|-----------|------|
| 32031-0-1 | 꺾-(折)[ㄷ]-지 | 32031-0-1 | 꺾찌 마 |
| 32031-0-2 | 꺾-(折)[ㄷ]-고 | 32031-0-2 | 꺾꾸 |
| 32031-0-3 | 꺾-(折)[ㄷ]-더라 | 32031-0-3 | 꺾떠라 |
| 32031-0-4 | 꺾-(折)[ㄷ]-으니까 | 32031-0-4 | 꺾끄니까 |
| 32031-0-5 | 꺾-(折)[ㄷ]-아/어(왔/었다) | 32031-0-5 | 꺼꺼두 |

| | | | |
|-----------|---------------------|-----------|---------|
| 32032-0-1 | 신:-(履)[ㄴ]-지 | 32032-0-1 | 씬찌를 마리라 |
| 32032-0-2 | 신:-(履)[ㄴ]-고 | 32032-0-2 | 씬꼬 |
| 32032-0-3 | 신:-(履)[ㄴ]-더라 | 32032-0-3 | 씬떠라 |
| 32032-0-4 | 신:-(履)[ㄴ]-으니까 | 32032-0-4 | 씬느니까 |
| 32032-0-5 | 신:-(履)[ㄴ]-아/어(왔/었다) | 32032-0-5 | 씬너두 |

| | | | |
|-----------|--------------------|-----------|-----|
| 32033-0-1 | 보-(視)[ㅂ]-지 | 32033-0-1 | 보지 |
| 32033-0-2 | 보-(視)[ㅂ]-고 | 32033-0-2 | 보구 |
| 32033-0-3 | 보-(視)[ㅂ]-더라 | 32033-0-3 | 보더라 |
| 32033-0-4 | 보-(視)[ㅂ]-으니까 | 32033-0-4 | 보니까 |
| 32033-0-5 | 보-(視)[ㅂ]-아/어(왔/었다) | 32033-0-5 | 봐두 |

| | | | |
|-----------|--------------------|-----------|-----|
| 32034-0-1 | 추-(舞)[ㅈ]-지 | 32034-0-1 | 추지 |
| 32034-0-2 | 추-(舞)[ㅈ]-고 | 32034-0-2 | 추구 |
| 32034-0-3 | 추-(舞)[ㅈ]-더라 | 32034-0-3 | 추더라 |
| 32034-0-4 | 추-(舞)[ㅈ]-으니까 | 32034-0-4 | 추니까 |
| 32034-0-5 | 추-(舞)[ㅈ]-아/어(왔/었다) | 32034-0-5 | 춰두 |

| | | | |
|-----------|--------------|-----------|----|
| 32035-0-1 | 피우-(吸煙)[ㅍ]-지 | 32035-0-1 | 피지 |
| 32035-0-2 | 피우-(吸煙)[ㅍ]-고 | 32035-0-2 | 피구 |

| | | | |
|-----------|----------------------|-----------|------|
| 32035-0-3 | 피우-(吸煙)[ㅌ]-더라 | 32035-0-3 | 피더라 |
| 32035-0-4 | 피우-(吸煙)[ㅌ]-으니까 | 32035-0-4 | 피우니깐 |
| 32035-0-5 | 피우-(吸煙)[ㅌ]-아/어(왔/었다) | 32035-0-5 | 피워두 |
| 32036-0-1 | 서-(立)[ㅅ]-지 | 32036-0-1 | 서지 |
| 32036-0-2 | 서-(立)[ㅅ]-고 | 32036-0-2 | 서구 |
| 32036-0-3 | 서-(立)[ㅅ]-더라 | 32036-0-3 | 서더라 |
| 32036-0-4 | 서-(立)[ㅅ]-으니까 | 32036-0-4 | 서니까 |
| 32036-0-5 | 서-(立)[ㅅ]-아/어(왔/었다) | 32036-0-5 | 서두 |
| 32037-0-1 | 기-(匍腹)[ㅣ]-지 | 32037-0-1 | 기지 |
| 32037-0-2 | 기-(匍腹)[ㅣ]-고 | 32037-0-2 | 기구 |
| 32037-0-3 | 기-(匍腹)[ㅣ]-더라 | 32037-0-3 | 기더라 |
| 32037-0-4 | 기-(匍腹)[ㅣ]-으니까 | 32037-0-4 | 기니까 |
| 32037-0-5 | 기-(匍腹)[ㅣ]-아/어(왔/었다) | 32037-0-5 | 겨두 |
| 32038-0-1 | 이-(戴)[ㅣ]-지 | 32038-0-1 | 이지 |
| 32038-0-2 | 이-(戴)[ㅣ]-고 | 32038-0-2 | 이구 |
| 32038-0-3 | 이-(戴)[ㅣ]-더라 | 32038-0-3 | 이더라 |
| 32038-0-4 | 이-(戴)[ㅣ]-으니까 | 32038-0-4 | 이니깐 |
| 32038-0-5 | 이-(戴)[ㅣ]-아/어(왔/었다) | 32038-0-5 | 여두 |
| 32039-0-1 | 아니-(否)[ㅣ]-지 | 32039-0-1 | 아니지 |
| 32039-0-2 | 아니-(否)[ㅣ]-고 | 32039-0-2 | 아니구 |
| 32039-0-3 | 아니-(否)[ㅣ]-더라 | 32039-0-3 | 아니더라 |
| 32039-0-4 | 아니-(否)[ㅣ]-으니까 | 32039-0-4 | 아니니깐 |
| 32039-0-5 | 아니-(否)[ㅣ]-아/어(왔/었다) | 32039-0-5 | 아니라두 |
| 32040-0-1 | 되-(升)[ㅍ]-지 | 32040-0-1 | 되지 |
| 32040-0-2 | 되-(升)[ㅍ]-고 | 32040-0-2 | 되구 |
| 32040-0-3 | 되-(升)[ㅍ]-더라 | 32040-0-3 | 되더라 |
| 32040-0-4 | 되-(升)[ㅍ]-으니까 | 32040-0-4 | 되니깐 |
| 32040-0-5 | 되-(升)[ㅍ]-아/어(왔/었다) | 32040-0-5 | 되두 |
| 32041-0-1 | 있-(有)[ㅅ]-지 | 32041-0-1 | 이찌 |
| 32041-0-2 | 있-(有)[ㅅ]-고 | 32041-0-2 | 이꾸 |

| | | | |
|-----------|-----------------------|-----------|------|
| 32041-0-3 | 있-(有)[ㅅ]-더라 | 32041-0-3 | 일떠라 |
| 32041-0-4 | 있-(有)[ㅅ]-으니까 | 32041-0-4 | 이쓰니까 |
| 32041-0-5 | 있-(有)[ㅅ]-아/어(왔/었다) | 32041-0-5 | 이써두 |
| 32042-0-1 | 놓-(放)[ㅎ]-지 | 32042-0-1 | 노치 |
| 32042-0-2 | 놓-(放)[ㅎ]-고 | 32042-0-2 | 노꾸 |
| 32042-0-3 | 놓-(放)[ㅎ]-더라 | 32042-0-3 | 노터라 |
| 32042-0-4 | 놓-(放)[ㅎ]-으니까 | 32042-0-4 | 노:니까 |
| 32042-0-5 | 놓-(放)[ㅎ]-아/어(왔/었다) | 32042-0-5 | 노와두 |
| 32043-0-1 | 훔-(擄)[ㅈ]-지 | 32043-0-1 | 홀찌 |
| 32043-0-2 | 훔-(擄)[ㅈ]-고 | 32043-0-2 | 홀꾸 |
| 32043-0-3 | 훔-(擄)[ㅈ]-더라 | 32043-0-3 | 홀떠라 |
| 32043-0-4 | 훔-(擄)[ㅈ]-으니까 | 32043-0-4 | 홀트니까 |
| 32043-0-5 | 훔-(擄)[ㅈ]-아/어(왔/었다) | 32043-0-5 | 홀터두 |
| 32044-0-1 | 곰:-(麗)[ㅂ 변]-지 | 32044-0-1 | 고웁찌 |
| 32044-0-2 | 곰:-(麗)[ㅂ 변]-고 | 32044-0-2 | 곰:꾸 |
| 32044-0-3 | 곰:-(麗)[ㅂ 변]-더라 | 32044-0-3 | 곰:떠라 |
| 32044-0-4 | 곰:-(麗)[ㅂ 변]-으니까 | 32044-0-4 | 고우니 |
| 32044-0-5 | 곰:-(麗)[ㅂ 변]-아/어(왔/었다) | 32044-0-5 | 고와두 |
| 32045-0-1 | 쥐:-(握)[ㄱ]-지 | 32045-0-1 | 쥐:지 |
| 32045-0-2 | 쥐:-(握)[ㄱ]-고 | 32045-0-2 | 쥐:구 |
| 32045-0-3 | 쥐:-(握)[ㄱ]-더라 | 32045-0-3 | 쥐:더라 |
| 32045-0-4 | 쥐:-(握)[ㄱ]-으니까 | 32045-0-4 | 쥐:니까 |
| 32045-0-5 | 쥐:-(握)[ㄱ]-아/어(왔/었다) | 32045-0-5 | 쥐어두 |
| 32046-0-1 | 가-(去)[ㄱ]-지 | 32046-0-1 | 가지 |
| 32046-0-2 | 가-(去)[ㄱ]-고 | 32046-0-2 | 가구 |
| 32046-0-3 | 가-(去)[ㄱ]-더라 | 32046-0-3 | 가더라 |
| 32046-0-4 | 가-(去)[ㄱ]-으니까 | 32046-0-4 | 가니까 |
| 32046-0-5 | 가-(去)[ㄱ]-아/어(왔/었다) | 32046-0-5 | 가두 |

2) 일반 항목

| | | | |
|-----------|------------------|-----------|----|
| 32047-0-1 | 먹-(食)-지, -고, -더라 | 32047-0-1 | 먹꾸 |
|-----------|------------------|-----------|----|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47-0-2 머거두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32048-0-1 뜯꼬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48-0-2 뜨더두 조치만

32049-0-1 같-(如)-지, -고, -더라

32049-0-1 같꾸

32049-0-2 같-(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49-0-2 가태서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32050-0-1 얕꾸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0-0-2 야타서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32051-0-1 *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1-0-2 *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32052-0-1 날:구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2-0-2 나라간다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32053-0-1 울지 마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3-0-2 우리두

32054-0-1 일:-(洵)-지, -고, -더라

32054-0-1 이르고

32054-0-2 일:-(洵)-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4-0-2 이려도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32055-0-1 얼:구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5-0-2 어러두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32056-0-1 넘꾸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6-0-2 너머두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32057-0-1 숨꾸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7-0-2 수머두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32058-0-1 쉽:꾸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8-0-2 쉬워두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32059-0-1 눅꾸

32059-0-2 눕:- (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9-0-2 누워두

32060-0-1 김:- (縫)-지, -고, -더라

32060-0-1 김:꾸

32060-0-2 김:- (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0-0-2 기어두

32061-0-1 밍:- (憎)-지, -고, -더라

32061-0-1 밍꾸

32061-0-2 밍:- (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1-0-2 미워두

32062-0-1 높:- (高)-지, -고, -더라

32062-0-1 높꾸

32062-0-2 높:- (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2-0-2 노파두

32063-0-1 짓:- (作)-지, -고, -더라

32063-0-1 짓:꾸

32063-0-2 짓:- (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3-0-2 지워두

32064-0-1 붓:- (腫)-지, -고, -더라

32064-0-1 부:꾸

32064-0-2 붓:- (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4-0-2 부어두

32065-0-1 웃:- (笑)-지, -고, -더라

32065-0-1 웃:꾸

32065-0-2 웃:- (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5-0-2 우서라

32066-0-1 짓:- (吠)-지, -고, -더라

32066-0-1 지꾸

32066-0-2 짓:- (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6-0-2 지저두

32067-0-1 꽃:- (插)-지, -고, -더라

32067-0-1 꼰꼬

32067-0-2 꽃:- (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7-0-2 꼬저두

32068-0-1 낱:- (産)-지, -고, -더라

32068-0-1 나:꾸

32068-0-2 낱:- (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8-0-2 나아두

32069-0-1 땅:- (辯)-지, -고, -더라

32069-0-1 따:꾸

32069-0-2 땅:- (辯)-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9-0-2 따아두

32070-0-1 끊:- (切)-지, -고, -더라

32070-0-1 끈치 마라, 끈꾸, 끈터라

32070-0-2 끊:- (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0-0-2 끄너도

32071-0-1 괜찮:- (無妨)-지, -고, -더라

32071-0-1 괜찬꾸, 괜찬터라

| | | | |
|-----------|---------------------------------|-----------|-------|
| 32071-0-2 |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71-0-2 | 괜찮느니까 |
| 32072-0-1 | 읽-(讀)-지, -고, -더라 | 32072-0-1 | 익꾸 |
| 32072-0-2 | 읽-(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72-0-2 | 일거두 |
| 32073-0-1 | 떨-(灑)-지, -고, -더라 | 32073-0-1 | 떨:꾸 |
| 32073-0-2 | 떨-(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73-0-2 | 떨버두 |
| 32074-0-1 | 옮-(遷)-지, -고, -더라 | 32074-0-1 | 오루고 |
| 32074-0-2 | 옮-(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74-0-2 | 올라두 |
| 32075-0-1 | 뚫-(貫)-지, -고, -더라 | 32075-0-1 | 뚜르구 |
| 32075-0-2 | 뚫-(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75-0-2 | 뚫러두 |
| 32076-0-1 | 꿇-(跪)-지, -고, -더라 | 32076-0-1 | 꿀꾸 |
| 32076-0-2 | 꿇-(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76-0-2 | 꾸러두 |
| 32077-0-1 | 닿-(扨, 연필 심이)-지, -고, -더라 | 32077-0-1 | 달꾸 |
| 32077-0-2 | 닿-(扨,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77-0-2 | 다라두 |
| 32078-0-1 | 닿-(煎, 장이)-지, -고, -더라 | 32078-0-1 | * |
| 32078-0-2 | 닿-(煎, 장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78-0-2 | * |
| 32079-0-1 | 짜-(鹽)-지, -고, -더라 | 32079-0-1 | 짜구 |
| 32079-0-2 | 짜-(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79-0-2 | 짜서 |
| 32080-0-1 | 말-(捲)-지, -고, -더라 | 32080-0-1 | 마라도 |
| 32080-0-2 | 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80-0-2 | 말구 |
| 32081-0-1 | 쓰-(書)-지, -고, -더라 | 32081-0-1 | 쓰구 |
| 32081-0-2 | 쓰-(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81-0-2 | 써도 |
| 32082-0-1 | 오르-(登)-지, -고, -더라 | 32082-0-1 | 오루구 |
| 32082-0-2 |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82-0-2 | 오루더라 |
| 32083-0-1 | 바쁘-(忙)-지, -고, -더라 | 32083-0-1 | 바뿌구 |

| | | | |
|-----------|--------------------------------|-----------|--------|
| 32083-0-2 |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83-0-2 | 바빠두 |
| 32084-0-1 | 고프-(餓)-지, -고, -더라 | 32084-0-1 | 고푸고 |
| 32084-0-2 |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84-0-2 | 고파두 |
| 32085-0-1 | 쏘-(射)-지, -고, -더라 | 32085-0-1 | 쏘:고 |
| 32085-0-2 | 쏘-(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85-0-2 | 췌:두 |
| 32086-0-1 | 꾸-(夢)-지, -고, -더라 | 32086-0-1 | 꾸구 |
| 32086-0-2 | 꾸-(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86-0-2 | 꿔:도 |
| 32087-0-1 | 머무르-(留)-지, -고, -더라 | 32087-0-1 | 머무루구 |
| 32087-0-2 |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87-0-2 | 머무리두 |
| 32088-0-1 | 다듬-(整)-지, -고, -더라 | 32088-0-1 | 다듬꼬 |
| 32088-0-2 |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88-0-2 | 다드머두 |
| 32089-0-1 | 견디-(忍)-지, -고, -더라 | 32089-0-1 | 견디구 |
| 32089-0-2 |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89-0-2 | 견더두 |
| 32090-0-1 | 말리-(裁)-지, -고, -더라 | 32090-0-1 | 말리구 |
| 32090-0-2 |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90-0-2 | 말려두 |
| 32091-0-1 |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 32091-0-1 | 끼:구 |
| 32091-0-2 |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91-0-2 | 끼었다 |
| 32092-0-1 | 마시-(飲)-지, -고, -더라 | 32092-0-1 | 마시구 |
| 32092-0-2 |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92-0-2 | 마셔두 조타 |
| 32093-0-1 | 세:-(强)-지, -고, -더라 | 32093-0-1 | 췌구 |
| 32093-0-2 | 세:-(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93-0-2 | 췌:두 |
| 32094-0-1 | 포개-(重疊)-지, -고, -더라 | 32094-0-1 | 포개구 |
| 32094-0-2 |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094-0-2 | 포개두 조타 |
| 32095-0-1 | 두드리-(敲)-지, -고, -더라 | 32095-0-1 | 두들기고 |

| | | | |
|-----------|-----------------------------|-----------|--------|
| 32095-0-2 |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95-0-2 | 두들겨두 |
| 32096-0-1 | 켜-(點燈)-지, -고, -더라 | 32096-0-1 | 키구 |
| 32096-0-2 |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96-0-2 | 켜두 조타 |
| 32097-0-1 | 쇠:-(바람을)-지, -고, -더라 | 32097-0-1 | 쇠구 |
| 32097-0-2 | 쇠:-(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97-0-2 | 쇠:두 조타 |
| 32098-0-1 | 쇠-(老)-지, -고, -더라 | 32098-0-1 | 쇠:구 |
| 32098-0-2 |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98-0-2 | 쇠:두 |
| 32099-0-1 | 쉬:-(饅)-지, -고, -더라 | 32099-0-1 | 쇠:구 |
| 32099-0-2 | 쉬:-(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99-0-2 | 쇠:두 |
| 32100-0-1 | 희-(白)-지, -고, -더라 | 32100-0-1 | 히구 |
| 32100-0-2 | 희-(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00-0-2 | 혀:두 |
| 32101-0-1 | 볶-(炒)-지, -고, -더라 | 32101-0-1 | 보꾸고 |
| 32101-0-2 |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01-0-2 | 보까두 |
| 32102-0-1 | 안:-(抱)-지, -고, -더라 | 32102-0-1 | 양꼬 |
| 32102-0-2 |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02-0-2 | 아나두 |
| 32103-0-1 | 묻-(埋)-지, -고, -더라 | 32103-0-1 | 묻꼬 |
| 32103-0-2 |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03-0-2 | 무더두 |
| 32104-0-1 | 불:-(吹)-지, -고, -더라 | 32104-0-1 | 불:구 |
| 32104-0-2 |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04-0-2 | 부러두 |
| 32105-0-1 | 빨-(洗濯)-지, -고, -더라 | 32105-0-1 | 빨:구 |
| 32105-0-2 |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05-0-2 | 빠라두 |
| 32106-0-1 | 죽-(死)-지, -고, -더라 | 32106-0-1 | 죽꾸 |
| 32106-0-2 | 죽-(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06-0-2 | 주거두 |
| 32107-0-1 | 걸:-(步)-지, -고, -더라 | 32107-0-1 | 거:꾸 |

| | | | |
|-----------|---------------------------|-----------|------|
| 32107-0-2 | 걸:-(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07-0-2 | 거리두 |
| 32108-0-1 | 가물-(旱)-지, -고, -더라 | 32108-0-1 | 가물구 |
| 32108-0-2 |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08-0-2 | 가무려서 |
| 32109-0-1 | 졸:-(睡)-지, -고, -더라 | 32109-0-1 | 졸:구 |
| 32109-0-2 | 졸:-(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09-0-2 | 조라두 |
| 32110-0-1 | 쓸-(掃)-지, -고, -더라 | 32110-0-1 | 쓸:구 |
| 32110-0-2 | 쓸-(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10-0-2 | 쓰러두 |
| 32111-0-1 | 감:-(捲)-지, -고, -더라 | 32111-0-1 | 감:꾸 |
| 32111-0-2 | 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11-0-2 | 가마도 |
| 32112-0-1 | 더듬-(摸)-지, -고, -더라 | 32112-0-1 | 더듬꾸 |
| 32112-0-2 |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12-0-2 | 더드머두 |
| 32113-0-1 | 굽:-(炙)-지, -고, -더라 | 32113-0-1 | 굽:꾸 |
| 32113-0-2 | 굽:-(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13-0-2 | 구어두 |
| 32114-0-1 | 무겁-(重)-지, -고, -더라 | 32114-0-1 | 무거꾸 |
| 32114-0-2 |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14-0-2 | 무거워서 |
| 32115-0-1 | 잇:-(連)-지, -고, -더라 | 32115-0-1 | 이:꼬 |
| 32115-0-2 | 잇:-(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15-0-2 | 이어두 |
| 32116-0-1 | 빗-(梳)-지, -고, -더라 | 32116-0-1 | 빗꾸 |
| 32116-0-2 | 빗-(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16-0-2 | 비서두 |
| 32117-0-1 | 까맣-(黑)-지, -고, -더라 | 32117-0-1 | 까마쿠 |
| 32117-0-2 |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17-0-2 | 까매서 |
| 32118-0-1 | 넣-(入)-지, -고, -더라 | 32118-0-1 | 누쿠 |
| 32118-0-2 | 넣-(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18-0-2 | 누어두 |
| 32119-0-1 | 고:-(煮)-지, -고, -더라 | 32119-0-1 | 고:구 |

| | | | |
|-----------|-------------------------------|-----------|------|
| 32119-0-2 | 고:-(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19-0-2 | 과:두 |
| 32120-0-1 | 엎-(載)-지, -고, -더라 | 32120-0-1 | 언꾸 |
| 32120-0-2 | 엎-(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20-0-2 | 언저두 |
| 32121-0-1 | 귀찮-(囁)-지, -고, -더라 | 32121-0-1 | 구찬꾸 |
| 32121-0-2 | 귀찮-(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21-0-2 | 구차나서 |
| 32122-0-1 | 바르-(剔, 빠를)-지, -고, -더라 | 32122-0-1 | * |
| 32122-0-2 | 바르-(剔, 빠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22-0-2 | * |
| 32123-0-1 | 맑-(淸)-지, -고, -더라 | 32123-0-1 | 말꾸 |
| 32123-0-2 | 맑-(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23-0-2 | 말가두 |
| 32124-0-1 | 굶-(餓)-지, -고, -더라 | 32124-0-1 | 곰:꾸 |
| 32124-0-2 | 굶-(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24-0-2 | 골마두 |
| 32125-0-1 | 굶-(太)-지, -고, -더라 | 32125-0-1 | 굴:꾸 |
| 32125-0-2 | 굶-(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25-0-2 | 굴거서 |
| 32126-0-1 | 얇-(薄)-지, -고, -더라 | 32126-0-1 | 얇:꾸 |
| 32126-0-2 | 얇-(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26-0-2 | 얇바도 |
| 32127-0-1 | 쑤-(春)-지, -고, -더라 | 32127-0-1 | 쑤구 |
| 32127-0-2 | 쑤-(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27-0-2 | 쑤러두 |
| 32128-0-1 | 잃-(失)-지, -고, -더라 | 32128-0-1 | 일꾸 |
| 32128-0-2 | 잃-(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28-0-2 | 이러두 |
| 32129-0-1 | 핥-(舐)-지, -고, -더라 | 32129-0-1 | 핥꾸 |
| 32129-0-2 | 핥-(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29-0-2 | 핥타두 |
| 32130-0-1 | 짧-(短)-지, -고, -더라 | 32130-0-1 | 짧꾸 |
| 32130-0-2 | 짧-(短)-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30-0-2 | 짧바도 |
| 32131-0-1 | 놀라-(驚)-지, -고, -더라 | 32131-0-1 | 놀래구 |

| | | |
|-----------|--------------------------------|----------------|
| 32131-0-2 |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31-0-2 놀래두 |
| 32132-0-1 | 자-(宿)-지, -고, -더라 | 32132-0-1 자구 |
| 32132-0-2 | 자-(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32-0-2 자두 |
| 32133-0-1 | 못:하-(不爲)-지, -고, -더라 | 32133-0-1 모타고 |
| 32133-0-2 |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33-0-2 모태두 |
| 32134-0-1 | 모르-(不知)-지, -고, -더라 | 32134-0-1 모루고 |
| 32134-0-2 | 모르-(不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34-0-2 몰라두 |
| 32135-0-1 | 아프-(痛)-지, -고, -더라 | 32135-0-1 아프구 |
| 32135-0-2 |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35-0-2 아파두 |
| 32136-0-1 | 크-(大)-지, -고, -더라 | 32136-0-1 크구 |
| 32136-0-2 | 크-(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36-0-2 커두 |
| 32137-0-1 |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 32137-0-1 꼬:구 |
| 32137-0-2 |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37-0-2 째:두 |
| 32138-0-1 | 쭈-(造粥)-지, -고, -더라 | 32138-0-1 쭈:구 |
| 32138-0-2 |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38-0-2 쭈두 |
| 32139-0-1 | 맞추-(組合)-지, -고, -더라 | 32139-0-1 마추구 |
| 32139-0-2 |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39-0-2 마춰두 |
| 32140-0-1 | 테우-(梧)-지, -고, -더라 | 32140-0-1 테우구 |
| 32140-0-2 | 테우-(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40-0-2 테워두 |
| 32141-0-1 |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 32141-0-1 이:구 |
| 32141-0-2 | 이:-(盖,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41-0-2 여두 |
| 32142-0-1 | 갈기-(打)-지, -고, -더라 | 32142-0-1 갈기구 |
| 32142-0-2 |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42-0-2 갈겨두 |
| 32143-0-1 | 기다리-(待)-지, -고, -더라 | 32143-0-1 기다리구 |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3-0-2 기다려두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32144-0-1 세:구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4-0-2 세:두 조타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32145-0-1 빼:구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5-0-2 빼:두 조타

32146-0-1 켜-(툽을)-지, -고, -더라

32146-0-1 키구

32146-0-2 켜-(툽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6-0-2 켜두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32147-0-1 되:구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7-0-2 되:두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32148-0-1 쉬:구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8-0-2 쉬어두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32149-0-1 할퀴구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9-0-2 할켜두

32150-0-1 눈:-(爇)-지, -고, -더라

32150-0-1 누루고

32150-0-2 눈:-(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0-0-2 누리두

32151-0-1 깨달-(覺)-지, -고, -더라

32151-0-1 깨다구

32151-0-2 깨달-(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1-0-2 깨다라두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32152-0-1 마렵꾸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2-0-2 마려워두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32153-0-1 부끄럽꾸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3-0-2 부끄러워두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32154-0-1 가깝꾸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4-0-2 가까와두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32155-0-1 기푸고

| | | |
|-----------|---------------------------|---------------|
| 32155-0-2 | 깊-(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55-0-2 기퍼서 |
| 32156-0-1 | 긋-(刮)-지, -고, -더라 | 32156-0-1 그:꾸 |
| 32156-0-2 | 긋-(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56-0-2 그어두 |
| 32157-0-1 | 씻-(洗)-지, -고, -더라 | 32157-0-1 씹꾸 |
| 32157-0-2 | 씻-(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57-0-2 씹어두 |
| 32158-0-1 | 쥌-(搗)-지, -고, -더라 | 32158-0-1 찌:꾸 |
| 32158-0-2 | 쥌-(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58-0-2 찌어두 |
| 32159-0-1 | 깎-(擻)-지, -고, -더라 | 32159-0-1 갈그꾸 |
| 32159-0-2 | 깎-(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59-0-2 갈거두 |
| 32160-0-1 | 굶-(飢)-지, -고, -더라 | 32160-0-1 굶:꼬 |
| 32160-0-2 | 굶-(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60-0-2 굶머두 |
| 32161-0-1 | 닮-(似)-지, -고, -더라 | 32161-0-1 담:꾸 |
| 32161-0-2 | 닮-(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61-0-2 달마두 |
| 32162-0-1 | 싫-(厭)-지, -고, -더라 | 32162-0-1 실꾸 |
| 32162-0-2 | 싫-(厭)-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62-0-2 시러두 |
| 32163-0-1 | 끓-(𩪖)-지, -고, -더라 | 32163-0-1 끓:꾸 |
| 32163-0-2 | 끓-(𩪖)-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63-0-2 고라서 |
| 32164-0-1 | 붓-(注)-지, -고, -더라 | 32164-0-1 부:꾸 |
| 32164-0-2 | 붓-(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64-0-2 부어두 |
| 32165-0-1 | 타-(乘)-지, -고, -더라 | 32165-0-1 타꾸 |
| 32165-0-2 | 타-(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65-0-2 타두 |
| 32166-0-1 | 마르-(乾)-지, -고, -더라 | 32166-0-1 마르꾸 |
| 32166-0-2 |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66-0-2 말라두 |
| 32167-0-1 | 쓰-(苦)-지, -고, -더라 | 32167-0-1 쓰꾸 |

| | | |
|-----------|------------------------------|------------------|
| 32167-0-2 | 쓰-(苦)-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67-0-2 써도 |
| 32168-0-1 | 슬프-(哀)-지, -고, -더라 | 32168-0-1 슬푸구 |
| 32168-0-2 |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68-0-2 슬퍼두 |
| 32169-0-1 | 기쁘-(喜)-지, -고, -더라 | 32169-0-1 기뿌고 |
| 32169-0-2 |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69-0-2 기빠도 |
| 32170-0-1 | 쏘-(蜚, 벌이)-지, -고, -더라 | 32170-0-1 쏘:구 |
| 32170-0-2 | 쏘-(蜚, 벌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70-0-2 쏘:두 |
| 32171-0-1 | 주-(與)-지, -고, -더라 | 32171-0-1 주구 |
| 32171-0-2 | 주-(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71-0-2 주어두 |
| 32172-0-1 | 키우-(飼育)-지, -고, -더라 | 32172-0-1 키우고 |
| 32172-0-2 |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72-0-2 키워두 |
| 32173-0-1 | 가두-(囚)-지, -고, -더라 | 32173-0-1 가두고 |
| 32173-0-2 |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73-0-2 가둬도 조타 |
| 32174-0-1 | 부수-(碎)-지, -고, -더라 | 32174-0-1 부수구 |
| 32174-0-2 |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74-0-2 부서두 |
| 32175-0-1 | 나누-(分)-지, -고, -더라 | 32175-0-1 논꾸 |
| 32175-0-2 |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75-0-2 노나두 |
| 32176-0-1 | 속이-(欺)-지, -고, -더라 | 32176-0-1 소기구 |
| 32176-0-2 |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76-0-2 소겨두 |
| 32177-0-1 | 끼-(挿)-지, -고, -더라 | 32177-0-1 끼:구 |
| 32177-0-2 | 끼-(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77-0-2 끼어두 |
| 32178-0-1 | 튀-(跳)-지, -고, -더라 | 32178-0-1 튀구 |
| 32178-0-2 | 튀-(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78-0-2 튀어서 |
| 32179-0-1 | 괴:-(滯)-지, -고, -더라 | 32179-0-1 고이구 |

| | | |
|-----------|---------------------------|----------------|
| 32179-0-2 | 괴:-(滯)-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79-0-2 괴여두 |
| 32180-0-1 | 여위-(癯)-지, -고, -더라 | 32180-0-1 여위구 |
| 32180-0-2 | 여위-(癯)-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80-0-2 여여두 |
| 32181-0-1 | 맵-(辛)-지, -고, -더라 | 32181-0-1 맵꾸 |
| 32181-0-2 | 맵-(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81-0-2 매패두 |
| 32182-0-1 | 뀌:-(屍)-지, -고, -더라 | 32182-0-1 끼구 |
| 32182-0-2 | 뀌:-(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82-0-2 끼어두 |
| 32183-0-1 | 고치-(改)-지, -고, -더라 | 32183-0-1 고치고 |
| 32183-0-2 |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83-0-2 고쳐두 |
| 32184-0-1 | 싣:-(載)-지, -고, -더라 | 32184-0-1 싣:꾸 |
| 32184-0-2 | 싣:-(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84-0-2 시러두 |
| 32185-0-1 | 얻:-(得)-지, -고, -더라 | 32185-0-1 얻:꾸 |
| 32185-0-2 | 얻:-(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85-0-2 얻:더두 |
| 32186-0-1 | 빳-(粉碎)-지, -고, -더라 | 32186-0-1 빠:꾸 |
| 32186-0-2 | 빳-(粉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86-0-2 빠아두 |
| 32187-0-1 | 파랑-(碧)-지, -고, -더라 | 32187-0-1 파라꾸 |
| 32187-0-2 |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87-0-2 파래두 |
| 32188-0-1 | 다르-(異)-지, -고, -더라 | 32188-0-1 다르구 |
| 32188-0-2 |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88-0-2 달라두 |
| 32189-0-1 | 푸-(汲)-지, -고, -더라 | 32189-0-1 푸구 |
| 32189-0-2 | 푸-(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89-0-2 퍼두 |
| 32190-0-1 | 누-(尿)-지, -고, -더라 | 32190-0-1 누꾸 |
| 32190-0-2 | 누-(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90-0-2 누어두 |
| 32191-0-1 | 더:럽-(汚)-지, -고, -더라 | 32191-0-1 더러꾸 |

| | | |
|-----------|-----------------------------|----------------|
| 32191-0-2 |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91-0-2 더러워두 |
| 32192-0-1 | 거두-(收)-지, -고, -더라 | 32192-0-1 거두구 |
| 32192-0-2 |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92-0-2 거둬두 |
| 32193-0-1 | 끓-(沸)-지, -고, -더라 | 32193-0-1 끓쿠 |
| 32193-0-2 | 끓-(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93-0-2 끓러두 |
| 32194-0-1 | 이기-(勝)-지, -고, -더라 | 32194-0-1 이기구 |
| 32194-0-2 |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94-0-2 이겨두 |
| 32195-0-1 | 부시-(照)-지, -고, -더라 | 32195-0-1 부시구 |
| 32195-0-2 |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95-0-2 부서두 |
| 32196-0-1 |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 32196-0-1 자빠지구 |
| 32196-0-2 |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96-0-2 자빠져두 |
| 32197-0-1 |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 32197-0-1 일쿠구 |
| 32197-0-2 |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97-0-2 일꿔두 |
| 32198-0-1 | 당기-(引)-지, -고, -더라 | 32198-0-1 당기구 |
| 32198-0-2 |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98-0-2 당겨두 |
| 32199-0-1 | 버리-(捨)-지, -고, -더라 | 32199-0-1 버리구 |
| 32199-0-2 |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99-0-2 버려두 |
| 32200-0-1 | 훔치-(盜)-지, -고, -더라 | 32200-0-1 훔치구 |
| 32200-0-2 |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00-0-2 훔쳐두 |
| 32201-0-1 | 지-(負)-지, -고, -더라 | 32201-0-1 지구 |
| 32201-0-2 | 지-(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01-0-2 저두 |
| 32202-0-1 | 외:-(暗誦)-지, -고, -더라 | 32202-0-1 외구 |
| 32202-0-2 |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02-0-2 외두 |
| 32203-0-1 | 사귀-(交際)-지, -고, -더라 | 32203-0-1 사귀구 |

| | | |
|-----------|----------------------------|----------------|
| 32203-0-2 |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03-0-2 사귀어두 |
| 32204-0-1 | 썩-(腐)-지, -고, -더라 | 32204-0-1 썩꾸 |
| 32204-0-2 | 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04-0-2 썩거두 |
| 32205-0-1 | 질-(泥)-지, -고, -더라 | 32205-0-1 질:구 |
| 32205-0-2 |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05-0-2 지러서 |
| 32206-0-1 | 까불-(箕)-지, -고, -더라 | 32206-0-1 까부루구 |
| 32206-0-2 |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06-0-2 까부러두 |
| 32207-0-1 | 드물-(稀)-지, -고, -더라 | 32207-0-1 드물구 |
| 32207-0-2 |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07-0-2 드무러두 |
| 32208-0-1 | 줄:-(縮)-지, -고, -더라 | 32208-0-1 줄:구 |
| 32208-0-2 |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08-0-2 주러두 |
| 32209-0-1 | 심:-(植)-지, -고, -더라 | 32209-0-1 심:꾸 |
| 32209-0-2 |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09-0-2 시머두 |
| 32210-0-1 | 쓰다듬-(撫)-지, -고, -더라 | 32210-0-1 쓰담꾸 |
| 32210-0-2 |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10-0-2 쓰다마두 |
| 32211-0-1 | 사:납-(猛)-지, -고, -더라 | 32211-0-1 사납꾸 |
| 32211-0-2 |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11-0-2 사나와서 |
| 32212-0-1 | 가볍-(輕)-지, -고, -더라 | 32212-0-1 가볍꾸 |
| 32212-0-2 |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12-0-2 가벼워두 |
| 32213-0-1 | 젓:-(撈)-지, -고, -더라 | 32213-0-1 저:꾸 |
| 32213-0-2 | 젓:-(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13-0-2 저어두 |
| 32214-0-1 | 두껍-(厚)-지, -고, -더라 | 32214-0-2 두꺼워서 |
| 32214-0-2 |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14-0-1 두껍꾸 |
| 32215-0-1 | 무르-(軟)-지, -고, -더라 | 32215-0-1 무루구 |

| | | |
|-----------|-------------------------------|----------------|
| 32215-0-2 |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15-0-2 물거서 |
| 32216-0-1 | 분지르-(折)-지, -고, -더라 | 32216-0-1 분지르구 |
| 32216-0-2 |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16-0-2 분지려두 |
| 32217-0-1 | 배우-(學)-지, -고, -더라 | 32217-0-1 배우구 |
| 32217-0-2 |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17-0-2 배와두 |
| 32218-0-1 | 다리-(撻)-지, -고, -더라 | 32218-0-1 대리구 |
| 32218-0-2 | 다리-(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18-0-2 대려두 |
| 32219-0-1 | 후비-(沓, 귀를)-지, -고, -더라 | 32219-0-1 후비구 |
| 32219-0-2 | 후비-(沓, 귀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19-0-2 후벼두 |
| 32220-0-1 | 아리-(痛)-지, -고, -더라 | 32220-0-1 아리구 |
| 32220-0-2 |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20-0-2 아려두 |
| 32221-0-1 | 그리-(畫)-지, -고, -더라 | 32221-0-1 그:리구 |
| 32221-0-2 | 그리-(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21-0-2 그려두 |
| 32222-0-1 | 저리-(癡)-지, -고, -더라 | 32222-0-1 저리구 |
| 32222-0-2 | 저리-(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22-0-2 저려두 |
| 32223-0-1 | 불리-(增)-지, -고, -더라 | 32223-0-1 불쿠구 |
| 32223-0-2 |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23-0-2 불퀴두 |
| 32224-0-1 | 뜨시-(溫)-지, -고, -더라 | 32224-0-1 뜨시구 |
| 32224-0-2 |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24-0-2 뜨셔서 |
| 32225-0-1 | 끓이-(使沸)-지, -고, -더라 | 32225-0-1 끓리구 |
| 32225-0-2 |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25-0-2 끓려두 |
| 32226-0-1 | 누비-(縫)-지, -고, -더라 | 32226-0-1 누비구 |
| 32226-0-2 |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26-0-2 누벼두 |
| 32227-0-1 | 구기-(皺)-지, -고, -더라 | 32227-0-1 꾸기구 |

| | | |
|-----------|----------------------------|----------------|
| 32227-0-2 |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27-0-2 꾸겨두 |
| 32228-0-1 | 비:-(空)-지, -고, -더라 | 32228-0-1 비:구 |
| 32228-0-2 |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28-0-2 비어서 |
| 32229-0-1 | 식히-(使冷)-지, -고, -더라 | 32229-0-1 시키구 |
| 32229-0-2 |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29-0-2 시켜두 |
| 32230-0-1 | 매-(除草)-지, -고, -더라 | 32230-0-1 매:구 |
| 32230-0-2 |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30-0-2 매:두 |
| 32231-0-1 | 매:-(結)-지, -고, -더라 | 32231-0-1 매:구 |
| 32231-0-2 |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31-0-2 매애두 |
| 32232-0-1 | 뛰-(走)-지, -고, -더라 | 32232-0-1 뛰구 |
| 32232-0-2 |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32-0-2 뒤두 |
| 32233-0-1 | 담:-(盛)-지, -고, -더라 | 32233-0-1 담:꾸 |
| 32233-0-2 |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33-0-2 다마두 |
| 32234-0-1 | 가렵-(癢)-지, -고, -더라 | 32234-0-1 가렵꾸 |
| 32234-0-2 | 가렵-(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34-0-2 가려워두 |
| 32235-0-1 | 때리-(打)-지, -고, -더라 | 32235-0-1 때리구 |
| 32235-0-2 |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35-0-2 때려두 |
| 32236-0-1 | 어둡-(暗)-지, -고, -더라 | 32236-0-1 어둡꾸 |
| 32236-0-2 |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36-0-2 어두워두 |
| 32237-0-1 | 잡-(執)-지, -고, -더라 | 32237-0-1 잡꾸 |
| 32237-0-2 |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37-0-2 자바두 |
| 32238-0-1 | 차-(蹴)-지, -고, -더라 | 32238-0-1 차구 |
| 32238-0-2 |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38-0-2 차두 |
| 32239-0-1 |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 32239-0-1 모자라구 |

| | | |
|-----------|--------------------------------|-----------------|
| 32239-0-2 |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39-0-2 모자라두 |
| 32240-0-1 | 부르-(呼)-지, -고, -더라 | 32240-0-1 부루구 |
| 32240-0-2 |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40-0-2 불러두 |
| 32241-0-1 | 따르-(注)-지, -고, -더라 | 32241-0-1 따루구 |
| 32241-0-2 |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41-0-2 따라두 |
| 32242-0-1 | 쫓:- (啄)-지, -고, -더라 | 32242-0-1 쫓:구 |
| 32242-0-2 | 쫓:- (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42-0-2 쫓아두 |
| 32243-0-1 | 두-(置)-지, -고, -더라 | 32243-0-1 두구 |
| 32243-0-2 | 두-(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43-0-2 두어두 |
| 32244-0-1 | 시키-(使)-지, -고, -더라 | 32244-0-1 시키구 |
| 32244-0-2 |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44-0-2 시켜두 |
| 32245-0-1 |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 32245-0-1 지리구 |
| 32245-0-2 |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45-0-2 지려두 |
| 32246-0-1 | 던지-(投)-지, -고, -더라 | 32246-0-1 던지구 |
| 32246-0-2 |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46-0-2 던져두 |
| 32247-0-1 | 모이-(集)-지, -고, -더라 | 32247-0-1 모이고 |
| 32247-0-2 |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47-0-2 모여두 |
| 32248-0-1 | 만지-(搯)-지, -고, -더라 | 32248-0-1 맨지구 |
| 32248-0-2 | 만지-(搯)-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48-0-2 맨져두 |
| 32249-0-1 | 쫌:- (曬)-지, -고, -더라 | 32249-0-1 쫌이구 |
| 32249-0-2 | 쫌:- (曬)-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49-0-2 쫌여두 |
| 32250-0-1 | 비틀-(捻)-지, -고, -더라 | 32250-0-1 비:틀구 |
| 32250-0-2 |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50-0-2 비:트러두 |
| 32251-0-1 | 돕:- (助)-지, -고, -더라 | 32251-0-1 도웁꾸 |

| | | |
|-----------|-----------------------------|-----------------|
| 32251-0-2 | 돕-(-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51-0-2 도와두 |
| 32252-0-1 | 씹-(-咀)-지, -고, -더라 | 32252-0-1 씹꾸 |
| 32252-0-2 | 씹-(-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52-0-2 씹버두 |
| 32253-0-1 | 미끄럽-(-滑)-지, -고, -더라 | 32253-0-1 미끄럽꾸 |
| 32253-0-2 |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53-0-2 미끄러워서 |
| 32254-0-1 | 닿-(-接)-지, -고, -더라 | 32254-0-1 다:꾸 |
| 32254-0-2 | 닿-(-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54-0-2 다아서 |
| 32255-0-1 | 누르-(-壓)-지, -고, -더라 | 32255-0-1 누루꾸 |
| 32255-0-2 |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55-0-2 눌러두 |
| 32256-0-1 | 주무르-(-揉)-지, -고, -더라 | 32256-0-1 주무루꾸 |
| 32256-0-2 | 주무르-(-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56-0-2 주물러두 |
| 32257-0-1 | 메우-(-填)-지, -고, -더라 | 32257-0-1 미꾸꾸 |
| 32257-0-2 |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57-0-2 미꿔두 |
| 32258-0-1 | 꼬시-(-香味)-지, -고, -더라 | 32258-0-1 고수허꾸 |
| 32258-0-2 |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58-0-2 고수혜:두 |
| 32259-0-1 | 내리-(-降)-지, -고, -더라 | 32259-0-1 내리고 |
| 32259-0-2 |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59-0-2 내려두 |
| 32260-0-1 | 구르-(-轉)-지, -고, -더라 | 32260-0-1 구루꾸 |
| 32260-0-2 |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60-0-2 굴러두 |
| 32261-0-1 | 만들-(-作)-지, -고, -더라 | 32261-0-1 만들꾸 |
| 32261-0-2 |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61-0-2 만드러두 |
| 32262-0-1 | 늪-(-老)-지, -고, -더라 | 32262-0-1 늪꾸 |
| 32262-0-2 | 늪-(-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62-0-2 늪거두 |
| 32263-0-1 | 앓-(-痛)-지, -고, -더라 | 32263-0-1 알꾸 |

| | | |
|-----------|-------------------------------|----------------|
| 32263-0-2 | 앓-(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63-0-2 아라두 |
| 32264-0-1 | 따르-(隨)-지, -고, -더라 | 32264-0-1 따르구 |
| 32264-0-2 |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64-0-2 따라두 |
| 32265-0-1 | 사-(買)-지, -고, -더라 | 32265-0-1 사구 |
| 32265-0-2 | 사-(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65-0-2 사두 |
| 32266-0-1 | 치우-(除)-지, -고, -더라 | 32266-0-1 치우구 |
| 32266-0-2 |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66-0-2 치워두 |
| 32267-0-1 |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 32267-0-1 부러지구 |
| 32267-0-2 |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67-0-2 부러져두 |
| 32268-0-1 | 다치-(傷)-지, -고, -더라 | 32268-0-1 다치구 |
| 32268-0-2 |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68-0-2 다쳐서 |
| 32269-0-1 | 느리-(緩)-지, -고, -더라 | 32269-0-1 느리구 |
| 32269-0-2 |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69-0-2 느려두 |
| 32270-0-1 | 무치-(和,나물을)-지, -고, -더라 | 32270-0-1 무치구 |
| 32270-0-2 | 무치-(和,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70-0-2 무쳐두 |
| 32271-0-1 | 죄:-(締)-지, -고, -더라 | 32271-0-1 조이구 |
| 32271-0-2 | 죄:-(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71-0-2 조여두 |
| 32272-0-1 | 팔-(賣)-지, -고, -더라 | 32272-0-1 팔구 |
| 32272-0-2 | 팔-(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72-0-2 파라두 |
| 32273-0-1 | 뽑-(選)-지, -고, -더라 | 32273-0-1 뽑꾸 |
| 32273-0-2 | 뽑-(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73-0-2 뽑바두 |
| 32274-0-1 | 뒤지-(索)-지, -고, -더라 | 32274-0-1 두지구 |
| 32274-0-2 |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74-0-2 두저두 |
| 32275-0-1 | 마치-(終)-지, -고, -더라 | 32275-0-1 마치구 |

| | | |
|-----------|----------------------------|------------------|
| 32275-0-2 |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75-0-2 마치두 |
| 32276-0-1 | 절이-(鹽)-지, -고, -더라 | 32276-0-1 저리구 |
| 32276-0-2 |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76-0-2 꾸러두 조타 |
| 32277-0-1 | 휘-(曲)-지, -고, -더라 | 32277-0-1 휘구 |
| 32277-0-2 | 휘-(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77-0-2 휘어서 |
| 32278-0-1 | 줍:-(拾)-지, -고, -더라 | 32278-0-1 주수구 |
| 32278-0-2 | 줍:-(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78-0-2 주서두 |
| 32279-0-1 | 빼앗-(奪)-지, -고, -더라 | 32279-0-1 빼:꾸 |
| 32279-0-2 |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79-0-2 빼:서두 |
| 32280-0-1 | 기울-(傾)-지, -고, -더라 | 32280-0-1 기울구 |
| 32280-0-2 |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80-0-2 기우러두 |
| 32281-0-1 | 아깝-(惜)-지, -고, -더라 | 32281-0-1 아깝꾸 |
| 32281-0-2 |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81-0-2 아까와두 |
| 32282-0-1 | 반갑-(歡)-지, -고, -더라 | 32282-0-1 방갑꾸 |
| 32282-0-2 |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82-0-2 방가와서 |
| 32283-0-1 | 찌-(蒸)-지, -고, -더라 | 32283-0-1 찌구 |
| 32283-0-2 | 찌-(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83-0-2 찌두 |
| 32284-0-1 | 노랑-(黃)-지, -고, -더라 | 32284-0-1 노라쿠 |
| 32284-0-2 |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84-0-2 노래서 |
| 32285-0-1 | 푸르-(靑)-지, -고, -더라 | 32285-0-1 푸루구 |
| 32285-0-2 |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85-0-2 푸러서 |
| 32286-0-1 | 서두르-(忙)-지, -고, -더라 | 32286-0-1 서두루구 |
| 32286-0-2 |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86-0-2 서두러두 |
| 32287-0-1 |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 32287-0-1 서툴구 |

| | | |
|-----------|------------------------------|-----------------|
| 32287-0-2 |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87-0-2 서툴러서 |
| 32288-0-1 | 게으르-(怠)-지, -고, -더라 | 32288-0-1 게으르구 |
| 32288-0-2 |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88-0-2 게으러서 |
| 32289-0-1 | 따뜻하-(溫)-지, -고, -더라 | 32289-0-1 따뜨타구 |
| 32289-0-2 |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89-0-2 따뜨태서 |
| 32290-0-1 | 춡-(寒)-지, -고, -더라 | 32290-0-1 춡꾸 |
| 32290-0-2 | 춡-(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90-0-2 추워두 |
| 32291-0-1 | 뜨겁-(極熱)-지, -고, -더라 | 32291-0-1 뜨겁꾸 |
| 32291-0-2 |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91-0-2 뜨거워서 |
| 32292-0-1 |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 32292-0-1 미지근하구 |
| 32292-0-2 |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92-0-2 미지근해서 |
| 32293-0-1 | 차갑-(寒)-지, -고, -더라 | 32293-0-1 차갑꾸 |
| 32293-0-2 |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93-0-2 차가워서 |
| 32294-0-1 | 부럽-(羨)-지, -고, -더라 | 32294-0-1 부럽꾸 |
| 32294-0-2 |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94-0-2 부러워서 |
| 32295-0-1 | 알밋-(憎)-지, -고, -더라 | 32295-0-1 알미웁꾸 |
| 32295-0-2 | 알밋-(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95-0-2 알미워서 |
| 32296-0-1 |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 32296-0-1 비스:타구 |
| 32296-0-2 |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96-0-2 비스:태서 |
| 32297-0-1 | 새롭-(新)-지, -고, -더라 | 32297-0-1 새롭꾸 |
| 32297-0-2 |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97-0-2 새로와서 |
| 32298-0-1 | 서:럽-(悲痛)-지, -고, -더라 | 32298-0-1 서럽꾸 |
| 32298-0-2 |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98-0-2 서러워서 |
| 32299-0-1 | 까다롭-(難)-지, -고, -더라 | 32299-0-1 까다롭꾸 |

| | | |
|-----------|--------------------------------|------------------|
| 32299-0-2 |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99-0-2 까다로와서 |
| 32300-0-1 | 외롭-(孤)-지, -고, -더라 | 32300-0-1 외롭꾸 |
| 32300-0-2 |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00-0-2 외로워서 |
| 32301-0-1 | 아쉽-(不滿)-지, -고, -더라 | 32301-0-1 아쉽꾸 |
| 32301-0-2 |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01-0-2 아쉬워서 |
| 32302-0-1 | 단단하-(固)-지, -고, -더라 | 32302-0-1 단단하구 |
| 32302-0-2 |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02-0-2 단단해서 |
| 32303-0-1 | 늦-(晚)-지, -고, -더라 | 32303-0-1 늦꾸 |
| 32303-0-2 | 늦-(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03-0-2 느저두 |
| 32304-0-1 | 남:- (餘)-지, -고, -더라 | 32304-0-1 남꾸 |
| 32304-0-2 | 남:- (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04-0-2 나마두 |
| 32305-0-1 | 남기-(使餘)-지, -고, -더라 | 32305-0-1 남기구 |
| 32305-0-2 |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05-0-2 남겨두 |
| 32306-0-1 |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 32306-0-1 너머뜨리구 |
| 32306-0-2 |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06-0-2 너머뜨려두 |
| 32307-0-1 | 꾸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 32307-0-1 꾸구려뜨리구 |
| 32307-0-2 | 꾸그러뜨리-(使凹)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07-0-2 꾸구려뜨려두 |
| 32308-0-1 | 견주-(比)-지, -고, -더라 | 32308-0-1 겨누구 |
| 32308-0-2 |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다32308-0-2 겨눠두 |
| 32309-0-1 | 외우-(誦)-지, -고, -더라 | 32309-0-1 외구 |
| 32309-0-2 |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09-0-2 외두 |
| 32310-0-1 | 문지르-(摩)-지, -고, -더라 | 32310-0-1 문지르구 |
| 32310-0-2 | 문지르-(摩)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10-0-2 문지려두 |
| 32311-0-1 | 가리키-(指)-지, -고, -더라 | 32311-0-1 가르키구 |

| | | |
|-----------|------------------------------|-----------------|
| 32311-0-2 |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11-0-2 가르켜두 |
| 32312-0-1 | 가르치-(敎)-지, -고, -더라 | 32312-0-1 가르치구 |
| 32312-0-2 |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12-0-2 가르쳐두 |
| 32313-0-1 | 겨누-(照準)-지, -고, -더라 | 32313-0-1 겨누구 |
| 32313-0-2 |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13-0-2 겨눠두 |
| 32314-0-1 | 겨루-(競)-지, -고, -더라 | 32314-0-1 겨루구 |
| 32314-0-2 |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14-0-2 겨뤄두 |
| 32315-0-1 | 달래-(慰撫)-지, -고, -더라 | 32315-0-1 달래구 |
| 32315-0-2 |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15-0-2 달래두 |
| 32316-0-1 | 본받-(效)-지, -고, -더라 | 32316-0-1 본받꾸 |
| 32316-0-2 | 본받-(效)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16-0-2 본바더두 |
| 32317-0-1 | 어지르-(散)-지, -고, -더라 | 32317-0-1 어지르구 |
| 32317-0-2 |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17-0-2 어지려두 |
| 32318-0-1 | 달리-(走)-지, -고, -더라 | 32318-0-1 달리구 |
| 32318-0-2 |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18-0-2 달려두 |
| 32319-0-1 | 우기-(拗)-지, -고, -더라 | 32319-0-1 우기구 |
| 32319-0-2 |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19-0-2 우겨두 |
| 32320-0-1 |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 32320-0-1 중얼거리구 |
| 32320-0-2 |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20-0-2 중얼거려두 |
| 32321-0-1 | 지껄이-(騷)-지, -고, -더라 | 32321-0-1 지꺼리구 |
| 32321-0-2 | 지껄이-(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21-0-2 지꺼려두 |
| 32322-0-1 | 다니-(行)-지, -고, -더라 | 32322-0-1 다니구 |
| 32322-0-2 |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22-0-2 다녀두 |
| 32323-0-1 |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 32323-0-1 떠러뜨리구 |

| | | |
|-----------|------------------------------|-----------------|
| 32323-0-2 |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23-0-2 떨어뜨려두 |
| 32324-0-1 | 깨-(覺)-지, -고, -더라 | 32324-0-1 깨:구 |
| 32324-0-2 | 깨-(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24-0-2 깨애두 |
| 32325-0-1 | 시-(酸)-지, -고, -더라 | 32325-0-1 시구 |
| 32325-0-2 | 시-(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25-0-2 시어두 |
| 32326-0-1 | 쏟-(湧)-지, -고, -더라 | 32326-0-1 쏟꾸 |
| 32326-0-2 | 쏟-(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26-0-2 소사서 |
| 32327-0-1 | 좋:-(好)-지, -고, -더라 | 32327-0-1 조:쿠 |
| 32327-0-2 | 좋:-(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27-0-2 조와두 |
| 32328-0-1 | 빨강-(赤)-지, -고, -더라 | 32328-0-1 빨가쿠 |
| 32328-0-2 |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28-0-2 빨개서 |
| 32329-0-1 | 끌:-(曳)-지, -고, -더라 | 32329-0-1 끌:구 |
| 32329-0-2 | 끌:-(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29-0-2 끄러두 |
| 32330-0-1 | 얇:-(薄)-지, -고, -더라 | 32330-0-1 얇꾸 |
| 32330-0-2 | 얇:-(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30-0-2 얇바두 |
| 32331-0-1 | 하얗-(白)-지, -고, -더라 | 32331-0-1 하야쿠 |
| 32331-0-2 |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31-0-2 하애서 |

2.2. 곡용

| | | |
|-----------|-----------|--------------|
| 32332-0-1 | 국(羹)-이/가 | 32332-0-1 구기 |
| 32332-0-2 | 국(羹)-을/를 | 32332-0-2 구글 |
| 32332-0-3 | 국(羹)-에(서) | 32332-0-3 구게 |
| 32332-0-4 | 국(羹)-으로 | |
| 32332-0-5 | 국(羹)-도 | 32332-0-5 국뚜 |
| 32333-0-1 | 논(沍)-이/가 | 32333-0-1 노니 |
| 32333-0-2 | 논(沍)-을/를 | 32333-0-2 노늘 |

| | | | |
|-----------|-----------|-----------|-----|
| 32333-0-3 | 논(畛)-에(서) | 32333-0-3 | 노네 |
| 32333-0-4 | 논(畛)-으로 | | |
| 32333-0-5 | 논(畛)-도 | 32333-0-5 | 논두 |
| 32334-0-1 | 쌀(米)-이/가 | 32334-0-1 | 싸리 |
| 32334-0-2 | 쌀(米)-을/를 | 32334-0-2 | 싸를 |
| 32334-0-3 | 쌀(米)-에(서) | 32334-0-3 | 싸레 |
| 32334-0-4 | 쌀(米)-으로 | 32334-0-4 | 쌀루다 |
| 32334-0-5 | 쌀(米)-도 | 32334-0-5 | 쌀두 |
| 32335-0-1 | 봄(春)-이/가 | 32335-0-1 | 보미 |
| 32335-0-2 | 봄(春)-을/를 | 32335-0-2 | 보믈 |
| 32335-0-3 | 봄(春)-에(서) | 32335-0-3 | 보메 |
| 32335-0-4 | 봄(春)-으로 | | |
| 32335-0-5 | 봄(春)-도 | 32335-0-5 | 봄두 |
| 32336-0-1 | 집(家)-이/가 | 32336-0-1 | 지비 |
| 32336-0-2 | 집(家)-을/를 | 32336-0-2 | 지블 |
| 32336-0-3 | 집(家)-에(서) | 32336-0-3 | 지베서 |
| 32336-0-4 | 집(家)-으로 | 32336-0-4 | 집으루 |
| 32336-0-5 | 집(家)-도 | 32336-0-5 | 집뚜 |
| 32337-0-1 | 옷(衣)-이/가 | 32337-0-1 | 오시 |
| 32337-0-2 | 옷(衣)-을/를 | 32337-0-2 | 오슬 |
| 32337-0-3 | 옷(衣)-에(서) | 32337-0-3 | 오세 |
| 32337-0-4 | 옷(衣)-으로 | | |
| 32337-0-5 | 옷(衣)-도 | 32337-0-5 | 옷뚜 |
| 32338-0-1 | 방(房)-이/가 | 32338-0-1 | 방이 |
| 32338-0-2 | 방(房)-을/를 | 32338-0-2 | 방을 |
| 32338-0-3 | 방(房)-에(서) | 32338-0-3 | 방에서 |
| 32338-0-4 | 방(房)-으로 | | |
| 32338-0-5 | 방(房)-도 | 32338-0-5 | 방두 |
| 32339-0-1 | 낫(晝)-이/가 | 32339-0-1 | 나시 |
| 32339-0-2 | 낫(晝)-을/를 | 32339-0-2 | 나슬 |

| | | | |
|-----------|------------|-----------|-----|
| 32339-0-3 | 낮(晝)-에(서) | 32339-0-3 | 나제는 |
| 32339-0-4 | 낮(晝)-으로 | | |
| 32339-0-5 | 낮(晝)-도 | 32339-0-5 | 나뭇 |
| 32340-0-1 | 낮(顔)-이/가 | 32340-0-1 | 나시 |
| 32340-0-2 | 낮(顔)-을/를 | 32340-0-2 | 나슬 |
| 32340-0-3 | 낮(顔)-에(서) | 32340-0-3 | 나세 |
| 32340-0-4 | 낮(顔)-으로 | | |
| 32340-0-5 | 낮(顔)-도 | 32340-0-5 | 나뭇 |
| 32341-0-1 | 부엌(廚)-이/가 | 32341-0-1 | 부어기 |
| 32341-0-2 | 부엌(廚)-을/를 | 32341-0-2 | 부어글 |
| 32341-0-3 | 부엌(廚)-에(서) | 32341-0-3 | 부어게 |
| 32341-0-4 | 부엌(廚)-으로 | | |
| 32341-0-5 | 부엌(廚)-도 | 32341-0-5 | 부엌뭇 |
| 32342-0-1 | 밭(田)-이/가 | 32342-0-1 | 바시 |
| 32342-0-2 | 밭(田)-을/를 | 32342-0-2 | 바슬 |
| 32342-0-3 | 밭(田)-에(서) | 32342-0-3 | 바테서 |
| 32342-0-4 | 밭(田)-으로 | | |
| 32342-0-5 | 밭(田)-도 | 32342-0-5 | 바뭇 |
| 32343-0-1 | 앞(前)-이/가 | 32343-0-1 | 아피 |
| 32343-0-2 | 앞(前)-을/를 | 32343-0-2 | 아폴 |
| 32343-0-3 | 앞(前)-에(서) | 32343-0-3 | 아페두 |
| 32343-0-4 | 앞(前)-으로 | 32343-0-4 | 아푸루 |
| 32343-0-5 | 앞(前)-도 | 32343-0-5 | 압뭇 |
| 32344-0-1 | 넋(魂)-이/가 | 32344-0-1 | 넋씨 |
| 32344-0-2 | 넋(魂)-을/를 | 32344-0-2 | 넋슬 |
| 32344-0-3 | 넋(魂)-에(서) | | |
| 32344-0-4 | 넋(魂)-으로 | | |
| 32344-0-5 | 넋(魂)-도 | | |
| 32345-0-1 | 흙(土)-이/가 | 32345-0-1 | 호기 |
| 32345-0-2 | 흙(土)-을/를 | 32345-0-2 | 호글 |

32345-0-3 흙(土)-에(서)
32345-0-4 흙(土)-으로
32345-0-5 흙(土)-도

32345-0-3 흐게서
32345-0-4 흐그루
32345-0-5 흑뚜

32346-0-1 여덟(八)-이/가
32346-0-2 여덟(八)-을/를
32346-0-3 여덟(八)-에(서)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5 여덟(八)-도

32346-0-1 여덟비
32346-0-2 여덟블
32346-0-3 여덟베
32346-0-5 여덟두

32347-0-1 돌(週歲)-이/가
32347-0-2 돌(週歲)-을/를
32347-0-3 돌(週歲)-에(서)
32347-0-4 돌(週歲)-으로
32347-0-5 돌(週歲)-도

32347-0-1 도리
32347-0-2 돌쓸
32347-0-3 도레
32347-0-5 돌두

32348-0-1 값(價)-이/가
32348-0-2 값(價)-을/를
32348-0-3 값(價)-에(서)
32348-0-4 값(價)-으로
32348-0-5 값(價)-도

32348-0-1 갑씨
32348-0-2 갑쓸
32348-0-3 갑쎄
32348-0-5 갑뚜

32349-0-1 속:(內)-이/가
32349-0-2 속:(內)-을/를
32349-0-3 속:(內)-에(서)
32349-0-4 속:(內)-으로
32349-0-5 속:(內)-도

32349-0-1 소기
32349-0-2 소글
32349-0-3 소게
32349-0-5 속뚜

32350-0-1 돈:(錢)-이/가
32350-0-2 돈:(錢)-을/를
32350-0-3 돈:(錢)-에(서)
32350-0-4 돈:(錢)-으로
32350-0-5 돈:(錢)-도

32350-0-1 도:니
32350-0-2 도:늘
32350-0-3 도:네
32350-0-4 도:느루
32350-0-5 돈:두

32351-0-1 말(足)-이/가
32351-0-2 말(足)-을/를

32351-0-1 바리
32351-0-2 바를

32351-0-3 발(足)-에(서)
32351-0-4 발(足)-으로
32351-0-5 발(足)-도

32351-0-3 바레
32351-0-4 발루
32351-0-5 발두

32352-0-1 짐(荷物)-이/가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4 짐(荷物)-으로
32352-0-5 짐(荷物)-도

32352-0-1 지미
32352-0-2 지물
32352-0-3 지메
32353-0-4 이브루
32352-0-5 짐두

32353-0-1 입(口)-이/가
32353-0-2 입(口)-을/를
32353-0-3 입(口)-에(서)
32353-0-4 입(口)-으로
32353-0-5 입(口)-도

32353-0-1 이비
32353-0-2 이블
32353-0-3 이베
32353-0-5 입뚜

32354-0-1 낫(鎌)-이/가
32354-0-2 낫(鎌)-을/를
32354-0-3 낫(鎌)-에(서)
32354-0-4 낫(鎌)-으로
32354-0-5 낫(鎌)-도

32354-0-1 나시
32354-0-2 나슬
32354-0-3 나세
32354-0-4 나스루
32354-0-5 나뚜

32355-0-1 강(江)-이/가
32355-0-2 강(江)-을/를
32355-0-3 강(江)-에(서)
32355-0-4 강(江)-으로
32355-0-5 강(江)-도

32355-0-1 강이
32355-0-2 강을
32355-0-3 강에
32355-0-4 강으루
32355-0-5 강두

32356-0-1 젓(乳)-이/가
32356-0-2 젓(乳)-을/를
32356-0-3 젓(乳)-에(서)
32356-0-4 젓(乳)-으로
32356-0-5 젓(乳)-도

32356-0-1 저시
32356-0-2 저슬
32356-0-3 저세
32356-0-4 저스루
32356-0-5 저뚜

32357-0-1 꽃(花)-이/가
32357-0-2 꽃(花)-을/를

32357-0-1 꼬시
32357-0-2 꼬슬

32357-0-3 꽃(花)-에(서)
32357-0-4 꽃(花)-으로
32357-0-5 꽃(花)-도

32357-0-3 꼬세
32357-0-4 꼬스루
32357-0-5 꼬뚜

32358-0-1 팔(赤豆)-이/가
32358-0-2 팔(赤豆)-을/를
32358-0-3 팔(赤豆)-에(서)
32358-0-4 팔(赤豆)-으로
32358-0-5 팔(赤豆)-도

32358-0-1 파시
32358-0-2 파슬
32358-0-3 파세
32358-0-4 파스루
32358-0-5 파뚜

32359-0-1 옆(側)-이/가
32359-0-2 옆(側)-을/를
32359-0-3 옆(側)-에(서)
32359-0-4 옆(側)-으로
32359-0-5 옆(側)-도

32359-0-1 여피
32359-0-2 여플
32359-0-3 여폐
32359-0-4 여푸루
32359-0-5 엽뚜

32360-0-1 샅(賃金)-이/가
32360-0-2 샅(賃金)-을/를
32360-0-3 샅(賃金)-에(서)
32360-0-4 샅(賃金)-으로
32360-0-5 샅(賃金)-도

32360-0-1 싸기
32360-0-2 싸글
32360-0-3 싸게
32360-0-4 싸그루
32360-0-5 싹뚜

32361-0-1 닭(鷄)-이/가
32361-0-2 닭(鷄)-을/를
32361-0-3 닭(鷄)-에(서)
32361-0-4 닭(鷄)-으로
32361-0-5 닭(鷄)-도

32361-0-1 다기
32361-0-2 다글
32361-0-3 다게서
32361-0-4 다그루
32361-0-5 닥뚜

32362-0-1 막(外)-이/가
32362-0-2 막(外)-을/를
32362-0-3 막(外)-에(서)
32362-0-4 막(外)-으로
32362-0-5 막(外)-도

32362-0-1 바끼
32362-0-2 바끌
32362-0-3 바께
32362-0-4 바끄로
32362-0-5 박뚜

제4편 문법

4.1. 대명사

1) 인칭대명사

40101 나

40101-0-1 내-가

40101-0-2 내

40101-0-3 나-를

40101-0-4 나-에게

40101-0-5 나-와

40101-0-6 나-는

40101-0-7 나-도

40102 저/제-가

40102-0-1 저-가

40102-0-2 저-의

40102-0-3 저-을/를

40102-0-4 저-에게

40102-0-5 저-와/과

40102-0-6 저-는

40102-0-7 저-도

40103 우리

40104 저희

40105 너

40105-0-1 -가

40105-0-2 -의

40105-0-3 -을/를

40105-0-4 -에게

40105-0-5 -와/과

40105-0-6 -는

40105-0-7 -도

40106 자네

40107 당신

40108 너희

40101 나

40101-0-1 내가

40101-0-2 내끼시다

40101-0-3 나를 만나러 와따

40101-0-4 나한테 주는 거시다

40101-0-5 나와 너 나빠 너

40101-0-6 나는 멍는다

40101-0-7 나도 가구

40102 저요

40102-0-1 지가 한 거십니다

40102-0-2 제깁니다

40102-0-3 저를

40102-0-4 저에게

40102-0-6 저는

40102-0-7 저두 가계썅니다

40103 우리 아버지

40104 저에 아버지십니다

40105 너

40105-0-1 니:가

40105-0-2 네끼시다

40105-0-3 너를 부르는

40105-0-4 너에게

40105-0-5 너와 나는 친구지 너빠 나

40105-0-6 너는

40105-0-7 너두 간다

40106 자네가

40107 당시니

40108 너에 아버지

40109 개
40109-1 애
40109-2 재
40110 자기
40111 당신

40109 개가
40109-1 애가
40109-2 재가
40110 자기 말만

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의
40112-0-3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40112-0-5 누구-와
40113 무엇-이냐/입니까
40113-0-1 무엇-이
40113-0-2 무슨
40113-0-3 무엇-을
40113-0-4 무엇-과

40112 누구세요
40112-0-1 누가 켜느냐?
40112-0-2 누구 도느냐?
40112-0-3 누구를 차르세요?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40112-0-5 누구와 누구와 누구 누구하
40113 무어시냐? 뭐냐?
40113-0-1 무어시 들으느냐? 뭐가
40113-0-2 무슨 일 하느냐?

40113-0-4 무어와 달만니? 무엇하구

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40115 언제
40116 어느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떻게

40114 어디를 가느냐? 어디로 어딜
40115 언제지?
40116 어느 가게에서
40117 왜 우느냐?
40118 얼마나 됐느냐?
40119 어더케 지내니?

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40121 그것
40122 저것
40123 여기
40124 거기
40125 저기

40120 이거시
40121 저거시 뭐냐?
40122 그거시
40123 여기
40124 저기
40125 거기

40126 이리
40127 그리
40128 저리

40126 이리 와
40127 그리로 가께
40128 저리 가

4.2. 조사

1) 격조사

40201 -이/가
40202 -이/가
40203 -을/를
40204 -을/를
40205 -에 게/게
40206 -보고/더러
40207 -보고/더러
40208 -에
40209 -에
40210 -에 서
40211 -에 서
40212 -에 서
40213 -으로
40214 -으로
40215 -으로
40216 -으로
40217 -와/과
40218 -와/과
40219 -보다
40220 -처럼
40221 -만큼
40222 -만큼
40223 -아/야
40224 -아/야
40225 -아/야
40226 -아/야
40226-1 -예
40227 -아/야

40201 갑씨 비싸다
40202 코가 크다
40203 귀를 자바 당겨따
40204 손을 땡긴다
40205 저 사라메게 줘라
40206 너보구 도와 달랜느냐?
40207 너더러 도와 달라
40208 지베 간다
40209 다크 만나자
40210 어느 지베서
40211 서우레서 삼니다
40212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40213 쌀루 맨든다
40214 지부로 찐다
40215 새끼줄루 묶는다
40216 어디로
40217 채소하구 과이리지 채소파 과일

40219 형보다 크다
40220 돼지가치 사리 찌따 돼지처럼
40221 너망큼 커썸 조캐따
40222 머글만치 머거라
40223 봉나마
40224 봉나미
40225 영수야
40226 누님!

40227 하라버지!

40227-1 -요
40228 -이랑
40229 -커녕

40228 수리랑 고기랑 마니 머거따
40229 마뉘커녕 처뉘두 업네

2) 보조사

40230 -은/는
40231 -만
40232 -도
40233 -마다
40234 -부터
40235 -까지
40236 -조차
40236-1 -할라
40237 -이야/야
40238 -을랑
40239 -이라도
40240 -밖에
40241 -가지고

40230 수른 먹똥 담배는 피우지 안습니다
40231 배권만 빌려달라
40232 키두 크구
40233 날마닥
40234 오늘서부터
40235 내일까지
40236 마실 물조차 업따

40237 도니야 만치
40238 그런 소릴랑 하지마
40239 부자래두
40240 너바께 업따
40241 싸가지구 가따

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40243 알았어-요
40244 했지-요?

40242 오라구 한다
40243 아라썬요
40244 누가 해썬요?

4.3. 종결어미

(1) 명령법

40301 -아라
40302 -게
40303 -으오
40304 -으십시오
40305 -세요

40301 영수야 파리 자바라
40302 파리 잡게

40304 하라버지, 파리 자브세요

(2) 청유법

40306 -자
40307 -세

40306 영수야 지베 가자.
40307 김서방, 지베 가세.

40308 -으오
40309 -십시다
40310 -세요

(3) 의문법

40311 -니
40312 -나
40313 -오
40314 -습니까
40315 -나요
40316 -니
40317 -나
40318 -시오
40319 -십니까
40320 -세요

(4) 서술법

40321 -는다
40322 -네
40323 -오
40324 -습니다
40325 -네요
40326 -다
40327 -네
40328 -소
40329 -으십니다
40330 -으세요

(5) 반말

40331 -아
40332 -지

(6) 지정사

40333 -이다
40334 -이니
40335 -이네

40309 하라버지, 지배 가치 가세요

40311 영수야 지배 가니?

40312 지배 가나(가시나)?

40314 하라버지 지배 가세요?

40316 영수야 어디 가니?

40317 자네, 어디 가나?

40318 아저씨, 어디 가세요?

40319 하라버지, 어디 가세요?

40320 할머니 어디 가세요?

40321 노네 가따.

40322 노네 간네.

40324 노네 가썸요.

40326 나는 이 방이 조:타.

40327 장인어른 저는 이 방이 조:썸니다.

40330 하라버지 저는 이 방이 조:썸니다.

40333 이 지비 우리 지비다.

40334 영수야, 저게 사니냐(사니니)?

40336 -인가
40337 -이오
40338 -이오
40339 -입니다.
40340 -입니까
40341 -이시지요
40342 -이시지요
40343 -이나?
40344 -인가?
40345 -이오?
40346 -입니까?
40347 -인가요?
40348 -이야?
40349 -이어요?

(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40351 -습디다
40352 -는구나/구나
40353 -는구먼/구먼
40354 -일세
40355 -으마
40356 -음세
40357 -올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40402 -으면서
40403 -어/-어서
40404 -으니 /-으니까
40405 -관테
40406 -다가
40407 -거든
40408 -더라도
40409 -으려고
40410 -도록

40336 김서방, 저게 사닝가?

40339 이거시 우리 지비예요.

40340 하라버지, 저게 사닝가요? 사니예요? 사넙니까?

40343 영수야, 그게 무어시냐(니)?

40344 김서방, 그게 무어싱가?

40346 하라버지, 그게 뭐예요? 뭇니까?

40352 참 조쿠나, 잘 뛰능구나

40353 잘 뛰능구먼, 참 보기 조쿠먼

40354 오랜마닐쎄

40355 가파주마

40401 청소를 하구(서) 커피를 마신다

40402 텔레비를 보면서 바블 명는다

40403 나리 추워서 모와따

40404 방이 따뜨타니깐 조르미 온다

40406 지베 오다가 비를 마자따

40407 만나거든

40408 먹떼래두 조꿈만 머거라

40409 노나 머글라구 한다

40410 빼가 부서지두룩

40411 -을수록

40412 -듯이

40413 -지

40411 노퍽 자리에 이슬쭈룩

40412 도늘 물쓰듯 쓴다

40413 연속꿈만 보지 판거슨 안 본다

4.5. 주체 존대

40501 -셔

40502 -셨소

4.6. 시제

40601 웃는다

40602 기어간다

40603 크다

40604 생일이다

40605 오고 있다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40607 왔었다

40608 먹더라

40609 먹더냐

40610 만나는 친구

40611 만난 친구

40612 만났던 친구

40613 만날 친구

40614 큰 아이

40615 크던 아이

40616 컸던 아이

40617 마시지 않겠다

40618 비가 오겠다

40601 운는다

40602 양금양금 기어간다

40603 누니 둥굴구 크다

40604 생이리다

40605 졸:구 이따

40606 자바썸?, 밥 머거썸?

40607 가썸썸?

40608 먹떠라

40609 먹떠냐?

40610 명는 밥

40611 다 머근 바비라구

40612 만나뻐 친구

40613 머글 뻐

40614 키가 큰 아이다

40615 키가 크던 아이

40616 키가 커뻐 아이

40617 적:게 먹게썸?

40618 비가 오겠따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40701 안 머거썸.

40702 조치 안타, 안 조은테

40703 안 깨르타다

40704 안 가썸

40705 안 만나썸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40706-1 먹도 않고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40708 맞잖소?/안 맞소?

40706 먹찌도 양쿠 잠만 잔다
40707 몬 마신다
40708 내 마리 마짜너?

4.8. 피동과 사동

1) 사동

40801 살리다
40802 늘리다
40803 말리다1
40804 말리다2
40805 얼리다
40806 녹이다
40807 신기다
40808 보이다
40809 알리다
40810 입히다
40811 앉히다
40812 벗기다
40813 웃기다
40814 썩히다
40815 숨기다
40816 굶기다
40817 깨우다
40818 돌우다

40801 살리구 살쿤다
40802 늘쿤다 늘린다
40803 고추를 말린다
40804 싸우를 말린다
40805 어르를 얼쿤다
40806 어르를 노긴다 노쿤다
40807 싱킨다
40808 보인다
40809 소시글 알린다
40810 오슬 이편다
40811 사라를 주저 안친다
40812 오슬 베긴다
40813 우깁다
40814 썩킨다
40815 숨긴다
40816 궁긴다
40817 깨운다
40818 심지를 도꾼다

2) 피동

40819 잡히다
40820 깎이다
40821 끼이다
40822 떼이다
40823 채이다
40824 닫히다
40825 들리다

40819 안 재핀다
40820 안 까긴다
40821 안 끼인다
40823 소에 채킨다
40824 무니 안 다친다
40825 소리가 안 들린다

40826 업히다
40827 바뀌다
40828 씹히다
40829 엇히다
40830 찍히다
40831 놀리다
40832 실리다
40833 꿇기다
40834 굶히다

40826 어핀다
40827 서로 빠뀌여따
40828 바비 씨핀다
40829 선바네 잘 안 언친다
40830 찌킨다
40831 놀리키다
40832 실린다
40833 끄킨다
40834 글킨다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40902 싫다
40903 보다
40904 버리다
40905 대다
40906 -나/는가 보다
40907 -나/는가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

40901 손주가 보구십따 보구시퍼서 보구시푸먼

40903 이버봐라 이버보지마
40904 누가 다 머거 버려써?
40905 우리싼다 우리댄다
40906 비가 오려나 보다 비가 올라보다
40907자나보다 잠드른가보다
40908 추웅가보다

4.10. 부사

41001 실컷
41002 많이
41003 너무
41004 조금
41005 자주
41006 빨리
41007 얼른
41008 기어코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11 나중예
41012 가득
41013 몽땅
41014 모조리

41001 실컨 머거라
41002 마:니 머그먼
41003 너무 마시먼
41004 쪼끔
41005 자주 간다
41006 빨리 와따
41007 얼른 감취라
41008 기여코 가더니
41009 가:끔 마신다 이따금씩
41010 먼처 가라
41011 나중(예) 가제따
41012 가득 채워라
41013 몽탕 가져와라
41014 모조리 베여버려따 몽탕 다 모두

| | |
|------------|-----------------------|
| 41015 혼자 | 41015 혼자 다닌다 |
| 41016 항상 | 41016 항:상 바쁘다 |
| 41017 똑똑히 | 41017 또또키 봐라 |
| 41018 겨우 | 41018 겨우 차마따 억지루 간시니 |
| 41019 늘 | 41019 늘 자구 이따 언제나 |
| 41020 저절로 | 41020 저절로 난다 |
| 41021 자꾸 | 41021 자꾸 하푸미 나온다 게:속 |
| 41022 설마 | 41022 살마 소겨쓰라 |
| 41023 하마터면 | 41023 하마터면 주글뻔 해따 |
| 41024 함께 | 41024 함께 |
| 41025 걸핏하면 | |
| 41026 공연히 | 41026 패:니 트집을 잡는다 |
| 41027 그냥 | 41027 그냥 나와따 |
| 41028 매우 | 41028 매우 쎄다 무척 아주 굉장히 |
| 41029 곧장 | 41029 곧장 가따 오너라 |
| 41030 벌써 | 41030 벌써 다 끈넌니? |
| 41031 가장 | 41031 가장 잘 똬다 |
| 41032 가만히 | 41032 가마니 누워이씨 |
| 41033 미리 | 41033 미리 방지해라 |
| 41034 이따금 | 41034 이따금씩 차자온다 |

4.11. 관용적 표현

1) 관용어구

| | |
|------------------------------------|-----------------------|
| 41101 여보 | 41101 여보 |
| 41102 여보세요 | 41102 여보시오 |
| 41103 들어가세요 | 41103 끄느세요 |
| 41104 수고하세요 | 41104 수고하세요 |
|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 41105 오랜마니아 |
|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 41106 아침 잡쭈써쭈요, 안녕하세요 |
|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 41107 건강하시지요? |
| 41108 여기 있습니다 | 41108 돈 여깁습니다. |
| 41109 예 | 41109 예, 잘 다닙니다. |
| 41110 아니 | 41110 아니 |
|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 41111 아무러치 아나. 뽕차나. |

41112 내버려 뒀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41112 내버려뒀

41113 개 소두 모는데 뭐.

2) 속담

41114 밭 빠진 독에 물 붓기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41116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나라

41114 밭빠진 도게 물부끼

41115 바늘 도두기 소도둑 된다

41116 아니 뎨 굴뚜게 연기 나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
|-----|--------------|
| 위원장 | 이기갑(목포대학교) |
| 위 원 | 강영봉(제주대학교) |
| 위 원 | 김무식(경성대학교) |
| 위 원 | 김봉국(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 김정대(경남대학교) |
| 위 원 | 박경래(세명대학교) |
| 위 원 | 소강춘(전주대학교) |
| 위 원 | 최명옥(서울대학교) |
| 위 원 | 한영목(충남대학교) |
| 위 원 | 홍윤표(연세대학교) |